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듣고 보니 맞는 말. 세 글자로 줄이면 듣맞말.

대학의 바로 옆에는 으리으리한 황궁이 높다랗게 솟아있는 모습이었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자주 그 황궁 본성의 꼭대기를 바라보곤 했었다. ‘저런 데엔 누가 살까? 저런 곳에 사는 인물도 밥을 먹고 똥을 쌀까?’하는 쓸데없는 고민을 하면서.

그런데 류이의 말을 듣고 나니, 일리라는 놈이 있다 못해 내 모든 생각을 ‘이 멍청한 녀석!’이라 타박하며 저 멀리 걷어 차버릴 정도로 커다란 존재감이 되어 다가와 버렸다.

살인 마법이 신체적 접촉을 한 상태여야만 시전 가능하다는 얘긴 지금 처음 듣는다. 그래서 이런 예측을 못 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

내가 파티 복장을 입은 채로 죽는다는 건 드레스를 갈아입는 순간, 또는 파티장에서 파티를 즐기던 도중 습격을 당한다는 거고. 대학의 파티장 내에서 살인이 일어난다는 건, 삼엄하던 그 모든 경비가 뚫려버렸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럼 프란치아의 국가적 망신을 넘어서서, 황실 식구들의 목숨까지도 안전하지 않다는 소리도 된다는 거다. 과연, 황제도 똥줄이 탈 만하군.

나도 진짜 어지간히 바보인 것 같아. 저런 생각을 못하다니 말이야. 새삼 내 참치 캔보다 더한 깡통 두뇌가 두려워졌다. 대체 어디까지 멍청할 거니?

흠? 어라, 잠깐만. 그 멍청하던 뇌가 간만에 그럴싸한 생각 하나를 내게 물어왔다. 그건 바로,

“혹시 대학 내부에 범인이 있는 건 아닐까요?”

‘범인 내부자설’이었다! 이거 꽤 그럴싸한데. 파티장 내에도 침입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내부자일 확률이 외부자일 확률보다는 몇 배로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하여 물은 내 말에, 류이는.

“그건 아닐 거야. 지금까지 당했던 조수들의 시체에서 시전자의 마나를 추적해봤는데, 마법 대학 내부 인물들 중에서는 일치하는 사람이 없다더라고.”

라고 답해왔다.

“ 아하?”

뭐야, 내 뇌. 간만에 그럴싸한 생각을 떠올려냈는데 그마저도 똥추리였다. 쳇, 그럼 그렇지.

류이의 대답을 들은 내 뇌는 눈에 띄게 시무룩해졌다. 그래서인지 자존감을 잃은 녀석이 ‘더 이상 아무런 생각도 안 할 거야!’라며 자기 할 일을 보이콧하기 시작했으니. 아오, 두들기면 깡통 소리가 날 것 같은 괘씸한 녀석이 게으르기까지 하다니까.

더는 생각하기도 귀찮다. 귀찮다기 보단 내 뇌에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

뭐,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화를 대충 요약하자면

“그럼 당분간 황자님이랑 같이 먹고 자고 싸야한다, 이거죠? 설마하니 앞으로 쭉- 이렇게 부대끼며 동거하자는 건 아닐 테고.”

“표현이 좀 적나라한데, 그거.”

류이가 인상을 살포시 찡그린다. 왜? 맞는 말이구만.

근데 이거 좀 오바 아니니. 이 세계에서의 나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말이야 는 18살부터 성인 취급이구나, 여기.

그럼 뭐 그렇고 그런 나쁜 짓해도 되나? 솔직히 말하자면 나, 저렇게나 예쁜 황자님을 눈앞에 두고서 아무 짓도 안 할 자신이 없단 말이지.

쌔끈하게 한쪽 다리를 꼬고 소파 팔걸이에 팔꿈치를 올린 채 앉아 있는 류이를 쳐다보며, 내 깡통이 백기 청기 다 들게 만들 뇌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했다.

뭔가 역할이 바뀐 것 같다고? 기분 탓이다, 기분 탓.

머릿속에 너무 그렇고 그런 것만 든 거 아니냐고? 저기요, 정상인 씨. 변태 혐오를 멈춰주세요!

“제가 황자님을 이 방에서 쫓아낼 순 없는 거니까, 같이 지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감옥 같은 방에서.”

“감옥은 아니야.”

“창문도 안 열리고 문도 안 열리는데요? 아, 나만 그런 거구나.”

류이의 즐거워하는 표정을 보고 나서야 이 방에 걸린 마법의 정체를 깨달았다. 크윽, 그래. 나는 외부인이다 이거지? 어쩐지 문도 창문도 내 말을 안 들어주더라니. 저런 충성심 강한 놈들을 봤나.

하지만 뭐, 창문이 안 열리건, 문이 안 열리건 간에 지금의 나로선 딱히 ‘싫어요! 빼애액!’거리며 거부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당분간 이곳에서 머무르라는 거 말이야.

왜냐고? 그야,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유라면 이유겠지만, 류이의 방은 내 기숙사보다도 열 배 이상은 더 넓고, 없는 게 없는 풍경이었으며, 바둑판이나 부루마블 같은 재밌어 보이는 물건들도 이것저것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내가 갖고 놀 만한 게 많다니, 이곳은 진정 천국.

우리 주인님 방에는 재미없어 보이는 책이나 마법 관련된 물건만이 가득한데 이곳도 책꽂이와 책이 많다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놀 거리가 많다는 점에서 뭔가 엄청 비교되는 풍경이라, 머릿속에 재미없고 따분한 책들만 펼쳐 읽던 루이스가 뭉실뭉실 떠오른다. 우리 주인님, 그런 거만 하면 심심할 텐데. 내가 좀 놀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젠 내 주인님도 아닌가?

어째 좀 섭섭하다. 고작 한 달이 다 되어 갈랑 말랑 하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정이라도 들었나 봐.

오늘 저녁은 드셨을까? 내가 차려주지 않으면 대충 사먹거나 굶어버리는 양반 같던데. 아무리 내 목숨을 위험해지게 만든 인물이라지만, 루이스는 그래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살인마법사 때문에 괜히 밥만 굶고, 조수도 없이 힘들게 학교생활 하고

따흐흑! 너무 불쌍해!

“그럼 저, 언제까지 여기서 지내야 돼요? 바깥에 나갈 수는 있어요?”

“이번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내일 대회나 모레의 파티에는 내가 동행할 거니까 괜찮지만, 그 외에 혼자 다니는 건 자제해야 할 거야.”

! 황자의 동행이라. 진짜 별 횡재 다 누려본다, 나.

그나저나 나가도 된다는 대답이 나왔다면, 루이스의 저녁이나 챙겨주러 가볼까 했는데. 그마저도 못하겠구나.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말고 내 목숨이나 잘 건사해야 하는 부분인가? 아, 정말이지 복잡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런 탓에 나는 이내 생각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래. 이번 대회가 끝난 후에나 루이스와 내 조수직에 대해 고민해보자고. 일단은 목숨이 붙어 있어야, 그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응? 루이스 생각을 왜 그리 하고 싶어 하냐고? 그, 글쎄다. 이것은 끼니를 굶을까 봐 걱정되는 어머니의 마음, 즉 모성애인가!?

에라이, 집어치워. 부모님도 멀쩡히 살아계신 다 큰 남자한테 모성애는 얼어 죽을.

잡생각을 저 멀리 내던져버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류이에게 궁금한 것을 물었다.

“그럼 저 어디서 자요? 여기, 이 소파에서 잘까요? 푹신해서 나름 괜찮은데.”

“아니, 서재는 춥잖아. 안쪽에 침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

류이는 싱긋 미소 지으며 내게 저리 대답해온다. 으아니? 그러면 안 되지!

“황자님 침대를 제가 어떻게 뺏어 써요? 그럴 순 없죠!”

내가 손사래까지 치며 극구 부인하는 대답을 건네자, 류이는 소리 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저번에 만났던 루이스에게 붙은 귀족가의 똥파리 아니, 여성여성하던 그 영애들보다도 청명하고 맑아서, 나는 일순 이 인간이 정말 성별을 잘못 타고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외모로 세계 제패 가능했을 것 같은데. 아, 물론 지금도 온 세계의 여자들을 제패하는 건 가능할 듯.

잠시 재밌다는 듯 웃던 류이가, 내게 대답한다.

“침대 하나 더 만들어줄게. 걱정 마.”

“아, 그럼 다행 이 아니잖아요!? 한 방에서 같이 자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한 침대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완전 상관 많은데! 진짜로 많은데요!”

내가 아니라, 황자님한테 많을 거라고요!

저번에 나한테서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직 나의 무서움을 모르는 건가? 내 내면 속 깊은 곳에 잠들어있는 변태 세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자식들인지 정녕 모르고 계신단 말인가.

그렇다면 오늘 밤 그것을 일깨워드려야겠군 크큭. 깨어나라, 나의 흑염룡이여 !

“단 둘이 자는 거잖아요? 아이 설레어라.”

“ ? 단 둘 아닌데.”

내가 볼을 발그레하게 붉히며 농담 삼아 던진 말에, 류이가 나를 멀뚱히 쳐다봐오더니 저리 대답했다. 응? 왜 단 둘이 아니야?

“침대가 더 있어요? 여러 명이서 자요?”

황자님, 혹시 그쪽 취향이셨나!? 경악스럽다는 표정으로 돌변하려던 내게, 류이가 다급히 손사래를 치며 ‘그런 게 아니라,’라고 말해온다.

“자는 동안 방 안에서 내 기사들이 호위를 서고 있을 테니까. 단 둘은 아니지.”

“아하? 아, 잘 때도 지키고 있나 보구나. 고생이 많겠네요, 다들. 지금은 저녁이라도 먹으러 갔나요?”

“응? 아니, 이 방에 있는데?”

류이가 빵긋 미소 짓더니 대답했다. 아, 이 방에 있어? 그렇군. 저번처럼 은신 마법으로 숨어서 지키고 있나 보구

나가 아니라. 잠깐만. 뭐?

“이 방에 있다고요?”

“응.”

류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내 물음에, 이번에는 류이가 아니라 내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샤 님이 이 방에 들어오실 때부터, 줄곧 있었습니다.”

고개를 뒤로 돌리자, 허공에서 스멀스멀 누군가의 형체가 생겨나나 싶더니, 칸이 ‘짜잔! 바로 저였습니다.’하는 느낌으로 등장했다.

뭐? 줄곧 있었다고?

아니-!!! 그럼 왜 지금에서야 등장하는 건데!!?

“진즉에 인기척 좀 내주시지! 왜 이제 와서 등장하는 건데요!?”

그럼, 내가 이 방에 들어온 후부터 중얼거리며 혼잣말했던 거랑, 한 편의 영화를 찍던 그 장면까지 모조리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

이, 이런 나보다도 더한 변태 자식을 봤나? 새하얘진 얼굴로 칸이 관음증 환자가 아닌지를 의심해보려는데, 진과는 다른 꽤 과묵한 성격을 지닌 그, 칸은 정색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말해오길,

“저 말고 일곱 명 더 있습니다.”

라는 데?

이봐. 농담이지? 하나도 재미없다고, 그거?

“거, 거짓말이죠? 지금이라도 거짓말이라고 하면, 내가 봐줄게. 진짜로 이번 한 번만 특별히 봐줄게요.”

슬금슬금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체스 판을 집어 들며, 칸의 머리를 한 번만 세게 내리치면 앞선 모든 기억들을 잊지 않을까? 드라마틱한 상황으로 전개가 돼서, 의사 선생이 ‘안타깝게도 기억상실증입니다.’하는 진단을 내려주는 기적이 일어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운명의 여신은 나의 편이 아니었다. 칸의 뒤를 이어 진짜로 그 일곱 명의 호위 기사들이 사방에서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냈으니까.

그 일곱 명들 중, 다소 어려보이고 유쾌한 한 명이 이런 대사까지 뱉었다.

“짜잔!”

“?”

같은 소리하네!!!

“사라져!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욧!”

자리에서 팔짝 뛰며 체스 판을 든 채 난동부리는 나로 인해, 칸과 ‘짜잔!’대사를 친 이를 비롯한 나머지 여섯 명의 기사들이 크게 당황한다.

그들 중 한 명이, 다급히 나를 향해 외쳐오는데.

“사, 사라지겠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래. 으아아아!”

됐어! 다 필요 없어! 저 여덟 명의 머리를 일일이 체스 판으로 내리찍느니, 그냥 이 세계에서 내 존재를 없애버리는 편이 더 빠르겠다. 빨라도 훨씬 빠르겠어!

창문으로 달려가 체스 판을 들어 쿵쿵 내리찍기 시작하는 나. 그러나 방어막에 의해 튕겨져 나오기만을 반복하는데, 멘붕 상태로 멍하니 그런 창문을 올려다보던 나는, 이내 체스 판을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그래. 이게 좋겠다. 내 인생, 즐거웠어! 그러니 이만 이쯤에서 끝내자고!

“ 잡아!”

판으로 내 머리를 내리찍으려는데, 뒤에서 류이의 다급한 외침이 들리는가 싶더니, 칸과 일곱 명의 기사들이 내게로 후다닥 뛰어왔다. 그리고는 내 팔을 붙잡아 체스 판을 뺏어가버리는데.

“돌려줘요! 엉엉엉!”

나는 마치 세상 소중한 물건이라도 뺏긴 사람마냥 절규했다. 그리고 내 팔다리를 하나씩 붙잡아 만류하는 기사들의 품에서 난동을 부리며, 상처받은 짐승마냥 울부짖었다.

“당신들 다 미워! 내 흑역사는 다 당신들 때문이야-!!”

류 제국의 황자라는 이의 방에서 난동을 부린 이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된다면, 아마 그건 ‘아샤’일 것이다. 나는 그리 장담할 수 있다.

진심으로 쪽팔림이 북받치니 터져 나오는 눈물 콧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한바탕 소란을 피운 뒤 힘이 빠져 소파에 널브러져 있자, 망고 주스를 사들고 온 진이 거울을 가져다가 내게 들이미는 게 아닌가.

그것을 쳐다보니, 역시 사람이 아니라 웬 오크가 서있었다. 황녀가 변신했던 오크보다도 더 못생긴 오크가. 크윽, 내 얼굴이 그럼 그렇지.

하지만 이전의 칸이 선사해준 충격으로 인해, 그런 면상 따위는 나의 정신 상태에 단 1의 데미지도 주지 못했다.

지금은 뭘 하고 있냐고? 아직도 체스 판을 껴안고 울고 있냐고?

그건 아니다. 뇌가 멍청하면 그만큼 회복력도 빠른 법!

배도 부르고, 방도 따땃한 게 온몸이 나른하다. 배는 왜 부르냐고? 그거야, 저녁 시간이 되자 류 제국 황실의 전속 요리사들이 엄청난 저녁을 준비하여 방에 가져다준 것이 아니겠는가. 말로만 들었던 트러플 오일이 들어간 요리를 오늘에서야 처음 먹어보았다. 랍스터도.

뭔가 엄청난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저 버섯 같은 맛이고, 게 같은 느낌이었다. 욕이 아니라, 게 같았다고.

그래도 몹시 든든한 저녁이었기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간만에 내 허접한 요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 같은 기분?

이런 행복함은 오랜만이야 ! 하는 표정으로 해맑은 미소를 지은 채 소파에 앉아 빵빵해진 배를 통통 두들기고 있자니, 그런 나를 쳐다보며 류이가 말한다.

“웃으니까 보기 좋네, 아샤.”

흑, 울고 난 내 얼굴이 얼마나 못생겼었으면.

이곳은 류이의 서재가 아닌, 침실이 위치한 방 안. 루이스의 기숙사와 비슷하지만 두 배 정도 넓은 규모로, 말하자면 원룸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그는 내일 있을 대회에서 입을 연무복을 챙기는 중. 연무복이란 대학에서 마법사들의 대련에서 흔히들 입는 유니폼 같은 건데, 체내의 마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대학의 연무복은 보통 치렁치렁하고 검은 마법사 로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의 연무복은 뭔가 특이하게 생긴 모습이었다. 평범한 느낌의 새하얀 목 폴라 티셔츠에 검은 벨트를 매는 구조 같은데, 그 벨트는 마치 멜빵처럼 양 어깨에 세로로 한 줄씩, 가로로는 가슴 윗부분과 허리에 한 줄씩 이어져있는 디자인이었으니.

굳이 표현해보자면 어느 50m짜리 거인이 나오던 애니메이션 속 제복과도 같은 쌔끈함이 느껴진다고나 할 수 있겠다. 류이가 입으면 섹시할 것 같긴 한데, 내가 봤던 루이스의 연무복과는 느낌이 확연히 달라.

웃으니까 보기 좋다던 그의 말에는 그저 ‘히죽-’하는 미소로 대답을 대신하고서, 나는 그에게 물었다.

“연무복이 독특하게 생겼네요? 류 제국식 복장인가 봐요, 그거?”

“맞아. 우리는 마법보다는 힘으로 승부를 보는 역사(力士)니까, 망토는 움직이기 불편해서 잘 안 입지.”

아, 그럼 저 벨트가 망토 대신인 거군. 이해했어.

“흐음. 힘이라 ”

엄청 비실비실 할 것 같이 생겼는데.

겉모습만 보자면 류이는 엄청 호리호리했다. 게다가 여자만큼이나 얄쌍하고 고운 선에다 얼굴까지 여자보다 예뻐. 그러니 믿을 수가 없다. 저렇게 생긴 인간이 역사라고? 혹시 그 역사라는 게, 힘을 쓰는 역사가 아니라 고운 외모의 살아 움직이는 미인의 역사(歷史)라는 뜻이 아닐지.

“저기, 황자님. 저랑 팔씨름 한 번 해보실래요?”

나는 그에게 제안했다. 이 세계를 통틀어서 황자에게 팔씨름을 제안하는 간 크고 건방진 인물은 나밖에 없을 듯.

그러자 류이가 연무복을 정돈해 옷걸이에 걸면서, 나를 향해 ‘안 돼(웃음)’하는 느낌의 대답을 건네 왔다.

후달리시나? 훗. 하긴 뭐, 그럴 만도 해. 저런 가녀린 체구로 힘이 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자신 없으시죠? 헤헤.”

나는 류이를 향해 놀리듯이 말했다. 사실 도발하려던 의도 반, 장난이 반이었다. 그런데 류이는 뭔가 묘한 표정을 짓는 것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의미심장?

“왜, 안 믿겨? 내가 역사라는 게.”

“어떻게 믿어요? 몸무게 재보면 저보다도 덜 나갈 것 같으신데.”

“ 넌 네가 얼마나 말랐는지 모르나 보네. 진짜 그랬다면 나는 두 발로 못 걸어 다녀.”

류이가 저리 받아치며 내가 앉아있는 소파로 걸어온다. 그리고는 내 맞은편에 털썩- 하듯 앉았다.

어이 어이, 이제 와서 털털하게 군대도 딱히 남성미 뿜뿜하는 캐릭터가 되진 않는다고? 나보다 조신하게 생겨먹은 녀석이 말이야.

그는 이내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대며, 내게 도발하는 눈빛을 날려 온다. 뭐야, 그 눈빛! 나의 승부욕을 불태우려는 심산이냐!?

“좋아요, 뜹시다!”

나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턱하니 올렸다. 그리고 류이의 손을 잡았다. 순간적으로 그의 손이 살짝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거야 뭐 내 알 바가 아니지.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내가 류이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버릴 거란 사실 ! 큭큭!

나는 카운터를 셌다.

“하나, 둘, 셋!”

털썩!

짓뭉개진 건 내 자존심이었다.

흥. 성인 남녀가 팔씨름을 하는데, 여자가 이기는 거라면 그건 여자측이 보디빌더쯤 될 때나 가능한 얘기지.

이번엔 바둑판을 들고 왔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턱하니 내려놨다.

“팔씨름은 불공평해요. 이걸로 붙어요!”

“ 하하. 팔씨름도 네가 제안한 거잖아. 그리고 붙는다니, 갑자기 왜 대결이라도 하는 분위기가 된 거지?”

류이가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소리 내어 웃지만, 지금의 내게 있어 중요한 사실은 내가 1전 0승 1패라는 사실이었다. 내가 진다고? 안 돼! 그런 건 용납할 수 없다.

성적은 남들보다 뒤처져도 그 외에 다른 부문에서는 지기 싫어했던 내 성격―게임을 할 때 유독 그랬다―이 빛을 발하는 순간. 흑돌과 백돌 중 흑돌을 류이에게 밀어주며, 나는 포부 좋게 외쳤다.

“제가 또 한 바둑 하는 사람이니까, 먼저 놓으세요.”

“괜찮겠어?”

“물론이죠!”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또 완패했다.

안 돼! 2전 0승 2패라니.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어지간한 게임들은 플래티넘 아니면 다이아였던 나의 우수한 손가락이 질 리가 없다. 이건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 나는, 이후에도 부루마블, 할리갈리와 비슷한 보드 게임 등등을 들고 와 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모두 참패였다. 결국 나의 최종 전적은 5전 0승 5패였다.

쒸익쒸익 이 남자, 밥 먹고 게임만 했나? 어떻게 주사위를 던지는 것조차 운 좋게 원하는 숫자가 딱딱 나온단 말인가.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게임 실력과 운까지 좋은 남자였다. 참담한 성적에 좌절하기도 잠시, 어느새 시간은 9시 반이었다. 시간 참 잘 가네. 우사인 볼트냐?

그러고 보면,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보드 게임을 하면서 놀아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생에서는 보드 게임 카페나, 피시방 등등 가리지 않고 많이 놀러 다녔었는데. 이번 생에서는 먹고 살기만으로도 벅차서 논다는 게 뭔지도 잊고 살았었구나.

비록 다 졌지만 즐거웠다. 보드 게임 도구들을 치운 후, 나는 시간이 늦었기에 류이의 기숙사 욕실에서 목욕을 하며 여러모로 고단(?)했던 오늘 하루의 피로를 녹였다. 그나마 다행인 건, 류이의 기숙사에는 욕실과 화장실이 두 개라는 점이었다. 학생 기숙사 두 개를 붙여 만든 곳이라 그런 모양.

그런데, 씻고 나왔더니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다.

"?"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으며 욕실에서 빠져나왔을 때, 류이는 없었다. 반대편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걸 보아하니 그도 마찬가지로 씻고 있는 모양인데, 그가 방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말한 ‘이상한 풍경’이란, 바로 진과 칸이

“아니, 칸. 그건 좀 더 위에 달아야지! 너무 아래에 달면 가리잖아.”

“쑥스러울 수도 있잖아. 이걸로 조금 가리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는 안 볼 건데, 뭐.”

“그건 그렇네.”

라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광경이었는데.

저거, 지금 무슨 대화? 대체 뭘 가린다는 거고, 뭐가 쑥스러운 것이며, 뭘 안 본다는 것이지? 저 인간들, 류이의 침대에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성인 남자의 침대 위에 하늘하늘한 하얀색의 공주풍 케노피를 달고, 이상한 꽃 장식들을 마구 붙여대고 있는 그들의 꼬락서니를 잠시 지켜보다, 나는 그들 뒤로 슬그머니 다가가 말을 붙여보았다.

“뭐하세요?”

“와악! 까, 깜짝이야. 왜 인기척도 없이 오신 거예요? 놀랐잖아요!”

“인기척 없이 숨어있는 건 댁들 취미 아닌가 ?”

적반하장인 진의 말에 대꾸하니, 옆에서 칸이 ‘크흠!’하며 헛기침 소리를 낸다. 그 틈에 슬그머니 눈길을 돌려 그들이 꾸며놓은 침대를 꼼꼼히 훑어보았다. 살랑거리는 레이스가 잔뜩 붙은 케노피와 장미 장식이 이곳저곳에 달린 침대를 말이다. 흐음? 왜 이렇게 여성스러운 분위기로 꾸미는 거야?

설마 류이의 성별이 알고 보니 여자였다! 같은 전개는 아닐 테고. 예쁜 얼굴만큼이나 예쁜 걸 좋아해서 이런 공주풍 인테리어를 좋아한다는 설정인가? 아니, 그것도 왠지 아닐 것 같다. 서재에 체스나 바둑 같은 게임 종류가 많은 걸 보면, 류이도 그저 평범한 남성일 뿐 여성스러운 취미에 큰 관심을 가질 인물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럼 너희들,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니? 너네 주인이 시킨 일 아니지, 이거? 그렇지?

“지금 뭐하는 거예요? 황자님 침대잖아요.”

“아, 그렇 죠?”

“왜 멋대로 꾸미고 있어요?”

“어 음. 저, 그게요 으음, 그런 게 있어요.”

흐응 ?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건지.

“아, 맞다. 제 침대는요? 하나 만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 아직도 내 침대가 없다. 설마 하니 조수인 나도 호위 기사들과 함께 방 한쪽 구석에 선 채로 잠을 자야한다는 건 아닐 테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건넨 내 말에, 진이 절-대로 안 된다는 듯 미친 듯이 손사래를 친다 응? 뭐가 안 되는데?

의아한 그의 반응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내게, 진은 이상야릇한 목소리로 말해온다.

“흐, 흠 그게, 침대를 들여놓으란 명을 받긴 했는데요.”

“했는데요?”

“저희가 마법을 쓰려고 했는데, 오늘 마나를 너무 많이 썼지 뭐예요.”

“썼지 뭐예요?”

무슨 의도인 거지? 싶은 생각에 그의 말꼬리를 따라했더니, 진이 뭔가 찔리는 구석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크게 당황한다. 그러더니 이어서 답해오는데.

“ 아니, 그러니까, 침대를 못 만들어드릴 것 같다고요!”

뭐?

진의 얼척없는 말에, 나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지? 나더러 알아서 잠자리를 찾아 자라는 뜻인가? 아, 그런 건가?

밤이 되면 꽤 춥긴 하겠지만, 서재의 소파도 나름 나쁘지 않다. 정 거기가 춥다면, 류이의 방인 이곳에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도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지금 당장 아도라나 마리를 찾아가 침낭이라도 빌려오면 되니까, 이 정도야 별 문제가 아니지.

류이의 침대가 왜 저런 꼬락서니가 되어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진과 칸이 대충 얼버무리려 하는 걸 보니 뭔가 이상한 꿍꿍이로 저러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수작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수건으로 머리를 말아 올리고서 그들에게 말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이불 빌려 올 테니까, 저는 서재 소파에서 잘게요.”

그럼 난 이만, 이곳에서 탈출!

“ 앗! 그, 그건 안 돼요!”

하려 했는데?

“?”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뭘 어쩌라는 건데. 자지 말라는 건가?

기숙사 방을 나가려다 말고, 고개를 뒤로 돌린 내 귓가에 진의 믿을 수 없을 만큼 황당하고도 우렁찬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뻔뻔하고도, 또 몹시 터무니없는 한마디가.

“황자님이랑 같이 주무시면 되지 않아요-!?”

“뭐라고? 요?”

나, 방금 제대로 들은 거 맞니?

이 정도면 황당하다 표현할 수준이 아니라 ‘황당? 그게 무엇이지?’하는 반응이 나와야 하는 순간 같다. 저놈이 이젠 까불대다 못해 아예 미쳐버린 건가? 오렌지주스를 사러 나가놓고 망고 주스를 사오던 그 살짝 맛이 간 것 같던 뇌가, 이제는 완전히 맛탱이가 가버린 거야? 한여름에 바깥에 놔둔 우유처럼 되어버린 거냐고. 응? 그래?

이거 대체 뭐하자는 수작이야. 침대가 없는데, 내가 왜 류이랑 같이 자야 해? 다른 잘 곳 많잖아. 침대만 잠자리야? 바닥도 있고, 소파도 있는데 왜 같이 자라는 거야? 돌았어?

“뭐 잘못 드셨어요? 망고 주스 사오셨을 때부터 눈치 채긴 했다만은 ”

“아니, 그건 색이 헷갈려서 그랬던 거구요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침대도 엄청 넓은데, 같이 주무셔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에서 ”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댁들 눈엔 제가 남자로 보이시나 봐요?”

“어휴, 그럴 리가! 요?”

“?”

"!"

‘헛, 말실수!’ 하는 느낌으로 자신의 입을 탁 틀어막는 진. 수상해, 엄청 수상해! 지들 눈에도 내가 여자로 보인다면, 남자인 류이랑 왜 같이 자게 만들려는 거냐고!

대체 무슨 꼼수를 부리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과 칸이 파놓은 저 함정에 걸려들어선 안 될 것 같다. 왜 안 될 것 같냐고?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안 될 것 같아. 내 내면의 변태 세포 놈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기분이니까.

“절-대로 안 돼요! 난 싫어!”

“왜요! 저희 황자님 잘생겼잖아요? 멋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빠졌잖아요!”

“!? 그,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건데요!?”

진이 나한테 뛰어와서 팔을 붙잡더니 매달리기 시작한다. 아니, 얘가 왜 이래! 다 큰 이십대 중반 남자가 십대 후반 여자애한테 뭐하는 거야, 지금? 무슨 의도야, 이거!

덩달아 칸까지도 내게 달려와 한쪽 어깨를 붙잡더니 못나가게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나는 새파래진 안색으로 그들에게 따져 물었다.

“왜 이래요!?”

“저번처럼 한 번만 덮쳐요. 네? 저희가 팍팍 밀어드릴게!”

“ 도, 돌았어요!!?”

밀어주긴 뭘 밀어주고, 덮치긴 뭘 덮쳐! 덮밥이냐? 니들이 쾌걸근육맨 2세야!?

게다가 저번처럼 덮치라니. 류이를 처음 만났던 그 날에 벌어졌던 해프닝은 어디까지나 사고였지, 고의가 아니었지 않은가. 누구는 덮치고 싶어서 덮쳤나? 다 약기운 때문이잖아. 그런데 그걸 지금에서야 왜 물고 늘어져? 이 자식들이 누굴 놀리나!

“이거 놔요! 나 나갈래. 서재에서 잘래!”

“진짜 확 덮치라니까요? 아샤 님, 들어봐요.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천민에서 황후로! 완전 기적적이고 화끈한 신분 상승이잖아요?”

“뭐요?”

아니,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는 여자들을 세상에서 제일 끔찍해하는 주인을 둔 너네가 할 소리냐, 그거!

그리고 류국 황자라면 세 명이라면서. 그 세 명 중에서도 가장 막내인 류이인데, 류이의 배우자가 황후가 된다는 건 또 무슨 소리란 말인가. 이것들이 이젠 류이가 막내였는지 맏이였는지조차 헷갈리는 건가 싶어, 나는 눈을 가늘게 뜬 채 진과 칸을 번갈아 째려보며 따졌다.

“황후는 무슨 얼어 죽을 황후예요? 류이 님은 3황자잖아요.”

“엥? 그거랑은 상관없는데 아,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천만에 말씀, 만만에 콩떡이에요! 저희 류 제국은 황좌의 주인을 대련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진이 호들갑을 떨며 건네 오는 대답에,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건 또 무슨 소리? 난생 처음 듣는 얘기에 동공이 커져버리자, 그런 내 반응을 본 진이 ‘헉, 세상에 ! 모르셨다니, 그럼 알려드려야겠군.’하는 표정으로 살포시 자신의 입을 가린다. 저 가린 손바닥 너머에는 므흣한 웃음을 짓고 있는 주둥이가 존재하겠지.

“아직 류 제국에는 황태자가 없어요. 몇 년 뒤쯤에나 계승식이 열리게 될 텐데, 그 때 있을 대련에서 이기는 사람이 황태자가 되는 거거든요.”

“ 대련? 그래서요?”

“황자님들 중에서도 제일 강한 사람이 바로 류이 님이라는 거죠! 황후폐하의 마력을 물려받아 마법까지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저희 황자님뿐이라, 공작가문들에서 얼마나 혼담이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나중에 황후 자리를 꿰차려고 말이에요.”

흐음? 그러고 보니, 나와의 첫 만남 때에도 류이가 프란치아의 어느 영애에게서 청혼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비록 마법이 걸린 청혼서였긴 했지만.

지금 들은 진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미래의 류이는 황제가 될 거란 얘기니까, 영애들이 그렇게까지 류이에게 목을 매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래, 단지 얼굴만이 류이의 매력이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단 0.001%의 연관성조차 없지 않나?

“그럼 그 영애들 중 한 명을 밀어주면 되지, 저한테는 왜 이러시는데요?”

“그 영애들은 다 마음에 안 든다구요! 내숭 덩어리거나, 아니면 엄청 재수 없거나! 둘 중 하나란 말입니다. 저희는 황자님의 호위 기사인데, 마치 자기 수족이라도 되는 줄 알고 막 부려먹는다니까요? 그치, 칸!”

“그치, 제이!?”

“네, 그렇습니다!”

어, 엄마야! 깜짝아.

칸은 짐짓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는데, 진의 입에서 제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오자 이번에는 허공에서 웬 사람 형체가 생겨나더니, 아까 전 ‘짜잔’의 주인공인 앳된 얼굴의 남자 기사가 등장했다. 그리고는 진의 말에 적극 동의하는데.

말투를 들어보니 진이 저 제이라는 소년의 상관인 모양. 어휴, 나이 처먹고 뭐하는 짓이니, 진.

“개수작 집어치워요. 손모가지 날아가기 싫으면.”

머리 위의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조금씩 열리려 하는 것을 느끼며, 나는 진을 향해 방긋- 웃는 낯으로 말했다. 대사는 살벌했지만 표정이 그래서인지, 그런 내 반응을 긍정의 의미라 여긴 듯한 진이 익살맞은 느낌으로 내 팔을 톡톡 쳐오며 말한다.

“밑장도 안 뺐는데 손모가지는 왜 날아가나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확! 덮쳐 봐요. 네? 나이도 좋잖아. 2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본다던데요?”

2살이 아니라 4살이겠지! 그리고, 역시 그런 의도였냐? 설마설마 했건만.

흡사 공주 침대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지는 저 샤랄라한 침대는 야시꾸리한 분위기라도 내보려고 꾸민 짓이었던 모양. 나는 내 뇌 녀석보다도 더 한심한 뇌의 존재를 깨달아버려, 탄식을 금치 못했다.

하아. 어쩜 이렇게 막 나갈 수가 있냐, 응?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저기요. 그쪽이 그러고도 류이 황자의 호위 기사가 맞아요? 알고 보니 1황자나 2황자의 스파이라던가, 그런 거 아녜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 같은 천민 여자애를 밀어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미래에 황후가 될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러면 더더욱 신중하게 있는 집 영애들을 골라서 밀어줘야지, 왜 나한테 이래요?”

"?"

진이 어버버 거린다. 저거 봐, 대답 못하는 거 봐. 역시 나랑 류이를 어떻게 잘 밀어주려던 심산인 게 아니라, 그냥 장난으로 이러고 있었던 거잖아. 아니면 ‘우리 황자님도 남자니까, 한 번쯤 !’하는 변태 같고 발칙한 상상에서 나온 행동인 것인지도 모르고.

흥. 코찔찔이 유치원생들도 알겠다. 성씨도 없는 천민 나부랭이의 여자애가 한 제국의 황후가 된다는 건 동화 속에서도 나오지 않을 개막장 스토리라는 걸. 그런데 네 말을 어떻게 믿어? 그냥 단순 장난일 뿐인 거잖아.

“제가 아무리 만만해 보인대도 그렇지, 이런 장난은 불쾌하거든요? 내가 무슨 사창가출신 천민인 것도 아니고, 저게 다 뭐야.”

“아니, 저 그러니까 ”

손가락으로 침대를 가리킨 채 쏘아붙이는 나의 적나라한 말에, 진이 얼굴을 새빨갛게 붉힌다.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은 어린―내 기준에서 다섯 살 이상이면 한참에 속하는 부분―내게 지금 같은 일을 저지르려 한 게 후회되기라도 하는 건지, 아니면 부끄럽기라도 한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튼 홍당무가 되어버린 그의 얼굴이었기에, 나는 진이 뼛속 깊이 지금의 행동들을 후회하고 반성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툭 던지듯 덧붙였다.

“아무리 상대가 황자라지만, 제가 얼씨구나 좋다고 침대에 달려들 줄 알았어요? 그럴 일 없으니까, 나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말아요. 신분이 낮다 해서 아무렇게나 막 다뤄도 되는 거 아니니까.”

나는 비록 자라오면서 천민이 아무렇게나 막 다뤄지는 꼬락서니를 많이 봐왔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머리를 감고 있던 수건을 홱! 하듯 풀며, 나를 붙잡았던 진의 손을 뿌리친 채 방을 빠져나가려 했다. 칸의 손은 어느새 내 몸에 붙어있지 않았으니까, 하나의 손만 떼어내면 그만이었다.

자유의 몸이 된 내가 성큼성큼 걸어 서재로 향하는 문손잡이를 잡는데, 이번에도 뒤에서 그의 외침소리가 들려와 나의 발길을 붙잡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남자가 온 진심을 다해 부정하는 외침을 들어본 적 있는가? 변명하기 위해 ‘에이, 그런 거 아니야~’라고 둘러대는 멘트는 전생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속에서 많이 보고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런 느낌과 전혀 달랐다는 거다.

남자가 진심으로 부정을 위해 외치는 음성을 들은 것은 처음이라,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진은 내게 말해왔다.

“이상한 의도 아니에요. 아샤 님을 천민이라는 이유로 만만하게 보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럼요?”

“저희는 단지, 아샤 님이랑 같이 있으면 재밌으니까. 또 귀여우시니까. 처음 뵀을 때도 엄청 신기했고, 또 독특했고. 그래서 더 곁에 뒀으면 좋겠다 싶어서 ”

"?"

으응?

지금 그거 혹시, 나한테 하는 사랑 고백?

진이 말하는 뉘앙스가 어째 로맨틱한 방향인 것 같아, 나는 당혹스럽다는 표정으로 슬그머니 손을 들어 입을 틀어막았다. 헉. 어쩐지 나한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내가 먹고 싶다던 오렌지주스도 냉큼(?) 사러 나가더라니. 물론 사온 건 망고 주스였다지만, 어쨌거나 그 모든 게

그렇고 그런 감정에서였던 거니! 말로만 들었던 로맨틱, 성공적!?

“진 님, 저 좋아하세요!?”

그, 그래. 진 정도면 나쁘지 않지. 얼굴도 꽤 잘생겼고.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띠동갑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가. 게다가 직업이 황실 호위 기사면 월급도 꼬박꼬박 나올 테니까, 먹고 사는 데엔 아무 지장 없겠군!

와, 살다 보니 내 인생에도 이런 꽃 피는 날이

“아뇨, 그게 아니라!”

오지 않았다.

옆에서 칸도 덩달아 ‘응 ?’하는 표정으로 진을 슬쩍 쳐다보자, 그런 나와 칸의 반응을 본 진이 펄쩍 뛰었다. 그것은 마치 ‘미쳤어요!? 제가 왜!’하는 느낌이었기에, 나는 방금 전에 떠올렸던 봄날의 꽃 같던 상상들이 인어공주마냥 물거품이 되어 하늘나라로 떠나가 버림을 느꼈다.

뭐야, 그럼 방금 같은 말은 왜 한 건데? 낚시신공이냐? 네가 강태공이야? 괘, 괜히 사람 헷갈리게.

뻘쭘해하는 표정으로 진을 바라보니, 그가 이어서 말해왔다.

“저희 황자님이 아샤 님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 뭣,”

응?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덮쳐 봐요. 저희 황자님의 안사람이라면, 신분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류 제국은 프란치아만큼 신분의 경계가 엄하지도 않고요. 저희는 진심으로 아샤 님이 황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추후를 대비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

“진, 너무 멀리까지 가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

뭐

뭐라고?

?

???

“저기요, 미친놈 씨.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네? 아뇨, 제 머리는 멀쩡한데요? 그치, 칸?”

“멀쩡? 음, 아마도 ”

“아니, 많이 아프신 것 같아. 머리가 많이 아플 땐 충격 요법이 최고죠. 진 님, 저랑 베개 싸움 하실래요?”

“아니, 저기. 모두 진심으로 한 말인 응? 으아악! 잠시만요!”

진와 칸이 정성들여 꾸민 침대 위에 놓여 있던 베개―가 자그마치 두개나 있었다. 대체 왜?―중 하나를 집어든 나는, 망나니에 빙의해 진의 목을 썰어버릴 기세로 달려들었다.

퍽-!

“사, 살려주세요!”

살려줘? ‘살린다’는 게 무엇이지?

“그러게!”

퍽!

“왜!”

퍽!

“거짓말을! 하세요!”

퍽! 퍽! 퍽!

미친 듯이 방을 헤집고 다니며 베개로 진을 구타하고 있자니,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얼핏 들렸다. 그러나 지금의 내게는 썩을 대로 썩어버린 진의 뇌구조를 뜯어고쳐주는 작업이 먼저였으니,

“헛소리엔! 매가! 약이라구욧!”

네가 도망쳐봤자 이 방 안이지. 작정한 채 베개로 진의 몸뚱이를 후두려 패주고 있자니, 누군가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인지는 굳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왜 저러고 있어?”

“그게 진이 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 맞을 짓 했네.”

“무슨 말이냐고는 왜 안 물어보시죠?”

“그럴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과연 황자님 예리하시군요.”

“그런데, 내 침대는 왜 이 모양이야?”

“아, 그게 진이 한 짓 같습니다.”

“과연. 빨리 원상 복구해.”

“넵!”

젖은 단발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회색 목욕가운을 입은 채로 걸어 나오는 그, 류이는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을 만큼 몹시 섹시하고, 또 섹시했으며, 섹시라는 표현이 부족하리만치 섹시했다. 그 어떤 여성도 그를 본다면 눈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는 매혹적이었으나,

문제는 지금의 내가 그런 그를 1도 쳐다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아니, 다행이라 해야 되는 부분이려나?

망나니 그 자체로 젖은 머리칼을 휘날리며 진을 바닥에 쓰러뜨린 채 위에서 마구 베개로 구타중인 나. 밑에서 내 구타 세례를 당하던 진이, 못 참겠다는 듯 발악하는 목소리로 내게 외쳐왔다.

“저도 베개 있다구요! 없어서 맞고만 있는 줄 아세요!?”

“어어, 그래! 어디 한 번 덤벼보시지! 댁 머리가 개조되나, 내 머리가 개조되나 어디 한 번 베개 배틀 떠보자고!”

“그래요!”

꽥하며 내게 외쳐 대답해온 진이, 마법을 시전하는 듯 손가락으로 딱! 하는 소리를 낸다.

뿅! 이내 진의 손에는 그의 베개가 쥐여지게 되는데.

“?”

그것은 목침.

“내가 졌다.”

툭. 내 손에서 베개가 힘없이 떨어졌다.

다음날 아침.

이라고 네모난 칸 말풍선에 설명을 써놓아야 할 것 같다.

나는 침대에서 부스스 일어났다. 어젯밤에 있던 소동 후 목침으로 한바탕 찜질 세례를 당했더니 온몸이 욱씬거리는군 크윽.

물론 농담이다. 진이 감히 날 어떻게 때리겠어? 그것도 목침이라는 어마어마한 흉기로. 그런 무기에 내 연약한 몸뚱이가 얻어맞았다간 이 몸이 죽어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

어젯밤 류이는 약속했던 대로 마법을 통해 자신의 방에 당분간 내가 쓸 침대를 들여 주었고―사실은 칸이 했지만―나는 그 침대에서 꿀잠을 잤다. 잠들고, 자는 과정 중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아침에도 별다른 소동은 없었다.

류이가 나를 좋아한다던 진의 개소리는 어떻게 됐냐고? 아, 물론 훌륭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데에 성공했다. 진이 짓궂은 말썽꾸러기 컨셉인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밥 먹고 하는 짓이 장난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 인간의 헛소리를 듣고 괜히 들떴다가 지금보다 더한 흑역사를 추가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가뜩이나 나는 류이의 면전에서 선보인 흑역사가 한둘이 아니잖은가. 아, 둘 맞나?

여하튼. 지금은 나와 류이, 그리고 은신 마법으로 모습을 감춘 호위 기사들이 준비를 끝마친 후 다 같이 마법 연무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기사들은 모습이 보이지 않다 보니 거의 류이와 단 둘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다고 해서 진이 내 뒤통수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놈이 뻘짓을 할 각을 줘서는 안 돼! 절대로 말이다.

“사람이 엄청 많네요?”

“음, 오늘만큼은 세계 곳곳에서 경합을 구경하러 오니까.”

“왜 구경하러 와요? 재밌나요?”

내 순진무구―표정이 아니라 뇌가―한 물음에, 류이가 살포시 미소를 짓는다. 헉, 기습 공격인가! 다행히도 방어해내는 데에 성공했다. 엄청 위험한 남자다, 역시.

“재밌어서 오는 거겠지? 누가 이기는지도 궁금할 테고.”

“아하, 흠. 저는 마법 경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적어도 어제보단 재밌을 거야.”

“다행이네요. 내일부터는 이 세상에서 저란 존재가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가기 전에 재밌는 걸 하나라도 보고 가게 돼서.”

농담이었는데. 류이가 몹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쳐다봐오기에, 나는 ‘농담이에요, 농담!’이라며 황급히 방금 내뱉은 말을 수습했다. 류이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는 인간인 바람에, 이런 사소한―내 기준―농담조차 못 던지겠다. 와, 저 눈빛 좀 봐. 걱정이 뚝뚝 묻어나네.

“그, 그런데 황자님. 안 추우세요?”

류이의 부담스러운, 아니. 기분이 나쁜 건 아니지만, 괜히 마주 보고 있기에 민망하고 쑥스러워지는 그 걱정 어린 눈빛을 평소대로 되돌리기 위해 화제를 바꿔보았다. 다행히도 류이의 표정은 금세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응? ‘원래의 모습’이라면 어떤 거냐고? 첫 만남 때의 신경질적이고 까칠하던 모습과, 다정하고 친절한 모습 중 어떤 거냐고?

당연히 후자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류이는 나를 상대할 때 몹시 편한 눈빛과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란 인간이 만만하고 여유롭게 대할 수 있는 존재라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첫 만남 때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져있었다. 저게 일부러 꾸며낸 표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에, 원래의 모습이라 생각하는 거다. 물론 나한테는 다행인 거겠지.

“추워.”

“ 아?”

연무장으로 가는 길은 야외였다. 대학에 들어온 외부 손님들로 인해 대학의 정원을 비롯한 바깥 풍경은 평소와는 달리 매우 북적거리고 소란스러우면서도 눈이 호강하는 듯한, 그런 화려함이 득시글거리는 느낌이었는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배치한 황실 정예 기사단들이 완전 무장을 한 채 경비를 서고 있어서 더욱이 시야에 꽉 차듯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류이가 비교적 사람들의 눈에 덜 띄는 효과가 있었다. 지나가던 여성들이 가끔씩 그의 얼굴을 보아버렸을 때 ‘유, 유이 황자님이야 !’하며 현기증으로 기절할 듯 이마를 짚는 것만 빼면 말이다.

그런 그가 춥단다. 그냥 무심코 물어본 건데, 이를 어쩌지? 잠시 고민해보았다. 지금의 류이는 목 폴라 티셔츠만 입고 있는데, 아까 전 기숙사에서 왜 저리 입고 나가는 걸까 생각했었다. 젠장. 그 때 겉옷을 챙기라고 말해줬어야 하는 건데. 겨울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을이니까, 목 폴라 티셔츠 하나로는 추운 게 당연하잖아.

어쩔 수 없지! 나는 주섬주섬 내 겉옷을 벗었다. 그리고 이내 옆에서 걷던 류이를 붙잡아 멈춰 세우고는 어깨에 둘러주었다.

"?"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 경합도 나가야 하는데.”

나야 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팔자라 감기가 걸리든 암이 걸리든 무슨 대수겠냐만은, 한 나라의 황자이자 황제 유력 후보라는 이 인간은 아파선 안 되지. 음, 그렇고말고.

그런 생각에서 나온 내 행동에 잠시 벙찐 표정으로 서있던 그, 류이는 이내 싱긋 미소 지었다. 늘 생각하는 거지만 이 인간이 짓는 미소는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이를 곁에 붙여놓는대도 압살해버리고도 남을 것 같다.

아, 그럴 수도 없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아마 류이일 테니까.

세상을 지 혼자만 사는 그 남자, 류이는 자리에 우뚝 멈춰 선 채 나를 빤히 응시해온다. 웃는 낯으로. 그런 치명적인 표정을 한 그가 자리에 가만히 서있는 바람에, 지나가던 사람들 중 귀족가의 영애로 추정되는 몇몇 이들도 덩달아 자리에 멈추더니 ‘유이 님이잖아? 듣던 대로 엄청 잘생기셨어! 말 걸어볼까?’라며 떠드는 목소리가 들려와. 헉, 어그로 끌린다.

그냥 연무장에 빨리 가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왜 멈춘 거지? 혹시 내 옷이 마음에 안 드나? 가을용이라 얇긴 하지만 밤색 코트라, 패션에는 큰 무리 없을 텐

쪽-

“고마워.”

“ 에?”

히이익-!?

갑자기 류이의 얼굴이 내 얼굴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내 볼의 순결을 앗아가 버렸으니. 너무 순식간이었던 공격인지라, 뒤로 허리를 젖히고 자시고 할 틈도 없었다.

와, 헐. 방금 뭐야? 이거, 실화? 리얼? 트루!?

볼에 뽀뽀하는 거야 인사의 의미로 하는 사람이 많다지만, 서양 나라들은 볼 뽀뽀로 인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왜 이래! 사람 오해하게. 류이 너, 혹시 어장관리남이었어? 아니, 그런 것치고는 다른 여자들한테 대하는 꼬락서니가 영 아니던데.

“바, 방금 뭐하신 거예요?”

“뭐긴 뭐야, 답례지.”

내 당황스럽다는 물음에 류이가 소리 내어 웃더니 저리 말해왔다. 그리고는 내가 어깨에 둘러주었던 밤색 코트를 다시 벗더니, 내 어깨에 둘러주는 게 아닌가.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변의 여러 영애들이 코피를 뿜으며 쓰러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 같다. 아, 덤으로 ‘저 기집애는 누구야 !?’하며 부들대는 멘트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왠지 진이 ‘꺅!’하는 소리를 지른 것 같기도 했다. 기분 탓인가? 이건 진짜 기분 탓이었으면 좋겠는데.

“난 괜찮아. 춥다는 건 농담이니까.”

“ 왜 그게 농담이에요? 진짜로 추운데요, 오늘 날씨?”

“류 제국 사람들은 추위를 별로 안 타. 체력적인 모든 부문에서 강하니까. 몰랐어?”

“아, 몰랐죠. 저야 프란치아 사람인 걸요.”

“하긴.”

헉. 이건 또 뭐야. 류이가 대뜸 내 손을 잡기에, 이건 뭐하자는 건가 머릿속으로 수없이 생각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손을 붙잡은 채로 앞으로 걸어 나가는 그라, 나는 어버버 거리며 한동안 잠자코 그의 옆을 따랐다. 주변에서 나를 향한 비수 같은 시선들이 끝없이 날아오는 기분인데 그런 시선 좀 그만 쏴! 내가 고니냐?

이어서 내 청개구리 세포가 그런 이들의 시선을 받더니, ‘질 수 없지! 시선 받고, 염장질 더!’라고 외치는 음성이 들려온다. 그런 덕분에 류이의 손을 굳이 놓지 않았다.

사실 딱히 놓을 이유도 없는 데다, 결정적으로 나는 수족냉증이 심했다. 아직 겨울도 아니건만 실내든 야외든 손이 얼음장 같은 바람에 늘 고민이었었는데, 류 제국 사람들은 손도 따뜻한가본지 잡고 있으니 마치 손에 손난로를 쥔 기분이었다. 아니, 손난로가 나를 쥐고 있는 건가?

흐아아, 따뜻해. 이런 게 바로 기모찌. 손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따스함을 느끼며, 나는 멍하니 류이의 손을 잡은 채 한동안 같이 걸었다. 지금의 분위기는 흡사 데이트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괜한 도끼병은 흑역사를 불러일으킬지니

“어머니가 환국 사람이라 했지?”

“음? 네.”

“너랑 대화하다 보면 네 말이 진짜라는 걸 깨닫게 돼.”

류이가 걷다 말고 내게 말을 건네 온다. 걷기만 하면 심심하니까, 잡담이나 나누자는 취지인가 보다.

“왜요?”

“프란치아인들 중에서 내 이름을 류이라고 정확하게 부르는 사람은 너밖에 없거든.”

“발음이 어려워서 그렇죠. ‘류’라는 단어는 이곳엔 없으니까.”

“그래서 신기해. 고국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 ? 고국에 돌아가시면 널린 게 저 같은 평범한 여자애들일 텐데요. 게다가 ‘류’라는 발음도 되는. 신기할 것까지야 있나요?”

“네 말도 틀린 건 없지.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그 사람이 너라서 좋다는 거야.”

"?"

으, 으응?

어이, 잠깐만. 예쁜 총각, 지금 나랑 뭐하자는 건가?

저 말의 의미는 대체 뭐지. ‘그 사람이 너라서 좋다’니, 많고 많은 프란치아 사람 중에 ‘류이’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나라서 좋다는 건가? 왜 좋지? 좋을 이유가 딱히 있나? 전혀 모르겠는데. 감은커녕 홍시도, 곶감도 잡히지 않는 기분인데.

혹시, 나같이 이상하고 독특한 여자애가 같은 서양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 좋다는 건가? 뭐, 곁에 두면 심심하진 않을 테니까. 진이 했던 말대로 말이다. 그래, 그래서인가 봐.

“어, 음 그러시구나.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꾸 ‘유이’라고 불리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엄연한 ‘류’제국의 ‘류이’ 황자님이시니 말이에요.”

이번에도 은근슬쩍 말의 방향을 돌렸다. 황자와 핑크빛 로맨스라? 어림없는 소리!

“이젠 별로 신경 안 써. 이곳 사람들은 부르기 싫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단지 발음이 안 되는 것뿐이니까.”

“하긴. 그래도 류 제국이 아니라 발음하기 쉬운 다른 이름의 제국이었더라면 좋았겠네요.”

“예를 들면?”

“음 뚱 제국이라던가?”

"?"

내 개드립에 류이가 황당해하며 나를 응시해오지만, 나는 시치미를 똑 떼며 앞만 보고 걸었다. 흐흐흥, 역시 난 드립의 귀재.

마법 경합은 10시부터인데, 지금은 9시 50분쯤이었다. 연무장은 야외라고 들었는데, 과연 그 말대로 대학의 모든 건물들을 지나 대학의 뒷마당―잔디밭으로 된 공터에 가까운―으로 빠져나오니, 눈앞에 반투명한 돔 형식으로 된 커다란 연무장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사실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규모였다. 밖은 추우니까 돔 형식으로 마법을 쳐놓은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려나? 아마 그렇겠지?

“어서 들어가요!”

아직 입김은 안 나오지만, 바람이 차다. 빨리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나는 류이를 잡아끌었다. 헤헤, 저기 따뜻해! 빨리 가자! 하는 느낌으로.

이제 곧 대회가 열릴 연무장의 앞이라 그런 건지, 대학 건물의 내부나 정원 등, 건물을 지나쳐올 때보다도 사람이 훨씬 많았다. 북적거리는 인파 속에서, 류이의 등장은 단연 돋보였다. 물론 나는 이런 상황을 원치 않았지만, 내 의사가 반영될 세계 같았다면 난 천민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다.

“꺄악! 유이 황자님, 뵙고 싶었어요!”

“황자님-! 지금 오시는 길이세요?”

“오늘 대회에는 출전하시는 거죠, 그렇죠? 황자님만 보려고 제가 로스테인에서 날아왔 ”

“길 막지 마!”

“저리 비켜주실래요? 앗, 밀지 마세요!”

헉! 이건 실로 어마어마하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유이를 힐끔힐끔 쳐다보던 영애들은 별 것 아닌 수준이었다. 아니, 그냥 지나가던 사람1, 2 정도로 치부해버려도 되는 거였어.

지금 상황은 총체적난국이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타깃인 류이를 연무장 입구에서부터 기다린 모양인지, 입구를 들어가려던 나와 류이는 순식간에 스무 명은 족히 넘을 숫자의 외부 손님이자 꽤나 사는 가문으로 추정될 법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영애들에게 둘러싸였다.

개중에는 손에 깃털이 잔뜩 달린 부채를 쥐고 있는 이들도 많았기에, 척 보기에도 하나같이 ‘나 귀족이오-’하는 느낌이었다. 복장만 보자면 무슨 파티라도 온 줄 알겠어.

아니, 그나저나 너희들, 왜 나까지!

“으윽!”

있는 집 영애들이 무슨 마트에서 천원코너 물건 쟁탈하듯이 달려드는 거야!? 이래도 돼? 당신들의 품위, 괜찮으십니까? 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나는 류이의 손을 놓쳤다. 영애들이 나에게도 달려들기에 무슨 목적인 건가 싶었는데, 누군가가 노골적으로 류이와 잡고 있던 손을 떼어버리는 것을 감각으로 느꼈다.

분명 스무 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류이의 등장으로 인해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니 이곳저곳에서 몰려든 영애들이 기웃거리며 바짝 붙어온다. 덕분에 인파 속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던 나는 이내 바깥으로 내밀려 나동그라졌다.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동그라져서, 바닥에 넘어져 엉덩방아까지 찧었다.

“아야얏 !”

내 소중한 엉덩이가 납작 만두가 되어버리겠어!

와, 무슨 이런 만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황당한 일이 다 있지? 예전에는 인파 속에서 누군가가 밟혀 죽었다는 신문 기사 같은 걸 봐도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지? 가능할까?’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진심으로 저 구둣발에 밟히고 차였다간 죽을 수도 있겠어.

저 영애들 사이에서 넘어지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를 탁탁 털었다. 이게 웬 봉변이냐, 정말.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원래 다 이런 건가? 지금까지는 대학의 학생들만이 왔다리 갔다리하는 풍경이었기에 류이 같은 인간의 인기도가 어느 정도일지 감이 안 잡혔었는데

“아?”

이제야 좀 알 것 같다.

무심코 옆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류이보다는 덜하지만 엄청난 숫자의 영애들이 과일에 꼬인 초파리 떼마냥 바글바글하게 몰려든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들의 중심에서 큰 키로 인해 머리통 하나 길이만큼 우뚝 솟아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그.

루이스였다.

"!"

앗, 눈 마주쳤어!

류이와 마찬가지로 연무장에 들어가려다 붙잡힌 것인지, 사방에서 꼬여드는 귀족 영애들을 뿌리치지 못해 둘러싸인 루이스와 눈이 딱 마주쳤다.

할 말이 많은데! 류이의 조수로 옮기게 된 것도 그렇고, 투영의 비약이 보여준 내 미래도 그렇고. 내일 당장이 고비라지만, 루이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 나였기에 해맑게 손을 번쩍 쳐들었다. 인사를 해주기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그를 향해 마구 흔들어 보였는,

데?

“어 ?”

그런 내 인사를 보기도 전에, 루이스가 시선을 홱 거둬버렸다. 마치 봐선 안 될걸 봤다는 듯이, 못 볼 걸 봤다는 듯 인상을 살포시 찡그리면서 말이다.

황망해진 내 손이 아래로 툭 떨어졌다. 이건 또 뭐지. 근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매일 같이 식사도 하고, 수다도 떨고, 이런 저런 일들도 같이 했던 내 주인님이

나를 외면했다.

이내 루이스가 영애 무리를 헤치며 연무장 안으로 들어가는 뒤통수를 빤히 쳐다보다가, 내 턱이 아래로 떨어져있음을 알아차리고 들어 올려 입을 꾹 다물었다.

여러모로 충격이 크다. 방금 전 인사를 건네려 했던 손이 후덜덜 떨리는 것을 느껴, 슬그머니 고개를 내려 내 손을 바라보았다. 떨리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찬 내 손이 떨리고 있다고. 추워서 그런 건가? 아니면, 방금 전 그 일 때문인가.

모르겠다. 머리가 멍해져서, 더는 내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

그저 멍하니 얼음장마냥 차게 식어 얼어버린 내 양손을 붙잡고 가만히 자리에 서있으려니까, 옆에서 영애들의 ‘어? 어어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그건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다시 류이가 있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니, 웬 황당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마법으로 밀어낸 모양인지, 류이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영애들이 사방으로 밀려나 나동그라져있는 것이다. 품격이고 나발이고 간에, 바닥에 발라당 나자빠져 치마가 뒤집어진 영애도 있었다. 헉, 저건 좀

“아샤!”

“ 네!?”

화들짝. 나를 부르는 누군가의 음성에 깜짝 놀라며 넘어진 영애로부터 시선을 거둬,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의 주인은 나를 향해 다급히 달려오는 류이였다.

“괜찮아!?”

“아, 네 ? 저는 괜찮 ”

뭐지? 이 남자, 안색이 왜 저렇게 하얘진 거? 모세의 기적마냥 양 옆으로 밀어내버린 영애들 사이에서 내게로 뛰어온 류이 덕에, 사방에서 ‘저 여자앤 대체 뭐야 !’와, ‘헉, 쟤는 어제 대회에서 봤던, 그 ?’하는 반응이 튀어나오는 걸 듣기도 잠시.

류이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서워졌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려 손가락으로 내 볼을 잠시 쓰다듬는 듯하더니, 고개를 푹 숙였다. ‘하아 ’하는 한숨을 내쉬며.

뭐야, 갑자기 왜 이래?

"?"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리버리하게 굴고 있자니, 류이가 내 한쪽 손을 붙잡은 채 돌아섰다. 그리고는 영애들을 향해 말하길,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가문의 여식들은 얼굴을 확인해뒀으니, 내 눈에 두 번 다시는 띄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응? 아니, 왜?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야?

류이는 단지 자신을 흠모하여 달려드는 영애들에게 둘러싸였던 것밖에는 없는데, 왜 이렇게 분기탱천하여 어느 때보다도 살벌한 눈빛을 짓고 있단 말인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나는 고개를 마냥 갸우뚱거리며 내 손을 잡고서 연무장 입구 쪽으로 이끄는 류이를 따랐다.

그런데, 뒤에서.

“유이 님! 그 천민 계집과는 왜 함께 계신 건가요? 황자님의 체면을 어찌 그리 구기십니까!”

부채를 들고 있는 영애들 중 어느 당돌한 금발머리의 외침이었다. 금발머리는 죄다 저렇게 싸가지가 없나? 루이스를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곳에 모인 영애들 중에는 내 신분이 천민인 걸 모르는 이도 있었던 듯, 이내 ‘천민이라고 ?!’하며 크게 술렁거리는 분위기가 되어버린다. 뭐, 이런 경우가 처음인 것도 아니고. 결국 도마 위에 오르는 건 나 같은 만만한 인물인 게 당연해.

고개를 뒤로 돌려 나를 삿대질까지 해가며 떠들어대는 영애들을 바라보자니, 나를 데리고 앞으로 걷던 류이가 자리에 멈춰 서며 마찬가지로 고개를 뒤로 돌렸다.

그리고는 싱긋- 미소 짓더니, 그녀들에게 말했다.

“죽기 싫으면 좀 꺼지라고.”

“ 으응?”

깜짝.

아, 그러고보니 나, 이전에도 류이의 이런 모습 본 적 있는 것 같아.

그 때, 그 골목길에서 말이다.

내 손을 잡은 채 연무장 안으로 이끄는 류이를 쭈뼛거리며 따라 가보니, 내부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되어 있었다. 땅을 파서 지하 형식으로 만들어진 모양인데. 계단을 내려가면 돔으로 된 연무장 안에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는 구조인 듯.

빨간 레드카펫이 아래로 주욱 깔려있는 대리석 계단을 하나하나 밟으며 그의 뒤를 따르자니, 내려가다 말고 갑작스레 류이가 뒤를 홱 돌아본다. 그래, 바로 나를 말이다.

왜 때문에 영애들에게 그리 화가 난 것일지 모를 류이는, 여전히 심기가 좋지 않은 표정이었는데 그런 그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더욱 속상한 듯 인상을 찡그리며 한숨을 ‘하.’ 하고 내쉬는 게 아닌가 응? 그러니까, 도대체 왜?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의 눈치를 살피며 멀뚱히 서있었다. 그러자 대뜸 류이가 나를 향해 손을 뻗어왔다. 나보다 한 칸 더 밑에 있는 그였기에, 키 차이로 인해 현재 그와 나의 눈높이는 같았다.

“아팠지?”

내게 물어오는 한마디. 아팠던 거라면 납작 만두가 되어버릴 뻔한 내 엉덩이인데, 볼은 왜 자꾸 더듬는단 말인가. 콧물만 안 흘린다 뿐이지 맹구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엉덩이요? 조금 ?’이라고 대답하려 했더니, 그 때 문득 내 볼을 쓰다듬던 류이의 엄지손가락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헉, 저거 뭐야!

“피잖아요!?”

“아, 몰랐어?”

몰랐던 수준이 아니라, 아프다는 감각조차 없었다. 류이의 손가락에 묻은 피의 양을 보아하니, 방금 전의 아수라장에서 내 볼에 꽤 깊고 기다란 생채기가 나버린 모양. 다급히 손가락으로 내 볼을 매만져 보니, 이제야 따끔한 고통이 느껴져 온다.

아니! 언제 긁혔담? 영애들의 가슴팍에 꽂힌 브로치나 부채들에 당한 건가? 크윽 ! 방심했군. 가뜩이나 예쁘지도 않은 얼굴인데.

상당히 깊게 긁힌 모양인지,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몹시 쓰라리기 시작했다. 어지간한 일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나조차 눈가에 눈물이 찔끔 고이려 할 정도의 아픔이 찾아와, 나는 볼을 매만지며 류이를 향해 ‘헝, 어떡해요 ’하는 말을 중얼거렸는데.

“이리 와봐.”

"!"

류이가 그런 내 손을 붙잡아 자신에게로 살짝 끌어당기더니, 이내 자신의 손바닥을 내 볼에 댄 후 마법으로 치료해주었다. 덕분에 내 볼은 ‘다쳤었다고요? 제가요? 언제?’하는 느낌으로 아주 멀쩡해져버렸으니.

오오! 이렇게 눈앞에서 마법으로 치료받는 건 처음이야. 신기해!

나란 노예는 신분 복은 없어도 주인 복은 아주 넘치도록 많은 모양이다. 이번 주인님도 참 다정하시기 그지없군. 이렇게 손수 아랫사람에게 마법으로 치료까지 해주다니 말이야. 여러모로 착한 얼굴, 착한 인성의 소유자인 것 같다. 음.

물론 방금 전 영애들을 향한 이미지 같은 건 예외로 쳤을 때 말이야.

“흉터는요? 안 남았나요?”

“응, 괜찮아.”

나를 향해 예쁘게 미소 지어오는 류이를 향해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꾸벅 건넸다. 그리고 나서 내게 내밀어온 류이의 손을 잡아 에스코트―내게는 너무 과분한―를 받으며 나머지 계단들을 모두 내려왔더니, 관객석으로 입장하는 문인 듯 웅장하고 커다란 문과 그 옆으로는 기다란 복도가 나왔다.

남은 시간은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았으므로, 대회 출전자인 류이는 관객석이 아니라 대기실로 가야 한다. 그렇기에 류이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며 ‘나중에 보자, 아샤.’라는 말과 함께 긴 복도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고, 나는 그런 류이에게 ‘이기고 오세요-’하는 인사를 해준 후 흡사 야구장 분위기를 닮은 실내 대회장의 관객석 입구로 들어섰다. 음, 훈훈해.

기대했던 대로 연무장의 실내는 역시 따뜻했다. 난방이 아주 끝내주는 걸?

“마리, 아도라!”

입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나란히 앉은 그녀들이 눈에 들어와, 나는 냉큼 그녀들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위층 관객석으로 뛰어 올라갔다. 헉헉, 계단 개높아.

거의 바글바글, 개미떼에 비유해도 될 만큼 북적거리는 대회장 내부는 앉을 자리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빼곡했으나, 다행히도 내게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녀들이 맡아놓은 내 자리에 털썩 앉으며, 가빠진 숨을 몰아쉬었다. 장내는 거의 시작하기 직전인 분위기. 아슬아슬하게 맞춰 왔구만.

“왔어?”

여기서 만약 마리나 아도라 중 누군가가 ‘거기 네 자리 아닌데, 아샤?’라고 말했다면 아주 꿀잼이었겠으나, 아쉽게도 그녀들은 그런 짓궂은 인물이 아니었다. 후후.

“어젯밤엔 별 일 없으셨나요?”

오히려 너무 친절해서 탈이지.

아도라가 묻자, 마리도 덩달아 ‘괜찮아? 무슨 일 없었어?’하는 느낌으로 내게 시선을 던져온다. 가운데에 앉은 마리,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아도라. 그 둘이 나를 빤히 바라봐오는 모습에, 이내 나는 그 시선을 받다 말고 ‘풋!’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마리, 아도라.”

“어떻게 걱정이 안 돼? 투영의 비약으로 본 미래가 그랬는데 ”

“맞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잠도 제대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뒤척이느라 흐암.”

“와, 세상에. 아도라가 하품하는 모습을 보는 날이 다 오다니, 말세일세.”

거짓말이 아님을 증명해주듯, 아도라의 눈 밑에는 평소답지 않게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렇게 피곤한 안색의 아도라는 처음 봐.

물론 마리라고 해서 영 멀쩡한 몰골은 아니었다.

“마리, 너는 머리 안 빗었어?”

마리의 갈색 곱슬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뻗친 꼴을 보아하니, 오늘 아침에 제대로 빗지도 못하고 뛰어온 게 아닐까 싶은데.

“ 아. 나도 어제 조금 늦게 잠들어서, 아침에 늦잠을 잤지 뭐야. 빗고 올 틈이 없었어.”

마리의 대답에 나는 무릎을 탁! 쳤다. 크, 역시 나의 눈썰미란!

같은 생각이나 할 때가 아니라,

“날 걱정하느라? 저런, 내 목숨이 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샤.”

“맞아, 그렇게 말하지 마! 아샤는 우리의 소중한 친구인 걸.”

그녀들에게 농담 삼아 건넨 한마디에, 아도라와 마리가 마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듯 미친 듯이 손사래를 친다. 그리고는 저리 말해오는데.

찌잉. 역시 내 친구들이야. 잠자는 것보다도 내 걱정을 먼저 해주다

“지금부터 마법 경합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니 미럴. 타이밍하고는.

아도라와 마리의 말에 눈시울이 슬쩍 붉어지며 감동의 도가니탕에 풍덩 다이빙하려던 참에, 이런 나의 우정타임을 방해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실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사회자 누구야! 당장 저기서 끌어내려!

라고 외치고 싶지만, 내게 그런 영향력은 있을 수가 없다.

10시 정각이 된 모양인지, 대회의 중계를 위해 잔디밭 중앙에 사회자로 추정되는 어느 남자가 떡하니 서있는 모습. 따라서 나를 포함한 마리와 아도라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검은 정장을 세트로 갖춰 입은 사회자가 본격적인 대회 중계를 시작하기 위해 ‘크흠크흠!’하며 목을 다듬는다. 마이크가 아닌 마법으로 증폭한 목소리 같은 경우, 저렇게 목을 다듬는 소리까지 온 장내에 울려 퍼진다는 게 크나큰 함정.

그러나 어제의 어벙한 느낌이 가득하던 사회자와는 달리, 이번엔 그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노련한 사회자인 모양. 그는 주눅 들지 않은 당당한 표정으로 입을 연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신사, 숙녀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회 시작에 앞서, 아주 짧게 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 저 시원시원한 전개 좀 봐. 대회 개최식은 어제 이미 했으니, 질질 끌 것 없이 곧바로 경합을 시작하려는 모양인데. 그래 뭐,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낫지. 세상에 교장 선생님 연설 같은 주절거림을 몇 십분 동안 듣고 싶어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관객석을 훑어보니, 어제 보았던 황족 무리가 유독 튀는 황금색 관객석에 앉아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호위 기사들을 한가득 대동한 채로 말이다.

사실 호위 기사가 필요한 입장은 바로 나 아닌가? 싶지만서도, 황족들을 향해 ‘댁들보다 저나 좀 호위해주세요!’라고 고래고래 소리칠 순 없는 노릇이니, 괜히 일어서서 명을 부추기는 짓은 삼가고 잠자코 자리에 앉아있었다.

어제는 오크로 변신했던 황녀도 오늘은 멀쩡한 얼굴로 돌아온 채 앉아있는 모습. 류이를 보러 왔겠지? 자신을 오크로 만든 남자라지만 그래도 좋다 이건가. 하여튼 여러 의미로 대단해. 나 같았으면 정 떨어지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말이야.

이런 잡생각들을 하고 있으려니까, 대회 시작을 앞두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나 하고 있는 관객이 존재하는 줄은 꿈에도 모를 사회자가 꿋꿋이 진행을 계속한다.

“이번 마법 경합은 토너먼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총 참여 인원은 48명이며, 경합의 룰은 간단합니다. 제한시간은 10분. 시간 내에 상대방을 행동 불능 상태로 만들거나, 더 많은 피해를 입힌 측이 승리합니다. 아, 그리고 작년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새로운 룰이 추가되었습니다.”

저 불미스러운 일이란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려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어지는 사회자의 말에 정답을 알 수 있었으니까.

“상대방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혹은 죽이게 되는 경우엔 대회에서 탈락은 물론이며, 마법 대학에서도 퇴학이라는 조치가 내려질 것임을 명심해주십시오.”

흠?

“작년에 누가 죽었었어?”

소곤소곤, 바로 옆에 앉은 마리에게 물어보자. 궁금한 건 우리의 스피드 웨건, 마리에게!

“으응, 그랬다나 봐. 아샤, 주인님이 유이 님으로 바뀌었지 않아? 유이 님은 아실 걸. 작년에도 대회에 출전하셨으니까.”

“아,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어서 안 물어봤어.”

그러고 보니, 류이는 2학년이었지? 이곳에서 1년 더 있었으니까 작년 일도 잘 알고 있겠구나.

사실 저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미리 알았다 해도 딱히 물어봤을 것 같진 않다. 누가 죽었던 일이 뭐 좋은 사건이라고 류이에게까지 물어본단 말인가? 좀 그렇잖아.

그런데, 마리가 내 주인님이 바뀐 건 어떻게 알지?

“그럼, 이제 제 1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저런 멘트를 우렁차게 외칠 때, 나는 마리에게 조용히 물어보았다.

“마리, 내 주인님이 바뀐 건 어떻게 알았어? 아직 안 말해준 것 같은데, 난.”

“아, 그거? 너보다 우리가 먼저 알았을 걸. 어제 유이 님 방에서 나온 얘기라,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도 들었거든.”

"?"

“그치, 아도라?”

“아, 네. 루이스 님과 유이 님 사이에 협상이 오가더군요. 그것이 잘 성사되어, 앞으로 아샤 님이 모시게 될 분이 유이 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도라, 협상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딱히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아무래도 네 신변 보호를 위해 그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었어.”

“누가? 누가 그런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내 물음에, 마리가 눈을 동그랗게 뜬다. 그리고는 ‘어, 음 ’하는 소리를 내며 잠시 고민에 빠진 듯, 말해야 할지 말지를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번 라운드에서는 쵸 가문의 칸 군과, 다스 가문의 쿠크 양의 경합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이어 호명된 두 사람이 양측에서 걸어 나오고 있을 때, 나는 마리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었다.

“루이스 님 이 그 얘기를 꺼내셨어. 아무래도 아샤, 너를 다른 사람의 조수로 보내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 우리 주인님이?”

“으응.”

아. 그랬나?

그랬던 건가.

마리의 대답을 듣자, 뭔가 마음 속 깊은 곳이 몹시 심란해졌다. 마치 엄청 고픈 배를 부여잡고 간신히 불닭볶음면에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렸는데, 물을 빼는 과정에서 개수대에 면을 홀라당 부어버린 것 같은 허무함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루이스가 먼저 그런 제안을 꺼냈다고? 류이가 아니라?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주 당연스럽게도 류이가 그런 제안을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루이스가 먼저 꺼낸 얘기였다니.

그래. 이상한 일만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야. 루이스로 인해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니까, 원인 제공자인 루이스는 최대한 자신과 나를 멀리 떨어뜨려놓고 싶은 게 당연하겠지.

그런 걸 잘 아는 나니까, 이해하고 있는 나니까 아무렇지 않아야 정상이다. 분명, 아주 확실히 말이다.

그런데 지금의 내게는 묘하게 배신감이란 놈이 고개를 들어온다. ‘안녕?’이라는 인사까지 뇌한테 건네며. 아니, 네가 왜 여기서 나와? 그로서는 당연한 판단을 내린 것일 텐데. 네까짓 게 뭐라고, 아니. 나 까짓 게 뭐라고 그의 판단에 배신감을 느끼니 마니 해. 다 나를 위한 결정일 텐데.

아까 전에 루이스가 나를 외면했던 모습이 떠오르니, 더욱 마음이 불편해진다. 알고 보니 면을 떨어뜨린 개수대의 음식물 거름망 안에 썩은 계란이 들어있었다던가 하는, 그래서 그 면을 씻어서 먹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만 같이 기분이 더러워져버렸어.

아, 나도 이런 내가 싫다. 루이스가 나를 외면해버린 지금의 상황이 몹시 섭섭하고 배신감 드는 게 싫어. 다 나를 위한 건데, 그마저도 배려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속 좁은 내가 미치도록 싫다. 쥐뿔도 없는 천민 주제에, 천민인 나 주제에. 내가 뭐라고.

“끙 ”

“저기, 괜찮아?”

고개를 푹 숙이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덮었다. 머릿속에서 ‘내 자괴감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하는 대사가 들려오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 옆에서 마리가 짐짓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어 온다. 나는 그런 그녀에게 괜찮다고 대답해준 후, 최대한 멀쩡한 안색을 지어보이며 고개를 들었다.

그래, 이러지 말자.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자.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말자고.

얼굴을 덮었던 손바닥으로 양 뺨을 짝! 소리 나게 때려주었다. 정신 차려라, 아샤! 여기는 니네 집 안방이 아니야!

“그럼, 1라운드 시작-!”

옆에서 아도라와 마리가 ‘역시 머리가 많이 아픈 것 같지?’하는 눈빛으로 서로 시선을 교환하고 있을 때, 내 두 눈동자는 쿠크 양과 칸 군에게로 가있었다. 뭔가 엄청 삐까삐까하게 붙을 것 같은 이름들인데. 그나저나, 칸 군이라는 쪽은 류이의 호위 기사와 이름이 똑같구나. 얼굴은 전혀 다르게 생겼지만.

진와 칸은 류이를 따라 대기실로 갔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나는 1라운드가 시작한 연무장 중앙을 뚫어져라 내려다보았다.

마법사들의 경합은 처음 보는 순간이었기에, 사실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내가 본 마법이라 해봤자, 기껏해야 순간이동이나 치유 마법 등이 전부였지 않은가. 뭐, 이런 마법들도 아무나 못 쓰는 어려운 마법이라지만 딱히 엄청 눈부시고 화려하진 않았잖아. 즉, 쉽게 말해 난 삐까뻔쩍한 마법을 단 한 번도 실물로 본 적이 없다는 것.

책으로라도 공격 마법에 대해 본 적이 없기에, 마나로 나선환이라도 만들어서 싸우려나? 하는 생각을 하며 쿠크 양과 칸 군을 번갈아 보고 있자니,

“어스 퀘이크!”

“아이스 스피어!”

그들이 주문을 욈과 동시에, 잔디밭이 쩍 벌어지며 쿠크 양 발밑으로 땅이 갈라지고, 허공에서는 사람 몸뚱이의 몇 배는 될 법한 거대한 규모의 고드름이 수십 개나 생성되었다.

“ 응?”

그리고는 이내, 그 고드름이 바닥으로 직행하며 마치 우박인 양 퍼부어지는데

콰과과쾅-!

“으와아악! 저게 뭐야!”

“아, 아샤! 진정해 !”

마리와 아도라가 쪽팔린다는 듯 나를 만류해오지만, 흥분한 나는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경악하기 바빴다.

세상에, 세상에. 대체 저게 다 뭐야!

상상치도 못한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갑자기 허공에서 하늘을 가르는 엄청난 크기의 고드름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진 것. 우와, 우와! 저게 다 뭐야. 대형 우박이야!?

아, 물론 그 고드름들이 관객석에 쏟아졌다는 건 아니다. 바로 칸 군의 머리맡으로 쏟아졌다는 것인데, 쿠크 양이 시전한 공격 마법인 모양이었다. 무난하게 생긴 외모의 3학년 넥타이를 한 여학생이 외친 주문이 바로 얼음 마법 종류였으니까.

지금까지 마법을 쓰는 데에 단 한 번도 주문을 외는 모습이 나온 적 없으면서, 지금은 왜 저들이 주문을 외냐고? 설정 붕괴 아니냐고?

당연히 아니다.

원래 마법을 시전하는 데에는 소위 말하는 주문, 즉 언령이 필요한데, 지금껏 진이나 류이, 루이스 등이 마법을 쓸 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무언령 마법’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위 마법이라 해도 시전 규모가 작거나, 자주 다루는 마법 같은 경우는 언령을 외지 않고 손가락으로 딱! 하는 소리를 낸다거나, 손뼉을 짝! 하고 치는 등의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시전이 가능하니까.

물론 그건 마법을 굉장히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인물이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 마법 대학의 인물들은 대부분이 마법계의 엘리트였으므로, 성적이 전교 꼴등 수준인 아처 같은 놈들조차 무언령 마법을 쓸 줄 안다는 슬픈 사실.

그러나 그런 대단한 마법 대학의 3학년들도, 저런 대규모 공격 마법까지 무언령으로 시전하는 건 무리인가 보다. 하긴, 저런 대규모 마법까지도 무언령으로 사용한다면 그게 마법 기계지, 사람이야?

“과연 마법 대학의 학생 아니랄까 봐, 마법의 규모가 굉장합니다. 쿠크 양의 아이스 스피어가 아주 맹렬한 기세로 칸 군에게 퍼부어지는데요!”

“아, 그러나 막아냈습니다. 어스 퀘이크로 쿠크 양 발밑에 지진을 일으킨 칸 군, 그 짧은 틈에 전방 가드를 쳤군요. 엄청난 순발력입니다.”

또 다른 사회자가 있었던 듯, 본격적으로 경합에 돌입하니 아까 전 사회자와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확인을 위해 시선을 돌려 보니, 마찬가지로 검은색 정장을 빼입고 코난이 떠오르는 빨간색 보타이를 한 두 명의 사회자들이 미리 마련된 중계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자가 몇 명이냐 하는 사실 따위가 아니라 쿠크 양과 칸 군의 대결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였으므로, 나는 사회자를 쳐다보던 시선을 허둥지둥 연무장 중앙으로 되돌렸다.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은!?

“어스 버스터, 스톤 스피어!”

“아쿠아 블래스터!”

“언령 두 개를 동시에 외는 칸 군! 공격 마법을 동시에 두 개나 다룬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역시 대학의 엘리트다 이건가요? 괜히 3학년이 아니군요!”

“하지만 쿠크 양,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 상성이 나쁘지 않아서인지 막상막하로 공격을 막아내는군요. 앗, 쿠크 양의 방어막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역시 두 개의 공격을 막아내기엔 무리가 있었던 걸까요. 아, 곧바로 한 겹의 방어막을 더 치는 쿠크 양! 빠르고 정확한 시전 솜씨입니다.”

“테트라티카!”

“아틀란 크윽!”

“앗, 칸 군의 최상위 대지 스킬이 정통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전 속도가 살짝 느렸던 쿠크 양, 칸 군이 시전한 대지 마법에 휩쓸려 허공으로 솟구쳐버리는데요 아아!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방어막이 풀려버렸군요.”

“카운트를 세는 동안 일어나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3, 2, 1 ”

“1라운드, 칸 쵸 승!”

“와아아아아아─! 칸 쵸! 칸 쵸!”

오, 오오! 오오오-!!

“대박,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

“아샤, 자리에 앉아야 해. 서있으면 뒤에 앉은 사람들이 안 보인다구.”

“아, 으응!”

마리가 옷소매를 끌어당기기에, 나는 들뜬 호흡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와, 세상에. 이거 진짜 축구나 야구보다, 아니.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흥미진진한데? 어지간한 예능 뺨치고도 남을 듯. 이런 광경을 난생 처음 봐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몰라도, 재밌다. 엄청 재밌어!!

“3학년들 치고는 마법 솜씨가 평범하네요.”

“그러게. 작년엔 더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옆에서 아도라와 마리가 저런 대화를 나누건 말건, 나는 잔뜩 흥분한 표정으로 관객석 난간을 붙잡은 채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서 연무장 중앙을 내려다보았다.

칸 쵸의 대지마법에 완벽하게 당해버린 쿠크다스가 뻗어있다. 이내 1라운드 우승자인 칸 군이 검은색 망토를 펄럭이며 퇴장하는 것과, 쿠크다스가 들것에 실려 퇴장하는 모습, 그리고 온 사방에서 칸 군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칸 쵸! 칸 쵸!’라고 외쳐대는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스르르 벌어져버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우와 ! 멋져. 쩔어. 대단해! 저런 게 마법사라는 건가? 그랬던 거였나! 지금까지 뺑글이 안경잡이나 아처 같은 놈들만 봐와서 몰랐는데, 마법사란 바로 저런 거였어. 그래, 저런 이미지였던 거야!

“헉헉. 이것이 진정 판타지 세계라는 거구나. 너무 멋져 ! 쓰읍, 하.”

“ 아샤, 엄청 변태 같아.”

“그러게 말이에요 ”

너무 들뜬 바람에 벅차오른 숨을 가라앉히려고 심호흡을 하자니, 옆에서 마리와 아도라가 심각하단 표정으로 나를 바라봐온다. 그러나 내 눈동자는 하염없이 연무장 양끝의 출전자가 나오는 입구로만 향해 있었다.

빨리, 다음! 다음 경기 구경 시켜줘! 하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구경이 있었다니! 누구인가?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이라고 하였어?

그건 택도 없는 소리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은, 바로 마법 경합 구경이다. 내 심장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이번 출전자는 하임 가문의 초코 양, 베아트리스 가문의 로사 양입니다.”

내 기대에 부응해주기라도 하는 듯, 사회자는 빠르게 다음 출전자의 이름을 호명한다. 그런데 저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인데. 로사? 혹시, 내가 아는 그 로사 ?

“헉.”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진짜 그 로사였다. 나는 내 뇌 내에 영 좋지 않은 이미지로 각인된 붉은 머리의 로사가 연무장 중앙으로 도도하게 걸어 입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초코 양과 로사가 약 20m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 마주보는 채로 서자, 사회자가 시작을 알린다.

“그럼, 2라운드- 시작!”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렸다.

“파이어 월.”

화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초코 양이 서있던 위치에 그대로 불을 질러버린 로사.

“!!!”

“오, 저런!”

“세상에-!”

무슨 대형 캠프파이어라도 하는 줄 알았다. 족히 50m는 넘게 떨어진 이 위치에서도 얼굴에 화끈한 열기가 전해져올 정도면, 대체 얼마나 엄청난 화력의 마법이었던 것인지.

거의 돔 경기장 천장까지 열기가 치솟았던 것 같다. 엄청 순식간이었지만, 불의 규모는 무지막지했다.

“아아- 단 한 번의 마법으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초코 양, 분명 방어막을 세 겹이나 치는 것 같았는데요. 엄청난 화력으로 순식간에 방어막을 깨버린 로사 양! 공격을 해볼 틈도 없이 다운 당해버렸군요. 카운트 세겠습니다. 3, 2, 1 승리자는 베아트리스 가문의 로사 양입니다!”

“와아아아-! 로사! 로사! 로사!”

“로사 씨, 아름답습니다-!”

“로사 님, 너무 멋있어요! 꺄아아악-!”

?

“아니, 쟤는 뭐가 저렇게 무식하게 쌔 ?”

어이가 없어서 감탄도 안 나온다. 초코 양의 머리카락이 이름대로 새카맣게 타버린 것을 응시하며, 나는 입이 절로 쩍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상당수의 표정이 지금의 내 표정과 같을 듯. 물론 환호하거나, 구애하고 있는 이들을 제외하자면 말이다.

그나저나 생각보다 인기 많네, 쟤 왜 많은 거지?

“저 정도 규모의 불 속성 마법이라니, 저 실력이면 1학년 중 최고라고 해도 되겠는 걸?”

“어머- 1학년 중 최고라니? 아직 레플리카 영랑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아아, 레플리카 영랑은 이론이 뛰어난 거지, 공격 마법을 잘 다루는 게 아니야. 그래서 레플리카 공작의 실력을 닮지 않았다고 말이 많잖아?”

“음, 그래? 난 또 왜 그런 소문이 도나 했더니.”

앞자리에 앉은 두 부인들이 국어책이라도 읽듯 가식적인 콧소리로 떠드는 것을 엿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마법을 잘 다루고 못 다루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런 괴물은 이길 수 없는 게 당연하잖아! 사람이라면!’ 이라고.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그런 나와 부인들의 예상이, 아주 처참하리만치 빗나가버릴 거란 사실을.

루이스가 로사보다 더한 괴물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제 3라운드의 출전자는, 프린스 가문의 커피 군과 플라워 가문의 맨 군입니다!”

“제 6라운드의 출전자는, 발리시아 가문의 샤르도나 양과, 헨델 가문의 파르한 군입니다!”

“제 11라운드의 출전자는, 심 가문의 맥 군과, 스윙 가문의 칩 양입니다!”

11라운드의 승자는 이디아 조지아와 사이가 좋지 않을 것 같은 이름의 맥 군이 이겼다. 지금 시간은 12시쯤 됐으려나? 생각보다 대회가 차질 없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다. 4시 전으로는 끝나고도 남을 것 같군.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이디아 조지아는 왜 보이지 않는 걸까 싶어, 마리에게

“마리, 이디아 아가씨는?”

이라고 물어보았더니, 마리가 답해왔다.

“경합에는 출전하지 않으셨어. 다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셔서 말이야. 사실 싸움도 잘 못하시고.”

“아항.”

대회는 출전하고 싶은 부문만 골라서 출전할 수도 있는 모양이다. 레오니드가 그랬지 않은가. 사실 그는 시약 대회만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번 대회 전체를 모두 참여하지 않는 거라지만, 어쨌거나 그렇다고 치자.

루이스도 아직 안 나왔고, 류이도 나오지 않았다. 대기실에서 마법 연습이라도 하고 있으려나? 하며 별 필요 없는 생각에 잠겨 있으려니까, 아도라가 대뜸 내게 물어왔다.

“왜 저희 도련님에 대해서는 안 여쭤보십니까?”

라고.

어이, 잠깐. 아도라, 내가 그걸 왜 물어봐야 해?

“안 궁금하니까.”

“왜 왜 안 궁금하시죠?”

아도라가 심각한 눈빛으로 돌변한다. 안 궁금한 데에도 이유가 있나 !? 글쎄, 이유를 대보라면 뭐라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안 궁금한 것을 어쩌란 말인가.

하지만 지금 아도라의 표정을 보아하니, 너무 직설적으로 ‘그냥 안 궁금하니까 그렇지!’라고 대답했다간 그녀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 같다. 싯포, 마음의 상처! 가 아니라. 그리 판단했기에 나는 최대한 간접적으로 머릿속 생각을 전달했다.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바빠서, 안경잡이 생각을 할 뇌 공간이 없거든.”

별로 간접적이지 않았나? 아도라의 표정이 썩어 들어간다. 헉, 왜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란에 대해 궁금해 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건가? 도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도라가 속상해하는 표정을 짓기에 나는 마리 너머로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병 주고 약 주기.

아도라가 슬그머니 그런 내게,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라고 말해온다. 대체 왜 내가 란 녀석을 생각해줘야 하는 것이고, 또 그래야 아도라가 감사할 거란 것인지 모르겠다. 1도 모르겠다. 코딱지만큼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나는 아도라를 위해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응! 노력할게.”

“감사합니다, 아샤 님.”

“? ??”

중간에서 마리 또한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나와 아도라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을 때쯤, 연무장 중앙에서 사회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제 12라운드의 출전자는-!”

아, 이번엔 누구일까? 우리 셋, 트리오는 시선을 사회자 쪽을 향해 홱 하고 돌린다.

이내 장내의 쫄깃한 분위기를 위해 잠시 뜸을 들이던 사회자의 입이 열리며, 이번에 나오게 될 출전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 호명하는데

“레플리카 가문의 루이스 군, 그리고 헌터 가문의 아처 군입니다!”

“ !?”

으응?

내가 아는 얼굴은 언제쯤 나올까 생각했더니, 역시 양반은 못 되는 인간들인 모양.

뜻밖의 대진표에 입을 딱 벌리기도 잠시, 곧바로 연무장 양끝의 문이 열리며 양쪽에서 그 둘이 모습을 드러낸다. 사방에서 환호소리가 터져 나온다. 지금까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관객들의 함성에, 나와 아도라, 마리들은 손으로 귀를 틀어막기까지 해야 했다.

대체 누구의 인기가 이렇게까지 대단한가 했더니, 그것은

“루이스! 루이스 님-! 꺄아아아악-!”

“루이스! 루이스! 루이스!”

“아처, 아처! 아 ”

“루이스 니이이이임-! 끼야아아!”

“루이스 님, 절 가져주세요! 엉엉엉!”

영애들로 비롯한 압도적인 루이스의 인기였다. 뭐냐, 아처 놈. 불쌍하게 느껴질 만큼 인기가 없잖아? 하긴, 저 평범한 얼굴로 성격은 루이스보다 훨씬 개판이니, 인기가 있을 턱이 없지.

개중에 몇몇이 ‘아처! 아처!’하며 열심히 저 못난 놈을 응원해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대부분이 남자 목소리였다. 게다가 루이스를 향한 응원소리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아니지. 새 발톱 사이에 낀 때 속의 세균만큼도 없는 듯했다.

아처 본인도 그 사실을 파악한 모양인지, 빡치는 감정을 티내지 않기 위해 구겨지는 인상을 다리미질하듯 열심히 펴고 있는 듯한, 그런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저쯤 되면 확실히 안쓰럽다. 응? 뭐가 안쓰럽냐고?

가뜩이나 못생긴 얼굴인데, 루이스 옆에 붙여놓은 걸로도 모자라 표정까지도 저 모양이니까 더 못생겨 보이잖아!

오징어가 자기 동료라고 악수 신청하지 않을까 싶은 수준이라고, 저건.

“그럼, 제 12라운드 시작-!”

그 유명한 루이스의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하나 없이 사회자는 곧바로 시작 선언을 때려버린다. 그와 동시에, 마리가 내 귓가에 소곤거려오는 한마디

“아샤, 저기 보여? 저쪽에.”

“응?”

“레플리카 공작이 와있어.”

"?"

과연, 마리가 가리킨 손가락 끝이자, 황족들의 바로 옆에 마련된 귀빈석에는 루이스와 똑 닮은 금발의 중년 남성이 앉아있었다. 척 보기에도 ‘후훗, 내가 루이스의 아비요 ’라고 써 붙여 놓은 것만 같은 잘생긴 얼굴은 가히 20~30년 뒤의 루이스가 늙었을 때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을 만큼 닮아있었다. 유전자의 신비란.

루이스와 결혼할 여자는 부럽다, 늙어서도 저렇듯 잘생긴 남자와 살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자니, 연무장 중앙에서부터 아처 놈의 분노가 실린 우렁찬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린다.

“플레어 아이즈!”

저놈도 불 속성이었다니. 로사나 아처나, 둘 다 빨간 머리에 다혈질 같아 보이는 얼굴들 아니랄까 봐, 속성까지도 똑같구나.

아처가 루이스를 향해 불 마법을 퍼붓고, 그런 아처의 공격을 아주 가뿐하게 방어막으로써 막아내는 루이스를 지켜보다가 나는 문득 깨달았다.

루이스, 속성이 뭐였지?

"?"

그러고 보니, 물어본 적조차 없잖아! 내가 그동안 주인, 아니 전 주인님께 얼마나 소홀했는가를 뼛속 깊이 깨달아버린 그 순간, 갑자기 루이스가 고개를 돌렸다. 내가 앉아있는 이쪽 방향으로. 아처의 불 마법을 막아내고 있는 저런 위급하고 중요한 순간에 한눈을 팔아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해야 평소대로의 멀쩡한 내 뇌라고 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아니었다.

“어 ?”

방금, 눈이 마주친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인가?

너무 순식간이었기에 뭐라 확신을 못하겠지만, 왠지 나를 본 것 같았다. 내가 이곳에 앉아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어쩌면 나를 본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기분이 이상해. 엄청 이상하다.

루이스의 표정이 평소답지 않게 살벌해진다. 왜 저러지? 아까 전, 영애들을 향해 무서운 미소를 날려 보내던 류이의 표정과는 보다 다른 느낌으로, 지금의 루이스는 정말이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억눌러뒀던 분노를 표출하기라도 하는 사람 같은 얼굴이었다.

저런 표정, 루이스답지 않은데. 늘 평온한 표정으로 평온하게 책만 읽는 책벌레 주인님이 저런 눈빛, 저런 얼굴이라니. 내 투영의 비약과 관련된 일로 저런 표정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기엔 그건 너무 도끼병 같고. 다른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오만 가지 걱정이 다 들어오는 이 때, 연무장 중앙에서 폭발음이 터져 나왔다.

펑-!

“이건-!!!!!”

“와아아아아-!”

그리고 사방에서 환호성도 터져 나왔으니, 영문을 모르는 나만이 벙찐 표정으로 연무장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뭔가 파란색의 커다란 물방울 같은 게 아처 쪽에서 터진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보니 아처가 뻗어있다. 아니, 무슨 짓을 한 거지? 주문을 외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

“굉장합니다-! 최상위 마법 두 개를, 그것도 무언령으로 시전한 루이스 군! 바람 마법과 물 마법으로 강화한 물 감옥 마법이라니, 과연 화력이 굉장합니다. 방어막을 펼칠 틈도 없이 다운 되어버린 아처 군인데요, 자. 카운트 세겠습니다! 3, 2, 1 ! 루이스 레플리카의 승리입니다!”

“우와아아아아아-!”

?

??

사방에서 ‘루이스 레플리카는 천재다!’하는 환호소리를 내지르고 있을 때, 나만이 멍청한 표정으로 검은 망토를 펄럭이며 퇴장하는 루이스의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 마치 루이스가 펑! 하니까 아처가 으억! 하고 쓰러진 것 같았는데.

콧물만 안 흘린다 뿐이지, 동네 모자란 형 같은 표정으로 멍하니 푸른 잔디밭을 응시하고 있으려니까, 앞자리에 앉은 두 부인들의 수다소리가 다시금 들려온다.

“소문은 역시 믿을 게 못 되나 봐. 저런 마법을 무언령으로 레플리카 공작보다 더한 천재인가 본데, 루이스 군은?”

“그러게나 말이야. 게다가 다속성이라니 핏줄은 핏줄이다 이거지.”

감탄 60%, 황당함 40%의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격하게 공감했다. 끄덕끄덕. 1따봉 드릴게요.

한 속성의 마법을 쓰기도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다속성이라니. 정녕 우리의 전 주인님은 이론만 빠삭한 게 아니라 실전까지도 출중한 인물이었구나. 새삼 감탄에 젖어 있으려니까, 다음 선수들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제 13라운드 출전자는, 란 군과 보스토크 가문의 블러디 군입니다!”

“쟤는 가문이 없나? 마법 대학 학생인데?”

“그러게 ?”

드디어 안경잡이 놈 차례인가?

그나저나. 저기요, 앞자리 부인님들! 가문이 없으면 뭐 어때서요! 성씨가 없으면 뭐가 어때서! 흥, 세상 사는 데에 신분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방에서 란의 출신에 대한 궁금증으로 술렁거릴 때, 연무장 양측에서 란과 블러디 군이 걸어 나온다. 란가 놈,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보려니까 좀 봐줄만하네. 가까이서 볼 때는 능글맞고 부담돼서 그런가, 속이 영 메스꺼워지는데. 앞으로도 너는 멀리서만 보면 좋겠다, 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자고 쓰고 다니는 거지?’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뺑글이 안경의 그, 란은 연무장 중앙으로 느긋하게 걸어 나온다.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멀리서 보니까 비율 하나는 끝내준다. 역시 쟤는 가까이에서 보면 안 되겠어. 멀리서 보아야 봐줄만하다, 네가 그렇다.

블러디 군과 20m 거리에서 마주보고 선 계 아니 란. 이내 사회자가 시작 선언을 위해 그들 중앙으로 걸어올 때, 란이 힐끔 고개를 돌린다.

그게 하필이면, 또 우리가 앉아있는 이쪽이었다.

“뭐야, 왜 꼬라보는 거지?”

“그러게요. 아샤 님을 보는 것 같은데요.”

“아샤를?”

“나를?”

“네. 저를 보실 리는 없거든요.”

우리들 중 누군가를 보는 건가 했는데, 아도라의 말을 듣고 보니 진짜로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아니, 그러니까 대체 왜? 불투명한 안경 때문에 가뜩이나 눈알도 안 보이는 녀석인데,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으로 가만히 나를 응시해오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우리 쪽을 향해 쏠려온다.

설마 이런 걸 의도한 건가!? 어그로 끌리는 걸 싫어하는 내게, 쓸데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주기 위해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냐? 이 쓸데없는 자 !

식, 응?

“?”

란이 갑자기 뭐라 손짓을 한다. 뭐지? 수화인가? 나를 향해 입모양을 벙긋거리며 뭐라뭐라 말하는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도무지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에게 중지를 들어 보일까 고민했다. 저놈에게는 내 중지조차 아깝긴 하다만.

그런 내게, 아도라가 넌지시 말해온다.

“‘인형’가지고 왔냐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엥? 인형? 웬 인형, 아 ”

아, 그 곰 인형!? 그러고 보니까, 어제 메이드들이 캐리어를 쌀 때 거기다 넣어준 것 같았는데. 류이의 방에다 짐을 풀었을 때, 그 인형을 어디다 뒀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뒀던가? 아니면 류이 방의 서랍장 위에 올려뒀던가. 확실히 그 방 어딘가에 두긴 뒀는데, 여기에 갖고 오진 않았다.

“방에 잘 모셔놨는데?”

“아, 그럼 ”

아도라가 말끝을 흐리며 란 쪽을 힐끔 본다. 방금 내가 한 말을 저 먼 거리에서 대체 무슨 수로 들은 건지, 란 놈의 표정이 살벌해져있다. 오늘 무슨 살벌 파티니? 류이나 너나 루이스나, 죄다 그런 표정이나 짓게!

“그럼, 지금부터 제 13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시작 선언이 울렸는데, 란은 여전히 나를 빤히 응시하고 있다. 그런 덕분에 이곳에 모인 상당수 관객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해오고 있어. 하다못해 약 100m는 떨어진 위치인 저 멀리의 황족들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으아아아! 대체 왜 저러냐고, 저 인간!

“뭐, 뭐라는 거야, 또 !?”

연무장 중앙에 서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하게 쏟아지는 사방의 시선들 때문에 몸 둘 바를 몰라 머릿속이 새하얘지려는 그때, 란 놈이 또 입을 뭐라 벙긋거린다.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 끊어지려는 정신줄을 간신히 붙잡고 그의 입모양을 빤히 쳐다보니

“내가, 늘, 가지고, 다니랬지 뭐?”

그랬었나? 한 시도 떼놓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 한 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무 때나 어느 장소에서든 품에 끼고 돌아다니란 소리였어? 아, 그런 거였냐?

얌마-! 그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내가 무슨 만화 속 조연이야? ‘인형을 끌어안고 다니는 이상한 여자애’같은 코스프레를 어떻게 하고 다니냐고! 가뜩이나 사방에 넘쳐나는 게 내 흑역산데, 거기다 더 추가하라는 소리나 하고 자빠졌어 아주!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흥, 엿이나 먹어라!”

아까 전에 날리지 않았던 뻑큐를 지금에서야 날려주었다. 나의 쌔끈하고 아름다운 중지를 본 안경잡이가 갑자기 씨익 미소 짓는다. 뭐야, 저 음흉한 미소는. 하지만 네놈이 음흉했던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니, 이제는 두렵지 않다. 어디 한 번 발악해보시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됐었다. 절대로 말이다.

“자리에 가만히 서서 아무 공격 태세도 취하지 않는 란 군! 방어막도 치지 않은 모습인데요 어어? 경기를 포기하려는 심산인 걸까요? 블러디 군, 주문을 욉니다!”

“윈드 토네이도!”

“블러디 군이 날린 마법이 란 군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대로면 토네이도에 휩쓸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아아, 방어막을 치지 않는 란 군. 과연 이대로 어떻게 될 것 인가!?!? 저게 뭐죠!?”

깜짝!

사회자가 까무러칠 듯 소리치는 바람에, 나까지도 크게 놀라버렸다. 비단 저 소리에 놀란 건 나만이 아닐 듯. 증폭한 목소리로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 어떡해! 라고 고래고래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으나, 그 마음은 금세 다른 충격적인 광경으로 인해 사르르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블러디 군의 토, 토네이도가 란 군의 손짓 한 번에 막혔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거죠? 방어막도 치지 않았는데, 아무런 마법도 쓰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무언령 마법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

“아앗, 갑자기 블러디 군, 무릎을 꿇었습니다! 뭘까요? 경기를 포기하려는 걸까요?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

“아, 아닙니다!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꿇려진’ 것 같군요!”

사회자들의 말에, 사방에서 환호소리보다는 경악에 가까운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정말로 연무장 중앙에서는 블러디 군이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도 자발적으로 꿇은 게 아니라, 온몸을 부들거리며 필사적으로 저항 중인 모습이었다.

지금 상황에서 연무장을 가득 메우는 말소리들 중 제일 듣기 흔했던 것은, 바로 ‘란이라고 했나? 저 녀석, 대체 어느 가문 마법사야!’하는 얘기들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스테리한 이미지로 가득한 그, 란이었기에 지금의 분위기에 더욱 불을 지펴버린 것 같다. 솔직히 나도 놀랐어. 란에게 저런 마법 실력이 있었다니. 네가 무슨 라이야? ‘꿇어라,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같은 거야?

“저, 정신 지배 마법이라니요. 순도가 높고 방대한 마나량을 지닌 마법사가 아니라면 시전이 불가능한 그 마법을, 란 군이!”

“아, 마법 대학 역사상 정신 지배 마법을 마법 경합 도중에 쓰는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10년 간 사회를 봐온 저조차도 처음 보는 광경이군요.”

“굉장합니다. 블러디 군, 자리에서 일어서질 못하는데요. 행동 불능 상태로 간주하여 카운트 세겠습니다. 3, 2, 1 란 군의 승리입니다!”

끝내 블러디 군은 일어서지 못했다.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칠 때마다 그의 온몸에서 파지직! 파직! 거리며 번개가 튀는 듯한 이펙트가 보였는데, 그럴 때마다 블러디 군의 몸에도 영향이 가해지는 모양. 꽤 고통스러운 듯 발버둥치기를 포기한 블러디 군이, 종료 선언이 울려 퍼지기가 무섭게 뒤로 주저앉아버린다.

그와는 반대로 지금까지 자리에 앉아있었던 황제는 란이 정신 지배 마법을 선보이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금까지도 환희를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녀석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 저기서 얼굴에 손바닥을 대며 ‘어머, 어머!’하는 대사를 내뱉어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다.

이전 라운드에서는 승리자를 향한 환호가 빠지지 않았지만, 지금만큼은 아무도 ‘우와아아아! 란! 란!’하는 소리를 외치지 않는다. 그야, 란이 누구인지, 어느 가문 사람인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므로.

대체 뭐하는 인간일까, 저건. 분명 란이 이겼지만 그닥 기뻐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초조한 안색으로 연무장을 지켜보고 있는 아도라를 쳐다보았다. 란에 대해 물어볼까 생각해보았으나, 그냥 포기했다. 왠지 그런 물음은 아도라를 곤란하게 만들 것 같아서 말이다.

대회는 쭉쭉 진행되어, 류이의 차례까지 왔다.

그의 차례가 왔을 때에는 내 귓속 고막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영애들이 조신함이나 품위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어찌나 장내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대는지, 경합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너무나도 시끄러워 귀를 막고 있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인지 몹시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검은색 가죽 장갑을 손에 끼고 출전한 그, 류이는

원 펀치로 방어막을 깨버림과 동시에 배에 일격을 꽂아버려, 순식간에 상대방을 넉 다운 시켜버렸다. 그게 끝이었다. 주문을 외고 자시고도 없었기에, 나는 저 인간이 과연 마법 대학에 온 것인지, 역사 대학에 온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나만 헷갈린 건 아닐 것 같다.

그리고는 장갑을 벗으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자리의 수십 수백의 여성들―황녀를 포함한―이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뒤로 넘어가는 광경 또한 지켜보았다. 개중에는 코피가 터진 여성도 있는 듯, 다급히 하인들이 손수건을 꺼내어 주인의 코를 닦아주는 풍경도 흔히 볼 수 있었다.

이후 진행된 24강에서는 루이스와 칸 쵸가 붙었다. 결과는 루이스의 압승. 란은 맥 심과 겨뤄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괴랄한 공격 마법 솜씨를 보여주었고―관객석으로 돌아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처의 경악한 표정이 압권이었다―, 류이는 샤르도나라는 이름의 루이스 추종자인 똥파리와 겨뤄서 가뿐하게 승리를 거머쥐었다.

특히 그는 이 라운드에서 자신만만하게 웃던 샤르도나를 향해 ‘여자라고 때리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야’라는 명언을 남기는데. 그러나 그런 대사를 치는 모습조차도 아름답다며 혼절한 여성들이 다수

12강에서는 루이스와 류이가 붙게 되었다. 결과는 류이의 승이었다. 나는 류이를 비실비실하게 생긴 기생오라비 스타일이라 생각했는데, 루이스가 날린 ‘운석인가?’싶은 크기의 암석을 단 주먹 한대로 깨버리는 것을 보며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

그는 생긴 것만 하모 씨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주인공을 닮았지, 힘은 어느 대머리 히어로와 흡사한 수준이었던 것. 자그마치 15겹이나 친 루이스의 최상위 방어막을 마법으로 강화한 주먹으로 툭툭 치며 깨버리는 류이를 보며, 나는 왜 저 인간이 차기 류 제국 황제위의 유력 후보인지를 실감했다.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는 루이스가 류이에게 일격을 얻어맞은 뒤 경합을 포기하고 인상을 찡그리며 퇴장하는데, 그런 그의 모습에 몹시 마음이 아렸다. 왜인지는 모르겠다. 이전 주인님과의 추억이라던가, 또는 그리움 같은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지금 주인인 류이가 이겼는데도 기분이 전혀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내가 더 짜증났다. 크흑.

6강에서는 류이와 란이 비교적 만만한 상대를 만나 무난하게 이겼다. 그리고 그 다음인 본선에서는 란이 부전승이었고―란이 여기까지 올라올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류이와 로사가 붙었다.

결과는 역시 류이의 승이었다. 여자도 때릴 수 있다고 말했던 그답게, 맹렬한 기세로 불 마법을 퍼붓는 로사의 사이로 파고들어가 끝끝내 헥토파스칼 킥을 날려버린 것. 역시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마법만 퍼붓는 마법사보다는 힘과 민첩 스탯까지 만땅으로 찍은 마법사가 더 유리한 모양이다. 대세는 하이브리드 마법사인가. 간달프 할아버지는 옳았어.

허리에 강력한 킥이 꽂혀 연무장 끝까지 날아가버린 로사는 경기를 포기했다. 깔끔하게 패배한 부상 투성이의 로사는 대회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퇴장했고, 마지막 본선은 예상대로 그 둘.

란과 류이였다.

“어떻게 끝내드릴까요, 황자님?”

란이 도발적으로 물었을 때, 그, 류이는 이리 대답했다.

“네가 끝낼 수는 있어?”

라고.

그리고, 그들의 위풍당당한 호언장담은 허풍 따위가 아니었다.

본선의 제한시간은 한 시간이었는데, 자그마치 그 둘은 한 시간이나 싸우고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란 녀석은 은근히 민첩 스탯을 많이 올린 듯 류이의 공격을 곧잘 피했는데, 거기다 마법까지 무언령으로 미친 듯이 퍼부었고, 그런 마법을 피하면서 쉬지 않고 공격을 계속하는 류이는 마법 실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체력이 사람 수준이 아니었다. 그래서 끝이 나지 않았던 것.

무슨 닌자 대전이라도 보는 줄 알았다. 마다라와 츠나데의 싸움이냐? 하

“오늘의 본선은 정말이지 역대급이군요 떠오르는 신인 대마법사, 란 군의 등장인 걸까요. 작년 경합의 우승자였던 유이 군조차 꺾지 못한 뛰어난 마법 실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솜씨를 보여주었으나, 실력이 비등한 관계로 결국 승부는 나지 않았군요. 아쉽게도 ”

결국 둘의 경합을 종료시킨 후, 사회자가 오늘의 경합을 마무리하는 멘트를 칠 때, 나는 부처가 된 기분으로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역시 저들은 어지간히 잘난 놈이 아니야, 라고.

루이스는 류이로 인해 탈락해버렸다지만, 그래도 상성이 좋지 않았을 뿐이지 마법 실력으로 따지자면 란과 비등했을 것 같다. 책벌레답게 체술이 부족했을 뿐.

내가 정한 기준인 잘난 놈의 축에 언제부터 란 녀석이 끼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왜 내 주변엔 저런 괴물들밖에 없지? 도대체 왜!?

“그럼, 오늘의 본선 진출자였던 두 분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이 군?”

경합을 끝내기에 앞서, 본선 진출자들의 인터뷰도 하나 보다. 내 주변인들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건 잠시 뒤로 미뤄두고, 연무장 중앙의 류이를 내려다보았다. 증폭 마법으로 커진 류이의 목소리가 장내를 울린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지금까지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응원해줘서 고마워. 우승은 못했지만, 네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라는데. 어, 그렇구나. 잘 들었

“응?”

“어?”

"?"

옆에서 마리와 아도라가 놀란 토끼눈으로 나를 쳐다봐온다. 그제야 나는 류이가 나를 바라보며 저 멘트를 쳤음을 깨달았다.

? 갸아아악-! 뭐하는 짓이야!?

류이의 시선 끝이 나를 향해 와있음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아까처럼 또 나를 쳐다봐온다. 안 돼! 보지 마! 나 좀 쳐다보지 말라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황녀도 나 노려보잖아.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류이-!!!

“으아아아 !”

민망함을 견디지 못해 고개를 푹 숙여버리려니까, 돌아가는 장내의 분위기가 폭발하기 직전인 질투라는 이름의 화산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은 사회자가 다급히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란에게로 다가간다.

류이 저 인간, 나름 배려해준답시고 내 이름을 부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말하면서 나를 쳐다보면 어떡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눈치 못 채냐고, 그러면!

흐엉엉엉!

“나는 망했어 내 인생은 틀렸어 ”

“아샤-!”

"?"

쪽팔림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으려니까, 이번에는 누가 나를 부른다. 내 이름 두 글자가 장내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기에,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그리고 옆에 앉은 마리와 아도라를 쳐다보았더니, 그녀들은 입을 헤벌린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뭐지? 얘네가 부른 게 아닌 것 같은

“드에에엑-!?”

뭐, 뭐하는 거야, 저 자식!

연무장 중앙에서 나를 향해 선 채로 마구 손을 흔들고 있는 란을 쳐다보며, 나는 마리와 아도라가 짓고 있는 표정과 똑같이 되어버린다. 헤에 가 아니라, 저건 또 뭐하자는 거야. 무슨 속셈이야?

“아, 여자친구인가요?”

저기요, 사회자 씨. 농약이라도 드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죠? 란을 향한 황당한 물음에 내가 극구 부인하듯 마구 손사래를 쳐대는데, 그런 나를 쳐다보며 란이 싱긋 미소 지었다. 안 돼. 그러지 마. 불안하게 그러지

“제 약혼녀입니다.”

말라고, 좀─!!!!!

아니, 진짜 미쳤어? 미쳐버린 거야? 원래도 네가 그런 인간인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를 포함해서 너까지 엿을 먹여버리는 건 무슨 생각에서니?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야? 자폭하는 취미라도 있어, 응? 너 데이다라야? 아니면 물귀신이야? 그런 거야!?

연무장 중앙에서 류이가 황당하다는 눈빛으로 란을 쳐다보고 있을 때, 내 쪽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다.

“아, 아샤 진짜야?”

“언제 약혼까지 하셨습니까?”

“안했어!”

마리와 아도라가 몰랐다는 듯 진지하게 물어오기에, 나는 버럭! 하듯 소리쳐 대답했다. 내가 저놈이랑 약혼 같은 걸 할 리가 없잖아! 미쳤다고 하겠니!

란의 폭탄 같은 발언으로 인해 주변 곳곳에서 놀란 목소리들이 터져 나온다. 개중에는 ‘쟤, 천민이라지 않았나?’하는 말과, ‘어제 봤던 그 투영의 비약, 걔잖아!’라는 말, 또는 ‘루이스의 조수 아닌가?’등등이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를 귓등으로도 안 듣는 듯한 란이, 나를 향해 방긋 웃어왔다. 가지런하고 새하얀 치아까지 보일 정도로 너무 빵긋 웃는 바람에, 내 입술 사이로는 ‘미친 ’이라는 말이 절로 새어나왔다. 누가 보면 진짜 약혼자인 줄 알겠는데?

“내가 준 증표, 잘 가지고 다니랬잖아.”

!

나를 향해 건네 오는 저 말을 들으며, 이제야 나는 저놈이 왜 저러는지를 깨달았다. 그래 그 곰 인형 때문이다 이거지? 복수다 이거지!?

나는 란을 향해 마찬가지로 활짝 웃어 보였다. 사람들이 ‘약혼했다는 게 진짜인가 봐. 둘 다 가문이 없는데, 둘 다 천민인가?’ 또는 ‘그럼 천민 커플이야?’하는 농담 섞인 말들을 하고 있을 때, 나도 란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며 슬며시 양손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그를 향해 날려 보냈다. 쌍뻑큐.

“즐쳐드셈.”

짓궂은 사회자들이 언제 걸어놓은 것인지 모를 마법으로 인해, 나의 그 한마디는 엄청나게 증폭되어 커다랗고 생생하고 또렷하게 장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이어서 벙찐 표정으로 관객들이 나를 쳐다봐오는 시선이 온몸으로 느껴질 때, 나는 곧바로 훌륭한 판단을 내렸다.

자살하자. 답은 그것뿐이야.

만인의 앞에서 그 경악스런 흑역사를 만들고도 용케 숨이 끊어지지 않은 나, 아샤. 기실 쪽팔린다는 이유로 자살을 하기엔, 나는 그럴 필요가 없는 인물이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고 했던가? 누구냐, 그런 말을 한 사람. 내 앞으로 대령해온다면 곤장으로 엉덩이 백 대를 때려버리겠다.

끔찍했던 경합 날이 지나고 나니, 다음날이 오기는 왔다. 하지만 오늘은 바로 조수들의 대회가 열리는 날이자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날이 아니겠는가. 아아, 끔찍해라.

어제의 흑역사는 둘째 치고, 막상 파티 당일이 되니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이틀간 하도 멀쩡해서 이제는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동네 슈퍼에 과자 사러 나들이 가는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역시 그것까진 아닌가 봐.

이렇게 눈 뜨기 싫은 아침은 정말 오랜만이다. 몹시 눈을 뜨기 싫었는데, 창밖의 햇살이 ‘굿모닝- 오늘은 네가 저승에 가는 날이야!’라고 인사하며 두둥실 떠오르는 바람에 눈이 부셔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앞날은 우중충한데, 넌 왜 그렇게 쓸데없이 밝은 거니? 사람 놀리는 거야? 못된 녀석 같으니라고.

“ 류, 응?”

옆을 흘끔 돌아보니 우리의 황자님께서는 아직도 주무시고 계셨다. 완벽할 것 같이 생긴 저 외모에, 의외롭게도 늦잠인가. 하긴, 어제의 경합에서 그렇게 날뛰어댔으니 피곤할 만도 하지. 그를 깨우지 않게 조용히 일어나야겠다 마음먹고 이불을 걷었다. 조수들의 대회에 학생들은 굳이 참여할 의무가 없으니까.

대회 시작은 1시부터랬던가? 파티 시작은 4시부터이니, 그 사이의 세 시간동안 요리 대회가 진행되는 모양. 지난 몇 주간 백X원도 인정할 만큼 갈고 닦은 나의 요리 솜씨를 보여주려면 슬슬 일어나서 준비해야겠다. 고개를 돌려 벽면의 금테로 장식된 고급 시계―오X워치를 뜻하는 게 아니다―를 쳐다보니 시간은 10시였다. 한 시간 씻고, 한 시간 밥 먹고, 한 시간 동안 옷을 입는대도 여유롭겠군.

“진 님, 칸 님- 거기 있죠?”

허공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손을 들고 흔들어보였다. 나와라, 요술램프 지니 가 아니라 진, 칸!

아니나 다를까 류이의 호위 기사 중 한명이 스르르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데 진과 칸은 아니었다.

“제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이고, 무슨 인사가 이렇게나 우렁차? 아침부터!

“쉿! 류이 님 깨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이가 낮춘 목소리로 내게 사과해온다. 사과까진 할 필요 없다는 뜻으로 그에게 손사래를 쳐 보인 나는, 침대에서 스멀스멀 일어나 기지개를 쭉 펴준 뒤 그를 향해 물었다.

“진이랑 칸 님은요?”

“새벽 네 시쯤에 교대하고 쉬러 가셨습니다.”

“아하.”

류이가 자는 동안 밤새도록 곁에 서서 보초를 서는 거라면 대체 잠은 언제 자나 생각했었는데, 그 비결은 교대 근무에 있었군. 이제야 알았다, 끄덕.

그들을 찾은 이유는 혹시 모를 오늘을 대비해 내 호위를 서줄 수 없겠냐고 물어보려 함이었다. 류이는 저녁의 파티 때가 아니라면 기숙사에서 나오지 않아도 될 테니까.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너무 주제 넘는 짓인 것 같아, 나는 그 생각을 접어버렸다. 한낱 천민한테 귀족 마법사의 호위라니, 도라에몽이 부엌칼로 월아천충을 쓰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나가시려고요?”

“네. 한 시부터 조수들만이 참여하는 대회가 있거든요. 제가 거길 나가기로 해서.”

“어? 하지만, 오늘은 아샤 님한테 위험한 날 아니었습니까? 기숙사 안에만 있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 ”

제이가 말끝을 흐리며 하는 말에, 나는 ‘어라? 듣고 보니 그렇네?’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하지만 투영의 비약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미래를 보여주는 거라며? 그렇다면 내가 류이의 기숙사에서 바깥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뻐팅기고 있는다 해도 죽을 거란 소리지 않은가.

여기서 잠시 설명충 짓을 해보자면, 나도 야벨에 대해 알아본 바가 있다. 란 녀석은 뭔가 아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노아 이즈하가 범인이야!’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생X정보통급인 스피드 웨건 마리에게 그들에 대해 물어보니 ‘그들은 아디티 출신답게 엄청 강한 마법사들이야. 총 인원은 백 명 정도로 아는데, 그 중에 열 명만 나서도 왕국 하나를 멸망시키는 건 일도 아닐 걸?’이라는 대답만이 돌아왔었다. 그들과 나의 연관성을 티끌만큼도 찾지 못하는 눈치였던 것.

일단 그녀가 말한 야벨에 대한 설명이 영 허황된 소리라고만 느껴지지는 않는 것이, ‘마법사의 역사’라는 어떤 유명한 대마법사 할아버지가 쓴 책에도 이런 문장이 있다. ‘프란치아 마법사 백 명을 갖다 붙인대도 아디티 마법사 하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정작 그 할아버지가 프란치아 제국민이었기에 책을 출판한 후 욕을 오지게 많이 들어먹긴 했지만, 난 그게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디티는 마법사의 숫자가 적고, 프란치아는 많기 때문에 그나마 비슷한 국력일 수 있는 거지, 아니었다면 진즉에 아디티가 온 세계를 휩쓸어버리고도 남았을 거란 의견들이 마법학계에서는 흔히 나오는 얘기니까.

어쨌거나 란 놈의 출처 모를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런 무지막지한 힘을 지닌 용병 집단이 정말로 나를 노리고 있다면, 내가 그들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는 0%라고 본다. 절망, 비참, 좌절이란 단어는 이럴 때에나 쓰는 건가.

그러니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결과는 똑같을 거라면, 차라리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대다가 죽자. 음- 현명한 생각이야.

응? 너무 삶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냐고? 목숨이 아깝지도 않느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느냐고? 이봐, 질문은 하나만 해.

물론 류이와 란을 비롯한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는 거, 잘 알고 있다. 그 다정한 인물인 루이스조차 일부러 나를 무시하면서까지 거리를 두고 외면하고, 어제처럼 내내 나를 신경 쓰느라―추측이지만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한다―인상까지 찡그린 채 대회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던 것도 기억한다. 게다가 마리와 아도라도 내가 죽는다면 몹시, 아주 많이 슬퍼할 테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그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살아남고 싶지는 않은 걸. 소중한 내 친구들에게는 정말 많이 미안하지만, 나는 죽어줘야겠다. 그들에게.

그게 진짜 답이야. 아니면 지금 자살하던가.

이쯤 되면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며 옷을 갈아입으려고 협탁 위에 차곡차곡 개어 놓아뒀던 조수 유니폼을 챙기는데, 밖이 좀 소란스럽다. 뭔가 쇠로 만들어진 무언가가 부딪치는 소리들이 자꾸만 귓가를 거슬리게 해, 나는 슬그머니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응? 마법 대학 정원에 웬 병사들이 잔뜩 깔려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저게 다 뭐지. 바둑판인가? 싶을 정도로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맞춰선 채 대장 정도로 추정되는 중앙의 남자에게 무언가 지시를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

외부 손님들을 들이는 어제와 그저께와는 달리, 오늘 하루는 대학 내부의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는 파티이므로 외부 손님들이 바글거릴 일도 없다. 그런데 대체 저 수많은 병력들은 무엇? 게다가 갑옷이 살짝 이상한데? 프란치아 병사 맞아, 저거?

“제이 님, 잠깐만 이리 와 봐요.”

“네.”

“저 병사들은 다 뭐죠?”

내 곁에 다가온 제이가 나와 함께 창밖을 슬쩍 내다보는데, 바깥의 이백 명은 족히 넘을 병사 무리들을 본 제이가 말했다.

“류 제국의 황실 최정예 역사군단이에요. 이제 막 도착했나보네요.”

“아, 어쩐지 옷이 다르더라. 류 제국 병사들이었군요 는, 저 사람들이 여긴 왜요?”

아, 혹시 류이의 호위를 위해 온 건가?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이백 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많은 것 같다. 게다가 진이나 칸 같은 엘리트―가 맞는지 의심스럽지만―호위 기사들만 해도 열 명 넘게 딸린 류이가 아니던가. 대회도 이제 막 마지막인 삼일 차에 접어드는 이런 때에, 저만큼 많은 호위 병력이 필요한 일이 뭐가 있지? 모르겠다.

같은 생각을 하며 바깥을 뚫어져라 내려다보자니, 옆에서 제이가 당연하지 않느냐는 표정으로 나를 멀뚱히 쳐다보더니 답하길,

“당연히 아샤 님의 호위로 온 거죠.”

라는 데라고? 아니, 뭐라고!

“제, 제 호위를 왜요!?”

“오늘이 제일 위험한 고비잖아요. 저도 그 때 대회장에서 봤는걸요. 투영의 비약을 마시고 변신한 모습.”

“아니, 저도 그건 아는데 제 목숨이 위험한 거랑 저 병사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류 제국이랑은 도대체 무슨 상관?”

“상관 많죠. 그거야 ”

제이가 또 말끝을 흐린다. 내 또래의 나이로 추정되는 앳된 얼굴의 제이는 귀여운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잠시 턱을 매만지며 고민하는 척을 하는가 싶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대답을 내놓았다.

“미래의 류 제국 황후가 될지도 모를 분이시니까요?”

이런 미친?

“죽어요, 죽어! 진이랑 같이 죽어!”

“아앗, 때리지 마세요!”

너나 진이나, 이놈의 주둥이가 웬수지! 진을 베개로 구타할 적처럼 진심을 담은 진심꿀밤을 제이의 이마에 마구 먹여주고 있자니, 그 소리가 너무 컸나보다. 옆에서 류이가 부스스 일어나는 게 아닌가. 헉, 안 깨우고 나가려 했는데!

10시간을 넘게 잤는데도 얼굴이 눈곱만큼도 붓지 않은 류이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한다. 뭐지, 잠 덜 깼나? 저대로 다시 누워서 자버리면 좋겠

“아샤?”

같은 일은 역시 개뿔도 일어나지 않는군, 망할.

사실 내가 류이를 깨우지 않고 나가려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류이의 성격대로라면,

“아, 맞다. 오늘 조수들 대회가 있는 날이구나.”

“ 왜 일어나세요?”

“나도 가야지. 네가 출전하는 날인데.”

그래, 저럴 것 같아서 그런 거였다. 류이가 주섬주섬 이불을 걷고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입을 스르르 벌렸다. 이런 젠장,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인생 아니랄까봐 마지막 날까지도 되는 일이 없잖아?

한 번쯤은 계획대로 딱딱 진행돼줄 법도 하건만. 아무래도 나란 인물은 환생하기 전에 신이라는 인간이 애지중지 기른 콧수염을 바리깡으로 싹 밀어버리고 온 게 아닌가 싶다. 하

울고 싶어지는 마음을 달래며, 조수 유니폼을 품에 꼬옥 안은 채 나는 류이에게 말했다.

“그냥 더 주무셔도 돼요, 황자님 ”

“아냐, 괜찮아. 다 잤어.”

그렇게 말하면서 하품은 왜 하니?

부탁이니까 그냥 더 주무세요! 라고 소리칠 수도 없고. 황자 본인이 일어나겠다는데 천민이자 노예이자 조수인 내가 뭘 어찌 말리겠는가. 신에게 단단히 미움을 사버린 것 같다고 오열하는 내 속마음을 달래주고 있자니, 류이가 씻으려는 듯 욕실에 들어가려다 말고 멈칫한다. 욕실에 반쯤 들어간 그가, 고개를 뒤로 빼꼼- 하듯 내밀며 나를 쳐다보는데.

뭐야, 갑자기? 그렇게 귀여움 포텐 터지는 자세로 바라보면 나더러 뭘 어쩌란

“아샤는 막 일어난 모습도 예쁘네.”

류이가 살포시 미소 짓더니 수줍은 듯 저리 말하고는 욕실로 쏙 들어가 버린다.

“아 ?”

이제야 이해했다. 너의 의도.

방금 전 그 한마디가, 내 귀에는 ‘아샤의 심장은 하야하라!’로 들렸어.

“지금 여기서 죽으라는 거군.”

“어, 왜 죽어요? 왜, 왜요? 아샤 님!”

왜긴 왜야, 심장이 파면당해서지.

혼절하듯 스르르 몸이 뒤로 넘어가는 나를 제이가 붙잡는다. 지그시 눈을 감으며 죽은 척을 하자, 엉거주춤한 자세로 나를 붙잡아 부축한 제이가 ‘엉엉! 아샤 님이 죽었어!’라며 질질 짜는 소리를 낸다.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모를 제이의 울부짖음에 보답하듯, 나는 그에게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흉내 내어 속삭였다.

“내 비석에는 부디 ‘범인은 류이’라고 적어주길 바라요.”

“안 돼요, 그건. 불경죄라구요!”

그래도 사리 분별은 하네? 쳇, 아깝게 됐어.

세 시간은 엉덩이에 불이라도 붙은 듯 쏜살같이 지나갔다. 씻고 옷 입고, 제이에게서 체스를 배우다가 기숙사에서 푸짐한 점심 식사까지 배 터지게 먹고 나니 시간은 어느덧 12시 40분.

오늘 몇 시쯤에 습격을 당하게 될지는 모르겠다만, 죽음으로 가까워져가고 있다는 느낌이 슬금슬금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나도 사람인지라 조금씩 두려워지고 조급해져가던 중, 그런 낌새를 알아차린 모양인지 류이가 이런 말을 해왔다.

“오늘 하루는 내 옆에 꼭 붙어있어, 아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줄 테니까.”

그 말을 들은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기억은, 바로 란이 했던 한마디였다. 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줄게’라고 했던 거 말이다.

문득 의문인 게, 이 남자들의 ‘무슨 수’란 대체 무엇일까? 어떤 수들일까? 짐작이 전혀 안 간다. 이X돌과 알파고도 아니고, 수는 무슨 수.

그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나를 구하려 들지에 대해 생각해보던 나. 그런데 어느새 정신을 차려 보니 내 몸뚱이는 대회장인 조리실 앞에 와있었다. 그것도 란이 준 곰 인형을 품에 껴안은 채로 말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나를 힐끔거리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그래, 그런 걸 거야 는 무슨, 어우 쪽팔려.

“아샤!”

“아? 아샤 님, 오셨습니까.”

대회장인 조리실 앞은 과연 조수들로 북적북적했다. 그 북적거리는 인파들 중에는 역시나 마리와 아도라도 껴있었다. 조리실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녀들에게 손을 들어 반갑다는 인사를 해 보이려는데, 갑자기 내 옆을 무언가가 팍! 하고 치며 지나갔다. 이내 그 뒤를 이어 몇 명이 더 밀치며 지나가는 게 아닌가. 으악! 뭐야, 알리스타인가? 소환사의 협곡에 있어야 할 애들이 여긴 왜!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보니, 내 뒤를 따라오던 누군가에게 잔뜩 들러붙은 똥파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여기서 ‘그’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류이다 허, 참. 또 이런 상황이야? 진짜 지겹지도 않나.

“유이 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혹시 저 보러 ”

“유이 님, 어제 경합에서 완전 멋지셨어요!”

“꺅, 유이 님!?”

“유이 니이임-!”

저저 간드러지는 목소리 좀 보게. 이제 막 조리실 입구에 도착했을 뿐인데, 류이를 발견한 여자 조수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 그의 사방을 둘러싸버린다. 덕분에 짜증 반, 난처함 반이 섞인 얼굴이 되어버리는 류이. 어휴, 저렇게 못살게 구니까, 흡연도 으슥한 골목길에서 남몰래 하는 게 아니겠는가.

보다 못한 내가 그녀들 사이에 끼어들어 말려보려는데, 그녀들 중 검은머리를 한 어느 조수가 ‘뭐야, 이 미친년은? 저리 꺼져!’하는 눈빛으로 노려봐왔다. 헉, 이건 마치 열흘 굶은 사자의 눈빛인데. 일단은 물러서자. 아니, 그런데 왜 날 저런 눈빛으로 보는 거지?

아, 그러고 보니 나 지금 란이 준 곰 인형 들고 있었구나. 미친년으로 보일 법도 하군. 인정한다.

그나저나 이 짬짜면 같은 애는 대체 뭘까? 검은 머리의 생김새를 요모조모 뜯어보니, 얼굴은 프란치아인인데 머리카락만 까맸다. 보아하니 얘도 사생팬인 모양이다.

“도와드릴까요, 아샤 님?”

“도와줄까, 아샤!?”

한심한 이들이 펼치고 있는 한심한 광경에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자니, 뒤에서 마리와 아도라가 물어온다. 학생들 상대였다면 그녀들도 몸을 사려야 했겠으나, 지금만큼은 동등한 신분의 조수들 상대인지라 무서울 게 없는 모양.

나는 천민 신분의 조수라 함부로 설치긴 좀 그렇다만. 가운데에 끼어 확 밀쳐버리지도 못하고, 곱게 말로 ‘저리 비켜’라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조수들 사이에서 쩔쩔매는 류이의 상태를 바라보자니 음. 답은 나왔다. 곤경에 빠진 주인님을 구하지 않는 조수라니, 이 얼마나 졸렬한가. 그런 얍삽한 인물이 되고 싶지는 않아!

“가자, 제군들!”

“으응!”

"!"

대회 시작을 앞두고서, 류이 공주님(?)을 구하기 위해 다 같이 몸을 날린 우리의 여전사들.

“저기요, 저리 좀 비키세요. 지나가시질 못하시잖아요.”

“황자님 좀 그만 괴롭혀요, 다들!”

“그래, 이 얼간이들 이 아니라, 아가씨들아!”

셋이 일심동체로 한 명을 붙잡은 뒤, 류이에게서 떼어내어 뒤로 홀랑 밀어내버린다. 이 작업을 열 번쯤 반복하니 그의 곁은 깨끗해졌다. 대신,

“너넨 뭐야?”

“왜 방해질이야! 잠깐, 너 그 천민 아니야? 아샤라고 했나?”

“노예 따위가 어딜 감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씩씩거리며 잔뜩 성난 채 우리들을 노려보고 있는 열 명의 안티 팬 군단이 형성되었다. 어라? 이런 상황까진 예상 못했는데. 그나저나 니가 누구면 뭐, 도지사라도 되냐?

헛, 잠깐만. 물론 도지사는커녕 군수조차도 아닌 일개 영애이자 조수일 뿐이라는 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귀족은 귀족. 나야 뭐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막장 인생이라지만, 아도라와 마리는 아니지 않은가. 엄연히 잘 나가는―내 기준에서―가문의 영애인 데다가 나중에 훌륭한 가문에 시집도 가야할 그녀들이다. 그러니 이런 데서 가문의 이름에 똥칠을 하게 내버려둘 순 없어.

똥칠당하는 건 내 이름 두 글자뿐이다!

“마리, 아도라. 뒤로 물러서있어.”

폭.풍.간.지. 나는 그녀들을 뒤로 밀어 보내고 앞으로 나섰다. 후우 폭발하라 현실이여, 터져라 시냅 ! 아, 이게 아니라.

“황자님이 싫어하시잖아요. 눈은 장식이세요?”

나는 배짱 좋게 열 명, 아니, 머리통 세 보니까 열한 명이군. 열한 명의 그녀들에게 돌직구를 날렸다. 아무도 그 돌직구를 피하지 못한 듯, 정면으로 얼굴에 맞아버린 사람마냥 벙찐 표정을 짓는다. 호오, 그 표정 아주 마음에 듭니다만?

이내 매우 당연하게도, 그녀들의 얼굴은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리는 느낌으로 돌변했다.

“뭐, 뭐야?”

“너 지금 말 다했어!?”

“못 배워먹은 천민 계집 아니랄까봐, 말하는 본새 하곤 ”

내 말에 다들 울컥! 하듯 분노 표출을 위한 엑스트라용 대사를 내뱉는데, 그 와중에 내 심기를 거스르는 한마디가 끼어있었다. 응? 저 대사는 엑스트라 급이 아닌데?

그 말을 뱉은 인물은 바로 아까 전에 나를 노려보았던 까만 머리카락이었다. 내가 움찔하는 걸 보더니, 기집애는 자신의 공격이 훌륭하게 먹혀들었다는 것을 파악한 듯 입꼬리를 스윽 끌어올리는데.

지금 한 번 해보자는 건가?

“천민답게 낄 데 못 낄 데 구분 못하지, 너? 루이스 님에 이어서, 이제는 류이 황자님이니? 천박하게 노는 꼴하고는. 그 곰 인형은 또 뭐야. 컨셉이니? 황자님께서 그런 유치한 걸 좋아하신다던?”

"?"

검은머리가 다다다 쏘아붙여오는 말에, 류이와 마리, 아도라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멀쩡한 건 그 말에 해당되는 당사자인 나뿐이었다. 사실 저 말에 타격을 받지 않아서 멀쩡한 거라기 보단, 그냥 어이가 없었다.

곰 인형이 유치하다는 건 나도 인정하겠는데, 나더러 천박하다고? 뭐가 천박하다는 것이지? 나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해가 네 머릿속 뇌의 주름 숫자만큼이나 안 가는구나.

검은머리, 아니 나나 류이 말고. 내 바로 앞의 싸가지없는 검은머리가 씨부리는 맥락 없는 말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물론 비웃음이. 너무 고상한 말투로 공격하는 거 아니니? 시시하게.

“꼬우면 댁도 유치하고 천박하게 노시던가.”

병X에는 병X스럽게 대처하는 게 딩동댕, 정답. 지난 36년의 삶 동안 깨우쳐온 그것은 삶의 진리.

비아냥을 잔뜩 실은 내 대답에 검은머리의 얼굴이 살짝 붉어진다. 옆에서 마리와 아도라가 나를 향해 ‘아샤, 괜찮겠어?’라고 물어오지만, 나야 물론 괜찮다. 마법 대학의 규정 중에 학생과 학생 사이, 조수와 조수 사이에서는 신분과 관련된 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으니까.

물론 학교 밖으로 나간 후부터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내가 어디 학교 밖으로 한 발짝이나 나갈 기회가 있겠는가? 오늘 죽을 목숨인데. 그러니 죽음을 앞둔 지금의 내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 오늘만큼은 내가 이 학교의 일진짱이 되어 보이겠어!

“ 흥! 보나마나 바깥에서 몸이나 팔다 들어왔겠지. 네가 천박하다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인정하는 걸 보면 말이야. 어제는 란, 그 사람이 너더러 약혼녀라 하던데. 대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지? 정말 헤프구나, 너.”

와, 이런 순간에서조차 란 녀석은 도움이 안 되는구나. 빌어먹을 놈 같으니라고.

금세 원래의 안색으로 돌아온 검은머리가 기세등등한 표정을 지으며 팔짱까지 끼고 저리 내뱉은 말에, 나는 눈썹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봐줬더니만 그렇게 나오신다 이거지? 좋다. 너도 한 번 받아쳐봐라!

“황자님 한 번 꼬셔보려고 머리카락까지 까맣게 염색한 애가 하는 소리라 안 들리는데-? 고상한 척 지리구요, 오지구요?”

“ 뭣 !”

귀를 후비적거리며 받아친 내 말에 잠시 황당하다는 듯 말문이 막힌 검은머리가, 이내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한 발악으로 피식- 하는 비웃음을 내게 날려 온다. 어라? 웃어?

“그러는 너야말로 거울이나 보지 그래? 네가 그런 말 할 처지나 되니? 아니지. 오히려 너는 쥐뿔도 없는 천민 노예주제에 주제도 모르고 황자님께 달려드는 거잖아. 몸뚱이 하나면 다 될 줄 알아?”

호오 ? 다시금 류이가 나를 처음 만났을 적에 오해했던 그 상황이 충분히 그럴만했다고 느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쁘지 않은 공격이었다. 이어질 내 공격보다는 아닐 테지만 말이야.

“역시 머리에 든 게 없어서 그런가, 되는대로 막 튀어 나오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 수준이 다 자기랑 똑같을 거라 생각하는 게, 딱 보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수준이네요, 인정? 어 인정.”

“ ! 너 말투가 그게 뭐 ”

“천박하게 몸뚱이 하나로 꼬셨다고 생각하시나? 아, 뭐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내가 댁처럼 머리카락까지 까맣게 물들이고서 스토킹 하는 인간한테 그런 소릴 들을 이유가 있나?”

“너, 너야말로 염색 안 한 척 하지 마! 너도 다 물들인 거잖아? 그리고 스토킹이라니, 말조심해! 나는 스토킹을 한 게 아니라 단지 ”

“저는 서양 핏줄이라 태생부터 머리카락이 검은 거고요. 제가 그쪽 같은 줄 아세요? 그리고 황자님 본인이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 입 다무시고, 말조심도 댁이나 하시고요.”

“야! 말조심 하라니! 너 지금 귀족한테 그게 뭐하는 말버릇이야? 천민 주제에!”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도 자랑이세요? 어디서 가르치려 드신대, 나이도 비슷한 게. 자, 우리 머리가 있으면 한 번 생각이란 걸 해봅시다. 류이 황자님은 왜 당신 같은 부류들을 지독하게 싫어할까요? 그건 바로 질척거리고! 끈질기고! 말귀 못 알아 처먹고! 하지 말라는 짓들을 골라서 하니까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귀족가문의 영애가 이래도 되나?”

“지, 질척 ! 내가 언제!? 말 다했어?”

“아 친절하게 물어봐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사실 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꺼지라면 좀 꺼져 주고, 오지 말라면 좀 오지 말아 달라 이 말이에요. 류이 님이 싫다잖아요? 비키라잖아요? 사람이라면 말귀를 좀 알아먹을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머리까지 염색하고 들러붙으면 류 제국 황후자리를 꿰찰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정말 어림도 없어 보이는데.”

보고 계십니까? 아웃X이더 님. 지구에서 제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부디 저에게 래퍼가 될 생각이 없냐고 제안해주십시오. 저라면 분명 문복이 오라버님과 함께 췍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속사포와도 같은 팩트 미사일에 정신을 못 차리는 듯한 검은머리. 이내 구조요청이라도 하듯 그녀가 류이 쪽을 응시하는데, 저런 부류들을 세상 그 무엇보다 싫어하던 그가 편을 들어줄 리가 없다.

그가 짜증난다는 눈빛을 지은 채 아무런 개입도 않자, 그녀의 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다. 아니, 질질 짜서 뭐 어쩌자고? 시비는 네가 먼저 걸었잖아? 물론 류이한테.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대신 싸워준 것뿐이라고.

눈물에 약한 건 남자라는 동물일 뿐, 나는 여자다. 검은머리가 찔찔 울기 시작하자, 나는 마음이 여려지기는커녕 도리어 짜증만 치솟는 기분을 느끼며 그녀에게 툭 내뱉었다.

“우니까 진짜 더럽게 못생기셨네요.”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냐? 너는 뭐 예쁜 줄 알아?”

펑펑 울기 시작한 검은머리를 달래주며 웬 초록 삐삐머리가 내게 따진다. 둘이 친구인가 보다. 그나저나 먼저 말이 심했던 건 내가 아니라 니가 달래주고 있는 걔잖아. 왜 나한테 뭐라 해? 억울하게.

“니들은 심해도 되고, 난 안 돼? 그리고 질질 짜고 있는 추한 네 친구 얼굴보단 내 얼굴이 더 예뻐.”

이것이 바로 근거 없는 자신감. 딱히 내가 예쁘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만큼은 내 얼굴이 전지X이나 김X희 급이라고 생각해주자.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존대까지 내던져버리고 마지막 핵직구를 던졌더니, 받아칠 타자가 없어 스트라이크가 되어버렸다. 초록머리가 기가 찬다는 듯 ‘하 !?’하는 소리를 내며 뭐라 대꾸하지도 못하고 검은머리를 끌어안은 채 돌아선다.

“가자!”

“응, 꺼져버려.”

“너, 그렇게 심보가 못되니까 일찍 죽는 거야! 알아!?”

“그럼 너희도 곧 죽겠구나. 명복을 빈다.”

“ 두, 두고 봐, 너!”

또 두고 보잔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저 대사.

초록 삐삐머리가 식상한 멘트를 치고는 나를 잠시 노려보다가, 이내 앞으로 고개를 홱 돌려버리며 검은머리와 함께 조리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더불어 그 주변에 서있던 영애들은 초반의 기세등등하던 태도라고는 온데간데없이, 류이의 좋지 못한 표정을 보고선 잔뜩 기가 죽어 우리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슬금슬금 조리실로 도망치듯 이동하기 시작한다. 본인들이 끈덕지게 들러붙는 그 행동들 하나하나가 류이의 정을 더욱 떨어지게 만든다는 걸 깨달은 것 같기도.

좋아, 퇴치 성공이다! 아, 그런데 너무 인성을 뽐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래도 괜찮았던 걸까?

“흠 ”

너무 큰 사고를 쳐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걱정에 잠기려는데, 생각해보니 역시 난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 머지않아 죽을 건데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해서 뭐하냐고!

죽기 전에 한 번쯤 거만한 귀족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싶었다. 물론 그게 오늘 이 순간이 될 줄은 몰랐지만 말이다. 콧김을 흥! 하고 내뿜으며 허리에 손을 짚은 채 그녀들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노려보고 있자니, 옆에서 마리가 물어왔다.

“아샤, 괜찮아?”

응? 안 괜찮을 건 뭐있어.

“나야 물론이지.”

“멋졌습니다, 아샤 님.”

아도라가 반짝거리는 눈망울로 저리 칭찬해오기에, 나는 ‘멋지긴 개뿔 헤헤’라고 중얼거리며 뒷머리를 긁적였다. 그런데 옆에서 류이가 내게 대뜸,

“고마워, 아샤. 정말 멋있었어.”

라고 인사해오는 게 아닌가!

"!"

감사 인사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는데, 새 주인님의 칭찬을 들으니 뭔가 좀 쑥스럽군. 코를 쓱 훔치며 멋쩍은 티를 내고 있자니, 류이가 슬그머니 시선을 돌린다. 어라, 화났나?

“저기, 화나셨어요?”

헉, 방금 전 칭찬은 반어법이었나? 역시 이거 내가 너무 주제넘게 행동한 거지? 그렇지? 그런 거지!?

그래, 아무리 류이를 위해 저지른 행동이라지만 너무 막나가긴 했어. 아무리 곧 죽을 팔자라지만 내 신분은 천민인데, 귀족들한테 그런 개막말을 하다니. 이거 완전 류이의 권세를 등에 업고 나댄 꼴이나 다름없어 보이잖은가. 그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진작 했으면 좋았을 걸!

“죄, 죄송해요! 저는 황자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던 게 아니라 ”

“아니, 그런 게 아니라 ”

“네?”

“ 웃겨서 ”

나를 외면하듯 고개를 돌려버린 그, 류이의 어깨는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나는 저게 화가 나서 그러는 건가 했는데, 가만 보니 이 인간

웃고 있잖아!?

“웃기세요? 방금 전 상황이-!?”

“저도 좀 웃겼습니다.”

“맞아, 아샤가 말하는 게 너무 웃겼어.”

“뭐? 웃겼다고?”

나는 완전 진지했는데. 거의 노량진에 거북선을 이끌고 진격하는 이순신 장군님의 기분으로 치른 전투였는데. 그게 웃겼다니

여러모로 충격이 크다. 마치 전생에서 셀카를 찍으며 예쁘다고 생각했던 내 얼굴이, 남이 찍어준 사진으로 봤을 땐 웬 오징어처럼 보이던 그 순간의 기분이 들어온다.

멍한 표정으로 자리에 가만히 서있자니, 조리실 쪽에서 대회 관계자의 우렁찬 부름이 들려왔다.

“곧 요리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실내로 들어와 주십시오!”

“아, 들어가자! 아샤.”

“드디어 시작이군요.”

“그런데 아샤, 그 곰 인형은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양옆에서 내 팔을 붙잡은 아도라와 마리에게 질질 끌려가는데, 옆에서 따라오던 누군가가 내게 물어왔다.

어지간히도 웃겼던 모양인지 볼에 아주 옅은 홍조까지 살짝 떠오른 그, 류이는 아직도 입가에 웃음기가 남아있었다. 젠장, 간지폭발이 아니라 개그폭발이었다니. 역시 내게 간지란 존재할 수 없는 건가? 겐지는 존재해도 간지란 없는 건가?

“한 시도 떼놓지 말고 가지고 다니래요. 어떤 미친 인간이.”

"?"

누굴 말하는 건지 의아해하는 류이와 찔리는 듯 딴청을 피우는 아도라. 그래, 슬퍼하지 말자. 원래부터 나란 인간은 간지라는 단어와 1억 미터 정도의 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나는 좌절한 기색을 지우고서 해맑은 표정으로 류이를 향해 주먹을 꽉 쥐어 보이며 이런 말을 했다.

“황자님! 이제 으슥한 골목에서 흡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와서 피우세요. 제가 다 무찔러드릴 테니까요!”

물론 오늘 하루, 죽기 전까지만 말이야.

그러자 류이가 싱긋 웃었다. 그리고는 대답해오길,

“괜찮아, 끊었으니까.”

“에?”

라는데. 뭐지, 금연이 그렇게 쉬운 거였나.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 끊었다고 보기엔 ‘왜?’라는 생각부터가 먼저 든다만.

“왜요? 왜 끊으셨어요?”

“몸에 안 좋다며, 네가.”

“ 헐! 세상에.”

“어머.”

응? 뭐야, 마리랑 아도라. 지금 그건 무슨 반응이래? 류이의 대답은 둘째 치고, 갑자기 아도라와 마리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바람에 나는 어리둥절해하며 그녀들을 번갈아 보았다. 왜 이래, 얘네.

“뭐가 ‘헐, 세상에’야?”

“아샤 님, 생각보다 눈치가 없으시군요 ”

“넌씨눈이구나 ”

“아니, 마리. 넌 그런 단어를 왜 배우고 그래. 아니다, 모두 내 죄다. 순진한 마리의 앞에서 저런 험한 단어를 쓴 내 죄지.”

미간을 엄지와 검지로 부여잡으며 후회하는 시늉을 해보이던 나.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저들의 반응이 이해가 안 간다. 누구 나한테 좀 알려줄 사람?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나는 서로 귓속말로 수군거리는 마리와 아도라들을 ‘?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며,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녀들과 류이를 따라 사이좋게 조리실에 입장했다.

기숙사 조리실은 굉장히 드넓은 편이었다. 드넓은 편이 아니라 그냥 드넓다. 호텔 조리실도 이렇게까지 넓진 않을 텐데, 아무래도 마법 대학은 100명 가까이 되는 조수들이 일일이 학생들의 도시락을 챙겨주어야 하므로 조리실을 크게 지은 모양. 바닥도 타일 바닥이 아니라 대리석 바닥이다. 기름 쏟으면 좀, 아니 많이 미끄럽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덕분에 이런 연례행사도 치를 수 있는 모양이다. 음, 요리 대회라. 내가 이런 걸 참가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은 전생에서나 이생에서나 단 한 번도 예상해본 적이 없는데. 아마 지구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전생의 엄마도 모르실 거다.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깜짝 안 하는 게으름뱅이이자 라면밖에 못 끓이던 내가, 다음 생에서는 온갖 개고생을 다 하며 요리까지 썩 괜찮은 솜씨로 하게 됐을 줄은 말이다. 뭐, 물론 모르시는 게 당연한 거겠지만 말이야.

“마법 대학의 조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요리 대회의 사회를 맡게 된 발렌타인 입니다.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짧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콧수염을 양옆으로 기른 아저씨가 조리실의 중앙이자 맨 앞에 나가 서서 증폭 마법으로 우렁차게 말을 꺼내기 시작한다. 그런 발렌타인 아저씨의 뒤로는 심사위원들로 추정되는 통통한 아저씨 둘과 아줌마 한 명이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저 징징이도 울고 가게 만들 깐깐한 인상들이란 후한 점수를 기대하긴 힘들 것 같다. 벌써부터 불안불안.

“저 사람들, 엄청 유명한 요리사들이야.”

“아, 그래?”

“네.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아디티에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호오 ”

저런 거물들도 황립 대학의 부름에는 쏜살같이 달려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사회자 아저씨의 설명이 시작됐다.

“이번 대회의 재료는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재료들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며, 재료를 가져가는 것은 선착순입니다. 또, 주어진 재료들로만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외의 재료를 밀반입하여 요리에 첨가한 것이 적발될 시, 그 즉시 실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들 이의 없으십니까?”

거의 일방적인 설명에, 이 자리에 모인 오육십 명 가까이 되는 숫자의 조수들이 입이 딱 벌어져버린다. 이의가 많은 표정들인데, 그렇다고 ‘이의 있소!’를 목청 좋게 외칠 수 있는 간 큰 인물은 이 공간 어디에도 없었다.

아, 왜 이의가 있냐고? 그건 아무래도 작년 요리 대회에서는 원하는 재료를 마법으로 소환해주어 필요한 만큼 쓰게 해주었었기 때문일 거다. 그러니 다들 이번 대회도 그런 규정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은 거지. 나나 마리, 아도라들도 모두 그런 규칙일 거라 예상하고 있었기에, 저 뜬금포 터지는 새로운 규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왜 내가 참여하는 올해 대회부터 갑자기 규정이 바뀐 거야? 귀찮게.

물론 내가 만들려는 요리는 결코 이런저런 복잡한 재료들이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지만, 혹시 모를 일이다. 내게 필요한 재료가 이번 대회에서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은가. 여차하면 아무 고기라도 집어 들어 스테이크라도 만들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자니 이번 대회도 역시 지체할 것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그럼, 각 조수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조리대 하나씩을 맡아 자리에 서주십시오.”

“어, 어떡하지, 아샤? 너무 갑작스러운 규정이잖아, 저건. 혹시 재료를 몇 개 안 주면 어떡하지 ? 싸움 나는 거 아니야?”

옆에서 마리가 불안해하는 표정으로 저런 말을 건네 온다. 나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주었다. 괜찮아, 마리.

“어차피 1등을 목표로 이 대회에 참여한 것도 아니잖아, 우린.”

“으, 응 ? 그치만.”

“편하게 해, 편하게. 정 만들 게 없으면 계란이라도 삶아서 내자.”

마리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1등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사실 내가 약속의 맹세니 나발이니 하는 상품을 타봤자 어디에다 쓰겠는가. 하하, 오늘 죽을 목숨인데 말이야. 1등할 수 있는 확률도 낮겠지만, 만에 하나 정말로 내가 1등이 된다 해도 상품을 받기까지 걸리는 그 시간 사이에 죽고도 남을 듯.

사실 그 때까지 살아 있는다 해도, 1등 상품의 소원으로 ‘누군가와 기사의 맹세를 맺어주세요’라고 쓰기는 싫어졌다. 루이스의 목숨만 목숨이고, 다른 누군가의 목숨은 아무렇게나 희생시켜버려도 되는 존재인 건 아니잖은가. 어쨌거나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하는 거라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 졸렬하게 남 목숨을 뺏기보다는 내가 죽는 게 나아.

그렇게 마음먹은 이상, 백날 발버둥 치며 1등을 쟁취해봤자 아무런 쓸모도 없겠군. 마음을 편하게 갖자. 장기자랑 나왔다고 생각하는 셈 치고 말이야.

“주어지는 재료들로 도시락을 싸보는 건 어때? 마리는 이디아 님께 도시락 싸주는 거 잘하잖아.”

“그치만, 이런 대회에서 그런 소박한 도시락 가지고 승부가 될까?”

“소박하고 아니고가 중요할까? 맛만 좋으면 그만 아니겠어?”

우리들은 나란히 조리대 앞에 가서 서며, 소곤소곤 대화를 주고받는다. 조리대는 총 네 명이 요리를 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내 맞은편에는 아도라가 섰고 바로 오른쪽에는 마리가 섰다. 맞은편 아도라의 왼쪽에는

“안녕하십니까.”

“아, 피에르?”

그가 다가와 서는 게 아닌가. 그러고 보니 피에르도 혼자 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이던데, 친구가 없는 건가? 하긴, 이 대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만하고 근자감 쩌는 조수 부류와 피에르는 뭔가 안 어울리는 듯. 피에르 본인도 그런 조수들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아 멀리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고 있자니,

“그럼, 지금부터 요리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에게 다른 말을 붙여볼 틈조차 없이 사회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시작을 알린다. 이번에도 스타트 한 번 오지게 빠르네.

“지금부터 3초를 센 후에 각 조리대들 위에 재료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 재료들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이니, 부디 빠른 쟁취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3, 2 ”

“아, 저흰 어떡하죠?”

“글쎄. 일단 좋은 재료들은 너희가 가져가. 나는 닭 두 마리만 있으면 돼.”

“ ?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들이 한 조리대에 다 같이 모여 선 이상, 그 위에 생겨나는 재료들은 우리 넷이 알아서 분배해야 한다. 하지만 딱히 마리나 아도라, 피에르가 막무가내로 재료를 뺏어가 버릴 타입들은 아니므로 크게 염려할 일은 없을 듯.

그럼 다른 조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다른 조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친구끼리 모인 게 아니라 모르는 얼굴끼리 같은 자리를 쓰게 된 조수들도 있는 모양인지, 잔뜩 긴장한 기색으로 자신의 맞은편이나 옆에 서있는 조수를 탐색하듯 훑어보고 있다. 와, 저긴 완전 헝X 게임이라도 하는 거 같아. 분위기 살벌한 것 좀 보게.

그렇게 주위를 살피다 보니 아까 전에 싸움이 붙었던 검은머리와도 눈이 마주쳤다. 정확히는 그 기집애가 나를 째려보고 있었던 모양인지, 내가 시선을 돌리다가 딱 포착해버리고야 만 것. 아샤76 목표를 포착했다.

너 눈을 왜 그렇게 떠? 마찬가지로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노려보자니, 그녀가 잔뜩 심술 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린다.

“1!”

훗, 이번에도 이겼군. 잠시 달콤한 승리감에 취해있자니, 뜸을 들이던 사회자가 마지막 카운트인 1을 목청 크게 외친다. 이내 조리실의 각 작업대 위에는 뿅-! 하듯 재료가 생겨난다. 마법으로 나타나게 한 건가 보다.

재료들의 종류는 가지각색이었다. 네 명 정도가 조리 작업을 할 수 있는 크기의 조리대가 이곳 조리실 안에는 약 20개 정도 있었는데, 그 조리대 위에는 모두 똑같은 종류들의 재료가 등장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온 사방에서 후다다닥! 하는 소리가 난다. 이게 무슨 닭 날갯짓하는 소리인가? 싶어 옆으로 시선을 돌려 사방을 훑어보니, 자신에게 필요한 재료를 미친 듯이 고르며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는 수많은 조수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와 대조될 정도로 우리 조만은 몹시 평온했다.

“아샤, 여기 닭 있어!”

“아, 고마워 마리.”

마리가 자신의 바로 앞에 놓인 닭고기를 캐치하여 내게 건네주기에, 나는 감사히 그것을 받았다. 보아하니 재료들 중에 닭이라고는 세 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몽땅 나한테 주다니. 얘네는 닭고기를 안 쓰는 건가?

“너희는 닭고기 안 써?”

“네.”

“예.”

“으응!”

앗, 닭고기 멸시하는 것 좀 보게. 이 맛있는 걸 안 쓴다니, 충격과 공포다.

재료는 대충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었다. 바로 캐비어, 샥스핀, 랍스터, 그리고 우유나 빵, 닭, 오리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후추, 밀가루, 소금 등등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무지막지하게 다양했다. 비싼 것이든 값싼 것이든 가리지 않고 말이다. 우리 네 명이 모여 선 조리대는 상당히 넓었는데, 재료들은 그 위를 가득 채워버릴 만큼 많았다. 이거, 몰래 꿍쳐뒀다가 되팔아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스멀스멀 들어오는 걸.

“저는 랍스터 요리를 하겠습니다.”

피에르가 제일 먼저 입을 열어 말했다. 우리 세 명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랍스터를 가져간다.

“그럼 전 스테이크를 하겠어요.”

아도라의 말에, 마리와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소고기와 감자, 당근, 시금치 등을 가져가자, 남은 건 마리였다.

“그럼 난 아샤 말대로 도시락이나 만들까?”

뒷머리를 긁적이며 ‘헤헤’하고 작게 웃던 마리는, 이내 계란 몇 개와 파, 소시지, 쌀, 김 등등 도시락을 위한 재료들을 챙겨가기 시작한다. 마리는 저런 아기자기한 거 만드는 걸 잘하니까, 괜히 다른 고급 요리를 도전하기보단 저게 훨씬 나을지도.

그럼 내가 잘하는 건 뭘까?

그래, 그건 바로 단순한 요리다. 왜냐? 내 뇌구조가 단순하게 생겨먹었지 않은가. 복잡한 건 내 뇌가 따라가질 못한다고, 암.

일단은 오이다를 만들어야 하니까, 오이다 재료들을 챙겨두자. 레몬이랑 물, 설탕, 그리고 조미료들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해주십시오. 제한시간은 한 시간입니다!”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골라 내 앞으로 끌어당기자, 이내 사회자의 마지막 외침이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들이 고르지 않은 재료는 조리대 위에서 뿅! 하는 느낌으로 다시 사라져버린다. 앗, 도로 사라지는 거였다니. 횡령 실패.

하지만 그런 걸 아쉬워할 때가 아니다. 다른 조수들이 조리대 밑에 들어있던 그릇이나 접시 등을 꺼내어 재료를 분배하고, 본격적인 요리에 돌입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나는 슬그머니 조리대 아래에서 식칼 하나를 빼들었다.

마리는 계란말이를 하려는 듯 계란을 깨고, 아도라는 스테이크를 위해 소고기 위에 후추와 소금 간을 하고, 피에르는 랍스터를 손질하고 있을 때

나는 사무라이에 빙의했다. 자, 지금부터 닭고기를 후드리 찹찹 썰어주겠습니다.

나는 도마를 조리대 위에 올린 뒤, 그 위에다 닭고기를 올렸다. 그리고 식칼로 그것을 내리찍었다.

탕!

“까, 깜짝이야.”

옆에서 마리가 깜짝 놀라며 쳐다봐온다. 앗, 미안. 하지만 이렇게 내려치지 않으면 닭 뼈는 잘 잘리지 않아서 말이야. 그녀에게 찡긋- 하는 윙크로 사과를 대신했다.

탕! 탕! 탕! 몇 번 더 닭고기를 내리찍었다. 내가 자꾸 큰 소리로 닭을 잘라대니 처음에는 깜짝 놀라며 나를 쳐다봐오던 다른 조수들도 이제는 무감각해진 모양. 이쪽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 모습들이다.

다리와 날개를 분리하고, 가슴 부위를 분리하고, 이외 나머지

부위를 분리하는 과정을 세 번 반복해 닭들을 각각 부위별로 자른 뒤 그것을 그릇에 넣어 한데 모았다. 그리고 그 안에 우유를 때려 넣었다.

자아, 닭의 양이 많으니 두세 컵 정도 넣어줍니다. 이것은 바로 닭의 비린 맛을 제거해주는 과정이지요, 하하하.

“ 닭고기에 우유는 왜 넣어?”

옆에서 계란을 거품기로 젓던 마리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어봐오기에, 나는

“그런 게 있어.”

라고 대답해줬다. 미안하지만 마리, 자세히는 말해줄 수 없단다. 혹시 모를 일이잖니? 내가 미래에 치킨집이라도 차리게 될지. 그러니 비결은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 나는 치킨장사로 백만장자가 될 계획이니 말이야. 물론 내가 기적적인 확률로 야벨의 손을 피해 살아남았을 때의 얘기겠지만.

우유에 몸을 담근 닭고기의 위에다 소금과 후추를 살살 뿌려주었다. 이제 30분 동안 기다려주면 된다. 뭐? 30분? 너무 오래 걸리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 시간동안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으니까.

그건 바로 오이다와 닭에 들어갈 양념을 만드는 것이다.

“흐흥흥 ”

콧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미리 외워두었던 레시피대로 각 양념들을 만들었다. 많이 연습해보아서인지 재료를 배합하는 데에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제 오이다를 만들어 볼까나- 라고 생각하며 컵 안에 물과 레몬즙 등등의 재료들을 넣은 나.

휘젓고 나서 맛을 보니 대충 그 때와 비슷한 맛이 났다. 레시피는 역시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

“어라?”

탄산이 빠졌잖아!? 아, 넣은 적이 없으니 당연한 건가.

이 무슨 탄산 빠진 탄산음료란 말인가. 사이다에 탄산이 빠진다고? 그건 마치 붕어 없는 붕어빵, 국화 없는 국화빵이 아니던가. 아! 얘네는 진짜 안 들었구나. 어쨌거나 그런 느낌인 거잖아, 이 음료.

이크, 이 생각까진 미처 못 했다. 내가 마법사라면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용의 숨을 액체에다 넣었을 텐데, 나는 마법을 쓸 줄 모르지 않은가. 게다가 이 자리에는 루이스도 없다. 누구한테 용의 숨을 넣어 달라 부탁해야 하지? 하는 생각에 슬그머니 옆으로 고개를 돌려 보았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창가 쪽에는 구경꾼들을 위한 테이블과 의자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나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는 류이와 눈이 딱 마주쳤다. 앗, 그러고 보니 류이도 마법사잖 !

“ 아?”

그가 입모양으로 ‘아샤, 무슨 필요한 거라도 있어?’라고 물어봐오는 듯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한 거야 물론 있다지만, 지금은 엄연히 대회가 진행 중이다. 조리대 앞에서 이탈해 류이에게 다가갔다간 부정행위 같은 걸로 걸릴 것 같다. 분명 지적당할 거야.

일단은 류이에게 ‘괜찮아요-’라고 입모양으로 답해준 후, 고민에 잠겼다.

흠. 어쩌지? 이대로 탄산 없는 오이다를 제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만들어 내자니, 그 때 맛보았던 혁명과도 같은 오이다의 맛을 심사위원들한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데. 어디 가까운 위치에 용의 숨을 넣어줄 마법사 한 명 없

나, 응? 어라, 잠깐만.

“피에르, 혹시 마법 쓸 줄 알아요?”

“예?”

“응? 그야 당연하지 않아?”

“발루아 출신들은 다들 마법을 다룰 줄 알 겁니다.”

“!”

피에르가 ‘마법은 왜요?’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봐올 때, 옆과 앞쪽에서 마리와 아도라가 대답하는 말을 들은 나. 야심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스윽 끌어올렸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좋아, 내 오이다는 하늘을 뚫을 맛이라는 걸 증명해보일 기회가 생겼군!

“혹시, 액체에다가 용의 숨을 압축해서 넣을 수도 있나요? 녹인다는 느낌으로?”

“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

찜통에서 랍스터를 찌는 중이라 지금은 한가한 편인 그, 피에르에게 오이다가 담긴 컵을 불쑥 들이밀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했다.

“여기다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제대로 보답할게요.”

그러자 피에르가 의아하다는 시선으로 나와 내가 들고있는 컵을 번갈아 쳐다봐온다.

“이거, 마시는 거 아닙니까? 마실 것에다 용의 숨을 왜 ?”

“일단 넣어 줘보세요. 그런 게 있거든요.”

루이스와 똑같은 소릴 하는 피에르에게 가볍게 대꾸해주니, 그가 알았다는 듯 컵을 받아든다. 그리고는 정신을 집중하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한 손으로 컵의 아랫부분을 받쳐 잡은 채 잠시 동안 마법을 시전하는 그.

아무래도 엘리트라던 루이스보다는 오래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자니, 이내 컵에서 ‘보글!’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오!”

축하합니다. 레몬물 이(가) 오이다 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이거면 되나요?”

“네, 네!”

피에르에게서 컵을 받아 들고 안의 내용물을 다른 컵에다 살짝 따라 마셔보니, 맛도 기가 막히게 정확했다. 아니, 오히려 저번에 만들었던 것보다 더 사이다 같은 맛이랄까!

루이스는 마법 시전 속도는 빨랐지만 어느 정도로 넣어야 할지 감을 못 잡는 느낌이었는데, 피에르는 시전 속도가 느린 대신 넣는 양을 기가 막히게 잘 조절하는 모양. 이내 그가 ‘저걸 왜 마시지?’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을 본 나는, 대답 대신 그를 향해 ‘고마워요, 이거 짱 맛있음!’이라는 의미로 엄지를 들어보였다.

갑자기 그걸 본 피에르의 표정이 썩어 들어가기에, 나는 크게 당황하며 슬그머니 엄지를 내렸다.

뭐, 뭐지 ? 왜 갑자기 저런 안 좋은 표정을 짓지? 내가 뭘 실수했나 ? 라고 생각하고 있자니,

“아샤 님. 발루아에서는 엄지를 드는 제스쳐는 욕이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아도라가 말해온다. 아, 아하? 어, 어쩐지.

“그럼 칭찬할 때는 무슨 제스쳐를 해야 하죠?”

“중지를 들어야 ”

"?"

아도라도 뭔가 흔히 아는 표현과는 반대라는 점이 우스웠던 듯, 말을 하다말고 말끝을 흐리며 작게 웃음을 터뜨린다.

일단 나는 피에르를 향해 슬그머니 들어보였다. 그것을. 그래, 중지를 말이다.

“별 거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본 피에르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저리 대답해오자, 나는 의도치 않게 죄책감을 느껴야만 했다.

30분이 흐르고 나서, 나는 본격적인 치킨 제조에 돌입했다. 그렇다. 위에서도 치킨집을 언급했지만, 내 대회 출품작은 바로 치킨이다.

왜 하필 메뉴를 치킨으로 선정했냐고? 응? 그거야 당연히 쉽고 맛있잖아!

이 나라 프란치아는 튀긴 음식이란 개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나는 새우튀김이든 김말이 튀김이든 튀긴 음식이라면 환장을 하는 편이었는데, 그와 반대로 이곳 사람들은 ‘기름에 음식을 튀긴다’는 발상 자체를 거의 ‘헐 기름에 음식을 왜 넣어?’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래서 튀긴 음식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노리는 것이다, 이 틈새시장을! 원래 창업이라는 게 다 아이디어 싸움이잖아? 이 세계에 아직 치느님이 없다면, 내가 그것을 개척해내면 된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치느님의 시초로 떠받들고 숭배할 미래가 머지 않았어, 후후.

아차, 나한테 미래란 존재할 수가 없었지? 흑흑, 눈물이 앞을 가리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요리해야 하니까.

“마리, 식용유 너한테 있어?”

“아, 응! 여기 있어.”

“고마워. 나 이거 많이 써야하는데, 너희들 기름 이제 필요 없지?”

“네, 전 다 썼습니다.”

“저도입니다.”

“나도! 아샤 다 써, 그거.”

“좋아좋아.”

다른 조들은 재료에 양보라곤 없이 각자 개인플레이를 하느라 정신없는데, 우리 조만이 사이좋게 자신이 챙긴 재료들을 나눠주며 함께 쓰고 있는 중.

이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거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모르는가? 아, 아니 잠깐만 이 말은 취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니, 자칫하면 아도라와 마리가 나를 따라 저승으로 올지도 모른다는 소리잖아. 위험해질 뻔했어. 물론 그녀들의 목숨이 말이다.

“그런데 아샤, 뭐 만드는 거야?”

소시지로 문어를 만들던 마리가 내게 물어오기에, 나는 ‘글쎄, 뭐일까?’란 의미를 내포한 함박웃음을 빵끗 지어보였다. 그러다가 문득 저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류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나를 향해 눈웃음을 싱긋- 하고 지어온다.

뭐지? 이젠 대회 도중에 저런 살인미소로 날 암살하려는 계획인가? 춘향이와 향단이에 빙의해 본격적으로 널뛰기를 시작한 심장을 진정시키며, 나는 궁금해 하는 마리에게 입을 열어 답했다.

“닭튀김.”

“닭 튀김? 튀긴다고? 튀기는 게 뭐야?”

“기름 속에서 재료들이 헤엄치게 만드는 거지.”

“기름에 재료를 담근다고? 그게 요리야? 기름은 팬에 두르는 용도잖아.”

“그건 1차원적인 생각이야, 마리. 내 완성작을 보고 놀라지나 말라구.”

“ 어, 음. 꽤 미끌미끌한 음식이겠다.”

꼭 그렇지만도 않을 텐데, 라고 말해주려다가 말았다. 구구절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후에 탄생할 나의 완성작을 한 번 맛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설명이 될 테니까.

중식 후라이팬처럼 아래가 동그랗고 볼록한 냄비에다 기름을 때려 부었다. 그리고 우유에 재워뒀던 닭들에 튀김가루를 묻힌 후 그대로 냄비에다 투하!

다들 뭔가를 썰거나 굽기 바쁜데, 나 혼자 튀기는 조리법을 선택해서인지 타닥거리며 닭이 튀겨지는 소리에 여기저기서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려온다. 마치 ‘저건 또 뭐야? 닭을 위해 기름수영장을 만들어준 건가?’하는 눈빛들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꿋꿋이 닭을 모조리 튀겼다. 이내 매끈한 살결을 자랑하던 알몸의 닭들은 바삭바삭한 후라이드로 재탄생했고, 이내 그것으로 3분의 1은 양념치킨을, 또 3분의 1은 간장치킨을 만든 후 나머지 3분의 1은 후라이드인 채로 접시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샴페인 잔에다 사이, 아니 오이다를 부어 쟁반 위에 세팅하고 나니 나의 완벽하기 그지없는 요리는 끝이 났다. 후우, 이 정도면 치킨집 CEO라고 불리어도 손색이 없겠군. 내 명줄이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치킨집 창업도 진지하게 고려해봤을 텐데 말이야. 이름은 아샤의 두마리 치킨이나, 아샤카나로. 이름도 썩 괜찮은데, 조금 아쉽구만.

“다들 끝나셨습니까?”

“아, 네.”

“저도 끝났어요!”

“큭 제 치킨은 준비 O.K.입니다.”

피에르의 물음에 우리 셋은 대답했고, 이내 딱 맞게 주어진 시간이 끝난 듯 사회자가 우렁차게 ‘시간 끝났습니다- 모든 조수 여러분들께서는 요리를 가지고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라고 외친다.

그 소리를 들은 우리 조원들은 다함께 요리를 담은 쟁반을 들고 앞으로 쪼르르 걸어 나갔고, 이내 심사를 받기 위해 기다랗게 펼쳐진 조리대 위에 순서대로 접시를 세팅했다.

왼쪽에는 마리의 도시락이, 오른쪽에는 아도라의 스테이크가 담긴 접시가 놓였다. 조리대 앞에 음식 접시를 갖다놓은 후 그 뒤에 서있으면 심사위원들이 돌아다니며 음식 맛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인 모양인지, 다들 조리대 뒤에서 멀뚱멀뚱 서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접시 앞에 각을 잡고 섰다. 보인다, 보여 내가 1등하게 될 몇 분 후의 미래가! 1등각!

두근두근, 두근세근, 이두박근 조마조마한 마음을 부여잡고 심사위원들을 기다리고 있자니, 세 명의 심사위원들은 조수들의 음식을 하나씩 맛보며 천천히 우리들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었다. 50명이 넘는 숫자의 조수들 음식을 어떻게 일일이 맛보고 평가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어지간한 조수들의 음식은 눈으로만 대충 훑어보고 지나쳤으니까.

간혹 가다 기발해 보이는 음식이 보이면 젓가락으로 콕 집어 먹어보는 모양인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조금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다. 내 치킨이 과연 저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아, 이거 마치 아x엠셰프라도 나온 것 같은 기분이다. 제발 저들이 내 치킨을 한 입이라도 먹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자니, 심사위원단은 내 왼쪽으로 머리통 다섯 개를 건너뛴 위치의 누군가가 만든 음식 앞에 우뚝 멈춰서더니 그것을 한 입 먹어본다.

그런데 얼핏 본 여섯 번째 인물의 머리통이 검은색인 것 같았다 응? 검은색? 혹시 싶은 마음에 슬쩍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 그 검은머리의 얼굴을 확인해보니,

으악! 아까 걔잖아!?

“으음, 서양식 초밥인가 보군요.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초, 초, 초밥이라니. 이 세계에도 초밥이 있었나! 하긴, 지구에도 있는 음식이 이 세계라고 해서 없으리란 법만은 없지. 치킨은 없다지만 말이야.

검은머리가 좋은 평가를 받자, 시선을 슬쩍 오른쪽으로 돌렸다. 왜 하필 내가 있는 오른쪽이지? 라고 생각하려 했는데, 곧바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단 1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필 나와 눈이 딱 마주쳐버린 것이다.

그제야 알아차렸다. 저 기집애, 나를 무슨 라이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아니, 내가 왜 니 라이벌이야! 내가 아주 너를 갈치 뼈바르듯 깔끔하게 발라버렸는데 말이야.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

분수도 모르고 내게 승리의 미소를 씨익-하며 지어오는 검은머리를 쳐다보자니 배알이 뒤틀리다 못해 오장육부가 현란한 트위스트라도 추는 것 같다. 저기요, 설x도씨. 트위스트는 제 장기 속 말고 다른 데로 가서 춰주시지 않겠습니까? 제 배가 몹시 아파서 말이에요.

두고 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를 뿌득 갈고 있자니 심사위원단은 어느새 마리의 앞까지 왔다. 그 사이에 있는 조수들의 음식은 물론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부디 마리의 음식만은 먹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보지

만.

“ 아.”

마리의 도시락도 차갑게 쌩까버리고 지나치는 그와 그녀들. 아아, 그들은 갔습니다. 마리의 도시락을 한 젓가락도 먹어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는 그들이 떠나온 장소는 바로 내 앞이었다. 헉.

“이건 대체 무슨 음식이죠?”

마리의 도시락은 진부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진 몰라도 무시해버렸으면서, 내 치킨과 오이다는 자리에 멈춰선 채 가만히 내려다보는 통통한 아줌마. 양옆으로 선 통통한 아저씨들도 내게 대답을 종용하는 시선을 던져온다. 아, 이것은 말로 표현하자면 말입니다

“치느님 입니다.”

“ 치, 누님?”

누님이 아니라 느

가 아니라!

“아, 아니. 치킨이요. ‘치킨’.”

“치킨? 당신이 개발한 메뉴인가요?”

“아 네. 말하자면 그렇죠?”

치킨을 개발한 진짜 개발자님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지구 어디에 살던 누구인지조차 모르지만 말이에요.

내 대답에 세 명의 심사위원들이 ‘호오, 신기하군요?’하는 눈빛으로 치킨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하지만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유형의 음식이라 그런지, 선뜻 젓가락을 내밀지는 못하는 모습들인데.

좋아, 그렇다면!

“저, 먼저 이 음료를 한 번 마셔보시겠어요?”

나는 슬그머니 조리대 위의 오이다가 든 잔을 집어 들어 통통한 아줌마에게로 건네 보았다. 아줌마는 ‘이게 뭐지?’하는 눈빛으로 그 잔을 받아든 후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내 내게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의 입가로 샴페인 잔을 가져간다.

그리고 오이다를 들이키는 그녀. 이내 그녀의 입에서는 비명과도 같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 이건─!”

“왜, 왜요!? 독이라도 들었나요?”

아니야, 이 멍청한 검은머리 기집애야! 옆에서 초를 치려고 작정을 한 모양인지, 내가 서있는 자리와 몇 미터는 떨어진 위치에서 저리 외쳐온다 치킨 접시를 확 저 기집애의 얼굴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었지만,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길 만큼 나는 돌발적이고 멍청한 인물이 아니다. 훗.

“맛있군요! 이거, 어떤 재료로 만든 겁니까? 직접 만든 샴페인인가요?”

“아, 샴페인은 아니에요. 알코올이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샴페인도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이런 톡 쏘는 맛이 굉장합니다!”

요x왕 비룡 브금이라도 틀어드려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커다래진 눈으로 아줌마가 극찬을 해온다. 설마 했지만 진짜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기에, 나도 꽤 당황하며 치킨 접시를 그들에게로 들이밀었다. 뻘쭘해서 나온 얼결의 행동이었지만, 그 행동 또한 뜻하지 않은 행운을 불러일으켰다.

“이, 이것도 한 번 드셔보세요. 완전 맛이 끝내주거든요.”

“그 샴페인, 그렇게 뛰어난 맛입니까?”

“네! 당신도 한 번 드셔보시죠.”

심사위원들이 서로 샴페인 잔을 돌리며 오이다를 마셔보고는 눈이 개구리마냥 커다래진다. 옆에서 검은머리의 눈은 하염없이 가늘어지며 ‘저런 천민 따위의 음식을 !’하는 기색으로 물들어갔지만,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그녀와는 정반대로 한결같았다.

“이, 이건-! 치킨이라 했던가요? 어떻게 만든 겁니까!?”

“아, 그건 영업 비밀입니다. 저만의 특별한 비법을 쓴 거거든요.”

순순히 가르쳐주면 재미없다. 게다가 듣고 있는 귀도 많은데, 치킨의 조리법을 함부로 까발려줄 순 없지!

“세상에 이런 맛이! 이것도 드셔보세요. 끝내주게 바삭합니다!”

“이, 이건 ! 마치 입속에서 바삭바삭한 식감이 헤엄치는 것만 같은 느낌이군요.”

“이것도 좀 먹어보세요! 양념 맛이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대체 무엇으로 만든 것인지 ”

“고작 닭고기 하나로 이런 요리를 만들어 내다니, 정녕 이 소녀는 천재입니다!”

어, 어라.

이런 걸 기대하고 준비한 요리 대회인 건 맞다만, 이쯤 되니 스멀스멀 들어오는 불안감. 이렇게 주목받아도 괜찮은 건가, 나?

“아샤, 완전 대박이다!”

“축하합니다, 아샤 님.”

양옆에서 마리와 아도라가 진심으로 기쁜 이의 표정을 한 채 소곤거리며 축하해오지만, 나는 아직도 얼떨떨했다.

고작 18살짜리가 만든 야매 치킨이,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셰프들에게서 ‘천재입니다!’소리까지 들을 만큼 대단한 음식인가 ?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10점 만점에 10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10점입니다. 이런 바삭한 식감이라니,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요리는 정말 혁명이에요. 10점 입니다!”

“아아- 마법 대학 역사 최초로 요리 대회 만점자가 탄생했습니다. 이번 요리 대회의 1등은 확정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군요. 주인공은 류이 학생의 조수인 아샤 양-! 모두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쁜 일은 기쁜 일.

속으로는 어리둥절했지만, 나는 사회자의 환호와도 같은 한마디에 깜짝 놀라며 입으로 손바닥을 틀어 막았 아니,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세상에 내가 대학 최초로 요리 대회 만점자라니, 이런 일이 다 있나!

“아샤! 잘 됐다, 잘 됐어!”

“아샤 님, 엄청난 대성공이에요! 굉장하세요, 정말!”

양옆에서 호들갑을 떨어오는 마리와 아도라, 그리고 분하다 못해 억울하기까지 한 모양인지 입술을 꽉 깨물며 나를 노려봐오는 검은머리.

저 기집애의 표정을 보자니, 이제야 뭔가 실감이 나기 시작한다. 사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마냥 멍하고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기분이었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1등이라고!?”

내 머리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여가고 있었다. 그렇다. 내가 마법 대학 요리 대회의 최초 만점자이자, 이번 대회의 1등이라는 사실을!

물론 조수 대회 전체 부문의 1등은 아니라지만, 어쨌거나 요리 대회의 최초 만점자가 아니던가. 전생에 수능을 만점 맞았더라도 지금보다 기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물론 나는 수능 시험지를 구경해본 적조차 없다지만, 그런 건 그냥 묻어두자.

“꺄아아악! 마리, 아도라. 내가! 내가 진짜 만점이라는 거지? 이거 진짜지, 거짓말 아니지? 꿈 아니지!?”

“응, 꿈 아니야. 진짜로 축하해, 아샤!”

“축하해요!”

마리와 아도라의 대답을 듣고, 나는 손바닥을 뺨에 댔다. 그리고 잔뜩 달아오르는 얼굴의 열기를 느꼈다.

내가

내가 !!!

내가 일등이다아아아악-! 전생에서조차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바로 그 ‘일등’!!!!!

“다들 팬티 벗고 소리질뤄! 요x왕 비룡이 미x터 초밥왕을 이겼다-! 요리 앙 비룡띠!”

“ 헉! 패, 팬티는 왜 벗어, 아샤!”

“아샤 님, 일단 진정 !”

“오예! 오늘은 내가 치킨 쏜다! 다들 쏴리 질럿!”

치킨을 담은 접시를 위로 번쩍 들어 올리며 지금 당장 조리대 위에 올라가 춤이라도 출 기세로 열광하는 나.

그런 나를 지켜보는 주변 조수 아이들의 눈빛이 두려움으로 물들어가건 말건, 또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류이의 표정이 우스워하다 못해 조금씩 발갛게 물들어가고 있건 말건 지금의 내게 그런 사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로지 내가 일등을 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

“푸처핸섭! 푸처핸섭! 풋푸푸풋 ”

“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던 심사 마저 부탁드립니다.”

끝끝내 마리와 아도라에게 내 입이 강제로 틀어 막힌 후에야, 웃긴 조수라는 듯 나를 보며 깔깔, 껄껄거리며 웃던 호탕한 심사위원들은 다음 학생의 심사를 위해 지나갈 수 있었다.

마리는 30점 만점 중 12점, 아도라는 18점, 그리고 나는 30점을 받았다. 심사가 끝난 후에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만점인 30점이라는 점수는 대학 최초이자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과연 진짜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그만큼 대단한 요리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실.

후우. 어째서 나란 인간은 이렇게나 완벽한 인재인 거지? 정말, 나조차도 내가 무서워질 지경이다. 그래서인가? 내가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 되어버린 것은.

큭, 신들도 시기하는 나의 완벽함이란

오이다가 든 샴페인 잔을 홀짝이며 벽에 느긋이 기대어 서있는 중. 우아한 동작으로 샴페인 잔을 흔들며 갖은 똥폼을 잡아보지만, 아무도 나의 그런 모습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싸인을 받으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을 텐데 말이야. 쳇.

지금은 요리 대회가 파하고, 조리실 창가 쪽에 마련된 자리에서 조수들이 만든 요리들을 맛보는 시간.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폭발인 음식은 당연하게도 나의 치킨이었다. 하지만

“저기 말야, 이거 한 번 먹어봐도 돼?”

“안 돼.”

“네가 아까 그 만점자지? 이거 한 번만 시식해 봐도 ”

“안 돼.”

“저기, 이거 ”

“안 돼.”

“?”

완벽하게 철벽을 치는 중인 나였으니. 그 이유로 말할 것 같으면, 평소엔 내게 아는 체도 안 하고 천민이라고 개무시만 해오던 다른 조수들이 지금 순간만큼은 ‘너 아샤지?’하며 다가와서는 한 입 먹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우스워서인 것도 있고, 두 번째 이유로는 치킨한테 질투가 나고 있어서였다. 어떻게 내가 닭보다 못할 수가 있어? 이래도 돼? 나는 안 된다고 3D로 본다.

대망의 세 번째 이유로는 먼저 맛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였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물론 루이스였는데

“ 쩝. 올 리가 없나.”

뒷머리를 긁적이며 조리실 입구 쪽을 하염없이 쳐다보던 시선을 거뒀다. 그래, 올 턱이 없지.

오늘은 내가 습격을 당할지도 모르는 가장 유력한 날이 아니던가. 루이스로 인해 목숨에 위협을 받는 나인데, 이런 날에 그와 함께 다닌다는 건 제리가 톰에게 ‘내가 너의 치즈를 훔쳤단다. 깔깔!’하며 자백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제리에게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른다지만, 확실히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꼴이란 거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루이스니까, 내게 접근해오지 않는 것일 게 분명하다.

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다. 아무리 그런 이유가 있다 해도 그렇지, 어쩜 이렇게 코빼기도 안 비칠 수가 있는 거야? 하다못해 머리카락 한 가닥, 그것도 안 된다면 겨털 한 가닥만이라도 비추든가 가 아닌가? 이건 너무 갔나?

아니 뭐, 어쨌든. 그래도 난 나름 루이스의 이전 조수가 아니던가. 지금은 조수도 없는 그고, 아무리 한 달밖에 같이 지내지 않았다지만 조금의 정은 남아있을 테니까, 조리실에 얼굴이라도 빼꼼 비춰줄 줄 알았는데. 다 헛된 기대였나 보다.

손에 들고 있는 오이다 잔을 흘끔 내려다보았다. 이것도 루이스와 함께 만들었던 건데. 루이스가 아니었더라면 이 세계에서 탄산음료인 사이다 같은 건 만들어볼 생각조차 못했겠지 씁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자니, 조리실에 류이가 들어온 모양. 입구 쪽이 도떼기시장 속 한복판마냥 시끄러워진다. 대회가 끝나갈 때쯤 용무가 있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던 그가 이제야 돌아온 모양이다. 그와 함께 나갔었던 아도라와, 이디아 조지아에게 도시락을 맛보여주러 갔던 마리도 동시에 들어오기에, 나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쪽, 이쪽이야!”

“아샤!”

“아샤 님.”

그런 나를 확인한 세 명이 이쪽으로 걸어온다. 마리와 아도라는 내 이름을 외쳐 부르기까지 하면서. 그런데 응?

“ 얼레.”

무, 무슨 F3인가? 부제는 꽃보다 그들.

저 정도면 저 인간들끼리 혼성 아이돌 그룹을 짜도 되겠는데. 제일 선두에 선 류이가 늘 그렇듯 수트 바지에 한쪽 손을 꽂아 넣고서 화보 모델인 양 우아하게 단발머리를 찰랑이며 걸어오고 있다면, 그 뒤에는 길고 늘씬한 각선미의 아도라, 그리고 그 옆에서 키가 작지만 그만큼 아담하고 귀여운 체구의 마리가 뒤따라오고 있다. 끝내주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인데.

저 인간들, 이렇게 보니까 은근히 외모며 몸매며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잖아? 류이나 아도라는 말할 것도 없지만,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마리도 은근히 숨겨진 매력 같은 게 존재하나 보다. 우월한 외모며 기럭지를 자랑하는 저 둘의 사이에 껴있어도 전혀 묻히지 않는 존재감인 걸 보아하니, 그런 시크릿한 무언가가 있음이 틀림없어.

세 명이 내게로 다가와 앞에 섰다. 비로소 우리들은 F4가 되었는데 젠장, 나만 빛이 안 난다. 왜지. 왜 이렇게 꼬질꼬질한 거냐, 나. 분명 때도 열심히 미는데, 어째서!

“아샤, 오래 기다렸지? 별 일 없었어?”

코앞까지 다가온 마리가 빵끗 웃으며 내게 말을 건네 온다. 별 일이라 흠. 별로. 다른 조수 녀석들에게 멸시 당했기는―치킨에 의해― 하지만, 그런 것쯤이야 내겐 별 일도 아니지.

“아니, 괜찮아. 도시락은 잘 전해주고 왔어?”

“으응!”

“황자님은요? 뭐하다 오셨어요?”

“ 아. 잠깐 기사들 때문에 볼 일이 있어서.”

류이가 싱긋이 미소 지으며 대답해오는 말에, 나는 반사적으로 그가 류 제국의 최정예 역사 군단이니 뭐니 했던 그 병사들을 만나고 온 것임을 깨닫는다. 무슨 지시라도 내린 걸까? 잘은 모르겠지만, 더 꼬치꼬치 캐묻기엔 나와 관련된 일이라서 그러기 싫어졌다. 왜,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잖은가. 지금의 나는 약이 필요하다.

그래, 자세히 알고 싶진 않다는 뜻이다. 괜히 부담되니까 말이야. 모르는 척이나 하고 있자.

“아도라는?”

“저희 도련님 좀 뵙고 왔습니다.”

“아, 그 새 가 아니라. 란? 뭐하고 있대?”

학생 이름의 뒤에 ‘도련님’이나 ‘님’자를 안 붙이는 시건방진 조수 나부랭이의 말투라니. 주변에서 내 말을 듣던 다른 조수들―내 치킨에 껄떡거리던―이 깜짝 놀라지만, 정작 란의 조수인 아도라는 익숙하다는 듯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훗, 그래.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지.

“곧 있으면 시작될 저녁의 파티를 준비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래? 턱시도라도 쫙 빼입고 있으신가?”

“아뇨, 전투 준비라도 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정장 안에 마나 순활 조끼를 입으시더라구요.”

"?"

마나 순활 조끼는 왜

아, 여기서 마나 순활 조끼란, 말 그대로 조끼다. 물론 개나 소나 입는 평범한 조끼라는 게 아니라, 마법사들이 입는 특별한 옷이라고나 할까? 패션을 위해 예쁜 디자인으로 나오기도 한다. 주로 체내의 마나 순환을 안정시키고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용도로 입는데, 그 아무리 뛰어난 마법사라 해도 굳이 안 입을 이유가 없는,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도움 되는 옷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니, 그런데 그걸 란이 왜 입는다는 거야? 무슨 마법 서커스라도 하나? 걔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데. 살아 숨 쉬며 저지르는 동작 하나하나가 꽁트이자 서커스인 놈이, 새삼스럽게.

“어디 싸우러 간대?”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군요. 아참. 아샤 님, 도련님께서 ‘아샤는 잘 가지고 있어?’라고 여쭤보라 하시던데요?”

“뭐?”

내 몸뚱이니까 내가 잘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잖아. 대체 그게 무슨 뜬금포 터지는 물음이란 말인가. 아도라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던 나는, 이내 머릿속에 굴러다니던 콩에 번갯불이 파지직! 하고 튀어버리는 느낌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 가 아니라.

지금 옆구리에 끼고 있는 이 곰 인형의 이름이 바로 샤바샤바도, 사샤도 아닌 아샤였던 것 같다. 그래, 아샤.

가 아니잖아!!

“이 자식이 미쳤나! 이 인형이 왜 아샤야? 이름 바꾸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했건만!”

“아, 그 인형 이름이 아샤였습니까? 몰랐군요.”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바꿀 거야. 고수, 오 이거 좋다. 고수 어때? 괜찮지? 이름부터 간지나지? 어때, 아도라!”

“하지만 아샤 님, 그 인형의 성별은 여자라고 들었습니다.”

“인형한테 성별이 어딨어!”

곰 인형을 겨드랑이에 낀 채 자리에서 펄쩍 뛰며 분노하자니, 옆에서 류이가 그런 내 꼬라지가 우습기라도 한 사람처럼 작게 웃는다.

하지만 나는 류이가 웃고 있느냐 울고 있느냐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형의 이름을 아샤에서 고수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만 모든 신경을 투자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이들에게는 코딱지만큼의 관심도 주지 않은 채 아도라를 향해서만 ‘자, 빨리 고수라고 불러봐!’라며 다그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

“내 조수는 왜 괴롭혀? 못생긴 게.”

“못생긴 건 내가 아니라 란 응?”

뭐야, 방금 그 대답. 아도라가 말한 게 아니지 않은가. 고지전에 출전한 남한군과 북한군마냥 ‘고수라고 불러!’, ‘안 됩니다, 그 인형은 아샤입니다.’하며 아도라와 티격거리고 있자니, 웬 이상한 대답이 옆에서 불쑥 들려왔다. 누구냐, 너.

옆으로 고개를 돌려 보니, 그놈이었다. 으아닛!? 이 전쟁의 원흉이잖아! 정장은 왜 입고 왔대? 이 전쟁을 끝내러 왔냐? 아니, 저런 걸 입으면 지가 용이 될 줄 알기라도 하는 건가. 한낱 못생긴 미꾸라지 주제에!

“아 ? 안녕하세요.”

마리가 란을 향해 꾸벅 인사할 때, 나는 아샤 가 아니라, 고수를 손에 든 채 인형으로 란을 향해 삿대질했다.

“저기요!”

“왜?”

키도 크고 비율이 죽여줘서인지 이곳저곳에서 여자 조수들이 고개를 돌려오며 검은 정장을 빼입은 그를 ‘어멋, 저 남자는 대체 !?’하는 눈빛으로 쳐다봐오다가도, 이내 불투명한 동글이 안경을 낀 란의 면상을 보기가 무섭게 고개를 홱 돌려버린다. 역시, 내 눈에만 란이 못생겨 보이는 게 아니었군.

“이 인형, 도로 가져가시죠!?”

“네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어서 뭐해.”

“아니, 이런 쓸데없는 인형을 제가 왜 하루 온종일 들고 다녀야 하냔 말이에요. 엄청 쪽팔리거든요?”

“네 못생긴 얼굴을 그 귀여운 인형이 대신 커버해주고 있는 것에 감사해.”

“아니, 이 인간이? 저기요. 못생기셨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죠!”

“진짜 못생긴 게 누군데? 그리고, 네가 그런 말이나 할 때야?”

"?"

아, 아니. 이 인간, 오늘 왜 이래?

평소 같았으면 실실 쪼개며 내 장난에 ‘그러는 넌, 이쁘면 다냐? 건방진 조수 같으니라고.’라며 받아쳤을 법한 위인이거늘, 오늘은 어째서인지 반응이 심상찮다. 내가 아무리 막말의 달인이라지만, 란이 이렇게까지 정색하며 예민하게 받아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잠깐만. 분위기 심각해지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군. 왜 자꾸 나더러 못생겼다는 거야? 피차일반인 놈이 말이야. 그리고 이런 말이나 할 때가 아니면, 내가 대체 뭘 해야 하는 때인데? 네가 만들어준 이 인형이랑 쎄쎄쎄라도 하고 있어야 하냐?

“왜 짜증이세요? 짜증나게.”

인상을 확 찡그리며 란에게 따지고 들자, 그가 갑자기 입을 꾹 다문다. 뭐야, 이건 또. 갑자기 묵비권 행사야? 진짜 홍시도 안 잡히는 놈일세, 이거.

자진모리장단 굿거리장단을 엇박으로 두들겨대면 나는 대체 어떤 춤을 춰야 한단 말인가. 브레이크 댄스라도 추랴? 어이가 없어지려고 해, 내 입가에 황당하다는 미소가 번져가던 그 때

“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 따라와.”

란이 갑자기 내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다. 앗, 손도 아니고 손목이라니? 이봐! 이런 강압적인 태도는 요즘 여자들한테 인기 없다고!

기분이 영 좋지 않아 보이는 란에게 손목이 잡혀 조리실 출구 쪽으로 질질 끌려가는 나. 돌발스럽고 황당한 지금의 상황에 그저

“어? 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할 말은 무슨 말!?”

하는 말들만을 무한으로 뱉어내며 허둥지둥 그의 뒤를 따라가고―끌려가고― 있었을까, 조리실에서 우리 둘이 벌이는 시끄러운 소란에 주변의 조수 영애, 영랑들이 나와 란을 향해 고개를 돌려오던 그 때

그 소란스러움을 더욱 부추기게 될 한 인물이 잡히지 않은 내 다른 쪽 손을 붙잡아왔다. 어이, 넌 또 뭐하자는 플레이야!

“야, 멈춰.”

"!"

“뭡니까?”

아, 아니. 뭐냐는 물음은 내가 너희 둘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대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나를 데리고 조리실을 빠져나가려던 란, 그리고 그렇게 질질 붙잡혀 나가던 나를 붙잡아온 류이. 그 모습을 구경하던 어느 관중이 ‘저건 삼각관계인가!?’같은 개소리를 내뱉는다.

저기요, 삼각관계라뇨. 이 인간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신분 차이부터 택도 없고요. 그런데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삼각관계야!

주변이 크게 술렁거리며 곳곳에서 ‘뭐지? 유이 황자님이 왜 저 아샤라는 애를?’이라던가, ‘란, 저 사람은 아샤랑 무슨 관계길래 ’, 또는 ‘란, 저 사람 말더듬이 아니었나?’ 하는 말들이 와르르 터져 나온다.

마리와 아도라는 그저 놀란 눈으로 이곳을 쳐다봐오고 있고, 한쪽 구석탱이에서는 검은머리가 나를 노려봐오고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의 주인공이자 원인과도 같은 나는

석고상으로 진, 아니 퇴화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어 버렸어, 나. 어쩌다 이런 신세가?

“아샤가 싫다잖아.”

“그래서요?”

“너, 이름이 란이라고 했나? 지금 같은 무례한 행동은 그만두고 말로 하는 게 어때?”

“말로 하기 위해 이곳에서 나가려는 겁니다. 약혼녀와의 은밀한 대화를 이런 공공장소에서 할 수야 있나요?”

“ 약혼녀라니. 아샤의 동의 없이 그런 저질스런 농담은 자제하도록 해.”

류이의 검은 눈동자가 지금처럼 번뜩이며 살기를 띄는 것은 난생 처음 본다. 아니, 난생이라는 표현까지 붙이기엔 우린 만난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사이일 뿐이라지만 말이야.

개소리를 떠들어대는 란의 눈빛은 알 수가 없었지만, 아마 류이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일 것 같다. 이 인간, 이곳에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았으니까.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일단 지금의 내게는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아니, 플랑크톤이 된 기분이 몹시 들어오고 있는 참이었으니.

내 손부터 좀 놔 주고 대화들 하셨으면 좋겠다만 안타깝게도 그런 말을 꺼낼 만한 분위기는 딱히 아니었다. 이 남자들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눈빛과 분위기들을 하고 있는 건 나로서도 처음 보는 광경이라, 보고 있자니 무서워서 말이 안 나와.

얄미운 짓만 골라서 했던 나조차도 처음 보는 살벌한 얼굴들이라면, 감이 좀 잡히는가? 안 잡힌다고? 좀 더 잘 상상해 보시라.

“숙녀는 그렇게 막 대하는 거 아니야. 너도 어느 귀족가문의 자제일 텐데, 그런 기본적인 교양도 배우지 못했나?”

그러는 너도 날 막 대한 적이 있었지 않니?

올챙이일 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개구리, 류이가 매서운 팩트폭력을 날렸다. 그러자, 란이 곧바로 받아쳤다. 매서운 무논리였다.

“과연. 여자처럼 생기셔서 그런가, 생각하는 것도 여성스러우시군요. 아니지, 젠틀하다고 해드려야 하나?”

“저, 저기요!?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세요? 황자님께!”

“황자면, 뭐?”

지금 광경을 지켜보던 관중들 중 어떤 류이의 팬클럽 임원 한 명이 꽥! 하듯 소리치자, 란이 그쪽을 매의 눈빛으로 째려보더니 쏘아붙인다. 이 자식, 갑자기 왜 이렇게 막 나가는 거지?

완벽한 석고상이 되어버린 내가 어버버거리고 있자, 란이 그런 나를 확 잡아끌었다. 덕분에 내가 아파할까봐 살살 붙잡고 있었던 류이로부터 내 왼쪽 손목이 풀려났고, 그와는 반대로 내 몸이 란의 품에 거의 안기다시피 붙잡히게 되었다. 으악! 끔찍.

“어디까지 막나가려는 속셈이야?”

격하게 분노한 류이가 평소 나를 대할 때 보이던 온화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이 살얼음이 에일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란에게 묻는다.

이번에 란은 이렇게 답했다.

“네가 알 거 없잖아?”

!!!!!!

“ 뭐?”

황당하다는 듯 벙쪄버린 류이.

이, 이제는 2학년한테 반말까지 하냐, 이 미친 것아!!!

주변은 그야말로 혼돈의 대 도가니탕. 그리고 란과 류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그 탕에 들어가 반신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놈이 드디어 돌았나? 정신이 온전치 못하던 수준에서 이제는 아예 돌아버린 거야? 응?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말을 해. 그것도 상대방은 옆 나라 류 제국의 황자인데. 그것도 차기 황제로 유력한!

사람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이렇게 미치면 안 된다. 그 예시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란이, 내 어깨를 붙잡은 채 짐짓 다정한 포즈로 몸을 돌렸다. 출구 쪽을 향해 말이다.

그리고 앞으로 걷기 시작한다. 그가 발길을 옮길 때마다, 일단은 나도 따라 걸었다. 머릿속으로는 ‘? ??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뭐하자는 거지? 대체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

조리실로 빠져나온 후, 복도를 걸으며 무슨 에스코트라도 하듯 나를 바깥으로 이끌어나가던 란. 이번에는 뒤따라오는 이가 없는지 뒤를 흘끔 돌아본다.

이번에는 류이조차 따라오지 않은 듯, 요리 대회가 끝난지라 아무도 지나가는 이 없는 조용한 복도. 잠시 느긋이 걷던 란이, 이내 작게 중얼거렸다.

“ 젠장.”

피식, 하고 중2병 냄새를 풀풀 풍기는 옅은 미소를 흘리면서 말이다. 그러나 정장 바지에 손을 넣고 다니는 류이만큼이나 중2병 포스보단 간지가 줄줄 흐르는―못생긴 안경잡이일 뿐인데 대체 왜?― 그, 란이었으니.

이어진 말은 엄청 작은 목소리였지만, 복도가 워낙 조용했던지라 용케 들을 수 있었다. 그가 한 말의 내용은 분명 이러했다.

“재미 좀 보려다가 피 보게 생겼네.”

라고, 그는 그리 말했다. 무슨 뜻일까?

아니, 그 전에. 지금 우린 대체 어디로 가고 있단 말인가.

“저기요?”

넌지시 란을 불러보았다. 그는 묵묵히 앞만 보고 걷는데, 그게 마치 ‘뒤따라오는 네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든, 무슨 말을 하던 난 단 1%의 신경도 쓰지 않겠다’하는 느낌이었다.

마치 도발인 것 같다. 잠자는 아샤의 코털을 건드린 것인가? 좋아, 그 도전 받아들이지.

“안경잡이 씨?”

반응이 없다. 역시 약했나? 다시 간다!

“이 안경잡이 놈아!”

헉? 이것도 반응이 없다. 이럴 놈이 아닌데. 슬슬 내 손목을 붙잡은 채 걷고 있는 이 인간이 란의 껍데기를 한 다른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오지만, 방금 전 상황 같은 또라이 짓을 저지를 인물이 란 말고 누가 더 있겠는가. 이 남자는 분명 란이 맞다. 맞을 거다, 아마도.

란은 묵묵히 걸으며 복도를 가로질러 가다가, 이내 왼쪽으로 부드럽게 꺾었다. 왼쪽으로 가는 걸 예상치 못한 나만이 정면을 향해 걷다 말고 직각으로 꺾었다. 대체 나님의 간지라던가 품위는 어디로 도망가 버린 걸까? 돌아온다면 물어보고 싶다. 일한 적도 없는 주제에 뭐가 힘들어서 도망갔느냐고.

일단 여기는 처음 와보는 곳 같다. 내 기억 속에 이런 복도는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기에 앞서, 이 자식이 내게 무슨 용건으로 이러느냐가 더 궁금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불러보자!

“이 미친 란 자식아!”

어억! 이번엔 반응이 왔다. 란이 갑자기 자리에 우뚝 멈춰선 것! 역시 대놓고 욕을 해줘야 반응을 보이는 마조히스트였던 건가? 그런 건가? 오만 잡생각들을 다 해보던 순간, 나는 지금의 란과 내가 어느 장소 앞에 서있는지를 깨달았다.

도서관이었다. 엥?

“저기요, 가을이라고 독서소년이라도 되어보시려는 거 앗!?”

이내 나를 붙잡고 도서관 안에 들어가는 란. 아무래도 복도는 사람이 지나다니니까, 조용한 장소를 찾다 보니 여기로 온 모양인데. 들어오고 나서 둘러보니 과연 도서관 내에는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대회 기간이라 그런가, 원래도 인기가 없을 도서관이 더욱 인기가 없어져 휑하게 느껴지는 풍경.

대나무 숲마냥 높다랗고 울창하게 솟은 책꽂이들과 그 안에 빼곡히 꽂힌 외계어 같은 문자들이 적힌 책들을 입을 헤벌린 채로 올려보다가, 나는 란이 나를 이끌고 도서관 안쪽으로 점점 깊숙이 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뭐, 뭥미. 뭐하자는 것? 으슥한 데는 왜 찾고 그러실까 ?

“저!”

기!?

잡히지 않은 다른 쪽 손을 뻗어 앞만 보고 걷는 란의 왼쪽 어깨를 슬며시 잡아보려는데, 그 순간 충분히 깊숙이 들어왔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몰라도 갑작스레 그가 돌아섰다. 나를 향해서 말이다. 제발 하나만 하라고, 하나만! 왜 내가 행동하려고 하면 먼저 선수를 치는 거

야?

“이, 이게 뭐예요?”

란이 대뜸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건 뭐지? 무슨 플레이지? 갑자기 S같은 성향을 띄기 시작했는데, 이 녀석?

내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는 그. 그저 그런 디자인의 구슬 팔찌였다. 그것도 알록달록하지조차 않은, 보라색으로 된 그냥 구슬 팔찌. 갈색으로 만들었다면 염주가 될 뻔했을 것 같다.

뜬금없이 웬 팔찌일까? 약혼녀니 어쩌니 개소리를 염불 외듯 늘어놓더니, 설마 이게 프러포즈인 건!?

그러고 보니까, 보통 이런 건 연인에게 수갑의 의미로 선물한다고 연애를 해본 적은 없지만 글에서 읽었던 기억이 난 아, 잠깐만. 이딴 생각이나 하려니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잖아. 그리고 연인은 무슨 귀신이 씨나락 까먹다 콩댄스를 추는 소리야? 에잇, 때려쳐. 나는 생각하기를 그만두겠다, 죠죠!

"?"

이번엔 란이 마법을 시전한다. 그가 검지와 엄지를 부딪쳐 딱! 하는 소리를 내니, 허공에서 까만 조끼 하나가 툭 떨어진다. 추락하던 그것을 완벽하게 낚아챈 그. 이쯤 되면 눈치 챈 사람도 있겠지만, 저 조끼는 평범한 조끼가 아니다. 척 보기에도 알 수 있어. 뭐, 사실 평범한 조끼라면 란이 이곳까지 나를 데리고 와서 이러고 있을 이유도 없겠지만.

“그거 방마복 아니에요? 엄청 비싼 건데 를 저한테 입혀주시려고요!?”

“너 옷이 너무 두껍다. 좀 벗어봐.”

지금의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코트였다. 가을용이라 그리 두껍지는 않지만, 이 위에 조끼를 입기는 확실히 무리.

그나저나 오, 오, 옷을 벗으라니! 미쳤어? 남녀의 구분이 엄연하거늘, 어, 어찌 외간여자에게 함부로 옷을 벗으라 마라 !

“벗어.”

“네, 벗겠습니다.”

가 아니잖아. 이유나 좀 알고 벗자. 내가 벗겠다고 오케이하기도 전부터, 조끼를 자신의 팔에 걸쳐둔 채 주섬주섬 내 코트 단추를 풀어주고 있는 눈앞의 미친놈 머릿속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이건 뭐하자는 플레이일까? 류이가 내 손을 붙잡으며 삼각관계 구도를 빚을 때보다도 어이가 없다. 혹시 제 잃어버린 맷돌 손잡이를 보셨습니까? 못 봤다구요? 쟌넨.

“뭐하시는 거예요, 이거?”

“살고 싶다며. 살리려는 중이잖아, 지금.”

"?"

내 코트의 단추를 다 푼 그가 이내 벗는 것을 도와준다. 일단 팔을 빼긴 뺐는데, 그는 마법으로 코트를 허공에 둥둥 띄워둔 채 내게 방마복을 입혀주려 한다. 아, 아니 그냥 내가 내 손으로 입을게.

“입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꽤 비쌀 텐데 ”

“맞아. 돈 많이 들었어.”

“아니, 그럼 왜 이런 걸 입는다고 제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불투명한 안경알로 나를 응시해오며 그가 하는 대답에, 나는 의아해졌다. 그런 게 아니라면 뭐 하러 이 비싼 방마복을 사서 입히는 거야? 아깝게. 이거 하나면 자그마치 용 비늘이 한 개다. 그렇다. 한화로 1억이라는 것이다.

지가 사서 입혀주는 건데, 내가 굳이 그 1억이라는 돈을 갚을 필요는 없겠지? 사실 그만한 돈도 없지만, 내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선물 받은 셈 치자.

근데, 자그마치 1억 이상 가격의 방마복을 내게 입히면서까지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나는 란에게 미움 살 짓만 골라서 했지, 딱히 목숨을 구제받을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줬다거나,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다. 애초에 란과 나는 개와 원숭이 같은 사이지, 살려주고 말고 할 만큼 가깝거나 다정한 사이도 아니었고 말이야.

생긴 것만큼이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놈이다. 조끼를 입은 후 그에게서 코트를 건네받아 걸친 나는, 눈을 게슴츠레 뜨며 또 내게 무언가를 입혀주려 하는 란에게 툭 던지듯이 물었다.

“지금 혹시 아샤 옷 입히기 놀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모델이 예뻐야 하는 맛이 나지, 넌 아니잖아. 그런 소리가 나와?”

“ 아니면 말 것이지, 왜 팩트로 때리고 그래요! 아프잖아!”

조, 좋은 놈일 리가 없지! 하여튼 간에, 사사건건 얄미운 자식이라니까!

이제는 내 손에 새하얀 장갑을 끼워주는 그로 인해, 나는 슬슬 이 물건들의 용도가 궁금해졌다. 방마복은 물론 나도 잘 알고 있다. 방금 전 내가 입은 이 방마복이라는 물건에 대해 설명해주자면, 마법으로 만들어진 조끼라 내구도가 다 닳으면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되며, 가격이 비쌀수록 더 강한 마법을 견뎌낼 수 있다. 특히 공격 마법을 말이다.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존재하는데, 조끼가 견딜 수 없는 치명적인 공격이 들어올 경우엔 내구도가 닳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바로 파괴돼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격 한 번 잘못 맞으면 순식간에 1억이 공중 분해되는 셈이지. 적당히 공격당하는 요령이 필요한 마법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팔찌랑 장갑은 무슨 용도예요?”

하지만 조끼 말고 나머지 이 두 개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영 짚이는 바가 없어, 그에게 물어보았다. 내 양손 모두에 새하얀 면장갑을 끼우는 일을 끝마친 란이, 고개를 살짝 들어 나를 내려다봐온다.

“지금부터 잘 들어, 아샤.”

"?"

끄덕끄덕.

“너한테 감시가 붙었어.”

내 물음에 답은 안 해주고, 그의 입에서는 뜬금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감시? 무슨 감시. 란의 입에서 튀어나온 단어에 눈을 땡그랗게 떴다. 지금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감시라면, 막 염탐하고 몰래 지켜보고 그러는 그 감시 말이야?

나한테!?

“어, 어, 어디요!? 대체 어디에!”

기겁하며 사방을 둘러보는데, 책꽂이 말고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 혹시 은신 마법으로 숨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까? 그, 그래. 그렇다는 건가 보다 !

란의 말이 사실이라면 눈에 띄지 않고 나를 감시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은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경악스런 표정을 짓고 있자니,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눈치가 좋으시네요.”

란이랑 나밖에 없는 줄 알았던 도서관에서,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온다고? 왜? 어떻게?

서, 설마 벌써 습격인가!? 그것도 이런 곳에서-!?!

야!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적어도 마음의 준비는 할 시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응? 너희는 죽는 게 그렇게 쉬워? 마법을 휘리릭- 뿅! 하고 시전하면 당하는 사람이 으악! 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쉬운 의미냐고! 죽음이!

“!”

내 목숨을 거둬갈 저승사자를 맞이하기에 앞서, 놀라 까무러치기 일보 직전의 표정을 지으며 몸을 뒤로 돌렸다. 란을 등지고 서서 정면을 황망히 응시하자니, 허공에서 웬 인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듯 등장한다. 익숙한 저 느낌 어라? 혹시?

“ 어? 칸, 진? 어, 어째서 여기에?”

아니나 다를까, 살짝 개구지게 생긴 진과 과묵한 인상의 칸이 비좁은 책꽂이 사이에 살짝 대각선으로 서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다 큰 남자 둘이 나란히 서기엔 여기가 좀 비좁긴 하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나를 습격하려는 살인마법사가 아니라, 다름 아닌 류이의 호위 기사인 그들이었다. 어쩐지 귀에 익은 목소리더라니

라고 생각하려했는데. 이봐, 잠시만. 혹시 나를 죽이려는 살인마법사가

“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는 마법사였어요-!?”

그런 반전이었던 거냐-!?!?! 그래, 슬슬 반전이라는 놈이 등장할 때도 됐지. 그게 나를 향한 통수극일 줄은 몰랐다지만 말이야!!!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운명의 신이 일이란 걸 똑바로 처리하고 있다면 나한테 이럴 수는 없다. 훈훈한 5인 가족 중 막내딸로 태어나, 평범하게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자라다가, 뜬금포 터지는 사망으로 인해 이 세계에서 노예로 태어났을 적부터 그 운명의 신이라는 놈은 사직서를 쓰고 일을 때려치운 게 틀림없다.

그런 게 아니고서야, 이젠 어떻게 내가 믿었던 그 두 호위 기사가 알고 보니 살인마였다는 몹쓸 전개까지 펼쳐질 수가 있 !

“어우, 아니에요! 저희가 왜 아샤 님을 죽여요. 그리고 감시라뇨. 감시가 아니라 저희는 호위를 서고 있는 거라구요. 정정해주실래요?”

응?

“내가 보기엔 감시인데.”

“그럼 저희가 평소에 황자님도 감시하고 있는 거게요? 이상한 분이시네.”

“어쨌든.”

“ ??”

아, 아니라고 한다. 칸과 진이 나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고 한다. 진짜인가? 리얼리? 트루? 믿어도 되는 부분?

잘은 모르겠지만, 란이 별말이 없는 걸 보아하니 사실인 것 같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땅이 꺼져라 푸욱 내쉬며, 칸과 진을 향해 한마디 물음을 건넸다.

“오늘 휴일 아니었어요? 제이가 그랬는데.”

“아침까지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오후니까요. 저희, 오늘 하루 동안 아샤 님의 호위가 됐거든요. 모르셨죠?”

알 리가 있니? 말해준 사람이 없는데. 게다가 난 저들이 내 호위를 서는 걸 허락해준 적도 없다. 대체 누구 마음대로 저들이 내 호위가 되고 말고를 정한 거지? 궁금해지는데.

물론 류 모씨의 소행이겠지만, 일단 지금은 모른 척 넘어가주겠다. 시국이 시국이니 말이다. 게다가 그가 나름대로 내게 호의를 베풀어준 건데, 그걸 호박 걷어차듯 냉큼 뿌리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는가.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처한 내 주제에 말이다.

“황자님은 호위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 말고도 호위는 많은 걸요. 게다가, 저희보단 황자님이 더 강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 그럼 평소엔 왜 호위하신대?”

“하핫!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이 자식, ‘그럴싸하다’의 의미를 뭔가 이상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류이처럼 짱 쎄고 강한 인물이 호위를 달고 다니는 부질없는 모습이 어딜 봐서 ‘그럴싸하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칸과 진이 내 호위를 서주고 있었다니 조금은 감동했다.

내가 위험할까 봐 자신이 아끼는 두 호위 기사들을 붙여주다니. 류이, 은근히 아랫사람을 잘 챙겨주는 따스한 황자님이었구나. 크흑! 첫 만남 때 각인됐던 그대의 첫인상은 내 특별히 뇌내 메모리에서 삭제시켜주도록 하지.

“아까 대회에서 만점 받은 것도 봤어요. 대단하시던데요?”

“그쵸? 제가 좀. 조리실에 돌아가면 특별히 치킨 한 입 먹게 해드릴게요. 지금은 좀 식었을 것 같은데, 치킨은 식어도 맛있으니까 ”

진과 잠시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기 시작한 나. 그런데, 그런 나와 진의 대화 사이에 슬그머니 란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내 얘기 아직 다 안 끝났어.”

“ 엥?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지금 끼고 있는 팔찌와 장갑에 대한 쓰임새를 묻지 못했잖아! 나는 그가 그것에 대한 말을 해주려는 줄 알고 입을 열어 물어보려 했다. ‘이 물건들 쓰는 법 알려주시려고 그러죠?’하면서.

그런데, 이번에도 란이 선수를 쳤다. 그는 내게, 덤으로 진과 칸에게도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내가 말한 ‘감시’는 네 뒤의 저 남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 어? 그럼요?”

감시가 또 있다는 건가? 에이, 설마

“대학 내에 누군가가 잠입했어.”

가 사람 잡는다더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 칸이랑 진을 뜻하는 감시가 아니라면, 다른 누군가가 이 대학에 ‘잠입’했다는 거지? 그런 거지?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지, 그거-!!!?

애초에 대학 내부의 사람이 대학에 ‘잠입했다’라고는 안 하잖아. 외부인이니까 잠입했다고 표현한 거잖아. 전생의 나, 이래봬도 문과였다고? 대화의 맥락 파악 정도는 할 줄 안다고!?

“누, 누가요? 누가 저를 감시하러 대학에 들어온 건데요!? 대체 어떻게?”

“변신 마법으로. 네 근처 인물 중 누군가로 변장했을 수도 있고, 지나가는 행인 같은 인물로 변신해서 네 옆을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는.”

"!"

“그런 인물이야.”

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이 곧바로 입을 열어 반문한다.

“어떻게 그리 자세히 아시죠? 그리고, 당신의 말에는 이상한 점이 있군요. 마법 대학 내에서는 은신 마법이나 변신 마법이 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엘리트라 불리는 저희도 대학의 레이더망만큼은 피해갈 수 없는 수준인 걸요. 그런데 대학에 변신 마법으로 잠입을 한다고요? 그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마법사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오, 논리정연한 반박 ! 그래. 진의 말이 맞다.

“여기 있어. 당신들도 머지않아 알게 될 거야. 어떻게 대학의 철통같은 보안을 고작 변신 마법 하나로 뚫고 들어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처럼 타겟의 주변을 배회할 수 있는지. 왜 그럴 수 있는 인물인가를.”

어? 흐, 흐음. 란의 말은 근거도 없고 신빙성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맞는 말 같다. 이번 만큼은 쳐맞는 말이라는 게 아니라, 신뢰성이 느껴지는 말처럼 느껴진다고. 어째서일까? 그리 느낀 당사자인 나조차도 모르겠다.

이내 말을 끝마친 그가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흘러내린 앞머리를 쓸어 넘긴다. 답지 않은 그의 섹시한 자태를 지켜보던 중, ‘섹시하다 !’는 감상평이 두둥실 떠올라버린 내 몹쓸 뇌 녀석이 몹시 원망스러워졌다. 어째서 이런 진지한 순간에도 외모 감상 따위나 하고 있는 뇌, 당신은 도덕책.

“그러니까 잘 들어, 아샤.”

“으응, 네.”

“나도 그들이 이곳에 들어온 건 느낄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변신했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섣불리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티를 내서는 안 돼.”

“왜요?”

이번 건 내가 물은 게 아니다. 옆에서 진이 의아하다는 듯 던진 물음에, 란이 내게서 시선을 거두고 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안경알을 반짝이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답했다.

“계획이 틀어졌다는 걸 그들이 알면, 다른 희생자가 나오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게 당신들이 될 수도 있어.”

“ 에이, 말이 되는 소릴 하셔야지.”

“똥과 된장을 먹어봐야만 구분할 줄 아는 인물이 그쪽이라면, 나도 더 해줄 말은 없군.”

“아니, 애초에 당신이 말하는 ‘그들’이 대체 누군데요?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건 맞습니까? 피해자인 레플리카 영랑도 범인이 누구인지 갈피도 못 잡는 눈치던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건 묻지 마. 오늘이 지나면 모르고 싶어도 알게 될 테니까.”

란이 뭔가 아는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딱 잘라 저리 말해버리는 바람에, 진이 ‘어라?’하는 표정을 지으며 긴가민가하는 눈빛을 짓는다. 나도 그런 진과 거의 다를 바 없는 표정과 반응을 보이며, 란을 멀뚱히 올려다보고 있는 중. 란이 다시금 내게로 시선을 돌려왔다.

그가 내 양팔을 자신의 손으로 붙잡아온다. 그리고는 허리를 살짝 낮추는가 싶더니, 이내 내 얼굴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그의 얼굴. 지금이라도 빠르게 허리를 뒤로 젖혀야 하나?

라고 고민할 필요는 딱히 없었다. 어느 정도 가까워진 거리에서, 그가 멈췄기 때문. 란의 붉은 입술이 스르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나는 ‘이 자식, 입술이 이렇게 예뻤나?’하는 생각을 해야만 했다. 그렇다. 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곧 있으면 파티가 시작될 거야.”

지금 시간은 세 시가 넘었다. 곧 있으면 네 시가 될 테니까, 노래와 춤 경연을 겸하는 파티가 대연회장에서 열린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나이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을 잇는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곰 인형, 절대로 몸에서 떼놓지 말고 꼭 가지고 다녀. 한 시도 떼놓으면 안 돼. 그리고 조끼는 무슨 용도인지 알고 있겠지?”

끄덕끄덕. 조끼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지.

“지금 네가 끼고 있는 이 장갑에는 순간이동 면역 마법이 걸려 있어. 하지만 그들이라면 이 마법의 존재를 금방 눈치 채고도 남으니까, 만약 장갑을 뺏으려 들거든 곰 인형을 꼭 끌어안고 버텨.”

“ ? 네, 네.”

곰 인형은 내 사기를 북돋워주기 위한 장신구인 건가?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인형인지를 의심해보려는데, 란이 마지막 설명을 덧붙여온다. 그런데 그게 제일 쓸모없는 설명이었다.

“이 팔찌에 대해서는 몰라도 돼. 무조건 끼고만 있어. 알겠지?”

하지만 이번에도 끄덕끄덕.

갑자기 그런 나에게 란이 손을 뻗어온다. 그리고는 내 머리를 쓰담쓰담하기 시작하는데.

이봐, 대답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거야? 내가 개냐? 네가 키우는 너희 집 강아지야? 갑자기 왜 머리를 쓰다듬고 그래, 머리카락 다 헝클어지게. 칭찬할 거면 차라리 말로 해!

“징그럽게 왜 이래요. 이 손 치우시지?”

슬쩍 머리를 옆으로 치우며 내가 하는 말에, 란이 피식 웃는다. 그리고는 내게 말해온다.

“내 예상대로라면 너는 크게 위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는 이게 무슨 개소리?

“그런데 왜 제가 죽어요? 투영의 비약은 왜 그런 결과였고?”

“네가 위험하진 않지만, 네가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

“ 칸. 뭔 소리야, 저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옆에서 진과 칸이 저리 떠드는 소릴 들으며, 머릿속으로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던 나. 란 녀석, 뭔가 알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설명이 영 친절하지가 못한 수준이 아닌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면 안 되는 걸까?

그런 불만을 란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말지를 순간적으로 고민해보는데, 그의 입이 다시금 열린다.

“그러니까, 아샤.”

방금 전 한마디에 대한 것을 물어보기도 전에, 그가 먼저 내게 마지막 말을 건네 왔다.

“죽으면 안 돼.”

이내 란이 검지와 엄지로 딱! 하는 소리를 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린다.

가공할 만큼 빠른 속도로 사라져버린 그로 인해, 그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본 칸과 진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나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란이 사라졌으니 이제 슬슬 장면이 전환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딱 적당한 타이밍이잖아? 간지 나게 퇴장하는 거.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휘몰아치는 간지폭풍의 텔레포트로 그가 이동한 곳은 다름 아닌

“네가 왜 여기 있지?”

“어이,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도서관 내였다. 뭐, 뭐지! 가깝지는 않지만 그리 멀지도 않은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는 분명 란이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인물이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자연스레 누군지를 판별해낼 수 있는 그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주인니이이임-!?!?”

루이스다! 이 무심시크하면서 적당히 듣기 좋은 중저음의 소유자라면, 틀림없이 100% 루이스라고!

쏜살같이 내달려 미로 같이 솟아있는 책장들을 이리저리 쏘다니며 란과 루이스를 찾아보던 나. 이내 어느 책장 사이에 둘이 대면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익숙한 반곱슬 금발머리의 그가 란의 어깨너머로 나를 응시한다. 허억! 눈 마주쳤어. 숨 멎는 줄. 보고 싶었다고요, 주인님아-!

응? 왜 보고 싶었냐고? 글쎄, 그건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내가 루이스라는 주인님을 반기는 집 지키는 개, 바둑이가 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오지만 착각인 게 틀림없다. 그리고 그런 착각이나 할 거면 말이야, 이왕이면 깜찍한 토끼로 해달라고. 알겠니? 마이 뇌.

“ 아샤?”

루이스가 조금 놀란 듯, 커진 눈동자로 나를 쳐다봐온다. 방금 전까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나와 란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대화소리를 듣지 못한 건가? 아, 하긴. 루이스라면 그럴 수 있다. 지금 손에 들려있는 저 살인병기를 방불하는 법전만한 두께의 책을 보아하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란이 순간이동을 했는데 왜 루이스의 옆에 온 거야? 루이스야 벌레중의 벌레인 책벌레니까 이 도서관에 와있는 게 딱히 수상하지는 않다지만, 란 놈의 속내는 영 모르겠는데. 텔레포트 좌표에 오류라도 생긴 건가? 그 정도로 마법을 허술하게 쓰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주인님!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란에게 방금 전 순간이동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보다도 간만에 정면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루이스와의 만남이 내게는 훨씬 더 기쁘고 중요했으므로, 나는 달리듯이 그들, 정확히는 루이스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앞으로 다가갔다.

루이스의 바로 앞까지 다가온 나는, 이내 고개를 들어 올려 그의 푸른 눈동자를 마주한 채로 물었다.

“저 안 보고 싶으셨어요?”

보고 싶었을 법도 한데. 내가 루이스에게 차려준 점심과 저녁이 몇 끼던가? 뭐, 사실 몇 끼 안 된다지만 그래도 내가 간 하나는 기똥차게 잘 하는 편이었는데 말이야. 내 손맛이 그리울 법도 하거늘, 어찌 이리도 무덤덤한 표정일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반갑지 않은 건가?

놀란 표정은 온데간데없이, 차가운 표정이 되어버리는 루이스를 올려다보며 나는 입가에 쓴웃음이 걸리는 것을 막지 못했다. 나 참, 안 이래도 되는데.

“저기, 주인님. 저를 류이 황자님의 조수로 보내려거든 적어도 귀띔은 해주셨어야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그리고 말이에요, 이미 죽을 팔자가 정해진 마당에 다른 사람의 조수로 들어간들, 제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꼭 보내셔야만 했어요?”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말을 하다 보니 루이스를 원망하는 어투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원망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니, 나는 굳이 방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으려 들지 않았다. 이것도 진심이니까.

“이백만 베른은 어떻게 됐어요? 저, 빚지고 팔려 와서 주인님의 조수로 들어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레플리카 가문에서는 뭐라 안 해요? 자그마치 이백만 베른인데?”

“ 안 해.”

“어 왜지? 할 만하지 않나. 이백만 베른이면 방마복이 자그마치 스무 벌인데.”

루이스가 내게 말을 한다. 딱 한마디, ‘안 해’일 뿐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를 들은 걸로도 나는 마음 속 한편이 찡-해졌다.

왠지 루이스도 슬퍼하고 있는 것 같다. 자기 딴에는 숨기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중인가 본데, 이래봬도 나는 이들보다 인생을 두 배는 더 살아온 몸이 아니던가. 저 정도 쌀쌀맞음이 모두 연기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바보는 아니라고, 나.

“더이상 날 찾아오지 마, 아샤. 류이 황자의 조수면 너한테도 좋은 길이야. 앞으로 류 제국에 가게 되면 신분이 면천될 수도 있고.”

단답만 할 것 같던 무표정의 그가 예상을 깨고 긴 말을 건네 왔다. 그런 그에게 보답하듯, 나도 긴 대답을 내뱉었다.

“저기요, 주인님. 저는 신분이고 나발이고 그딴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요. 바닥 인생인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갑자기 올라간들 딱히 적응될 것 같지도 않고요.”

루이스는 내 말에 고개를 젓는다. 그게 아니라는 듯, 마치 짜증난다는 듯이 도리도리.

“내가 싫어. 너와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고, 네가 내 조수인 것도 싫어.”

“왜요?”

“넌 천민이니까. 나 같은 위치의 사람에게 천민 조수라니, 가당치도 않은 경우잖아.”

루이스의 독설에 나는 벙쪘다. 충격을 받아서 이리 된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은 어쩜 이렇게 연기를 못할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루이스, 넌 진짜 배우 하면 안 되겠다. 돈 크라이 마미 같은 꼴이 날 것 같아.

지난 한 달 동안 그 누구보다도 천민인 나를 평범하고 스스럼없이 대해줬던 인물이 바로 본인이면서, 이제 와서 내가 천민이라서 싫단다. 그걸 누가 믿냐? 바둑이도 안 믿겠다!

차라리 ‘네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싫어’같은 독설이었더라면 ‘이 인간이 코가 돌아버렸나?’하는 생각이라도 들어 조금이라도 정나미가 떨어졌을지 모르겠는데, 저 티 나는 거짓말은 대체 뭐냔 말이야. 발상 한 번 루이스답다.

“말 다했어요?”

이 인간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는 더욱 더 루이스에게서 떨어지기 싫어졌다. 나는 청개구리가 아닌가. 이렇게 다정하고 눈치 없고 연기도 못하는 순진한 주인님이라니

꺅! 맘에 들어!

비록 오늘이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지만. 뭐, 그러니까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두자!

“제국 황자의 조수인 게 더 가당치도 않거든요!”

“ !?”

내 정곡을 찌른 대답에 루이스가 ‘아차!’하듯 깨달았다는 표정을 짓지만, 이미 상황은 엎질러진 물. 나는 루이스의 손을 덥썩 잡아챘다.

오늘 하루, 란과 류이에게 손을 잡히기만 했지 누군가의 손을 내 의지로 잡아본 적은 없었는데. 책만 읽어 그런지 곱고 부드러우면서 큰 그의 새하얀 손을 내 고사리만한―나도 내 손이 이렇게나 작은 줄 몰랐다. 루이스의 손이 커서 그렇게 느껴지나?―손으로 꽉 부여잡았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란이 작게 흠칫하는 듯했지만, 내 시선에 루이스 이외의 이가 보이는 그런 소소한 반응 따위는 눈에 들어올 리 없는 상황이었으니,

“가요! 조리실에. 저 오늘 오이다랑 치킨 만들었거든요? 한 번도 안 먹어보셨잖아요. 오늘 제가 그걸로 요리 대회 1등까지 했다구요. 그러니까 괜히 살인마법사의 눈치는 보지 말고, 그냥 저랑 같이 가요!”

루이스의 손을 꽉 붙잡은 채 질질 끌고 가기 시작한 나. 그런 내게 끌려오던 루이스가, 다급히 입을 열어 외쳐온다.

“아샤 ! 아, 안 돼!”

안 되긴, 누구 마음대로!

“돼! 당사자인 제가 된다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 잠깐만 멈춰보라고.”

루이스가 내게 끌려오다말고 법전 같은 책을 들어 보인다. 아, 제자리에 꽂아놔야 한다는 뜻이었냐! 좋아, 그런 거라면 봐주지.

내가 손을 살포시 놔주자, 루이스가 책을 원래의 자리에 갖다 꽂는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몸을 돌려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의 맞은편에 선 이를 바라보는데.

“ 란.”

“왜?”

아직도 안 갔니? 루이스의 너머에 여전히 란이 버티고 서있는 모습. 무슨 할 말이 더 남아있는 걸까? 궁금한 나머지 까치발을 슬그머니 들며 루이스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란의 얼굴을 훔쳐 보았다.

무표정이다. 흐음. 저 녀석의 안경 벗은 얼굴을 딱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는데. 늘 저 불투명한 안경으로 눈을 가리고 다니니까, 무슨 눈빛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나한테 좌표마법을 걸어둔 거지?”

루이스가 물었다. 좌표마법이라면 대상이나 어느 사람에게 순간이동 좌표를 기록해두는 마법이다. 중상급 마법이지만 이 대학 내에서는 못 다루는 사람이 없는 마법이라고 보면 된다. 그 멍청한 꼴찌 아처 놈도 쓸 줄 알만한 마법이랄까.

란이 고개를 끄덕인다 뭐?

“맞아.”

아니, 잠깐만. 니가 루이스한테 좌표마법을 왜 걸어놔? 혹시, 이거 진짜로 삼각관계인가-!?

응? 아니지. 가만 생각해보니 삼각관계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각진 관계가 되려면 란이 루이스를 좋아하고, 루이스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란을 좋아해야 성립이 되는 것인데 내가 란을 좋아하다니, 그런 천지가 개벽할 일 따위가 일어날 리가 없잖아. 아침 드라마식 삼각관계 전개는 택도 없겠군.

“무슨 이유에서 걸어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한테 이동해온 이유는?”

“네 모습이 안 보여서.”

"?"

어, 얼레!? 역시 그렇고 그런 건가!?!?

손바닥으로 입을 딱 틀어막으며 놀라워하자니, 그런 내 표정을 루이스 너머로 본 란이 마치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쯧’하며 혀까지 차고서는 말이다.

이제는 하다하다 란에게까지 무시당하는 내 인생이라니 씁쓸하군. 어쩌다 이렇게 바닥까지 곤두박질친 건지, 흐흑.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게 왜?”

“날이 날이다 보니, 그냥 좀 걱정돼서.”

“우리가 걱정 같은 걸 해줄 만한 사이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한다만 ”

“난 그 정도 사이는 된다고 생각해서 말이야.”

역시 저 대화, 아무리 들어봐도 란이 루이스를 좋아하는, 그런 BL스러운 전개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다.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내 뇌가 쓸데없는 걸 많이 봐서 썩어버린 거 아니지? 솔직히 저 둘, 키도 비슷하고 몸매도 잘빠져서 은근히 잘 어울리긴 하는데 아, 물론 한쪽 얼굴은 예외라지만 말이야. 어쨌거나 상황 참 므흣하긴 하다.

이상하게 돌아가는 지금의 분위기에 그저 ‘?’하는 표정만을 짓고 있으려니까, 루이스가 란에게 쐐기를 박듯 말했다.

“불쾌하니까 좌표는 지워줬으면 한다, 란.”

“아직은 안 돼. 오늘 하루만 참으라고.”

“이유가 뭐지?”

“오늘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라니까. 나 참, 여기저기서 보채네.”

란이 귀찮다는 듯 뒷머리를 긁적인다. 그런 태도에 루이스가 한숨을 나직이 내쉬지만, 딱히 나쁜 의도로 좌표를 걸어둔 건 아니다 싶었던 모양인지 포기한 듯 지그시 눈을 감는다. 이내 눈을 뜨며 란을 향해 말한다.

“그럼, 오늘이 지나면 지워.”

“뭐, 원하는 대로. 대신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너한테 텔레포트를 하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 알겠어. 이유는 나중에 반드시 듣겠다.”

“그래, 그래.”

란이 이제 그만 물으라는 듯 손사래를 치고, 루이스가 더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선다. 그가 몸을 돌리니 나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치킨 먹고 가실래요?”

나는 남녀노소를 설레게 만들 수 있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니.”

그러나 차도남 루이스였다. 으이잉!? 왜 안 먹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연구한 건데! 어떤 비율로 간을 하고, 어떻게 튀겨야 맛있는 치킨이 되는지 얼마나 연습하고 또 연습한 건데!? 같이 오이다도 만들어준 너면서, 대체 왜 안 먹어!! 왜!

“다른 사람은 다 안 먹어봐도, 주인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요!”

단비마냥 바닥에 드러누워 땡깡이라도 피울 기세로 고래고래 떼를 쓰자, 루이스가 크게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그래, 이런 반응이 나와야 어리광 피우는 맛이 있지! 역시 우리 전 주인님이 최고라니까.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란이, 뒤에서 슬그머니 루이스에게

“저렇게 난리치는데, 한 번 정돈 먹어줘라.”

라고 부추겨주기까지 한다! 오우야, 네가 웬일로 이런 도움 되는 짓을 다.

내가 미친 듯이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거리며 ‘맞아 맞아, 한 번만 먹어보라고, 좀!’이라는 눈빛을 지은 채 루이스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자, 그가 마침내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을 하고선 내게 말해왔다.

“ 알았어. 대신 보는 눈이 없는 데서 먹을게.”

“쪼아요!”

끄덕끄덕끄덕!

마지막까지 목숨이 위태로운 나를 배려해 보는 눈이 없는 데서 먹자는 이 남자 좀 보소 이렇게까지 쏘스윗해도 되는 부분인가? 후, 내 심장이 막 뜨거워지다 못해 녹아내리려고 하는 기분인데. 이런 용암스러운 남자 같으니라고.

나는 루이스의 한쪽 손을 내 두 손으로 붙잡아―곰 인형은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웠다―, 그가 행여나 텔레포트로 도망이라도 칠까 봐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완곡한 의지를 두 눈으로 불태우며 도서관 출구로 그를 이끌었다.

진과 칸은 보이지 않는 걸 보아하니, 다시 은신 모드에 돌입한 모양. 아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테지. 류이에게 일러바치기도 할 테고 말이야. 하지만 뭐 어때? 이전 주인님과 간만에 오붓한 브런치 타임 좀 즐겨보겠다는데! 류이가 그런 걸로 뭐라할 만큼 속이 좁은 위인도 아니고 말이야.

그와 함께 씩씩한 걸음으로 출구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도서관을 나가기 위해 출구 문을 열던 내 귓가에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론, 내 바로 옆에 있는 루이스는 아니었다. 조금 멀었으니까.

“아샤.”

"?"

나와, 내 손에 의해 끌려가다시피 따라오던 루이스는 동시에 고개를 뒤로 돌린다. 목소리의 주인은 열 보쯤 뒤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란이었다. 기척도 안 느껴졌는데 어느 틈에 여기까지 따라붙은 건지 모르겠다. 무서운 자식.

“오늘 파티가 끝나면,”

란이 뜸을 들인다. 뭔가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기에, 대체 뭘 보고 있나 싶어 그의 시선 끝이 향하는 곳을 추적해보니

내가 붙잡고 있는 루이스의 손이었다. 앗, 미안해라. 란은 루이스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인간이 보고 있는 앞에서 실례를 해버렸네.

하지만 도망칠지도 모르니까 놓을 수는 없다. 란을 위해 양손으로 잡았던 것을 한손으로만 잡으며, 그를 쳐다보았다.

오늘 파티가 끝나면, 뭐?

“또는 파티 도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 말이야, 지금처럼 곰 인형을 꼭 끌어안은 채로 뒤도 보지 말고 기숙사로 도망쳐. 네 주인 방으로 말이야. 알겠어?”

내 주인의 방이라면 지금 주인님은 류이니까, 류이의 방을 말하는 거겠지? 보안이 제일 튼튼한 방이라고도 들었으니까.

“응. 알겠어요.”

“인형, 꼭 가지고 다녀야 해. 내 말 명심해.”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 앉을 것 같은데요. 아샤, 아니. 고수는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다닐 테니까, 염려 마세요.”

“ 그래. 그럼, 오늘 하루 너희 둘에게 무운을 빌게. 난 이만.”

"?"

나한테 비는 게 아니라, 우리 둘에게 무운을 빈다고? 왜?

루이스가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을 때, 란이 아까처럼 검지와 엄지를 부딪쳐 소리를 낸다. 시공간에 빨려 들어가듯 아주 빠른 속도로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그.

이번에는 완벽하게 다른 곳으로 텔레포트한 모양인지, 도서관 내에는 이제 루이스와 나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에라, 모르겠다.

“치킨이나 먹으러 가죠.”

“아, 으응.”

란 녀석이 의미심장한 소리 씨부리는 게 어디 하루 이틀 버릇도 아니고. 저렇게 신신당부 하는 걸 보아하니, 아샤 아니, 고수만 몸에서 떼놓지 않고 잘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겠지, 뭐.

그가 했던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걸 포기해버린 나는, 이내 루이스를 데리고 도서관 문을 열어 밖으로 나왔다.

루이스가 내가 만든 치킨을 먹어보고는 맛있다고 했다. ‘맛이 있다’고. 맛.있.다고

맛있대! 그가, 드디어 내 음식을 그렇게 평가했다고!

“끼요호오옷!”

아자뵤! 신난다! 닭 울음소리를 닮은 환호성을 내지르며 대학 정원의 중앙에서 훌라댄스라도 추듯 부르르 몸을 떨었다. 몸 속 깊숙한 곳에서 ‘그것’이 끓어오른다. 그것은 바로

쾌감!

드디어 루이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아냈어! 내가, 드디어! 이 아샤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밥도 제대로 할 줄 모르던 내가 언제 이렇게나 성장한 건지 모르겠다. 이 세계에서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잘 태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온다. 환생하길 잘했어. 정확히는 ‘기억을 지닌 채’로 환생하길 잘했어!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 고무신, 병 아, 이건 취소. 어쨌거나 저를 이렇게 환생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계시는 모든 치킨집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오늘 날 요리 대회 일등도, 전 주인님께 칭찬을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치킨집 사장님들을 국회로!

“샤랄랄라라랄랄라- 아름다운- 낮이에요.”

미친X마냥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다 비운 치킨 그릇을 들고 이리저리 방방 뛰다가, 나는 주변에서 나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슬그머니 그릇을 내렸다. 아무리 철면피인 나라지만 이런 건 조금 부끄럽지 않겠는가.

아샤라는 여자애가 죽음을 앞둔 시점에 드디어 머리가 훼까닥 돌아버렸다-하는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해. 그런 건 이 몸이 죽어죽어 비석이 된 후에도 영원히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불명예가 될 것이다. 비석에 ‘미친X 아샤’라고 기록될지도 모를 일이고. 그러니 이런 추접한 꼬락서니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보이는 건 그만두도록 하자. 후 나, 철들었나 봐. 이런 점잖은 생각을 다 하다니.

그나저나 이 그릇은 원래 자리에 갖다놔야 하는데, 조리실의 문이 폐쇄돼버려서 더는 들어갈 수가 없다. 마리랑 아도라와도 이제 곧 만나서 파티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학교 기물을 아무데나 가져다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걸 무슨 수로 조리실에 갖다 놓지?

잠시 고민해보던 나는, 이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진!”

허공에다 대고 이름을 외쳐 부르자, 익숙한 얼굴의 그가 허공에서 스멀스멀 나타난다. 반쯤 투명한 상태로 등장한 진이 내게

“부르셨나요?”

라는 질문을 건네 온다. 음, 천민인 나 주제에 귀한 엘리트 마법사에게 이런 잔심부름을 시키자니 좀 미안한데, 아무래도 마법사한테 부탁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혹시, 이 그릇 아까 전의 조리실에다 텔레포트 시켜줄 수 있나요?”

“아, 그거야 쉽죠.”

진이 싱긋 미소 지으며 내게서 그릇을 건네받는다. 아무래도 저번에 진의 텔레포트로 인해 몸에 구멍이 나는―물론 바구니가―호된 경험을 당해보았던 나이기에, 그의 텔레포트 실력이 조금은 미심쩍었지만

딱!

“오, 잘하시네요?”

“물론이죠.”

검지와 엄지를 부딪치며 내는 소리와 함께 깔끔하게 눈앞에서 그릇을 없애버린 진으로 인해, 그 때의 미심쩍음은 눈 녹듯 사라졌다. 딱 지금처럼만 사람도 텔레포트 시킬 줄 알면 완벽할 것 같다. 하지만 뭐, 진 같은 타입은 너무 완벽해도 재미없지. 적당히 까불거리고 허술한 편이 차라리 거부감이 안 들어서 낫긴 해.

그런데, 진도 왼손잡이였네? 검지랑 엄지를 부딪쳐서 소리를 내는 마법사들은 대부분 오른손을 쓰던데. 왼손잡이는 천재라더니, 진이나 내 주변의 왼손잡이를 보자면 그 말은 완전 개소리 같기도

“이제 어디 가세요?”

“대연회장 옆에 드레스 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도라랑 마리를 만나기로 했어요. 저 화장시켜주기로 했거든요.”

“화장이요!? 아샤 님이?”

“왜, 왜요. 저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뇨, 어, 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너, 방금 뜸 들였지? 니가 밥솥이냐? 뜸이나 쳐 들이게! 왜 ‘화장 안 해도 예쁘세요-’라던가, ‘화장하시면 정말 여신 되시는 거 아니에요?’ 같은 입 발린 소리를 못하냐고! 이 자식.

모자란 마법 실력을 모두 솔직함, 당돌함 등으로 치환해버린 게 아닌가 싶어지는 진을 가느다랗게 뜬 눈으로 노려보고 있자니 진이 반쯤 투명하던 몸을 완전히 원래대로 되돌린 후 내게 말해왔다.

“그럼, 같이 가실까요?”

“그 은신 마법, 막 풀어도 돼요?”

“안 될 거야 뭐 있나요. 어차피 대학 사람들이라면 저희 존재를 다 알고 있는 걸요.”

“하긴 그럼 칸도 은신 마법을 풀지, 왜 혼자만 풀어요? 칸은?”“에이, 한 명쯤은 은신 중이어야죠. 혹시 모르니까.”

“아, 그런 거예요?”

이런저런 별 쓸모없는 잡담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대연회장 코앞까지 도착했다. 루이스와 헤어진 후 류이나 다른 누군가를 만날 틈도 없이 바로 오게 된 곳이라, 드레스 룸의 위치를 모르는 나였기에 주위를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둘러보는데

엇!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친한 인물은 딱히 아니라지만,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그는 다름 아닌,

“아샤 님?”

“피에르?”

아처의 조수인 그, 피에르였다. 어느새 조리복이나 앞치마 등을 모두 벗어 정리해두고 온 모양인지, 지금은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꽤나 쌔끈미가 넘치는 이미지였다. 뒤로 길에 땋은 초록색 머리카락이 나름 매력적인 듯. 역시 얼굴이 받쳐주니까, 저런 초초초 장발도 문제없이 거뜬히 소화할 수 있는 거겠지. 역시 헤완얼. 헤어의 완성은 얼굴이다. 아니, 그냥 인생의 완성이 얼굴인 것 같기도.

그러고 보니, 피에르는 요리 대회에서 몇 점을 받았더라? 20점은 넘었던 걸로 기억한다. 음식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던 아도라조차 18점을 받았는데, 20점을 넘긴 점수라면 피에르는 대체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 물론 어찌 보면 그런 대회에서 30점을 받았던 나란 인간이 더 신기하고 이상한 존재라고 여겨지긴 한다만.

아까 전 대회 때의 기억을 상기시켜보고 있자니, 피에르가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지요?”

“아, 드레스 룸이 어딘지 몰라서요. 저쪽인가요?”

파티 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조수들이 드레스 룸 쪽으로 향하는 모양인지 부쩍 많이 지나가는 것이 보여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이니, 피에르가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아하, 고마워요!”

나는 대답해준 그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로 목례를 꿈뻑 해준 뒤, 잘 가라는 인사로 손을 흔들어 보이며 다른 조수들의 뒤를 따라 드레스 룸으로 향하려 몸을 돌리는데

“저기, 아샤 님.”

“네?”

갑자기 피에르가 나를 불러오기에, 뒤를 돌아보았다. 왜?

“옆에 계신 분은 누구죠?”

옆에 계신 분이라면, 누굴 말하는 거지 ? 라고 생각하며 옆을 돌아보았다가, 진과 눈이 딱 마주치고서야 방금 전 그가 은신 마법을 풀었던 것을 깨달았다. 아, 피에르라면 모르겠구나! 하긴, 매일 같이 은신 마법으로 숨어서 돌아다니는 녀석들 얼굴을 그가 알 리 없지.

“제 일일 호위 기사요. 이름은 진이에요.”

“반갑습니다. 류이 황자님의 전담 마법 기사예요.”

“아, 그렇습니까 ?”

피에르는 뭔가 묘한 눈빛으로 진을 한참 응시하다가, 이내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는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말해온다.

“모쪼록, 아샤 양.”

“네?”

“무탈하길 빌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대연회장의 정문을 문지기들이 열어주자, 그 안으로 입장해버리는데

방금 그 말, 대체 무슨 의미였지?

피에르는 뭔가 베일에 똘똘 싸인 시크릿한 이미지가 강해서, 저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상쩍게 느껴진다. 란이 하는 의미심장한 말은 개소리로 들릴 때가 대부분인데, 피에르는 어째 좀 찜찜한 걸?

“무슨 뜻일까요? 저거.”

“글쎄요. 오늘이 아샤 님께 위험한 날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하.”

진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다. 피에르도 그 때 투영의 비약으로 변신한 내 모습을 봤었으니까, 걱정해주는 게 당연하겠구나.

짜식, 아처의 조수답지 않게 은근히 착하다니까 아처 놈이 지 조수 반만 닮았더라도 사람 구실은 했으련만.

“그럼 이제 가요!”

“넹-.”

깜찍하게 대답해오는 진과 함께, 나는 부지런히 걸어 드레스 룸으로 향했다.

“아샤! 이제 오는 거야?”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드레스룸에 도착한 후, 진은 붐비는 실내를 확인하고선 은신 모드에 돌입했다. 그리고 홀로 드레스 룸에 들어온 나는, 이내 우리들의 춤 경연을 위한 유니폼을 입고서 잔뜩 화사한 화장들을 한 두 그녀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야, 누군지 못 알아볼 뻔. 화장술의 힘이 마법과도 같다더니, 그 말은 과장된 게 아니었구나.

“아, 미안미안. 전 주인님한테 내 환상의 치킨을 맛보여주느 라. 그런데 너희는 벌써 준비 다 한 거야?”

“저희는 진즉에 와 있었는 걸요. 아샤 님만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 시간은 세 시 반. 루이스와 보낸 시간은 10분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어느새 파티 시작을 코앞에 앞둔 시간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파티가 시작된다 함은 이번 생의 내 목숨이 스러질 순간도 목전에 다가왔다는 뜻.

아아, 처음 가보는 파티라서 설레는 마음이 들다가도 살인마법사에 대한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차갑게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든다. 어쩌다 내가 야벨이라는 초 엘리트 마법 용병 집단 같은 인물들에게 위협이나 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 나 같은 일개 천민 따위가, 몇 십억을 줘도 안 움직인다는 용병 집단의 타겟이 되는 날이 오다니.

이걸 기뻐해야 하는 건지, 슬퍼해야 하는 것인지. 아마 후자겠지? 어쨌거나 죽는다는 거니까.

“난 화장 잘 못하는데. 도와줄래? 마리, 아도라.”

“물론이죠. 이리 와서 앉으세요, 아샤 님.”

내 말에 마리와 아도라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화장대 앞 의자에 앉힌다. 그리고는 그녀들 둘이서 부지런히 왔다갔다 거리며 내게 세숫대야를 가지고 와, 가볍게 세수를 하라고 시킨다거나, 그 이후에는 기초 화장품들과 본격적인 색조 화장에 돌입하는 그녀들인데.

“눈 크게 떠보세요, 아샤 님.”

“으응.”

전생에서나 이생에서나 화장이라는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얘네들이 뭘 바르고 있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대연회장 옆에 딸린 대규모 드레스 룸인지라 우리들 말고도 다른 조수들이 왁자지껄하게 돌아다니며 붐비는 이곳이었지만, 그런 주변 환경에도 아랑곳 않고 나를 화장시켜주는 그녀들. 대단한 집중력들이야, 정말!

“아샤 님은 이목구비 자체가 개성이 뚜렷하시니까, 짙은 화장보단 적당히 옅은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마리 양.”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열심히 내 얼굴에 색칠공부를 하고 있는 둘에게 나는 슬그머니 입술을 떼며 말했다.

“대충 해줘도 돼. 어차피 나, 곧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말에, 내 눈꺼풀 위에 아이라인을 그리는 듯하던 아도라의 손길이 허공에서 굳어버린다. 내 기다랗고 검은 머리카락을 땋고 있는 건지, 어떻게 손질하고 있는 것일지 모를 마리 또한 움직임이 멈춘 것이 느껴져 와.

내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녀들은 내 말이 상당히 충격이었나 보다.

“죽는다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아샤 님.”

“맞아, 아샤! 우리도 절대 그렇게 되도록 너를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힘 빠지는 말은 하지 마!”

“어? 으, 으엉 ? 으응.”

그치만 틀린 말은 아닌데

마리와 아도라가 저리 말해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 희박하다는 것 정도야 나도 잘 안다. 란이 나를 도와주려고 뭔가 노력한 것 같긴 하지만, 일전에 그도 말했었지 않은가. 투영의 비약의 미래를 바꾼 사람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 최초가 나란 인물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내가 그런 행운을 타고난 인물이었더라면, 애초에 천민이라는 팔자로 태어날 일도 없었을 테고 말이야.

“마, 맞아. 난 안 죽을 거야. 내가 왜 죽어? 절대로 죽을 순 없지!”

결국 나는 마리와 아도라를 달래주기 위해, 나 자신을 향한 사망 플래그를 꽂아버렸다. 제길, 이런 대사를 뱉고 나면 꼭 그 등장인물이 죽어버리던데.

곧 있으면 죽어버리게 될 그 인물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 몹시도 개탄스럽다. 아아, 신이시여. 왜 대체 저한테만 이런 시련을! 남들은 인생 멀쩡하게 잘만 살아가는데, 왜 나만 19살도 맞이해보기 전에 죽이시냐구요! 진정 그러고도 당신이 신이세요? 등신 아니고!?

“헝 ”

“아, 아샤! 화장할 때 울면 안 돼 !”

“ 아, 미안.”

훌쩍. 나오려던 눈물을 쏙 집어넣으며 더불어 코도 함께 먹어주었다. 크응, 쿨쩍쿨쩍. 곧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니까 속이 엄청 쓰려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마리와 아도라는 내가 죽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있는 표정들이었다. 대체 어디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 나오는 확신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아샤, 류이 님의 파트너로 나갈 때 입을 드레스 말이야, 이건 어때? 우리가 골라봤어. 맘에 들어?”

내 머리 손질을 마친 마리가 어느 새하얀 드레스를 들고 왔을 때, 나는 생각했다.

저 드레스가 나의

“수의인가 크흡!”

주체할 수 없는 오열감을 결국 막지 못한 나는, 손바닥으로 입을 왈칵 틀어막으며 슬픔과 비애에 잠긴 사람의 포즈로 흐느꼈다. 흑흑 !

그리고 그런 나를 안타깝다는 눈빛으로 바라봐오던 두 그녀들, 마리와 아도라는 이내 내게 말해왔다.

“다른 걸로 바꿔 올게. 헛소리 하지 마, 아샤.”

“맞습니다. 그런 개소리는 하는 거 아닙니다, 아샤 양.”

라고 뭐?

“ 너희야말로 나한테서 그런 이상한 말투 배우지 마.”

나오던 눈물도 쏙 들어가 버렸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사회악이었던 것이다. 너무나도 타당한 저승행 급속열차 탑승 사유라, 내 뇌는 그 의견에 뭐라 반박할 거리를 찾지 못했다.

이윽고 이십 분 정도가 흘렀을까, 파티 시작을 십 분 앞둔 시점이 되었을 때

“우, 우와 !”

"!"

나는 내 눈앞에서 마리와 아도라가 마치 아프로디테 여신을 실물로 영접하기라도 한 사람마냥 놀라워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 얼굴에 피에로 화장이라도 한 건가? 내 이목구비 녀석들은 저런 놀랍다는 반응을 이끌어낼 만한 재능이 딱히 없는 걸로 안다만.

“화장 다 끝났어? 아, 어쩌면 내일은 내 시체가 화장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

“자꾸 헛소리 하시면 화장 다 지워버릴 겁니다, 아샤 님.”

“맞아, 아샤! 너 지금 엄청 예쁜 거 알아?”

“예쁘다니 훗. 이 친구들, 농담이 많이 늘었어.”

그녀들의 과한 칭찬에 코를 쓱 훔치며 머쓱한 척을 해보려는데, 눈치 빠른 아도라가 내 손목을 홱 잡아챘다. 그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데 아, 코 밑에 화장 지워지니까 하지 말라고? 이해했다.

그런데, 내가 예쁘다니. 나는 살면서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다만. 물론 이번 생에서 타고난 이목구비는 전생보다는 나았다. 하지만 그것도 그저 그런 평범한 수준이지, 남들을 압도하고 ‘우와!’소리가 터져 나올 만한 외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만

“아샤 님, 화장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으응? 어, 당연하지.”

“그래서 그런가,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파운데이션이 아주 기깔나게 먹혀버렸어요.”

“ 기깔나게가 뭐니, 기깔나게가.”

아도라의 상스럽게 바뀌어버린 말투에 다시금 이들 앞에서 말조심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는데, 옆에서 마리가 손바닥 두개만한 크기의 거울을 들고 쫑쫑 걸어온다. 내가 앉은 화장대는 거울이 없는 그냥 서랍장 같은 화장대였으므로, 나는 줄곧 내 화장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거울이 붙어있는 화장대들은 이미 다른 조수들이 다 차지해버렸다. 저런 욕심쟁이들! 하나만 양보 해주지.

“빨리 네 얼굴 좀 봐봐!”

마리가 잔뜩 흥분한 표정으로 내게 거울을 건네준다. 나는 그 거울을 받아들며, 순간적으로 공포심이 드는 것을 막지 못했다.

혹시 거울을 딱 봤는데, 조커가 ‘씨익-’하고 웃고 있다던가 하는 느낌이면

으아악! 안 돼!

“무, 무섭다 내 면상을 마주하기가 두려워!”

“그냥 보세요! 진짜 엄-청 예쁘다니까요? 주변에 다른 조수들이 힐끔거리는 거 안 보이세요?”

“그건 그냥 내가 곧 있으면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

“아니야, 아샤! 너 화장하니까 진짜 다른 사람 같아. 빨리 거울 보라니까?”

한시 빨리 거울을 보고 놀라버린 내가 심정지로 사망하기를 바라는 것일까. 그래, 어쩌면 투영의 비약이 보여준 그 미래는 내가 내 얼굴을 보고 놀라 까무러친 미래였던 걸지도

그녀들이 재촉하는 말을 들으며, 나는 마리에게서 건네받은 거울을 슬그머니 들어올렸다. 그리고 내 얼굴을 비춰 보았는 데에엑!?

“!?!?!”

띠요옹!?

“뭐, 뭐, 이게 뭐야! 이게 실화라고? 진정 다큐멘터리라고, 이것이? 정녕!?”

“네! 다큐멘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아샤 님이세요!”

“마법 아니고!?”

“응, 마법도 아니야!”

가히 경악스럽다. 이건 정말 충격과 공포, 혼돈의 카오스, 폭풍의 허리케인이 따로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평범하게 생겨먹은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얼굴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바로 화장술인가? 화장술이 아니라 그냥 마법으로 변신술 쓴 거 아니야? 그런 걸 의심해봐야 할 것 같은데.

“마리, 아도라! 너희 둘 중에 한 명, 마법사지?”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진짜 네 얼굴이라고!”

그 소심한 마리조차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듯 팔짝 뛰며 큰소리로 외쳐 답해온다. 그럼 이게 진짜 내 상판이라고? 와, 드디어 내 현실이 폭발해버린 건가, 이런 미친 결과가 다 나오다니.

나는 거울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진짜로 예뻤다. 구라가 아니라, 예.쁘.다.고. 와, 내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려니까 엄청 공주병에 자뻑 증세 말기환자 같네. 하지만 진짜 예뻤다. 내 눈이 돌아버려서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술을 먹어서 눈앞이 빙글거리는 탓에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라, 진짜로 그냥 예쁘다고.

초록 눈동자 위에 짙게 드리운 검은 속눈썹은 마스카라를 칠했는지 평소보다 풍성해보이고, 아이라인은 적당히 길게 빼어 원래도 작진 않았던 내 눈이 더 커 보인다. 마리가 머리 손질에 꽤 재능이 있었던 모양인지, 내 흑단 같은 머리카락은 헤어오일을 바른 후 이리저리 예쁘게 땋아 뒤로 가지런히 모은 후 똥머리를 만들고, 똥머리를 하지 않은 나머지 머리는 아래로 차분하게 내려,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모습 ! 크으.

프란치아에서는 검은 머리카락이 드물기 때문에 서양 노예가 인기가 많다고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보니까 왜 인기가 많은지 비로소 알 것 같다. 새하얗게 화장한 얼굴에 결 좋은 검은 머리카락의 조화라니, 확실히 예쁘긴 예쁘다. 와. 진짜 쩔어주는데. 전생에서는 검은 머리카락에 하얀 피부여도 이런 조합이 안 나왔는데, 서구적인 외모가 뒤섞이니까 이런 기적이 다 나오는 구나. 이것이 바로 유전자의 기적.

아까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곧 죽을 인물이라 다들 구경이라도 난 듯 이쪽을 힐끔거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가만 보니 나를 쳐다보는 인물들 중 7할이 남자였다. 그 숙덕거리기 좋아하는 수다쟁이 여자 조수들조차 나한테 별 관심도 없는데, 남자들이 나를 저렇게 쳐다보는 것이라면

그래! 누가 봐도 지금의 내가 예쁘다는 거잖아?

“오, 대박. 세상에 이런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내 볼을 살짝 만져보았다. 아도라가 파운데이션이 기깔나게 잘 먹혔다더니, 과연 그런 표현을 써도 모자랄 만큼 원래 내 얼굴은 화장을 기똥차게 소화해냈다. 화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더 훌륭하게 먹히는 듯.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피부 하나는 깨끗하긴 했지. 그 몇 개 없던 장점 중 하나가 드디어 도움 되는 날이 오다니 ! 을지가 문덕하고 연개가 소문하며 감개가 무량한 부분!

“이곳에 모인 조수들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아샤 님.”

“에이, 그건 아니야. 머리빨이지.”

“그러고 보니까, 아샤는 머리카락이 까매서 얼굴이 더 하얘 보이는 것 같아. 진짜 부럽다!”

“훗 크큭, 망한 나라 핏줄로 태어난 게 이럴 때에 쓸모가 있을 줄이야.”

모 데X노트의 주인공 같은 표정을 지으며 ‘계획대로 !’하는 표정을 짓고 있자니, 대회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 세 명이 드레스 룸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마법으로 키운 목소리로 쩌렁쩌렁하게 모든 조수들이 들을 수 있게끔 소리치는데,

“다들 대연회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래와 춤 경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 드디어!

“이제 곧 시작하려나 봐! 얘들아, 가자!”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하느님 똥구멍까지 찌를 기세로 치솟은 나는, 아도라와 마리에게 당당하게 외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깥으로 쏜살같이 뛰어 나가려 했다.

그런데 웬걸? 마리와 아도라가 뒤쫓아 와 나의 손목을 한쪽씩 붙잡으면서 다급히 외치듯 건네 오는 한마디.

“아샤 님, 옷 안 입으셨잖아요!”

“아샤, 옷 안 갈아입었잖아!”

? 아, 아차! 이제야 내가 아직도 치킨을 튀기느라 기름때가 묻은 조수 옷을 입은 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 우리가 손수 만들었던 옷들을 입어줘야지! 자칫하면 조수 유니폼 입은 채로 노래하고 춤출 뻔했네.

“그래그래, 옷 어딨어!?”

“제가 챙겨놨습니다. 빨리 갈아입으시죠!”

“응!”

“이거, 아샤 인형도 챙겨가야지, 아샤!”

“아참참, 맞다! 근데 그 곰 인형 이름은 아샤가 아니라 고수라고!”

아도라와 마리의 도움을 받아, 나는 대회 시작 전 부랴부랴 우리들이 만들어두었던 드레스로 갈아입을 수 있었다.

“이 자리에 모여주신 수많은 학생, 그리고 조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춤, 노래 경연의 사회를 맡은 마스 가의 크리스입니다.”

이번 사회자는 뭔가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 느낌이다. 게다가 이전 대회들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아저씨 사회자가 아니라 조수들 중 유쾌한 한 명을 뽑아서 사회자로 세운 듯, 복도를 지나가다 종종 마주치곤 했던 어느 낯익은 얼굴의 조수가 사회자 복장과 빨간색 보타이를 한 채 사회자 자리에 서있는 모습. 그래 뭐, 파티니까 차분한 사회자보단 오히려 저게 더 흥 띄우기엔 좋을 것 같다.

대연회장에 들어와 확인해보니 이 넓은 곳에 모인 사람의 숫자는 거의 이백 명 가까이 되는 듯했다. 학생이며 조수며 가릴 것 없이 몹시 북적거리는 풍경이었으니까. 사람에 이리저리 치일만큼 비좁고 어지러운 장내 상황은 아니라지만, 생각보다 모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 그것도 학생들이 거의 빠짐없이 참석한 듯, 어지간한 이들은 다 와있는 것 같은데 어엇, 저기 레오니드도 있잖아?

헉, 눈 마주쳤다!

“어, 아샤?”

오랜만에 보는 레오니드의 얼굴. 어째 레오니드는 학교에서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었다. 어머니가 초대형 마법 상단인 콘티아를 운영하고 계시다 하지 않았나. 그것을 물려받을 예정인 레오니드이므로, 어머니의 일을 돕느라 학교에 잘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불과 얼마 전에 마리에게서 들었다.

저런 게 바로 금수저. 대학 졸업하면 바로 사장으로 취직이라니, 공작가의 후계자보다도 저런 게 더 부럽다. 공작은 신분이 높을 뿐 별로 돈이 안 된다지만, 초대형 마법 상단의 사장이라면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할 게 아닌가. 후우, 죽음을 앞둔 이런 상황에도 돈 타령이라니 속세에 찌들대로 찌들어버린 나 같으니라고.

우리 무리를 포착한 레오니드가 우리들 가까이로 걸어온다. 란이나 류이, 루이스도 파티장 내의 어딘가에 있을 텐데, 연회장도 넓고 사람도 너무 많아 아직은 그 셋 중 누구도 찾지 못했다. 유일하게 발견한 인물인 레오니드가 내 앞까지 다가와 섰다. 그리고는 넌지시 내게 이런 물음을 건네 오는데,

“저기, 아샤 맞아?”

응? 그럼 내가 아샤지, 아도라겠니? 아니면 마리겠어?

“그럼요, 당연하죠. 네네 치 가 아니라. 너무 오랜만에 얼굴 보는 거라 까먹으셨어요?”

“아, 그게 아니라 ”

레오니드가 살짝 말하기 민망한 듯 자신의 보라색 옆머리를 매만진다. 그러면서 딴청을 부리는 등의 귀여운 표정을 잠깐 짓는가 싶더니―주변에서 레오니드를 힐끔거리던 여학생들이 혼절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이내 말해왔다.

“너무 예뻐져서 못 알아볼 뻔했어.”

“네? 헉.”

그,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본 거였냐. 그런 의도의 물음이라면 백번, 아니 천 번을 더 물어봐도 ‘네, 제가 바로 아샤입니다. 하핫!’이라며 뒷머리 긁적이면서 대답해줄 수 있어! 흐흠, 쑥스쑥스. 부끄부끄.

레오니드의 말에 볼을 발그레 붉히며 수줍어하려니, 그런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듯한 저 멀리의 아처가 눈에 들어왔다. 언제부터 나를 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대처럼 마련된 중앙의 스테이지 너머로 아처가 돌아다니다 말고 자리에 우뚝 멈춰선 채 나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던 모양.

날 왜 저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지? 기분 나쁘게. 뭔가 엄청 신기한 걸 본 사람처럼 멍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봐오는 아처를 부리부리한 눈초리로 째려봐주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니 호다닥 시선을 돌려버리는 녀석.

아직도 저놈한테서 맞은 옆구리가 욱씬거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저 양심 없는 놈 좀 보게. 저 자식이 양심이란 게 있었더라면 감히 내 두 눈동자를 마주할 생각조차 못했을 텐데 말이야. 하긴, 그런 게 있었으면 애초에 날 걷어차는 일도 없었겠지. 재수탱이 같으니라고! 서랍장 모서리에 새끼발가락이나 찧어라.

“루이스는 어쩌고 아 참. 류이 황자의 조수가 되었다고 했지? 내 정신 좀 봐.”

속으로 아처를 까고 있자니, 레오니드가 말을 꺼내다 말고 흠칫하더니 저리 덧붙인다. 바쁘다 보니 내 소식을 제대로 접할 틈이 없었던 모양이다. 투영의 비약에 대한 얘기는 아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만, 만약 모른다면 굳이 말해주고 싶지는 않다.

상단 일로도 충분히 바쁠 사람한테, 내 걱정까지 시키게 할 순 없잖아? 음, 나란 여자 속 깊은 여자.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하하.”

“류이 황자는 조수를 두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어. 아샤, 네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아, 그래요? 고건 또 몰랐네.”

그러고 보면, 류이는 지금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수가 없었다고 들었다. 왜 조수를 안 둔 걸까? 잠시 생각해보았다. 마법 재료도 직접 사러 가고, 그 외 자질구레한 물건도 모두 직접 구하러 다니는 걸 보면 그래, 답은 나왔다. 류이는 상당한 학구열의 소유자인 것이다. 그래서 조수를 안 둔 걸 거다. 조수가 있으면 그들이 잡다한 일을 모두 처리해주지 않는가. 그러면 자신의 실력 향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그럼 난 앞으로 류이를 별로 도와주지 말고 놀고 먹으며 똥 싸는 기계가 되면 되겠군. 물론 그 앞으로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말이야. 하핫! 똥 싸는 기계는 먼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새 주인님. 사요나라!

“어쨌거나 잘 돼서 다행이야. 루이스도 충분히 좋은 주인님이긴 하지만, 아직 네 신분에 도움을 줄 순 없으니까 ”

“에이, 제가 팔자 펴려고 여기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요, 뭘.”

지나가던 웨이터가 샴페인 잔을 권하자, 그것을 우아하게 받아들며 내게 말해오는 타고난 귀족 레오니드. ‘역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들은 뼛속부터가 귀족이로구나. 저 손끝 동작 하나하나 주옥같은 것 좀 봐 !’라는 감상평을 머릿속으로 휘갈겨 쓰며, 나는 가볍게 대꾸해주었다.

뭐, 신분상승이란 의도가 단 1퍼센트도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흑심을 품고서 여기에 들어온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조수가 되어버린 나 아니던가.

그런 생각에서 내뱉은 내 대답,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건 레오니드의 대답이 아닌 사회자의 우렁찬 호명이었다.

내게 마저 말을 건네려던 레오니드도, 그리고 그와 마주하고 있던 나도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그럼, 먼저 노래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뽐내어주실 조수분은 바로 !”

두구두구두구! 스테이지 뒤에 마련된 오케스트라 급의 배경음악을 연주해줄 연주자들 중 북을 담당하는 연주자가 자신의 악기를 마구마구 두드려댄다. 저런 북소리, 오랜만에 들어보는 걸?

사회자가 긴장감을 부여해주기 위해 뜸을 들이는 동안, 경연이 시작되었음을 안 사람들이 하나둘씩 중앙의 스테이지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나와 레오니드도 그쪽을 쳐다보다가, 이내 눈짓으로 서로에게 ‘갈까요?’또는 ‘갈까?’라는 시선을 던졌다. 그래, 가까이 가보자! 나도 저 대회에 출전해야 하니깐 말이야.

“아샤, 아도라! 가자!”

"!"

아도라에게 팔짱을 낀 채 뒤따라오는 마리의 말에도 끄덕.

우리들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표정으로 씩씩하게 스테이지 앞까지 걸어 다가갔다. 그러나 이백 명 가까이 되는 수많은 인파들이 중앙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다 보니, 스테이지와의 거리가 20m쯤 남았을 때 우리들은 멈춰야만 했다. 앞에 몰린 사람들이 너무 개미떼마냥 바글바글했던 것. 여기가 연회장이냐, 개미굴이냐? 구분이 안 가는데.

진즉에 앞자리 좀 차지해둘 걸. 뒤늦은 후회를 하며 키 큰 학생과 조수들 사이로 이리저리 고개를 빼꼼거리며 스테이지를 훔쳐보자니, 사회자는 이어서 이름을 외쳤다.

“피에르 벨제뷔트입니다!”

오잉!? 피에르가?

“피에르 님이 첫 빠네요?”

“그러게, 재수도 없지. 피에르는 어디 있어?”

“아, 저기 올라가시는군요.”

아도라가 가리킨 손가락의 끝에는, 정말로 사회자에게 안내를 받으며 스테이지 위로 올라가고 있는 피에르가 존재했다. 그리고 그런 피에르의 뒤에서 ‘넌 발루아에서 온 엘리트 조수라고, 피에르! 남들보다 꿀리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 본인도 잘 알지?’라며 격려 같지도 않은 망발을 외쳐 씨부리고 있는 그, 아처

저놈은 주둥이를 빨래집게로 집어놓을 필요가 있을 듯하다. 저 썩어문드러지는 피에르의 표정 좀 봐, 보는 내가 다 안쓰러워지네. 그런 안타까운 안색을 한 피에르가 무대 위에 올라서자, 이내 사회자가 조명을 꺼달라는 손짓을 어딘가로 보낸다. 그러자, 대연회장의 눈이 부실 정도로 밝게 반짝이던 커다란 샹들리에의 불이 꺼진다.

그리고 은은한 느낌이 가득한 마법의 촛불들이 일제히 동시에 점화하는데

“우와!”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에 그저 감탄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사라짐으로 인해 어두워졌던 장내가, 밤하늘을 수놓은 별처럼 피어오른 수많은 색색의 촛불들로 인해 은은하게 밝은 느낌으로 변했기 때문. 촛불들이 빨주노초파남보 등 갖가지 색의 불빛들이었기에 대연회장은 한층 파티 분위기로 돌변했다.

이 장소에서 모두가 ‘아름다워 !’라고 입을 살짝 틀어막으며 감탄할 때, 나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느끼긴 했으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마치 분위기 있는 클럽 같다고. 귀족들이 클럽을 차린다면 이런 느낌일까나?

그리 요란하지도 않고, 눈이 아프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아름다운 조명들이 대연회장 천장 아래에 둥둥 떠 있다. 저 떠있는 조명들은 아마 마법으로 띄운 모양인데, 이 세계에 태어난 이래로 마법을 통해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면 바로 지금이 그에 속할 것 같다.

클럽 느낌이 나긴 해도, 예쁘긴 진짜 죽여주게 예쁘네. 거 참 죽기 좋은 분위기다.

“샴페인 한 잔 하시겠어요?”

왁자하게 모여든 조수들 사이를 지나다니며 샴페인을 권하는 웨이터가 지나가기에, 슬그머니 그에게 손짓을 했더니 얼굴에 화색을 띄며 내게 냉큼 달려온다. 세상에, 천민 조수인 나한테 저런 반응을?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군.

이라고 잠깐 생각했으나, 아무래도 저 웨이터는 내가 그 소문 무성한 천민 조수인 줄은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내게 쟁반 위의 샴페인 잔 하나를 건네주고선 방긋방긋 웃으며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라는 인사까지 하고 가는 걸 보아하니 말이다.

이게 다 화장술이 너무 뛰어난 탓이야. 내 탓이 아니라 마리와 아도라의 재능 탓이라고. 얼마나 뛰어난 화장술이면 천민 아샤가 귀족 아샤로 둔갑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진짜 변신술인 게 틀림없다. 마리와 아도라에게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비기가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의심해봐야 할 판.

호로록.

투명한 거품이 쉴 새 없이 부글거리는 샴페인이 든 잔을 받아 들어, 한 모금 홀짝였다. 달짝지근한 게 으음, 기분 좋아. 샴페인의 달콤한 맛을 만끽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하필이면 연회장 바깥으로 완전무장을 한 프란치아 제국과 류 제국의 병사들이 떼거지로 지나가는 것을 보아버리고야 마는데 자, 잘못 봤다고 생각하자. 그러는 편이 내 마음 건강에 좋겠어.

“자, 그럼 첫 번째로 뽑힌 피에르 군의 소감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표정이 썩 좋지만은 않은데요. 아무래도 첫 타자라서 그런 걸까요? 그 점을 감안하여 심사위원 분들께서도 부디 조금의 가산 점수를 주시길 바라며,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긴다고 말했지만 마이크 같은 건 없다. 저 사회자가 말하는 마이크란 증폭 마법을 넘긴다는 뜻이었고, 당연하게도 이후에 피에르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사회자만큼이나 커져 있었다.

“끔찍하군요.”

저, 정말이지 간결하고 자기주장 확실한 피에르의 한마디에, 그것을 들은 사회자의 얼굴은 잠시 사스케의 탈주를 막지 못한 나루토의 표정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번 사회자를 맡은 조수 친구는 꽤나 깐족거리는 스타일인 모양이었으니까.

“끔찍하다, 라! 과연 첫 번째 희생양이 된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입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크네요. 저인들 조수 된 입장으로서 대학 경진대회의 사회자씩이나 맡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하하! 그럼, 지금부터 피에르 군의 노래 실력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중들이 시작에 앞서 일제히 박수를 친다. 짝짝짝. 사회자의 훌륭한 사회 실력에도 감탄했지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누군가가 치기 시작한 박수를 다들 따라 쳐버린 것.

순식간에 업 돼버린 분위기로 인해, 피에르의 표정은 다운되어버린다. 마치 ‘왜 내게 이런 시련이?’하는 표정으로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그. 아아, 안타깝도다. 피에르의 성격대로면 이런 대회는 출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 모든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아처 놈 때문이겠지. 역시 아처가 역적이야, 역적.

“피에르 군의 노래는 ‘철새는 날아가고’입니다. 발루아의 민요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 건물 내에는 언어 마법이 걸려 있으니 가사를 못 알아먹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그럼, 오케스트라? 반주 시작해주세요!”

사회자가 곡에 대한 말을 마치고, 피에르를 슬그머니 떠밀어 스테이지 중앙에 세운 후 자신은 후다닥 스테이지 옆으로 빠져 사회자석으로 돌아간다.

무대 중앙에 떡하니 서있게 된 피에르. 뭔가 엄청 고독한 늑대처럼 뚱하니 서있는 그였지만

나는 들어버리고야 말았다. 그런 피에르를 바라보며 내 앞에 서있는 두 영애들이 주고받는 은밀한 소곤거림을.

“있잖아, 저 조수 말야. 발루아 출신이래.”

“나 쟤 알아. 마나량도 엄청나고, 마법 실력도 출중하다고 들었어.”

“맞아맞아. 나도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아처가 사들였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진짜 안됐다. 대학의 학생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와, 얼굴 진짜 조각 같다. 헌터 가문에 연락해서 내가 사겠다고 해볼까?”

“오, 그거 진짜 괜찮은 생각이다. 저 정도 외모라면 어지간한 돈도 아깝지 않지.”

“킥킥, 게다가 발루아 출신들은 밤일도 잘한대. 엄청 유용하지 않을까? 나, 그런 노예가 한번 쯤 갖고 싶었단 말이야.”

“에이, 그래도 그런 건 류 제국 노예만할까. 하지만 나쁘진 않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데리고 있으면 질릴 일은 없겠 ”

그, 그만 듣도록 하자.

저런 문란한 대화를 귀족 영애들이 주고받아도 되는 거냐고? 딱히 안 될 건 없다. 이 세계에서는 18살 이상부터 성인으로 취급하고, 또 대학에 학생이나 조수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18살을 넘긴 나이여야 하기 때문. 고로 저들은 성인이니까, 야동을 보든 야동을 찍든 음담패설을 하든 아무 제재도 받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저런 건 좀 쓸데없는 얘기들인 것 같다. 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표현은 이런 상황에나 써야 하는 말인 게 아닌지. 피에르가 저런 대화를 들으면 아마 어이가 없어서 뒷목을 잡고 넘어갈 것 같다.

샴페인 잔을 든 채 슬그머니 옆으로 빠져, 다른 이의 뒤로 다가갔다. 이 때 피에르의 노래를 위해 오케스트라 반주가 시작되었기에, 그 연주소리로 인해 내 앞의 누군가는 자신의 뒤에 내가 붙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누군가’란, 바로

"!"

오호라? 이 기집애, 여기 있었구나?

나를 바라볼 때마다 눈빛이 형형한 게, 요리 대회에서까지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는 표정을 하고 나를 꼬라봤었던 그 기집애가 바로 나의 앞에 있다. 그 검은머리 말이다. 가까이서 보니까, 이 녀석

뿌염―뿌리염색―을 안 했군! 원래 머리카락은 붉은색인 모양인지, 뿌리 쪽만 조금씩 빨간 머리카락이 자라 붉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클럽만큼이나 조명이 썩 어둡지만은 않아, 이런 사소한 옥에티까지도 캐치해낼 수 있었으니.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지, 뿌염은 꼬박꼬박 해주라고! 네 이런 머리카락을 류이가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니? 게으른 것 같으니라구.

그 검은머리를 뒤에서 째려보는데에 정신이 팔려 미처 몰랐는데, 그 기집애의 옆에는 저번에 함께 보았던 검은머리의 친구인 초록머리도 함께 있었다. 그 초록머리가 검은머리에게 건네는 말을, 나는 앞으로 귀를 가까이하며 숨죽여 엿들었다. 보자보자 무슨 대화를 주고받으실까나?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이시는데, 쇼콜라?”

쇼 콜라? 대체 그 달짝지근하게 느껴지는 이름은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설마, 검은머리의 이름이 쇼콜라? 쇼콜라라고? 와, 진짜 안 어울린다. 그런 달콤한 이름은 이런 애보단 좀 더 상쾌하고 발랄한 소녀에게나 어울릴 법한

“좀 더 찾아보자, 바닐라.”

데 ?

"?"

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채 나는 멍하니 두 검은머리와 초록머리통을 번갈아 보았다. 이름이 쇼콜라와 바닐라라니, 마치 검지와 중지로 브이를 만들고 눈가에 갖다 대어 남의 가슴 속 하트를 염탐하는 게 주특기인 어느 마법사들이 떠오르는 이름이 아닌가.

그리고 이내 떠오른 사실 한 가지에, 나는 크게 흠칫했다.

피, 피에르가 위험해!

“아아, 유이 님 요 며칠 너무 얼굴 뵙기가 힘들잖아.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걸까?”

“혹시, 그 계집애 때문은 아닐까? 노예라던.”

피에르가 위험하다는 건 물론 농담이고, 내가 판단컨대 더 위험한 인물은 류이가 아닐까 싶다. 나는 눈에서 광기마저도 느껴지는 이 두 스토커들의 얘기를 계속해서 듣기 위해,

“달팽이보다는 참새가 되겠어-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럴 거야-”

마치 파바로티가 울고 갈 성악 실력으로 노래를 시작한 피에르에게도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귀를 포함한 온몸의 신경을 코앞의 그녀들에게만 집중했다.

“ 이름이 아샤랬나? 진짜 나, 걔 보이면 죽여 버릴지도 몰라. 더럽고 천한 노예 주제에 감히 누구를 넘봐? 게다가 나한테 꼬박꼬박 말대꾸까지 하고!”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어. 하지만 머지않아 죽을 애잖아, 쇼콜라.”

“그것도 짜증나. 내 손으로 없애버리고 싶은데 말이야. 그까짓 노예 목숨, 귀족들이 얼마나 가볍게 짓밟아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그럼 어디 용병단에 의뢰라도 맡길까? 야벨? 걔네가 사람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는 거 하난 기가 막히게 한다던데.”

“진짜로 그럴까? 그 잘난 마법사들 천지인 아디티의 용병단이라면 뭐, 그깟 천민 계집애 하나 죽이는 것쯤은 일도 아니겠지.”

“대신 의뢰비가 비싸대. 하지만 우리들이 모으면 그깟 돈, 못 마련할 건 뭐 있어.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되겠지.”

“좋은 생각이야, 바닐라.”

이 두 망할 것들이 소곤거리는 말을 들으며, 나는 내 안색이 점차 하얗게 질려가고 있음을 느꼈다. 얼굴의 피가 쏘옥- 하고 변기 물 내리듯 목 아래로 빠지며 심장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순간적으로 구토가 치밀어 오르는 기분이라, 나는 입을 틀어막으며 검은머리와 초록머리에게서 뒷걸음질을 쳤다. 우, 울렁거려. 샴페인 때문인가?

어느 테이블 위에 샴페인 잔을 대충 올려두고서, 나는 허둥지둥 대연회장 구석의 발코니 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2층인 대연회장의 발코니로 뛰어가 그곳의 난간을 붙잡고 고개를 들어 한숨을 토해냈다. 푸하 !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머릿속이 차가워지며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진정되는 듯하다. 나는 침착하게 생각해보기 위해 입을 꾹 다물고 어느 허공을 멍하니 노려보았다.

혹시 말이다. 란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디티의 용병단 야벨이라 했지 않은가. 혹시 그렇게 말한 이유가

누군가의 의뢰라서 그랬던 게 아닐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란이 야벨에 대해서 잘 아는 인물이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 나를 미워하는 어느 누군가가 야벨에 내 죽음을 의뢰한 게 맞다면

이제야 뭔가 앞뒤가 맞는 것 같다.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 한조 각!? 이 아니라. 비로소 잃어버린 퍼즐 하나를 되찾아 완벽하게 짜 맞춘 기분.

“못보다는 망치가 될 거야-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

파바로티의 후손인 게 아닌지 진심으로 의심되는 어마무시한 성악 실력으로 장내를 장악하는 피에르의 노래솜씨에 놀라기보다도, 나는 방금 전의 내가 깨달은 사실들을 정리하기에 그저 바빴다.

루이스의 조수들은 보통 조수가 된지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나는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또 지금은 루이스의 조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확정된 상태다. 가장 유력한 살해 후보는 바로 그들, 야벨이고.

란의 말대로라면 그들의 수장인 노아 이즈하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앞선 죽음들과는 경우가 너무 다르지 않은가. 나도 줄곧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야 조금 감이 잡히는 기분이다.

야벨은 단지 누군가로부터 의뢰를 받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샤, 그 계집애를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의뢰 말이다.

그럼, 대체 누가?

누가 거금을 들여서까지 내 죽음을 의뢰한다는 거지? 내가 그 정도로 원한을 산 인물이 있나? 그만큼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인물이 대체 누가 있지?

“ 흠.”

난간에서 멀어지며, 나는 다시 피에르가 노래 실력을 뽐내고 있는 스테이지 쪽으로 돌아와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떤 인물이 있지? 보자, 나와 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쇼콜라랑 바닐라라던 저 여자애들은 아니다. 지금 저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걸 보면, 저들이 의뢰했다고 보기엔 타이밍이 안 맞아.

그럼 누가 있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다 보니, 이번엔 자신의 머리카락 색만큼이나 붉은 이브닝 드레스를 빼입고 스테이지를 바라보는 로사가 포착됐다. 로사인가? 저 인간이라면 집안도 공작가에다 남부럽지 않은 재벌 집안이니 의뢰비 정도야 껌 값일 것 같고. 나를 그리 좋아하는 눈치도 아니었으니까 살인청부를 할 수도 있겠

지는 개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역시 로사가 내게 살인청부를 할 만한 마땅한 이유는 없다. 대학에 처음 오던 날, 아처에게 걷어차였던 그 때의 상황에서도 로사는 그저 여유만만한 방관자의 입장이었지, 나에 대한 적개심 같은 게 이글거리는 눈동자도 딱히 아니었으니까.

그럼 대체 누가 있지?

“어? 잠깐만 ”

로사라고 하니까 생각났어! 내가 왜 그 일을 까먹고 있었을까?

경진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잡화점에 갔을 때, 아처 패거리를 맞닥뜨렸었지 않은가. 그때 분명 아처 놈이 그랬었다. ‘야벨에게 죽여 달라고 의뢰라도 할까?’라는 식으로. 정확히는 아처의 친구 녀석이 지껄인 소리였지만, 지금 와서 보니 아처 패거리들이 제일 유력한 내 죽음의 원인인 것 같다.

그들 중 누군가가 내 죽음을 의뢰한 것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니, 높은 것보다 거의 유력한 가능성인 것 같아. 범인은 분명 아처야! 그런 게 아니고서야 이제는 류이의 조수가 된 나를 야벨이 노릴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다. 분명히.

나는 그렇게 생각을 굳히고, 살벌해진 표정을 하고서 스테이지 중앙으로 점점 파고들었다. 정확히는 아처를 향해, 인파를 마구 헤집으며 파고 들어갔다는 소리다.

“앗, 뭐야!”

“밀지 마!”

내게 떠밀린 영애들이 불만의 소리가 사방에서 마구 터져 나온다. 앗, 죄송.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라서 말입니다.

“저 자식이었어 !”

꾸벅. 나는 다급히 밀쳐진 이들에게 목례로 사과하며, 아처를 향해 점점 나아갔다. 그런 지금은 피에르의 노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차라리 내 발 아래 흙을 느끼고 싶어-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 꼭 그럴 거야.”

전문적으로 성악을 배운 게 아닌지 모든 이들이 의심할 만큼 훌륭한 실력으로 노래를 끝마친 피에르로 인해, 녀석의 얼굴에는 자만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내 두 눈동자에는 오직 그 인간의 쪼개고 있는 면상밖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니. 이대로 쭉 전진해 놈의 얼굴에 원 펀치를 꽂아주고 말 테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를 빠득빠득 갈던 나. 부지런히 걸어 아처와의 거리가 불과 5M쯤 남았을 때, 갑자기 내 앞에 누군가가 슥- 하듯 등장했다.

는 무슨, 그냥 지나가던 행인이었다. 그는 마저 지나갔다.

성난 맘모스마냥 돌진하는 내 앞을 가로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현재 류이나 란, 루이스는 셋 중 누구도 이 주변에 없었고, 마리와 아도라는 피에르의 노래 실력에 감탄하며 박수 치느라 내가 이러고 있는 줄도 모를 것이다.

씩씩거리며 아처의 코앞까지 다가온 나는, 이내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아처의 앞으로 불쑥 등장해 오른손으로 놈의 멱살을 틀어잡았다. 원 펀치 쓰리 강냉이를 실현해보고 싶었으나, 쓰리 강냉이는 커녕 원 강냉이도 불가능할 것 같아 일단 시작은 가볍게 멱살로.

“너지!?”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으르듯이 물었다. 갑작스레 내게 멱살을 잡힌 아처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를 내려다봐온다.

잠시 황당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던 아처가, 이내 눈썹을 확 구기더니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하?’하는 비웃음을 터뜨린다. 뭐지? 이 반응? 뭐하자는 것이지?

“당연한 걸 왜 물어?”

“!!!”

이내 녀석의 입에서 나온 대답에, 나는 뚝배기를 후라이팬으로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금 아처가 당연하다고 했지? 자기가 범인이라고 시인한 거지? 그런 거지 !

가 아니라. 다시 생각해보니, 나는 아처에게 ‘너지!?’라고만 물었을 뿐, ‘네가 범인이지!?’라고 묻지는 않았다. 이 자식, 뭐가 당연하다는 거지?

“뭐가 당연한데?”

너냐고 물어놓고 내가 또 이런 질문을 건네자, 아처는 마치 나를 미친 여자라고 취급하는 눈빛을 짓는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부리부리한 눈깔로 그를 올려다보며 멱살을 더욱 꽉 쥐어 잡았다. 대답해!

“내가 주인이니, 피에르가 저런 노래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게 당연하잖아. 무슨 뻔한 걸 묻고 있어? 자그마치 이번 노래 경연을 위해 그 유명한 빠바로티 선생까지 붙여줬는데.”

"?"

잠깐. 이건 또 무슨 황당한 대답이지?

아처의 말에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내가 아처에게 ‘너지!?’라고 물었을 때와, 그에 따른 아처 놈의 ‘당연하지!’라는 대답에 대해.

이내 답은 나왔다. 이 멍청한 자식은, 내가 물은 그 ‘너지!?’라는 물음을 ‘저 엄청난 노래 실력의 조수 주인이 너지!?’로 해석한 것이다. 굉장히 아처답게 멍청하고 단순한 사고와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앞뒤 맥락 없이 너냐고만 물은 것도 나였기에 무턱대고 까기도 좀 그렇다.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이기도 하잖은가.

쳇 그럼 어쩌지? 아, 그래. 한 번 돌직구로 물어보자!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을 운명인 건 변함없으니까.

“빠바로틴지 짜빠X티인지, 그런 건 관심 없고. 네가 나를 살인 청부한 거잖아! 그렇지?”

잡고 있던 아처의 멱살을 앞뒤로 마구 흔들어대자, 놈의 몸이 휘청거린다. 크게 당황한 눈빛으로 아처가 ‘왜, 왜 이래?’하는 표정을 하는가 싶더니, 이내 주변에서 아처의 친구―라고 쓰고 따까리라 읽어야 할―들이 세 명 쯤 우르르 몰려들어, 내게

“이 천민 계집이! 드디어 미쳤나?”

라고 소리치며 아처의 멱살을 잡고 있는 내 손을 떼어내려 한다. 하지만 쉽게 떨어져줄 생각이 없는 나였으니, 굳건히 그의 모가지를 틀어쥔 채로 나는 다시금 물었다.

“저번에 그랬잖아! 용병단에 나를 죽여 달라고 의뢰를 할 거니 어쩌니 하면서. 내가 죽게 된 거, 다 네가 벌인 짓이지? 그렇지!?”

“무, 무슨 소리야!”

아처가 팔짝 뛰며 아연실색한다. 이건 또 무슨 반응이래? 당연스럽게 흑막 포스를 뽐내며 ‘씨익-’하는 미소라도 짓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지가 더 놀라며 크게 당황한다. 처음엔 발뺌인가? 싶었다만

“내가 살인 청부를 왜 해! 미쳤다고 하겠냐? 그런 걸!?”

“그치만, 저번에 너랑 니 친구들이 그렇게 떠드는 걸 보고 들은 증인이 세 명이나 있거든!?”

“하지만 난 아니야! 혹시, 너희들 중 누가 한 거야?”

아처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자신의 친구들에게 묻는다. 그때, 잡화점에서 보았던 그 얼굴들이다.

“아니!”

“절대!”

“난 그 정도로 돈이 많지도 않은데?”

응? 다들 아니라고 한다. 게다가 저 얼빵한 얼굴들을 보아하니, 딱히 살인 청부를 할 만큼 두뇌회전이 재빠르고 잔인한 심성과 부유한 재산을 지녔을 것 같지도 않다.

진짜로 아처네가 원인이 아니라는 건가? 그럼 난 왜 죽는 거지 ?

“진짜 아니야?”

작아진 목소리로 쭈뼛거리며 묻자, 아처가 답답하다는 듯 멱살을 잡은 내 손을 뿌리친다. 그리고는 확실한 목소리로 짜증내듯 답해오는데,

“내가 널 왜 죽이려고 하겠냐고!”

란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아처가 내게 보여 왔던 모습들만 해도 어떤 게 있는가. 자그마치 대학에 온 첫날부터 조수라는 이유로 헥토파스칼 킥을 날려 내 갈비뼈를 와장창 부숴버리질 않나, 저번에 잡화점에서는 나와 내 친구들을 깔보며 으스대질 않나. 싸가지와 개념을 모두 잃어버린 천방지축 유아독존 귀족이란 게 무엇인지 그 표본을 제대로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을, 정작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난 똑똑히 기억한다만.

“날 괴롭혔잖아. 나 싫어하잖아?”

“싫어해! 너 같은 천한 핏줄이 이곳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짜증나고!”

아처 놈이 답한다. 그런데도 네가 범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죽일 정도로 싫어하는 건 아니야!”

아처의 이어진 말에, 나는 잠시 가만히 녀석의 눈동자를 올려다보았다.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기 위함이었는데, 아무래도 진심인 모양이었다. 어찌나 당황했는지 얼굴까지 꽤 붉어진 채 식식거리는 아처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 화난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내가 졌다.

“아니면 미안.”

“아니, 그러니까 야.”

내 추리가 틀리다니. 망연자실한 표정을 하고서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그런 내 어깨를 아처가 붙잡아온다. 왜?

고개를 뒤로 돌리자, 기묘한 표정을 하고 있는 아처 놈의 얼굴이 있었다. 과연 무슨 말을 하려고 나를 붙잡은 거지? 혹시 미안하다고 하려는 건가? 머릿속으로 오만가지 생각을 다 해보는데, 놈은 물어왔다.

“왜 자꾸 반말이야, 너?”

“ 내 맘인데.”

머지않아 죽을 사람한테 존댓말을 그리 받아내고 싶냐! 그럼 그렇지. 아처가 갱생되길 바라는 것보다 내일 당장 내 몸뚱이가 지구에서 다시 환생되길 바라는 게 더 현실성 있겠다.

“아, 아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다시 가던 길을 가려는데, 아처가 내 어깨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 또 무슨 용건이 더 남은 거냐고, 짜증스런 표정을 지으며 뒤를 홱! 돌아보았더니

“야, 그러니까 ”

“뭐?”

“주, 죽지 마.”

갑자기 아처는 그리 말했다.

이놈이 안 하던 짓을, 아니, 안 하던 소리를 하네?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던데. 하지만 아처가 죽을 일은 없고, 이건 아무래도

나의 사망플래그인가! 크윽.

“그, 그래. 고맙다.”

“ 진심이야. 네가 진짜로 죽길 바란 적은 없었어.”

“빈말이라도 감사. 그럼, 난 이만.”

아처의 씁쓸한 표정을 뒤로하고, 나또한 마찬가지로 몹시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 곁을 떠났다. 사회자가 한창 ‘그럼, 다음 노래 실력을 뽐내줄 조수 분은 바로바로-!’하고 소리치는, 또 북소리가 두구두구두구! 하며 울리는 이런 순간에 나는 세상 슬픈 표정을 하고서 천장에 떠있는 촛불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너넨 참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나는 오늘 명을 달리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희는 세상모르고 그리 영롱하게 빛나고 있구나. 사람 놀리니? 못된 것들. 흐흐흑.

가장 유력한 범인이라 생각했던 이도 알고 보니 범인이 아니고, 더 이상 야벨이 나를 죽이려는 데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란이 말한 이유는 내 머리가 차마 받아들이질 못하고. 대체 나는 왜 죽는 것일까. 어째서 그런 거물들에게 노림당하는 것일까 아아, 정말 그 노아 이즈하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 이유의 전부일까? 정말 그런 걸까?

“바로 아샤 외 2인방입니다! 어라? 3중창인가요? 대회 역사상 노래 부분에서 여럿이 출전한 적은 제가 알기론 한 번도 없는데 말입니다. 세 분, 무대로 나와 주시죠!”

응?

“아샤! 아샤- 어디 있어!?”

“아샤 님- 저희 차례예요!”

스테이지 쪽에서 내 이름이 불리는가 싶더라니, 다급히 내 이름을 부르는 아도라와 마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벌써 우리 차례라고!?

피에르가 맨 첫빠로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 때 참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나라고 해서 그럴 처지가 아니었던 모양. 2빠라니, 우리가 2빠라니?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하다 못해 터져버릴 것만 같은데, 이제는 노래까지 불러야 한단다. 어째서 신은 내게 이리도 가혹한가? 왜 내 뇌가 쉴 시간을 안 주시느냔 말이야!

“간다, 가!”

스테이지 앞에서 대기하며 부지런히 나를 불러 찾고 있는 그녀들에게 뛰어갔다. 짧은 원피스 같은 드레스를 펄럭거리며 그들 앞에 도달하니, 대회 관계자인 이들이 우리를 스테이지 위로 올라가라는 듯 손짓한다.

눈앞에 있는 이 계단을 올라가면 모든 학생과 조수들이 우리를 쳐다보겠지? 그리고 그들은 사실 이 나라 프란치아를 손아귀에 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신분과 재력을 지닌 인물들이고.

내가 어쩌다 이런 대단한 인간들 앞에서 장기자랑을 선보이게 됐을까. 역시 인생이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그래, 누가 예상인들 했겠어? 이렇게 아픈 곳도 없고 마냥 멀쩡한 내가, 곧 있으면 죽게 될 거란 걸.

“ 후우.”

일단은 침착하자.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으니 말이야. 내 뇌 용량이 적었던 거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일단 어지러운 생각은 잠시 뒤로 미뤄두자. 지금은 오로지 노래에 대한 생각만 하는 거야.

무대 체질은 딱히 아닌지라 두근거리기 시작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심호흡을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려왔다. 대체 누

구!?

“어, 황자님?”

고개를 돌려 보니, 나를 부른 인물은 바로 류이였다! 오늘 하루는 얼굴을 보기 힘든 그―아무래도 나 때문이겠지만―가 눈앞에서 나를 부른 채 서있었던 것. 사방에서 영애들이 볼을 붉히며 류이를 응시하는데, 그런 여자들의 눈빛에 단 1의 관심도 주지 않으며 류이는 나만 뚫어져라 쳐다봐오고 있었다.

“유이 님 ”

“아아 ”

가만 보면 류이는 어장관리 수준이 아니라 양어장 하나를 차렸다. 그 양어장의 주인인 류이는 내 얼굴을 한동안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응시하는가 싶더니, 이내 말해왔다.

“ 오늘 엄청 예쁘네, 아샤.”

“?”

류이가 이런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날이 다 오다니

사방에서는 가히 충격과 공포라는 듯 영애들이 픽픽 혼절하는 광경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천하의 류이가 볼을 붉히며 저런 표정을 짓다니! 여기저기서 ‘유이 님이 저런 표정을 어떻게!?’라거나, ‘유이 님, 웃으니까 열 배, 아니 천 배는 더 멋있으셔!’라는 반응들이 터져 나온다.

그리고 그런 류이를 상대하고 있는 나 무,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하지? 일단은 웃어보이자.

“어, 음 가, 감사합니다!”

“아샤, 한 가지 말해둘 게 있어서 왔어.”

“네? 뭔데요?”

사회자가 류이의 등장을 보고서는 ‘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샤 양의 학생 분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려는 것 같네요.’라며 시작을 재촉하는 관객들을 달랜다.

그런 상황에서, 류이는 내게 말해왔다. 사실 그건 격려의 말 같은 건 아니었다.

“지금 대연회장 주변을 병사들이 둘러싸고 있어. 수상쩍은 인물이 보이면 바로 병사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

“아, 저야 괜찮아요. 그런데 수상쩍은 인물이 대학 내에 진짜로 들어온 건가요?”

“칸이 전해주더라. 란이 누가 이곳에 잠입했다고 했다며?”

“아, 네.”

그랬긴 하지. 진위여부는 모르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게 가능한 인물이라면 언제 어떻게 널 습격할지 몰라. 그러니까 더욱 조심해야 해.”

“ 아, 그렇죠?”

“이 곰 인형에 대해 란에게서 들었어. 꼭 떨어뜨리지 말고 가지고 다녀야 해. 알겠지, 아샤?”

류이는 내 양 어깨를 붙잡으며 다정하게 말해온다. 그런 풍경을 지켜보던 사방의 학생과 조수들이 아찔한 현기증과 질투를 함께 느끼며 나를 노려보거나, 하트가 뿅뿅거리다 못해 흘러넘칠 것만 같은 애정 어린 눈빛으로 류이를 응시하는 중.

란이 류이에게 이 곰 인형에 대해 말해줬다고? 나도 궁금하다. 이게 대체 무슨 용도길래 들고 다녀야 하는 건지 물어보자는 생각에 슬그머니 입을 열려던 나. 그런데, 사회자의 독촉에 그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아샤 님 외 두 분들. 세 분이서 함께 부르시는 노래이니, 심사 점수는 똑같을 거란 거, 알고 계시죠?”

“아, 네. 곰 인형 들고 올라가도 상관 없나요?”

“물론 상관없습니다. 어서 올라들 오시죠!”

“잘하고 와, 아샤. 지켜보고 있을게.”

사회자의 말에 셋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자니, 류이가 심장을 멈춰버리기 딱 좋은 미소를 살포시 지으며 내게 응원의 한마디를 건네 왔다.

분명 나한테 한 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누군가가 털썩-하며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저기요? 류이는 그쪽들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물어보긴 글렀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곰 인형을 끌어안고, 란이 준 팔찌와 조끼, 장갑 들을 착용한 채 오늘을 무사히 보내는 것밖에는 없다. 오늘 하루가 지나간다고 해서 안전하리란 보장은 결코 없지만, 일단 고비는 오늘인 것 같으니까.

그래, 한 번 해보자. 나는 이들이 말한 것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지키자.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자. 아니, 슬퍼하게 만들지 말자고.

화이팅, 아샤!

“가자! 마리, 아도라!”

“응!”

“네!”

우리들은 씩씩하게 스테이지 위로 올라선다.

대연회장 끄트머리이자 중앙에 커다랗게 마련된 그 스테이지에 올라가고 보니,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마치 먹잇감을 눈앞에 둔 하이에나들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하, 하지만 긴장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날을 위해 얼마나 피땀눈물 흘려가며 노력했던가!

그 노력을 헛되이 할 수야 없지. 나는 마리, 아도라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대 중앙에 섰다.

“준비 됐지?”

“응!”

“물론입니다.”

둘 다 열정적인 이글아이를 하고서 나를 응시해온다. 그래, 저런 의지들이라면 뭘 불러도 성공하겠군. 라X온킹 노래를 불러도 대성하겠어.

하지만 우리들의 노래는 그것보단 난이도가 있다. 전생에서였다면 이 노래의 반주가 깔리는 즉시 ‘앗, 저 노래는 !’이라는 반응이 터져 나왔을 유명한 노래였겠으나,

똥- 똥- 똥똥똥-

“뭐야, 저건 ?”

“반주가 이상한데? 악보가 잘못됐나?”

“다른 연주자들은 왜 다들 쉬고 있지?”

구슬픈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기 무섭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 또는 “???” 같은 반응들로 가득했다. 이 세계야 교향곡이나 성악 같은 것만 존재하니까 뭐, 당연한 거겠지만.

"!"

스타트를 끊는 건 아도라이기 때문에, 그녀가 목을 작게 크흠크흠! 하며 푼다. 이 때 증폭 마법이 이미 걸린 상태였던 모양인지, 그녀가 목을 푸는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지만 괜찮다. 우리의 노래는 저런 사소한 실수쯤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을 테니까!

피아노 반주가 적당히 흘렀을 때, 아도라의 파트가 시작되었다.

“식어버린 작은 손- 차갑게 떨리는 입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고개 숙인 채 ”

아도라의 도도한 목소리가 장내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데, 아도라의 목소리는 충분히 우아하고 좋았으나 그 가사를 들은 관중들의 눈빛은 그저 어리둥절 자체였다. 당연히 그렇겠지. 이 세계에 이런 노래는 존재하지조차 않으니까.

하지만 확신할 수 있다. 시작은 초라하지만 끝은 창대할 거라고!

이번엔 심사위원 쪽을 쳐다보았다. 이제 마리의 파트다. 성악밖에 모르는 이곳의 사람들은 과연 이 노래를 어떻게 평가할까? 아직은 표정이 좋지 않다. ‘지금 이곳에 장난하러 나왔나?’하는 표정으로, 세 명의 심사위원들이 앉아있는데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누군가를 추억하는- 네 모습 두려운 거니~ 입 안에서 맴도는 말, 애써 삼키며-”

마리의 파트가 끝나고, 내 차례가 왔다. 흠흠. 크흠.

“외면했었던 뒷모습이~ 새하얀 눈처럼~ 조금씩 녹아 내려-”

이 노래로 말할 것 같으면, 자그마치 전생의 내가 축제에 나갈 적 반 친구들과 함께 연습했던 노래였다. 갑자기 그 때가 그립군. 하지만 지금도 나쁘지만은 않다. 내게는 마리와 아도라라는 두 친구들이 있잖은가!

“어두워진- 밤하늘을- 떠나지 않는 별처럼~”

3인이서 함께 부르는 파트가 시작되자, 사람들의 눈이 똥그래진다. 마치 ‘저, 저 노래는 뭐지 ? 저건 마치!’하는 표정들이 되는데 치킨의 맛을 처음 보고 놀라던 심사위원들의 표정과 흡사하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신드롬.

내가 바로 음악계의 마이클 잭슨이다! 적어도 이 세계에서만큼은 말이야! 물론 전생에서였다면 저작권법으로 잡혀갔겠으나, 지금 같은 상황이 가능한 건 이곳이 지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사람 내가 될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굳어버린 그대 맘을, 영원의 따스함으로 감싸 안을 거야-”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니, 어느새 2절까지 모두 완벽하게 부른 후 아~아~ 아아아~ 하는 아카펠라도 끝이 났다. 피아노 반주가 끝이 나고, 우리들의 노래가 막이 내렸을 때 주위는 고요했다.

약 3~4분 가까이 되는 노래를 완창했음에도, 피에르가 노래를 불렀을 때와는 달리 사방이 고요했다는 것이다. 다들 놀란 눈빛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는다. 뭐지? 저 반응들은.

“별로였던 걸까요?”

분명 우리는 잘 부른 것 같은데, 어째서 아무도 박수를 쳐주지 않지? 아니, 박수는커녕 ‘잘 부른다 !’같은 사소한 말마디 하나도 터져 나오지 않는 조용한 장내.

목에 걸린 증폭 마법은 그대로였지만,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우리들은 떠들었다.

“그러게. 이상했나?”

“난 좋았는데 처음 연습할 때부터 좋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아, 아샤 외의 두 분이 불러주신 노래가 끝이 났습니다 !”

말을 주고받고 있자니, 퍼뜩 정신을 차린 사회자가 잠시 놓친 흐름을 붙잡아 입을 열어온다. 그러자, 잠시 멍한 표정으로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입 하나 벙긋거리지 못하던 관중들의 표정에도 ‘앗!’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 때 갑자기

짝짝짝짝!

“완벽합니다!!!”

누군가가 미친 듯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내지르는 것이 들려왔다. 관중들 쪽이 아니라 무대 옆의 심사위원석 쪽에서 들려온 것 같다 싶어 옆으로 고개를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를까!

“살면서 이런 노래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완벽하고 센스 만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대체 이것은 무슨 노래입니까! 혹시 아샤 양이 직접 작사 작곡한 건가요?”

심사위원석의 중앙에 앉아있던 아저씨―J로 시작하는 어느 엔터테인먼트 사장님을 닮았다―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외치듯 물어오는 게 아닌가.

직접 작사 작곡했냐고? 그럴 리가. 나는 그런 음악 천재가 아니란 말이지. 나는 어지까지나 전생으로부터 노래를 표절해온 것뿐이지만

“아, 그, 그렇 죠?”

이 세계에서만큼은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제 전생에서 듣고 배운 노래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지어준 노래라고 둘러대기엔 ‘그 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되물어올 것만 같은 분위기이기에 얼렁뚱땅 대답한 나의 그 한마디에,

“정말이지 위대한 조수분이로군요! 이름이 아샤라고 했나요?”

어울리지 않게 양 볼에 손바닥까지 대며 잔뜩 흥분한 채로, 그 심사위원은 말해왔다.

“저 천재 조수는 제가 캐스팅하겠습니다!”

"?"

“아, 아니요! 제가 캐스팅하겠습니다!”

“그, 그건 안 됩니다! 제가 !”

아까까지만 해도 ‘저게 무슨 개똥 같은 노래지?’하는 표정으로 우리들의 무대를 지켜봤던 심사위원들이, 지금만큼은 나의 팬이 되어 서로 티격 거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노래로 완벽하게 유혹해버렸군. 어쩌다 이런 결과까지 낳아버린 거지? 대단하다 지구, 대단하다 K팝

나는 서로 ‘제가 캐스팅 하겠습니다!’, ‘아뇨, 저 인재는 저희 뮤직 아카데미에 어울린다구요!’하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나를 가지고 다투는 심사위원 세 명을 향해 딱 잘라 말했다.

“저는 데뷔할 마음이 없는데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캐스팅은 무슨 캐스팅이야.

누군가 내 불안정한 목숨줄이나 안전하게 캐스팅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며 시선을 심사위원 쪽에서 거두고 관객들이 있는 곳으로 돌렸더니, 곧바로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누군가의 얼굴들이었다.

무대가 끝이 나니 긴장됐던 몸이 다소 진정이 되어, 얼굴을 분간하기가 쉬웠다. 내 눈동자가 발견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저 멀리, 대연회장 문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점만큼 작게 보이는 루이스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루이스 옆에 딱 달라붙어있다시피 한 란.

그리고 인파들 사이에서도, 스테이지의 거의 앞에 위치한 자리에서 제이를 비롯한 기사들에게 호위를 받으며 나를 올려다봐오고 있는 그, 류이였다.

“ 아샤.”

류이가 나를 불러오며 싱긋 미소 짓는다. 파티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늘 입는 하얀 셔츠와 회색 조끼, 그리고 검은 정장바지―하지만 내가 알기론 역사용으로 특수 제작한 비싼 정장이라고―를 입은 그가 말이다.

이곳에 막 올라왔을 때에는 정신이 없었기에 류이가 이렇게나 스테이지와 가까운 곳에 서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비로소 긴장감이 사라지고 나니, 물 먹은 듯 멍멍하던 귀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어온다. 그런 내 귓가를 파고든 것은, 바로 앞에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는 그의 한마디였다.

“수고했어.”

류이는 예쁜 눈웃음을 지으며 저리 말해왔다.

사람이 너무 예뻐도 곤란하다.

엄청 곤란해.

“위험했어 ”

후우, 하아. 후우, 하아. 심호흡을 내쉬며 들뜬 심장 녀석을 진정시키는 중. 그러고 있는 지금의 장소는 바로 화장실이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노래 경연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장실부터 가고 싶어졌다. 내 차례는 진즉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연이 끝날 때까지 몸은 쭉 경직된 채로 있었기 때문.

요리 대회 이후에 먹었던 치킨이 원인인지는 몰라도, 생리현상으로 인해 다급히 화장실에 뛰어온 나는 살살 아프기 시작한 배를 붙잡고 볼일을 보고 있었다. 끄응.

이래서야 다음 차례인 춤 경연 때에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며 좌변기에 앉아있는데, 화장실에 누군가가 들어온다. 두 명 정도의 발소리였는데, 처음엔 그리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X을 싸며 잠자코 그들의 대화를 엿들어보자니

“아까 봤어? 걔네들 노래 부르는 거.”

“ 잘 부르긴 하더라.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재수 없어. 죄다 싸가지 없게 생겨가지곤!”

엇! 저 익숙한 목소리와 띠꺼운 말투라니?

"?"

딱 들어도 쇼콜라랑 바닐라잖아! 어이, 이것들아. 니들보다 싸가지 없는 사람을 찾는 건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힘들 것 같다.

의도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화장실에서 끙아를 싸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 두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 버렸다. 하지만 마지막 칸에 들어와 있는 나의 존재를 저들이 알아차릴 일이야 없겠지. 나는 안일하게 생각하고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 끄으응

퐁당.

“아, 더러워. 누가 대변 누는 것 같은데?”

“쇼콜라, 말조심해. 학생일지도 모르잖아.”

“아, 그렇지.”

니들은 생리현상도 없냐? 똥도 안 싸? 배가 아프고 응아가 마려운 걸 어쩌란 말이냐. 나는 변비가 없는지라 냄새도 딱히 안 나는 편이니 저들의 코에 큰 민폐를 끼치지도 않았을 텐데, 저 무례한 말투들은 대체 뭔지. 혹시 몰라 일단 재빠르게 물을 내렸다. 쏴아아.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너무 오냐오냐 키워도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쇼콜라와 바닐라의 부모님 얼굴이 궁금해지는 순간, 갑자기 그녀들의 말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 잠깐만, 바닐라. 이거, 걔 곰 인형 아냐?”

“어, 그렇네?”

저게 무슨 소리지? 걔 곰 인형? 곰 인형이라면 내가 들고 다니던 그 인형을 말하는 거

잖아!?!?

화장실에 들어오기 전, 곰 인형을 세면대 옆에 올려두고 왔었다. 쇼콜라와 바닐라는 그것을 본 듯,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살펴보기 위해 이쪽으로 점점 다가오는데

마침내 내가 들어가 있는 칸의 앞에 섰다. 그랬다. 현재 이 화장실 안에는 나와 쇼콜라 무리들밖에 없었던 것이다. 고로 문이 닫혀 있는 칸도 하나밖에 없었다.

이런 빌어먹을! 제발 그냥 가주라.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던 길 계속 가달라고!

그러나 내 바람대로 일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 그렇게 고분고분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줄 것 같았다면, 나는 단명하는 게 아니라 강동X을 닮은 잘생기고 멋진 남자와 결혼하여 백년해로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물론 농담이다. 강동X을 닮은 남자가 미쳤다고 나와 결혼하겠어?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 일을 어쩐담?

똑똑-

“저기요, 안에 누구세요? 혹시, 아샤?”

언제부터 친했다고 ‘아샤?’라며 이름을 부르는 걸까. 듣는 아샤의 어이가 인어공주마냥 물거품이 되어 저 멀리 떠나가 버렸다. 부럽다, 나도 너희처럼 이곳을 훨훨 떠나가 버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걸 바로 사면초가라 하던가. 나를 극도로 싫어하는 두 여자애들을 화장실 문 너머에 두고 있는 이 순간, 나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이 상황을 훌륭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저기요? 안 계세요?”

답은 하나뿐이야!

“홀홀홀 나한테 하는 말인감 ?”

코를 검지와 엄지로 꽉 쥐어 막고서, 코맹맹이 할머니의 목소리를 내어보았다. 그러자 목소리를 낸 나조차 놀랄 정도로 썩 그럴싸한 할머니의 음성이 입 밖으로 튀어나갔다. 다재다능한 나, 역시 굉장해 엄청나!

“아, 죄송합니다.”

메이드들 중에는 할머니 메이드도 있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는 가끔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도 종종 볼 수가 있다. 쇼콜라와 바닐라는 지금 이 칸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그런 할머니일 거라 생각한 듯, ‘가자’라는 짧은 말을 내뱉음과 함께 따각거리는 구두소리를 내며 화장실을 빠져나간다.

휴우, 스테이지 클리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볼일을 마저 보았다. 그리고 2분쯤 후, 한결 나아진 배를 쓰다듬으며 화장실 문을 슬그머니 열었을 때

나는, 결국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맞닥뜨려야만 했다.

“그딴 허접한 흉내에 속을 줄 알았어?”

쇼콜라와 바닐라는 가지 않았다. 그렇다. 내 성대모사는 허접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렇게 그녀들을 마주친지 약 5분 정도가 흘렀을까.

슬슬 춤 경연이 시작될 시간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화장실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 쇼콜라와 바닐라를 맞닥뜨린지 5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대변을 보겠다고 대연회장에서 멀리 떨어진 화장실에 들어온 게 문제였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나는 이 화장실로 올 게 아니라 대연회장 바로 옆의 화장실에서 응아를 쌌을 것이다. 젠장!

쾅쾅쾅!

“저기요! 누구 없어요!?”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서조차 상상 못했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쇼콜라와 바닐라에게 존재를 완전히 발각되어버린 나는, 그녀들의 손에 의해 화장실 칸 안에 감금당해버렸다.

왜 발버둥치지 않았냐고? 안 쳤을 리가. 하지만 내가 헐크도 아니고, 내게 달려드는 두 악착같은 기집애들의 손을 벗어날 도리는 마땅히 없었다.

게다가 나는 천민이잖은가. 함부로 발버둥 치다가 귀족의 몸에 손찌검이라도 해버리는 날엔, 불경죄에 의해 모가지가 뎅겅-당해버릴 거라고.

내 사인이 살인마법사의 손에 의한 끔살이 아니라, 단두대에 의한 처형이 되어버린다는 소리다. 그래, 내 마지막을 불명예로 장식할 순 없지.

그러한 판단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에 처해버렸기는 하다만

“나가야 하는데 ”

나갈 수가 없다. 아무리 두드려도 사람은 올 기미가 안 보이고,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소리 같은 것도 들리지 않아. 어쩌지? 눈앞이 노래진다.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 와서 문을 열어주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기적적인 확률로 단 한 명조차 이 화장실을 방문하지 않는다. 크윽, 이러고 있다간 춤 경연이 시작되는 게 더 빠르겠어.

어쩔 수 없지. 5분이나 기다렸으면 충분히 많이 기다린 거야.

나는 그리 생각하고서 변기를 밟고 올라섰다. 사실 탈출하려면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않은 것은 혹시라도 나와 마리, 아도라가 열심히 만든 드레스가 찢어질까봐 그런 거였다.

하지만 그 드레스가 찢어지는 것보다 춤 경연에 아예 출전하지 못하는 게 더 속상한 일일 것 같아, 나는 조금의 출혈을 감수하기로 마음먹고 칸막이 위쪽으로 손을 뻗었다. 닿는다!

“끙차!”

윽, 높아도 너무 높잖아, 이거!? 하지만 여기서 포기했다간 춤 경연을 포기해야만 한다. 그것도 절대 안 될 일이지. 기를 쓰고 다리를 위로 뻗어 칸막이 위로 올렸다. 휴우,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탈출한 거야.

넘었다! 좋았어, 이대로 뛰어내려서 착지!

“후우.”

가뿐했군. 무사히 넘는 데에 성공했다. 혹시 드레스의 어느 부분이 찢어지진 않았을까 싶어 양옆으로 이리저리 붉은 치마의 아랫부분을 살펴보지만, 다행히도 실밥이 터진 부분 같은 건 보이지 않는다. 정말 천만다행이군. 옷도 무사하고, 나도 무사하고!

그 기집애들이 문을 막아두기 위해 설치해두었던 밀대도 치워버린 후, 나는 화장실 밖으로 향하려 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춤 경연에나 가보실 ”

까?

세면대 옆으로 다가간 나는, 이내 지금의 내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사라져버렸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란이 준 곰 인형이었다.

“ 아 ”

지금 내 심정을 단 한 단어로 설명해보라면, 그것은 ‘멘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란에게서 귀가 닳도록 가지고 다니라는 잔소리를 들었던 그 물건을, 류이조차 내게 몸에서 떼놓지 말고 들고 다니라 했던 그 물건을

그 말을 들은 지 두 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홀라당 잃어버리고야 말았다.

아무래도 범인은 쇼콜라와 바닐라일 거라고 추측하는데, 화장실에서 빠져나와 다급히 그녀들을 사방팔방 찾으러 다녀보았지만 보이지가 않는다. 이제 곧 있으면 춤 경연이 시작할 시간이라 그녀들도 이곳에 와야만 할 텐데,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아. 그렇다는 건?

혹시, 도망간 걸까? 나의 곰 인형을 챙긴 채 그대로 도주!?

라고 생각하기엔, 그깟 인형이 뭐라고 걔네들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분명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아샤! 뭐하다가 이제 온 거야? 한참 찾았다구.”

“괜찮으십니까, 아샤 님? 표정이 좋지 않으신데요.”

“아, 그게 ”

스테이지 근처에 서있자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나를 찾아낸 마리와 아도라가 이쪽으로 뛰어오며 다급히 한마디씩을 건네 온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쇼콜라와 바닐라를 찾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 대체 어디로 튄 거지? 그 망할 것들이!

“아샤 님, 갑자기 손이 허전해지신 것 같은데 ”

“헉, 아샤! 인형은 어쩌고 혼자 온 거야?”

내가 내내 들고 다니던 곰 인형의 유무를 알아차린 그녀들도 놀란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물어온다. 그러게나 말이다, 내 목숨이 달린 그 인형을 그 기집애들은 대체 어디로 빼돌린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초조해진다. 아아,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나는 란이 그렇게까지 애쓰는데 내가 대체 어떻게 죽게 되는 걸까-라고 생각했었다. 팔찌에 장갑에 조끼까지, 온갖 마법 아이템은 다 둘러주었잖은가. 그런데 가만 보니, 내 사인은 고작 인형을 잃어버린 것 하나가 아닌가 싶다.

그런 결말이라면, 나로서는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 이젠 하다하다 질투의 화신들이 저지른 방해로 인한 사망이냐? 진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도 정도가 있지! 왜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에 내 인형을 빼돌리는 건데? 대체 왜!

“잃어버렸어. 마리, 혹시 쇼콜라랑 바닐라라는 애들, 어디로 갔는지 봤어?”

“응? 여기 연회장 안에 있을 텐데 방금 전에도 마주쳤어. 아, 저기 있네!”

마리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려 보니, 과연 그 끝에는 쇼콜라와 바닐라가 있었다. 당연하게도 류이의 근처였고, 그녀들의 타겟인 그는 제이에게 무언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쇼콜라와 바닐라가 그런 류이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을 붙여보려 하는 것 같을 때

“저년들이!”

나는 눈을 희번득거리며 류이가 있는 그곳을 향해 코뿔소처럼 달려갔다. 너희가 방해한 만큼 나도 너희를 방해해줄 테다! 큰 코 다치기 싫다면, 빨리 내 곰 인형 내놓으라고!

“황자님-!”

나는 고래고래 류이를 외쳐 부르며 그의 코앞까지 달려갔고, 제이에게 소곤거리듯 작은 목소리로 말을 전달하던 류이가 그런 나를 확인하고선 시선을 돌려온다.

바닐라와 쇼콜라 또한 나를 쳐다봐오는데 !

“크, 큰일 났어요!”

에라이, 나도 몰라! 일단 저지르고 보자.

인형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꽁꽁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큰일이 나는 것보다는, 일찍이 실토하는 게 내 목숨 연장에 도움이 되겠지.

나는 류이에게 글썽거리는 눈동자를 하고서 호소하듯 말했다.

“황자님이 주신 인형을 잃어버렸어요!”

엉엉! 울음을 터뜨리는 시늉을 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덮어버리자, 류이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봐온다. 나는 그의 그런 표정을 손가락 틈새로 슬며시 훔쳐보고 있었는데, 이내 류이의 표정이 원래의 덤덤한 안색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내게 두어 발짝 걸어 가까이 다가오더니, 허리를 살짝 숙여 나를 들여다보듯 시선을 맞춰오는데 앗, 안 우는 거 들키겠다. 더 꽁꽁 가리자!

“아샤, 울어?”

“이, 인형을 잃어버려서 황자님이 잘 가지고 다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감히 ”

“난 괜찮아. 일단 진정해.”

류이가 나를 보듬어 안듯 내 어깨를 토닥여온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의 영애들이 샘이 나다 못해 분통까지도 터진다는 표정을 짓고, 바로 옆의 쇼콜라와 바닐라는 머리를 얻어맞기라도 한 사람처럼 벙찐 표정이 되지만, 아직 이걸로는 부족하다.

사실 그 곰 인형은 란이 준 것이잖은가. 그런데 내가 ‘황자님이 주신 곰 인형’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류이가 상황을 살짝 눈치 챈 것 같기도 한데, 완전히 알아차리지는 못한 모양. 그가 내게 물어온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류이의 물음에, 나는 우물거리듯 말했다.

“누가 저를 화장실에 가두고 제 곰 인형을 훔쳐갔어요! 엉엉엉!”

우는 연기를 하다 보니 진짜로 설움이 북받치는 것 같아, 나는 눈물이 눈가에 왈칵 고이는 것을 느꼈다. 앗, 하지만 진짜로 울어선 안 돼. 눈 화장 다 지워지잖아.

눈물을 컨트롤하기 위해 애쓰고 있자니, 나를 토닥여주던 류이의 손길이 갑작스레 뚝하고 멎는다 으응?

“화장실에 가뒀다고?”

갑자기 평소와는 달리 목소리가 너무 냉랭한 것 같아, 나는 류이의 상태가 대체 어떻게 되어버렸기에 이런 낯선 저음이 되어버렸나 싶어, 슬그머니 얼굴을 덮었던 손을 내렸다.

내 눈앞에는, 상당히 화난 얼굴을 한 그가 있었다 하지만 화가 나도 아름답구나. 너란 남자, 어쩜 그리 완벽하게 생겨먹은 거니?

흑진주를 박아 넣은 듯 새카만 눈동자를 어느 때보다도 살벌하게 빛내며 나를 내려봐오던 그, 류이. 이내 그가 내게 물음을 던지며 동시에 옆으로 고개를 돌린다.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이 남자가 움직일 때마다 찰랑거리는 검은 칼단발이란 정말이지

치.명.적. 으윽, 심장마비로 나 죽는다. 사람 살려!

“누가 그랬는데?”

류이가 나를 향해 상긋이 미소 지으며 물어오는 한마디에, 쇼콜라와 바닐라를 흘끔 쳐다봐주었다. 사실 저것들이 범인이라고 이실직고할 마음 따위는 전혀 없었고, 그저 그녀들의 똥줄을 바짝바짝 타들어가게 해줄 심산으로 저지른, 그런 사소한 행동이었는데

“ 너희야?”

하필이면 그 조그만 동작까지도 놓치지 않고 캐치해버린 그였다. 으아니, 이러면 내가 마치 고자질쟁이가 된 것 같잖아! 아, 물론 고자질쟁이가 맞긴 맞지만.

유력한 범인이 쇼콜라와 바닐라일 거라고 실토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류이가 그녀들을 의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마리와 아도라가 허둥지둥 이쪽으로 달려와 어리버리한 눈빛들로 나를 지켜봐오고 있고, 대학 내에 유일한 타국 황족인 류이가 중심이 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 사방에서 이 학생, 저 조수들이 ‘뭐지, 뭐지! 팝콘 각인가!?’하는 느낌으로 몰려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나는 그저 어버버거리며 류이에게 붙들린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류이의 정색한 표정,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아니, 오랜만이라는 표현을 쓰기엔 딱히 본 기억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그의 새하얀 얼굴이 차갑게 굳어버리니 얼음보다도 차갑게 느껴진다.

어쩌다 이런 골 때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나 싶어 크게 당황하고 있자니, 쇼콜라와 바닐라가 억울하다는 듯 류이를 향해 외쳐왔다.

“아, 아니에요! 황자님!”

“너희가 가둔 게 아니라고?”

“그, 그게 아니라 그 인형이 황자님이 주신 건 줄은 몰랐는데. 이, 일단 인형은 저희가 훔치지 않았고요, 저 그게, 그러니까.”

차마 황자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류이가 믿어주지 않을 거라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가뒀냐는 물음은 인정하는 뉘앙스로 답하는 그녀들.

인형은 훔치지 않았다는 대목에서 내가 ‘ ?’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류이는 다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

“그래서, 아샤를 누가 가뒀다고?”

“그, 그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저희가 ”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만 딱 대답해. 짜증나게 주절거리지 말고.”

“ 저, 저희가 했어요.”

“왜?”

류이가 피식 웃으며 묻는다. 저런 중2병 터지는 행동도 왜 류이가 하면 영화 속 한 장면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 나는가 참으로 미스테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심각한 표정을 하고서 류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쇼콜라가 갑자기 눈물을 우왕! 하듯 터뜨렸다.

뭐니, 저건?

“화, 황자님을 좋아하니까요!”

쇼콜라가 거의 대성통곡하는 느낌으로 질질 짜기 시작했다. 눈물은 옮는 건가? 덤으로 옆에서 바닐라도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는가 싶더니, 이내 쳐 울기 시작하는데 아니, 상황이 대체 왜 이렇게 되어가는 거야? 누가 보면 나랑 류이가 잘못한 줄 알겠다.

피해자는 분명 나인데, 가해자 둘이서 엉엉 울어대고 있는 지금의 상황. 춤 경연 시작 직전이라, 사회자가 시작을 위해 사회자석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눈동자들은 우리들에게로 향해오고 있었다. 저들에게는 춤 경연보다도 류 제국 황자가 벌이는 스캔들이 분명 더 흥미로울 테니까.

하지만 류이는 그런 스캔들을 일으킬 마음 따위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었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더니, 역시 그 말은 개소리였어.

“내가 좋아해달라고 한 적 있어?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너희 둘, 꼴도 보기 싫으니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마.”

류이의 싸늘한 대답에, 쇼콜라는 내가 전생에서 보았던 어느 다섯 쌍둥이가 나오는 만화 속의 막내처럼 펑펑 울어대기 시작했다. 저러다 쓰러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울던 쇼콜라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고, 그나마 멀쩡하던 정신의 바닐라가 ‘쇼콜라! 쇼콜라!?’를 외치며 한참 동안이나 감성 팔이를 해대다가, 이내 춤 경연의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한마디와 대회 측 관계자들의 손에 의해―류이의 입김이 작용했다―대연회장 밖으로 끌려 나가야만 했다.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되었는데

그래서, 내 곰 인형은?

어라?

“그럼, 지금부터 춤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한마디가 대연회장에 울려 퍼질 때, 나는 거의 패닉에 가까운 표정으로 류이의 팔을 매달리듯 붙잡았다. 그리고 물었다.

“제 인형은 어떡하죠, 황자님 !?”

류이에게 묻는다고 해서 사라진 곰 인형이 뿅! 하고 다시 나타나주는 건 아닐 테지만, 어딘가에 물어보기라도 하지 않으면 답이 나올 일도 없지 않겠는가. 긴박한 나의 물음에, 류이가 다소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흠 ’하는 소리를 낸다.

그러더니 이내, 누군가를 향해 나와 보라는 듯 손짓을 하는 그. 대체 누구한테 하는 손짓인가 싶어 류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보니

“진, 칸?”

여기까지 따라 들어왔었네! 아참, 그러고 보니 오늘 하루는 내 호위를 담당한다던 이들이지.

진과 칸이 뾰로롱- 하듯 은신 마법을 스르르 풀며 등장하고 있는 모습. 슬슬 소란스러워지고 있는 대연회장 내부라, 사람들의 시선이 슬금슬금 스테이지 쪽으로 향할 때쯤이었으므로 그들의 등장에 딱히 놀라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 애초에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잘 깐족거리는 조수 사회자가 스테이지 중앙에서 어깨까지 들썩거리며 장내의 흥을 돋우고 있기 때문.

아까보단 비교적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들은 비밀스런 대화를 주고받는다. 소곤소곤, 속닥속닥.

“부르셨습니까?”

평소보다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나타난 그, 진이 류이를 향해 대답했다. 그러자 류이는 그들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하길,

“이 파티가 끝나면, 아샤를 기숙사 방까지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호위해줘. 할 수 있겠지?”

라고 물었다. 그 말에 진이 고개를 끄덕끄덕, 과묵한 칸은 한 번 끄덕이며 알았다는 표현을 해 보인 후,

“네, 물론이죠!”

진은 자신 있게 이리 답하기까지. 대답을 들은 류이가 가보라는 듯 손짓하니, 다시금 은신 모드에 돌입하며 이 공간에서 스르르 자취를 감춰버리는 둘.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겠다만, 그 인형이 없어도 되는 걸까? 정말 진과 칸의 호위만으로도 무사할 수 있는 걸까? 저들의 실력에 의구심을 품는 건 아닌데, 아무리 최정예 마법 기사라 해도 단 두 명의 호위만으로 내가 야벨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서지 않는다.

혹시, 이런 모든 정황들이 나를 죽음으로 밀어 넣게 되는 건 아닌지 슬그머니 두려움이란 녀석이 엄습해오는데.

"?"

문득 옆을 돌아보니, 평소와는 달리 은신 모드를 해제하고서 류이를 호위 중이던 제이가 어느 류 제국 병사로부터 은밀한 말을 전해 듣는 듯, 심각한 표정을 하고서 귓속말을 받고 있다. 류이도 내 시선이 그쪽을 향하고 있는 걸 보고선 제이 쪽을 쳐다보는데.

“무슨 일이야, 제이?”

류이의 물음에, 제이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내 눈치를 조금씩 살피는가 싶더니, 이내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나직한 목소리로 방금 들은 말을 전해오길

“대학 내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마나가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숫자는 약 36명 정도라는데, 침입 시간은 오후 2시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프란치아 병사들을 모두 풀어 샅샅이 수색 중이지만, 찾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데요.”

“ 그래?”

류이의 표정이 차갑게 굳고, 나는 몸이 차갑게 굳었다. 설마 설마 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날이 진짜로 오늘인 모양이다. 그렇게 철저한 보안을 위해 수십 수백의 정예 병사들을 세워놓고 대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서른여섯 명이나 되는 숫자가 대학 내에 침입했다? 이게 말이야, 똥이야. 순 개똥같은 상황이잖아, 이거.

한숨부터 터져 나온다. 결국 죽는 거라는 얘기네, 나. 이런 젠장맞을 일이 다 있나.

“그럼, 그 서른여섯 명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데요?”

내 물음에, 제이가 고개부터 내젓는다.

“모르겠습니다. 변신술로 잠입해있을 수도 있고, 은신 마법으로 기척을 숨기고 다니는 중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상당한 고위 마법들인 모양인지 프란치아와 류 제국의 마법력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계예요.”

“그렇게 대단한 마법사 놈들이, 어째서 아샤를 ”

류이가 영문을 몰라 답답하다는 듯 앞머리를 쓸어 넘길 때, 나는 옆에서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서있었다.

혹시 말이다. 란의 말이 전부 맞다면 지금 대학에 침입했다는 그 36명이 모두 용병단 야벨이라면 말이다. 그들이 아디티의 사람들이라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 프란치아에 대한 복수심으로 루이스를 괴롭히고, 또 그 측근인 나를 죽이려 드는 거라면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대체 뭐가 있을까? 있긴 할까? 나도 정말 살고 싶은데. 두 번째 인생이다 보니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그렇지만 역시 아무리 생각해 봐도,

“ 없잖아.”

나직이 중얼거리는 내 말을 류이가 들었다. 마치 ‘뭐가 없는데?’하는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봐오는 류이에게 나는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다. 지금 내 심정을 그에게 털어놓았다간, 현재 주인이자 꽤 가까운 사이이기도 한 그가 몹시 슬퍼할 것 같아서 말이다. 천민 노예인 내가 언제부터 일국의 황자씩이나 되는 인물과 썩 가까운 사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느낌이고 기분이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 결국 나는 죽는 거였다. 투영의 비약이 머지않아 죽게 될 내 미래를 보여줬을 때부터, 모든 건 정해져 있는 거였어.

류 제국 정예 병사들, 프란치아 정예 마법사들이 찾아 내지조차 못하는 아디티 출신의 뛰어난 마법사들. 그리고 난 그들의 먹잇감.

아아, 망했어요. 이건 진짜 제대로 망했다.

말없이 류이에게서 돌아서며, 나는 멍하니 앞으로 걸었다. 터덜터덜.

지금까지 옆에서 모든 상황을 그저 초조한 눈빛으로 지켜보고만 있었던 마리와 아도라가 다급히 나를 향해 뛰어오며 ‘아샤, 아샤!’하고 불러오지만 그런 그녀들을 류이가 ‘잠시 머리를 식힐 수 있게 가만히 두는 게 좋겠어.’라고 말하며 말린다. 또, 그와 동시에 사회자가 스테이지 중앙에서

“그럼, 춤 실력을 뽐내주실 첫 번째 조수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외치고 있을 때였지만, 내 몸은 아무런 말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스스로 귀를 닫아버렸다.

이쯤 되면 대략 정신이 멍해진다. 대체 내가 왜 죽어야 하지?

“스피어스 가문의 브리트니 양!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죠.”

얼굴도 모르는 어느 조수가 스테이지 위로 올라갈 때, 나는 아까처럼 또 다시 발코니 쪽으로 슬금슬금 나가고 있었다. 가서 뛰어내릴까? 머리를 아주 그냥 땅에 확 처박아 버려?

하지만 그렇게 죽는 것도 아플 것 같다. 야벨이라는 그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죽이려 들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심장마비로 죽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일 듯.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들의 손에 죽나 여기서 떨어져 죽나 아프긴 매한가지로 아플 것 같다. 그리고 여긴 2층이라 떨어진들 죽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마치 내 존재가 살아있는 민폐덩어리 같다. 기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라지만, 어쨌거나 나로 인해 류이와 루이스, 란이 고생하며 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잖은가.

나는 그들에게 마땅히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과분한 친절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뭐라고. 나는 일개 천민인데. 쥐뿔도 없고, 죽어도 울어줄 가족조차 한 명 없는 천애고아인데.

그런 내가 살아있어서 뭐해. 이렇게나 주변 사람들을 고생시키면서, 목숨을 부지해서 뭐하냐고. 어차피 죽을 건데.

“살아서 뭐해 나 까짓 게.”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모든 말이 맞다. 란이 했던 그 모든 말이 사실이었다고. 나는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 천하디천한 노예 계집일 뿐이고, 그래서 루이스의 조수가 된 것이다. 이제야 알 것 같다. 레플리카 공작이 왜 나를 이백만 베른이나 되는 거금을 주고 사들였는지.

그것은 내 목숨 값이었던 것이다. 그래, 목숨 값! 에스테의 수비 대장 아저씨가 마법 상점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였던 나를 돈을 주고 사들인 건, 결국은 내 목숨을 돈 주고 샀다는 뜻. 그렇기에 나는 루이스의 조수가 되었고, 지금 같이 죽기 직전의 처지에 놓여 있는 거다.

이게 정답이로군. 골든벨 50번 문제만큼이나 어려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맞췄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다. 그래, 내 죽음을 확신하게 만들어준 문제인데 맞췄다고 해서 기쁠 리가.

“죽기 싫어.”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아보기 위해 하늘을 올려 보다가, 결국은 서러움을 참지 못해 손바닥으로 얼굴을 덮어버렸다. 아까 전 류이에게 보였던 거짓 울음과는 달리, 이번에는 정말로 슬퍼서 나오는 눈물이라 어찌 참아볼 도리가 없었다.

눈물 흘리면 화장 다 지워질 텐데. 친구들이 정성스레 해준 소중한 화장을 망치고 싶진 않았지만, 눈가에 그렁그렁 고인 눈물이 결국은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급히 손등으로 그것을 닦아보지만, 이어서 반대쪽 볼을 타고 눈물 한 방울이 턱을 향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게 아닌가. 닦아도 닦아도 끝이 없다. 눈물을 그치는 것보다 화장을 포기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

정말이지 최악이야.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눈물로 장식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이거.

차라리 말이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더라면, 그래서 나조차도 몰랐더라면, 지금처럼 모두가 바쁘고 급하고 초조해할 일은 없었을 텐데. 나도 이렇게 마음 아파할 필요 따윈 없었을 텐데. 마음의 준비도 할 필요 없이, 순식간에 끝나 버려 아쉬워할 틈도 없이 다음 생이 시작됐을 텐데

모든 게 후회스럽다. 내 의지들로 일어난 일들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모든 게 통탄스러워.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 운명, 내 삶은.

대연회장 안쪽에서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배경음악소리와 스피어스 가문의 조수가 춤을 추고 있는 듯, 그에 환호하는 관객들의 목소리가 연회장 끄트머리 쪽인 이곳까지도 생생하게 전해져 온다. 그러나 그 목소리들이 내 귀에는 환호가 아닌 곡소리로 들렸다.

좌절감에 발코니의 난간에 양팔을 올리고 책상 위에서 고개를 파묻듯 얼굴을 숙여버리려는데, 갑자기 그런 내 손목을 옆에서 누군가가 잡아챘다. 너무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라 화들짝 놀라며 옆을 돌아보니, 나의 바로 옆에는 그가 서있었다. 언제 내 옆까지 온 거지? 슬그머니 다가오는 것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듯하다.

“계 아니, 란?”

“거기서 뛰어내리기라도 하게?”

응? 아니, 그럴 생각은 안경에 가려 보이지 않는 네 눈만큼이나 없는데?

난간에 기대어 엎드리려던 것이 뛰어내리려고 하는 걸로 보이기라도 한 것인지, 란이 꽤 허둥지둥 뛰어온 사람마냥 살짝 가빠진 숨을 후, 하고 내쉰다. 뭐야, 얘. 당황스러워져서 비내리듯 주룩주룩 흐르던 눈물도 멎어버렸다. 대체 무슨 오해를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의지박약으로 보이나.

“아뇨? 자살로 제 인생을 끝낼 마음 따윈 없다고요.”

물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뛰어내릴지를 진지하게 고민했었긴 하다만, 그거야 지난 일이니 잊어버리자고.

내 대답에, 란이 안경알을 내게 고정한 채 내 두 눈동자를 유심히 쳐다봐온다. 독심술이라도 쓰는 건가 하는 표정으로 멀뚱히 그를 올려보자니, 란이 갑자기 손을 들어올린다.

헉, 건방지다고 때리려는 거냐!?

"!"

그가 손을 들어 올려 내게 취해올 행동이 뭐가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일단은 때리려는 게 아닐까 싶어 방어 자세를 취해보았다. 드, 드루와!

그러나 란은 들어오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엉뚱한 공격이 내게 들어왔으니

“울지 마. 예쁘게 한 화장 다 번지잖아.”

갑자기 답지 않게, 란은 저리 말하며 내 얼굴에 무언가 마법을 거는 듯 어루만져왔다. 그리고는 내 얼굴로부터 손을 떼는가 싶더니, 이내 검지와 엄지로 딱! 하는 소리를 내는데.

그것이 번진 화장을 원상복구 시켜준 것임은 축축했던 내 볼이 순식간에 뽀송뽀송해짐을 느끼면서 깨닫게 되었다 얘, 이렇게까지 친절한 녀석이었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나저나, 화장을 원래대로 되돌리면 뭐해.

“어차피 곧 죽을 건데, 이런 마법은 써서 뭐해요? 마나만 아깝게.”

토라진 체하며 입을 삐쭉 내밀고서 건넨 나의 말에, 란이 가만히 나를 응시한다. 그리고는 물어왔다.

“너, 인형 잃어버렸지?”

뜨끔.

어떻게 눈치 챘는지는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 내가 내내 옆구리에 끼고 다니던 곰 인형이 지금만큼은 내 곁에서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데, 반드시 갖고 다니라며 신신당부하고서 건네주었던 본인이 그걸 눈치 채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겠지.

란의 물음에 나는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잃어버렸다!

“ 누가 훔쳐간 거 같아요. 아까 어떤 여자애들 때문에 화장실에 갇혔었는데, 탈출해보니 세면대에 올려둔 인형이 온데간데없더라고요. 죄송해요.”

“죄송할 거 없어. 네 잘못이 아니잖아.”

란은 딱 부러지는 음성으로 답해왔다. 내게 잔소리를 있는 대로 해댈 줄 알았는데, 뜻밖의 반응인지라 도리어 내 눈이 크게 떠졌다. 그런 내 반응을 놓치지 않고 유심히 지켜보던 란은, 이내 말을 이었다.

“인형에 대한 건 네 주인에게서 들었어. 꽤 중요한 물건이긴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걸 잃어버린다고 해서 네가 죽을 일은 없으니까.”

란은 자신 있게 말한다. 슬슬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오늘 12시가 되기 전에 나는 명을 달리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란은 투영의 비약이 보여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내가 죽지 않는다면, 그 미래는 어떻게 바뀌는데?

미래는 바꿀 수 없다고 호언장담한 본인이, 이제 와서 저렇게 당당하게 ‘너는 죽을 일이 없다’고 말하는 그 근거는 대체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그래서 물었다.

“어떻게요?”

“내 방식대로.”

란은 저리 짧게 답해왔다. 하나도 도움 안 되는 대답 같은데. 그리고는 정장 바지 속에서 웬 투명한 구슬 하나를 꺼낸다. 그리고는 그것에 마법을 거는 듯,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는 그. 그러자 투명하던 구슬 안은 이내 보라색 기체 같은 무언가가 일렁이는 형태가 되는데

그는 그것을 자신의 입에 쏙 집어넣었다. 별로 그렇게 안 생겼는데, 사탕인가? 마법 사탕 같은 거? 왜 이런 상황에 내 앞에서 사탕이나 먹고 자빠져있는 거

야?

“─!”

갑자기 내 입술에 말캉하고 따스한 무언가가 와 닿았다. 뭐, 뭐야 이거?

너무 순식간이었던지라 피할 틈도 없었다.

미쳤지? 미친 거지? 이건 모두 꿈인 거지? 그것도 악몽 중의 악몽! 그렇게 믿고 싶다. 란의 얼굴이 왜 내 얼굴 코앞까지 와 있는 걸까. 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거지? 도대체 왜? 이거 너무 심각한 안전거리 미확보잖아! 남녀칠세부동석,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 아차, 프란치아에는 그런 거 없구나.

내가 바보였다. 란의 얼굴이 갑작스레 내 얼굴 가까이로 다가올 때, 나는 재빨리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리고 뒤로 허리를 홱 제껴버렸어야 했다.

늦어버린 내가 바보 멍청이에 둔탱이 머저리였다. 으아아악! 나가 죽어라, 아샤! 아차, 곧 죽을지도 모르지? 아, 이런 생각이나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일단 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 !

“웃, 이게 무슨 !”

란에게서 고개를 돌리며 그의 입술로부터 도망치려는데, 란이 내 허리를 낚아챘다. 그리고는 다른 쪽 손으로 내 뒷머리를 잡는가 싶더니, 내게 더 집요한 키스를 해오는 것이다. 자, 잠깐만. 뭐? 키스라고?

내가 왜 란이랑 그런 걸 해-!!??

꿀꺽!

“!?”

내 첫 키스를 이런 놈과 함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런 거잖아-!?!? 하는 내면의 뇌가 내지르는 애달픈 비명소리를 듣고 있자니, 목구멍을 타고 무언가가 넘어가는 느낌이 전해져왔다.

잠깐만. 뭐?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고? 뭐가? 설마, 방금 전에 란이 삼켰던 그 구슬 ? 그걸 왜 나한테?

멍해진 표정으로 굳어버린 나를 그가 비로소 놓아줬을 때, 나는 텅 빈 눈동자를 하고 있던 걸 그만두고서 제정신을 되찾았다. 그, 그래. 이럴 때가 아니지. 지금 나랑 뭐하자는 거야! 포르노라도 찍자는 거냐? 미쳤어!?

“뭐, 뭘 먹인 거예요!? 아니, 그 전에! 꼭 이런 방법으로 먹여야만 했어!!?”

그냥 먹으라고 주기만 해도 됐잖아! 왜 내가 너랑 이런 찐-한 15금 장면을 연출했어야 하는 건데? 도대체 왜!!!

끄아아악! 하며 고함이라도 터뜨려버리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참으며 란에게 부들거리는 주먹을 내질러버리지 않게 컨트롤하고 있자니, 그는 방금처럼 따진 나를 뻔뻔한 표정으로 가만히 쳐다봐온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의 입매가 위를 향해 슬그머니 올라가는데 어, 웃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웃어!?

“뭐가 웃겨요!?”

앙칼지게 따져 묻는 내게, 란은 은근히 위험한 미소를 지은 채 답해왔다.

“귀여워서.”

이 때, 나는 확신했다.

이놈은 미쳤다고.

도무지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올 가망조차 보이지 않는 놈이다. 란에게 단 쌀알 한 톨만큼의 미련도 남지 않는군. 이놈은 완전히 돌아버렸어. 더는 제정신인 사람이 아니라고! 차라리 오크족들이 얘보단 더 사람답겠다. 대낮부터 뭘 잘못 먹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거야? 이 자식 !

“그래서, 지금 먹인 구슬은 대체 무슨 용도인데요? 혹시, 독인가요? 험한 꼴 보기 전에 편하게 저승으로 떠나라는 뜻?”

“그럴 리가. 인형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거라도 있어야지. 만약, 아주 만약에 말이야 ”

란이 말끝을 흐린다. 무슨 말을 하려고? 게슴츠레 뜬 눈으로 그를 노려보자니, 이내 그가 말을 이었다.

“위험한 일이 눈앞에 닥치거든, 나를 불러.”

“부르라고요? 어떻게?”

“음, 그게 좌표 마법은 해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이야. 지금 구슬에 건 마법은 소환 마법인데, 네가 엄청난 소화력으로 오늘 내에 구슬을 배출해내지 않는 한, 나는 언제든지 네게 소환될 수 있어.”

“제가 소환을요?”

아, 그런 용도의 구슬이었던 건가. 그런 거라면 차라리 내게 ‘이건 소환 구슬이니 지금 네가 먹어두는 게 좋아’라며 건네줬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란은 미심쩍은 인물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내게 해왔던 모든 행동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딱히 나를 죽이고자 할 인물은 아닌 것 같으니까, 큰 의심 없이 먹어줬을 텐데

일단 그건 이따 물어보고, 지금은 이게 먼저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소환하는데요?”

“그냥 간절히 나를 불러. 마나가 없는 사람들이 소환 마법을 쓰는 방법이라곤 그뿐이야.”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

란에게 따지려다가 말았다. 그도 어쩔 수 없다는데, 넙죽넙죽 받아먹기만 하는 입장인 나 주제에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말이면 다인 줄 알아요!? 댁이 직접 해봐!’라며 따지기엔 양심이 몹시 찔렸던 것.

그, 그래 위험한 상황이 닥친다면, 일단 간절히 란을 외쳐 불러보자. 그러면 뭐, 마나가 없는 나일지라도 소환 마법이 써질지도 모르지. 만분의 일 정도의 확률이 아닐까 싶기는 하다만 말이야

“ 일단 알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최선을 다해 시도해볼게요.”

“그래, 좋아.”

“그런데, 왜 구슬을 방금 전 같은 방식으로 먹인 거예요? 꼭 그럴 필요가 있었나요?”

이번엔 꼭 물어봐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굳이 그런 짓을 해가면서까지 내게 구슬을 먹일 필요는 없었다. 그냥 건네주며 먹으라 해도 됐잖은가.

감히 내 첫 키스를 뺏어가?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물은 내 말에, 란이 해맑은 표정으로 방긋 웃었다. 정말이지 ‘방긋’하고 웃었다 응?

대체 저 미소의 의미는 무엇인가. 평소처럼 씨익- 하고 웃는 오른손에 흑염룡이 날뛰는 이나 지을 법한 미소가 아니라, 저렇듯 순수하게 느껴지는 웃음이라니. 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

놀란 눈을 한 내게, 그는 말해온다.

“네가 좋으니까.”

“? 뭣,”

뭐 ?

뭐요-!?!?!?

무슨 의미로 좋다는 거야, 방금 그 말? 설마, 아니지? 여자로서 좋다는 말 같은 건 아니겠지? 말이 안 되잖아. 란이 무슨 신분인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일단 나보다 대단한 놈인 건 확실하다. 자존심이 엄청 상하지만, 이놈이 나보다 뛰어난 유전자를 지닌 인간임은 부정할 수가 없다고. 그런 사람이, 자그마치 마법 대학의 학생이자 마법사이기도 한 란이 날 좋아한다고?

웃긴 천민이라 지켜보고 있으면 흥미로워서 좋다는 건가? 아, 혹시 그런 의미?

“노, 노, 농담이죠, 그거? 아니면 뭐, 제가 웃긴 노예라서 재밌다거나, 그런 이유로 ”

“아니, 그냥 예쁘고 귀여운 네가 좋다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의미가 아니라.”

지, 진짜로 얘가 실성이라도 했나? 뭐? 예쁘고 귀여워? 대체 누가!

류이에게 쏟아지던 그 이상한 러브레터와 청혼서들처럼, 누군가가 란에게 이상한 마법이라도 걸은 바람에 이런 또라이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진짜로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왜 좋은데? 내가 뭘 했다고 좋아졌다는 건데? 대체 왜? 무슨 이유로!? 내 뇌가 지금 네 말을 이해하질 못하고 있잖니, 이 못된 계란 자식아! 뱉으면 다냐? 어? 아무 말이나 씨부리면 다야!?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란의 표정이 갑작스레 원상태로 돌아온다. 싸가지 없고 중2병 미소 가득한 원래의 그 표정으로 말이다.

그런 란은 내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뻔뻔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달콤함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내 귓가에 속삭여왔다. 나를 아주 미쳐버리게 만들려고 작정이라도 한 듯이 말이다.

“그러니 넌 반드시 살아야 해. 네가 죽어버린다면, 내가 너무 슬플 테니까.”

“아니, 그게 무슨 ”

“아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 ”

"?"

“진짜 약혼이라도 할까?”

순간적으로 나는 실실 웃으며 말하는 그, 란의 뺨이 배구공으로 보였다. 약혼이 아니라, 네 얼굴에 내가 스파이크를 날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1초에 수십 수백 번 정도 내 뇌를 스쳐지나갔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온몸에 닭살이 돋아버려, 그 충격으로 인해 손가락 하나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식물인간이 된다면 이런 기분일 것 같다.

“미, 미친 ”

입에서 육두문자가 절로 튀어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란이 몸을 돌린다. 옆으로 반쯤 돌아선 그가, 대연회장의 상황을 흘끔 응시하더니 내게 말해오길,

“또 녀석이 안 보이네. 난 다시 가 봐야할 것 같다, 아샤.”

“ 그래서요? 뭐!”

“네 무대에서 멋진 모습 보여 달라고.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라는데.

란은 그런 말을 남기고서는, 나를 향해 미소지어왔다. 그리고는 이내 왼손을 들어 올리더니, 손가락으로 딱! 하는 소리를 낸다. 곧바로 내 눈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그. 저 도둑놈이, 내 입술을 훔쳐가 놓고는 도망을 가네!?

“허!?”

어이가 없어져버려 초점 풀린 눈동자로 뚱한 표정을 지은 채 그가 사라진 정면의 허공만을 노려보고 있자니, 대연회장 쪽에서 사회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번 순서에 춤 실력을 뽐내줄 조수 분들은 바로바로 요리 경연과 노래 경연에서 모두 30점 만점을 받은, 아샤! 와 이외 2명, 이 삼인방입니다! 세 분, 무대로 올라와주세요!”

응?

“아니, 대체 왜!”

이놈의 세계는 내 뇌가 쉴 시간을 안 주는 거지, 도대체가!?

어째서냐! 왜 자꾸 내 뇌에게 부지런히 가혹한 일거리를 주느냔 말이야! 일하지 말고 좀 쉬어라, 핫산!

“아샤! 아샤? 또 어디 갔지?”

“아샤 님- 저희 차례입니다!”

으으 !

“간다, 가!”

이번에도 나는 머릿속으로 끝없이 괴로워하며, 아도라와 마리가 덩그러니 서서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 대연회장 중앙의 스테이지 쪽으로 치맛자락이 휘날리지 않게 붙잡은 채 쏜살같이 달려갔다.

스테이지 앞에 도착하고 보니, 마리와 아도라가 준비를 끝마친 모습으로 나를 향해 미친 듯이 손짓한다. ‘아샤, 아샤! 벌써 우리 차례야!’하면서. ‘벌써’ 우리 차례인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두 번째 차례인 것 같은데. 누구야? 이거 순서 짠 사람. 우리 같은 에이스들이 이렇게 일찍 출전해서야 되겠냐고! 어?

“자, 빨리 올라오시죠!”

하지만 까라면 까야지, 뭐, 별 수 있나.

사회자가 재촉하는 말에 ‘간다고!’라고 버럭 외칠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그래, 크리스 마스가 무슨 죄겠어. 이 모든 건 갑작스럽게 내게 빅엿을 선사한 란 녀석과 우리들의 순서를 두 번째로 잡은 대회 관계자들이 문제인 거지. 크윽 ! 내가 저 인간들에게 사기라도 친 적이 있나?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특히 란 ! 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 가만 두지 않겠어. 죽여 버린다!

“노래 경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3인 1조로 출전하시는 아샤, 마리, 아도라 양인데요. 이번에도 아마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시겠죠?”

관객들을 향해 크리스 마스가 묻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는다. 관객들이 매너가 영 엉망이구만. 보통 이런 상황엔 사회자가 무안하지 않게 ‘네네 선장님!’ 같은 아무 말이라도 뱉어줘야 하는 건데 말이야.

하지만 내가 사회자도 아니니,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 비장한 표정으로 스테이지로 올라가는 계단을 척척 밟아 무대 위로 올라서자, 사회자가 그런 나를 보더니 이번에는 이런 말을 꺼내왔다.

“노래 경연에서 만점을 받은 분이라 그런지, 표정부터가 범상치 않으시군요. 그럼 춤 경연에 앞서, 아샤 양의 소감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니, 마스 군?

남들은 다 순정만화 그림체일 때, 나 혼자만이 극화체인 느낌으로 우두커니 선 채 마스의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이내 목소리가 증폭되었을 때, 나는 진지하고 낮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란과 마주치기 이전에 훌쩍훌쩍 울던 때의 나약한 얼굴이라고는 더는 내 얼굴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내 울음을 멎게 해준 란에게 감사한다. 네놈을 향한 증오심으로 나는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

“이 경연을 끝내러 왔다.”

어느 만화 속 팔 한쪽이 없는 샹 뭐시기 캐릭터의 대사가 생각난다면, 기분 탓일 거다.

나의 배짱 좋은 한마디에 마스가 잠시 맹구 같은 멍한 표정을 짓는다. 콧물만 흘리면 완벽할 것 같은데. 비단 그런 얼굴을 하게 된 것은 마스뿐만이 아니라 무대 위를 지켜보는 수많은 관객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분위기는 금세 원래대로 돌아와 춤 경연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연주를 위해 줄을 맞춰 자리에 앉고, 우리들이 춤출 노래를 대신 불러줄 뱁새들―대학 정문을 지키고 있는 뱁새의 친구들이라고 한다―이 쫑알쫑알, 짹짹거리며 날아가 피아노 옆에 마련된 기다란 막대기 같은 곳에 줄지어 앉는다.

그렇게 시작하기에 앞서, 나는 부리부리한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란 이 개자식! 어디로 갔지?

눈에 불을 켜고 대연회장 내부를 둘러보지만, 란이 보이지 않는다. 덤으로 루이스도 보이지 않아. 루이스가 사라졌다며 찾으러 가겠다고 사라지더니, 그 둘, 대체 어디로 간 거지?

그나저나, 란 이 자식 루이스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아, 그게 맞는 게 더 이상한 건가. 아니지, 게이가 뭐가 어때서? 그건 이상한 게 아니잖아. 그 녀석 혹시, 자신의 취향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건 아닐까? 설마! 이 빌어먹을 놈이, 나를 이용한 거? 그런 거야!?

아, 일단 이런 의식의 흐름에 가까운 근거 없는 추측들은 접어두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다 해서, 란의 머릿속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닐 테니 말이다.

하지만 꼭 죽여 버리겠다. 기필코, 녀석의 목숨은 내 손으로 끊어버리겠어.

내가 지금 같은 다짐을 하고 있을 때, 진지한 얼굴을 한 채 마리와 아도라는 스테이지에서 일렬로 나란히 선다. 센터는 나였기에, 나만이 움직일 필요 없이 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됐다.

두 번째 무대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이전 노래 경연 때보다는 몸의 떨림이 훨씬 덜하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랬던가? 나는 과연 동물 중의 동물이로군.

사회자가 오케스트라 쪽에 시작 신호를 보내자, 연주자들이 자신들의 악기를 붙잡으며 준비 자세를 취한다. 그 옆에 마련된 긴 막대에 나란히 앉은 뱁새들은 노래할 준비를 하는 듯, 짹짹! 거리며 목을 푸는데. 나와 아도라, 마리는 몸을 풀고 자시고 할 틈이 없었다. 춤을 춰야 할 인간들이 무대 위에서 팔다리를 이리저리 쫙쫙 뻗으며 스트레칭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뭐 어쩔 수 없지.

사실 스트레칭 같은 건 필요 없다. 우리들은 그런 것 없이도 이미 완벽하게 춤을 소화해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 남들처럼 파티장에서나 즐길 법한 귀족들의 흐느적 댄스를 추는 게 아니기에, 우리 트리오는 지난 3주 동안 아이돌 연습생에 버금가는 춤 연습을 해왔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

"!"

“!”

우리 셋은 시선을 주고받은 후, 각자 자신들이 취해야 할 포즈를 잡는다. 다른 조수들 같으면 솔로로 한 마리의 백조 같은 우아한 댄스를 추기 위한 자세를 잡았겠으나, 우리들은 뭔가 달랐다. 쉽게 말해 저들의 눈에는 이상해 보일 거란 뜻이다.

제각기 따로 노는 포즈로 척척 자세를 잡은 우리들을, 관객들이 어안이 벙벙해하는 표정으로 쳐다봐온다.

“뭐야, 저게 ?”

“저 빨간 망토는 뭐지? 저런 게 드레스야?”

현재 입고 있는 옷은 빨간 망토를 연상케 하는 빨간 치마와 하얀색 앞치마, 그리고 빨간 후드 모자를 뒤집어쓴 차차 패션이었다. 그래서인지 드레스를 입고 나오지 않은 우리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는 시선들도 여기저기서 따갑게 우리들을 찔러 온다.

노래 경연에서 환상의 하모니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었던 우리들이기에, 관객들의 기대는 상당했다. 사실 기대라기보다는 ‘저것들이 이번엔 얼마나 잘 하나 보자’하는 느낌의 눈초리들―그중에는 여학생이 상당수였다―이 대부분이었지만, 저런 못 잡아먹어 안달인 눈빛을 한 이들에게도 ‘진정한 춤’이 무엇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겠지.

너희들의 식상한 귀족식 댄스를 생각했다면, 그것은 경기도 오산이다!

빰- 빠밤- 빰 빠바바바밤-

“ !?”

클라리넷이 스타트를 끊었다. 관객들은 예상치 못한 화끈하고 괴상한 시작음에 의아함을 담은 이상한 소리들을 낸다. 마치 ‘읭!?’같은. 내가 미리 건네준 악보대로 연주하는 연주자들조차 ‘대체 이 곡은 뭐지?’하는 표정으로 악보를 유심히 쳐다보며 연주에 돌입하는데, 시작 포즈를 취한 채 가만히 서있던 나는 이때 문득 누군가의 얼굴을 확인했다. 정확히는 누군가‘들’이었는데, 그것은 당연하게도 루이스와 란이었다.

어딜 나갔다 온 건지는 몰라도, 대연회장 밖에서 이제 막 들어온 듯 연회장 문 쪽에 서서 스테이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둘의 모습. 너무 멀리 있어서 또렷하게 보이진 않는데 란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듯했다. 가만 보니 저거, 샴페인 잔 같다.

어라, 샴페인 잔이라고? 지금 네놈이 샴페인을 먹을 때냐? 응? 샴페인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구두를 집어 들어 란 놈의 면상으로 던져주고 싶지만, 이미 노래가 시작되었기에 그럴 수 없다. 사실 노래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눈들 앞에서 구두를 벗어 집어던지는 무례한 짓은 못 했겠지만, 여하튼 그런 짓은 할 수 없었다.

루이스가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고, 류이가 제이를 비롯한 호위 기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무대를 올려다보고 있다. 이들의 눈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무대를 망치는 한이 있어서는 안 되겠군. 우리들의 춤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움직여라, 모두들! 우리 트리오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하나! 둘! 하낫 둘 셋 넷!”

뱁새들의 노래가 시작되고, 상큼발랄하고 이 세계의 대중음악성과는 걸맞지 않는 오묘한 리듬이 장내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동공이 확장된다. 나와 마리, 아도라는 제각기 맡은 파트대로 움직이며 진정한 춤신춤왕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자리를 옮겨가면서 깜찍발랄한 댄스를 추다 말고, 이맘때쯤 나는 노래의 이상함을 감지했다. 그렇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들이 선정한 노래의 가사에 있었던 것이다.

“그대의 입술이 닿으면-”

“?”

잠깐만 뭐라고, 뱁새들아?

분명 내가 그려준 악보대로 연주하고 있고, 내가 써준 가사대로 뱁새들이 노래 부르고 있는 상황이건만, 첫 소절을 듣기가 무섭게 나는 경악한 표정을 한 채 춤을 추면서 고개를 뱁새들 쪽으로 홱 돌렸다. 뭐가 닿는다고?

“간질간질 내 맘이 간지러-”

뭐? 뭐가 간지러?

마리와 아도라는 뼛속까지 모아두었던 소울을 모조리 끌어올려 최고의 댄스를 선보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 그런 그녀들의 노력을 망치지 않기 위해, 나 또한 전생에서 수련회 때 댄싱머신이라고도 불렸던―아마도 그랬을 거다―화려한 댄스 솜씨를 뽐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패닉 상태였다. 대체 내가 이 노래를 왜 골랐지!?

“자꾸만 아잉 아잉~ 기뻐서 아잉 아잉~ 예민해 예민해-”

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뱁새들의 부리를 틀어막아 버리고 싶다. 내가 진짜 제대로 미쳤지. 과거의 나에게 무전을 보낼 수는 없는 걸까? ‘그 노래를 골라서는 안 돼, 아샤!’하면서. 왜 이런 노래를 골랐는가? 나는 어리석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오늘 같은 날 란 녀석에게 그런 짓을 당할 줄 알았더라면, 절대 이 노래를 고르지 않았을 텐데

아니 근데,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게 다 란 때문이다.

란이 가사를 듣기가 무섭게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놓쳐버리는 광경을 지켜보며, 나는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 샴페인 잔을 아슬아슬하게 루이스가 캐치하더니, 란에게 ‘왜 그래?’라며 물어보는 그 입모양까지도 지켜본 후, 더는 란 녀석의 얼굴을 쳐다보고 싶지 않아 시선을 돌려버렸다. 대체 내가 왜 저놈을 껄끄러워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몹쓸 짓을 당한 건 나인데 말이다.

“멋지면 다야~ 잘생기면 다야? 징글징글징글하게~”

뱁새들이 내 마음도 모르고 신나게 조잘거리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를 들은 관객들이 ‘음?’하는 표정들을 짓는다. 이때 또 내가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관객들 사이에서

“누굴 향한 가사인 거지?”

“그러게. 직접 작사한 거 같은데, 혹시 유이 황자를 향한 걸까!?”

같은 대화소리가 튀어나왔던 것! 으아아, 그럴 리가 있냐. 일국의 황자에게 ‘징글징글하다’는 표현을 쓰다니, 불경죄로 사형 당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서야 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그러나 나는 관객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수 없었다. 이것이 방송이라면 밑에 자막으로 ‘본 노래의 가사는 아샤의 주변 인물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라고 설명이라도 써 붙여 놓을 수 있었겠으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실제 상황이었다. 라이브로 댄스를 추고 있는 우리들은 가사에 대한 그 어떤 해명도 할 수 없다는 뜻.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노래 가사가 누구를 향한 것일지 추측하기 시작한다. 디지털 음이 섞이지 않은 오케스트라 반주뿐이었기에, 그 사이사이에 관객들이 가사에 대해 떠드는 대화소리들이 꽤나 잘 들려왔다.

“혹시, 루이스? 저 아샤라는 애의 이전 학생이었으니까 ”

“하지만, 루이스는 저 애한테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는데? 역시 유이 황자가 ”

“아니지, 의외로 란일 수도 있잖아? 듣자 하니, 걔가 저 애의 약혼자라고 떠벌렸다며? 진짜 약혼자는 아닌 것 같던데 ”

“근데 걔는 별로 안 잘생겼잖아.”

어, 방금 그 말 격하게 동감. 내가 아까 전에 그 별로 안 잘생긴 애한테 입술을 빼앗기고 왔단다. 그 사실이 너희는 믿기니? 나는 믿기지가 않아.

감히 전생과 이생을 통틀어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나의 첫 키스를 뺏어가다니! 진짜 미친놈 아냐, 저거!?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동자를 쳐들어 란이 있는 쪽을 바라보니, 루이스가 다시 건네준 텅 빈―샴페인은 쏟은 모양이다―샴페인 잔을 든 채 내 얼굴을 빤히 쳐다봐오고 있는 그, 란이 눈에 들어왔다.

이내 나와 눈이 마주쳤음을 깨달은 녀석이, 나를 향해 피식하듯 웃어왔다. 우, 웃었어 지금? 네놈이 웃었어!?

"!"

날 비웃었겠다!? 내 오늘 저 녀석의 목숨을 내 손으로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듯하다. 아, 물론 오늘 밤에 내가 잠을 잘 수 있을지 그 전에 죽어있을지는 모를 일이지만, 여하튼 이 세계에서 란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내 속이 후련하지 않을 것 같아.

이를 빠득 갈면서 내 증오를 담은 파격 댄스를 미친 듯이 췄다. 그렇게 3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영원히~ 나만! 나만! 나만 나만 사랑해줘~”

뱁새들의 깜찍한 노래도 끝을 맺어, 우리들의 댄스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아샤, 마리, 아도라 양으로 이루어진 3인방의 춤이 끝이 났습니다! 훌륭한 무대였는데요. 심사위원들의 점수는 과연 !”

“와아아아아-!”

사회자인 마스 군의 말도 뚝 자르고, 고막을 터뜨릴 듯 커다란 함성소리가 대연회장 천장을 뚫을 듯이 울려 퍼졌다. 순간적으로 나는 엄청 놀라 발을 삐끗했는데, 그런 나를 옆에 서있던 아도라가 빠르게 잡아주었다. 저, 저 환호성은 대체 무엇?

멍청한 표정으로 연회장에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관객들이자 조수, 혹은 학생인 이들을 훑어보던 나. 이내 그 함성소리의 거의 전부가 남학생임을 깨달았다.

“아도라! 아도라!”

“마리! 마리!”

이건 흡사 팬덤 수준. 내가 다른 생각에 빠져 관객들을 신경 쓰지 못하는 동안, 마리와 아도라는 끝내주는 춤 실력과 더불어 예쁜 얼굴과 깜찍함으로 장내에 모인 남자들의 마음을 천사소녀 네티마냥 홀랑 훔쳐와 버린 모양.

그 와중에 저 함성소리들 중 내 이름만 없군. 씁쓸한 생각이 일순 들었지만, 내가 저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무얼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별로 아쉽지도 않아졌다. 그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남학생들의 관심과 애정은 너희 둘이 다 가져가렴. 나는 란, 저 빌어먹을 놈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브라보-!!!”

“정말 환상적인 무대였어요!”

심사위원석에서도 극찬이 터져 나올 때, 나는 란과 눈싸움을 하고 있었다. 사실 불투명한 안경으로 눈을 가리고 다니는 놈이니, 눈 대 눈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눈 대 안경으로 싸우는 꼴이라고 봐야 하는 거겠지만, 어쨌거나 나는 증오심을 한껏 담은 눈동자로 한결같이 녀석의 얼굴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최고의 엔터테이너시군요, 아샤 양! 지금 노래도 직접 작사, 작곡하신 건가요?”

“ 아, 예.”

마스 군이 내게 마이크를 건네며 뭐라뭐라 묻길래, 나는 대충 대답했다. 란을 째려보는 일에 온 정신이 팔려있었던 것이다.

“그럼 혹시, 그 가사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이어서 마스가 이상한 질문을 건네 왔을 때, 나는 퍼뜩 정신이 들어 내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곧바로 눈이 마주치자, 꽤 살벌한 표정을 하고 있는 나로 인해 마스 군이 화들짝 놀라는데 아, 미안.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서 말이야.

근데, 뭐라고? 누굴 향한 거냐고 ?

“예?”

“본인이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남성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가사를 쓴 게 아닐까 싶어서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관객 여러분!?”

“네-!”

“그래, 빨리 대답해 봐!”

마스가 관객석으로 던진 질문에, 어떤 남학생 놈이 반말로 저리 외쳐온다. 너 어디서 반말이니?

그나저나 곤란하다. 다들 내가 누군가를 떠올리며 지은 가사일 거라고 확신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오는데, 사실 그런 건 전혀 없단 말이다. 작사 작곡? 내가 안 했어. 니들이 지구에 돌아가서 이 노래 작사작곡가에게 ‘누굴 떠올리며 지은 노래인가요?’라고 물어보면 안 될까?

안 되겠지?

“어, 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정도면 꽤 훌륭한 회피실력이다. 꼭 누군가를 콕 집어서 ‘류이 황자입니다’라던가, ‘루이스 입니다’라던가, ‘란 놈은 절대 아닙니다’같은 대답을 해줄 의무가 내게 있는 건 아니잖은가. 그렇기에 꺼낸 내 대답에, 관객들의 사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우우우~’하는 소리가 파도마냥 터져 나온다. 어쩔? 내가 대답하기 싫다는데. 아니, 사실은 대답할 게 없는 거지만.

시치미를 똑 떼는 표정으로 시선을 회피하자, 그런 나를 쳐다보며 관객들 중 어떤 여학생은 ‘독한 기집애!’라고 욕을 던져오기도 했다. 남들 다 듣는 데서 욕을 하는 너도 만만치 않은데? 독한 것 같으니라고.

“그럼, 심사위원 분들의 점수는 과연 어떨까요! 점수, 공개해주세요!”

내가 입을 삐쭉거리며 잔뜩 심통이 난 표정을 하고―원인은 거의 란에게 있었다. 저 멀리서 실실 쪼개고 있었기 때문―서있는 동안, 마스 군이 심사위원석을 향해 점수 공개를 요청한다.

이내 심사위원들이 점수판을 들어 올렸을 때, 세 개의 점수판에 적힌 숫자는 모두 똑같았다.

세 개 모두 10점. 모두 합쳐 30점인 것이다!

“춤 경연 역사상 최초로 만점인 30점이 나왔습니다-! 모두들 박수-!!!”

“와아아아아-!”

이번에도 남학생들의 우렁찬 함성이 대연회장 천장을 뚫다 못해 없애버릴 기세로 울려 퍼지는데, 갑자기 그 함성이 뚝하고 멎었다.

뭐지? 왜 함성이 멈춘 거지? 나만 이상함을 느낀 게 아니라, 마리와 아도라도 어리둥절해하는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내 그 범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제일 당황해야 했던 인물은 바로 나였다.

“만점 축하해, 아샤.”

요리 경연에서 30점, 노래 경연에서도 30점, 춤 경연에서도 30점. 도합 90점으로 대학 대회를 역사상 처음으로 올 만점을 받은 조수, 바로 나.

그러나 그 사실에 관심이 있는 인물은 이 자리에서 아무도 없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유일하게 한 명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 뭐 굳이 이름까지 말할 필요 없겠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

“대회 준비하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건데, 류이는 스테이지와 정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그런 그가 제이를 비롯한 기사들을 대동해 더욱 앞으로 걸어 나온다. 주변에 서있던 학생과 조수들은 호위 기사들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류이가 앞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옆으로 물러서는데

스테이지 바로 앞까지 온 류이가, 나를 향해 팔을 뻗어왔다. 어, 이건 ?

“이리와.”

"!"

내, 내려오라는 뜻이잖아, 이거!

스테이지에서 아래로 내려가려면 뒤로 멀리 돌아가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한다. 하지만 직접 뛰어내려도 내려갈 수는 있는데, 높이가 꽤 높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빨리 무대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가 나선 모양이었다.

함성소리는 왜 뚝하고 멎었나 했더니, 제이와 주변의 기사들이 마법의 힘을 이용해 주변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린 모양.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해보았는데,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 함성 속에 내 이름은 단 한 자도 섞여있지 않았잖는가. 그렇기에 혹시라도 내가 실망할까 봐, 그는 일찌감치 함성을 끊어버린 게 아닐까 싶다. 물론 이건 마리와 아도라를 향해 함성으로 애정공세를 펼치던 남학생들의 표정에 살짝 패배감이 깃든 걸 보고 예상하게 된 부분이다.

이걸 어쩌지? 진짜 류이의 품으로 뛰어 내려야 하나? 1초라는 찰나가 영겁 같다. 머릿속으로 ‘그래도 되나?’, ‘아니,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라는 두 가지 생각이 스파크가 튈 정도로 맞붙는 사이에, 마스 군이 이런 개소리를 꺼냈다.

“아, 역시 노래 가사의 주인공은 바로 유이 황자님이었던 걸까요! 역시는 역시군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징글징글하다는 표현까지 불경죄로 잡혀가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텐데요. 아샤 양, 내려가지 않는 겁니까? 유이 님의 손이 무안해지고 있다구요!”

아니, 넌 좀 그만 나대면 안 되겠니!? 이대로 거부했다간 류이 손이 무안해진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냉큼 내려갈 수도 없는 거잖아. 너는 주변이 안 보여? 나를 찢어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저 영애들의 하이에나스러운 눈동자가 안 보이냐고!

“으윽 ”

하지만 아래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는 이의 표정이 너무나도 무구하고 예뻤다. 대체 이 인간은 뭘 먹고 이리도 예쁘단 말인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물이, 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잘 대해주는 거지? 내가 이런 친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도무지 모르겠는데

"!"

일단은 뛰어내렸다. 더 시간을 끌었다간 류이의 손이 무안해지는 건 물론이고, 류 제국 황자라는 체면까지도 손상될 수 있기 때문.

빨간 치마를 휘날리며 뛰어내린 나를, 류이는 마치 포옥-하는 느낌으로 가뿐하게 받아냈다. 류 제국의 사람들은 힘을 타고난다더니, 이렇게 호리호리한 남자도 쌀 포대 하나 정도는 될 무게를 이리 가볍게 들어내는구나. 류 제국민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뻤어, 너.”

게, 게다가 나한테는 너무 과분한 칭찬까지도

몸 둘 바를 몰라 얼굴을 발갛게 붉히고 있자니, 스테이지 위에서 마리와 아도라가 나를 내려다봐오고 있다. 마리는 뭔가 딸내미를 곧 시집보내게 될 엄마 같은 감격과 슬픔을 동반한 표정을 짓고 있는가 하면, 아도라는 미묘한 눈빛으로 안타까운 듯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대체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지? 그 이유를 몰라 아도라를 빤히 올려보자니, 그녀가 이내 란이 있는 쪽을 흘끔 보는 것을 눈치 챘다.

아, 아차. 그러고 보니, 이 자리에 란도 있었지 !?

내가 왜 그 놈을 신경 쓰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절로 그가 있는 방향을 향해 고개가 돌려졌다. 공주님 안기로 나를 받아냈던 류이가 나를 바닥에 내려줄 때, 내 시선은 대연회장 정문 쪽을 향해 가 있었지만

관객들의 키가 나보다 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틈새로는 그의 얼굴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럼, 다음 무대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스 군이 다시 춤 경연을 재개하고, 마리와 아도라는 뒤로 돌아 스테이지에서 내려온다. 그 때까지도, 나는 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조수들의 춤 경연은 끝이 나고, 학생들의 춤 경연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

나는 마리와 아도라에게 도움을 받아 드레스를 갈아입고, 메이크업을 새로 손보았다. 우리들이 춤추었던 때보다는 좀 더 우아하고 세련되게 말이다. 이렇게 화장하나 저렇게 화장하나 이들의 솜씨는 흡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급의 솜씨였기에 나는 뭐가 바뀌었는지 구분을 할 수 없었다. 둘 다 예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둘이 골라준 드레스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검은색의 홀터넥 드레스였는데, 목의 초크와 상의 윗부분이 연결되어 있어 마치 치파오 같은 느낌이 물씬 들었다. 왜 이 드레스를 고른 거냐고 마리에게 물어 보니, 그녀는 ‘류 제국 복식에 이런 디자인이 있거든!’이라고 대답해주었었다. 역시 나보다는 마리나 아도라가 손재주나 보는 안목이 있는 듯. 거기다 생각하는 것까지도 꼼꼼하다.

내 흑발은 위로 예쁘게 땋아 장식하여 올림머리를 했다. 내가 거울로 본 나 자신의 모습이 마치 ‘아샤’같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워서, 나는 그녀들에게 눈을 씻고 와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되레 혼이 났다. 그랬다가는 눈 화장이 다 지워질 거라고 말이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라 눈을 씻겠다는 고집은 금세 버렸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대연회장 안. 이제 곧 학생들의 춤 경연이 시작될 시간이다. 현재 시각은 7시가 되기 직전인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9시쯤에는 아마 끝이 날 듯하다.

그렇다면, 과연 내 목숨은 언제 끝이 날까? 슬슬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내가 죽는 게 오늘이긴 할까? 따지고 보면, 날짜가 정해져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여섯시 반부터 일곱 시까지 디너 타임이었기에 대연회장 내부에 마법으로 저녁 식사거리들을 소환해 귀족들의 식사 시간이 진행되었었지만, 나는 드레스를 갈아입느라 저녁을 먹지 못했다. 그렇기에 대회 시작 전인 지금은 샴페인을 홀짝거리며 대연회장 안에 있는 테이블들마다 후식으로 세팅된 과자들을 주워 먹고 있는 상황.

그런 내 곁에는 당연하게도 류이가 있었다.

이미 마법으로 장내를 깔끔하게 환기까지 해버린 후인지라, 음식 냄새로 인해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가 날 걱정은 없었다. 하지만 먹은 게 없어 배가 고픈 것은 어쩔 수 없기에,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의 과자를 걸신들린 듯 집어먹고 있는 나를 빤히 쳐다봐오던 그.

“이것도 먹어.”

이내 그가 자신의 앞에 있는 과자 접시를 내 쪽으로 밀어준다.

“아, 감사합니다.”

버터링 같은 수제 쿠키였다. 어느새 내 잔이 비었기에 아도라가 한 병째로 건네 주고 간 샴페인을 잔에 부어, 다시 그것을 홀짝이며 과자를 와구와구 집어 먹는데, 이번에는 류이가 제이를 시켜 다른 테이블에 있는 과자까지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이 아닌가.

“더 먹어, 아샤.”

이내 제이가 들고 온 세 접시―한 접시는 입으로 물고 왔다. 기인열전에 나가도 될 듯―의 과자들을 보았을 때, 내 입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 지금 돼지 사육하세요?”

“아니, 너무 잘 먹길래.”

류이가 싱긋 미소 지으며 건네 오는 말에, 심장 녀석이 주제도 모르고 또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감지한 나. 해탈한 표정을 한 채 마음 속으로 조용히 녀석을 진정시켜본다.

워워. 정신 차려, 이 녀석아. 네가 그렇게 날뛰어봤자 그림 속의 떡, 저 높은 포도 나무 위에 열린 포도 같은 존재가 바로 류이라고. 알겠어? 마이 하트.

“예쁘다, 너.”

하지만 자꾸 실실 웃으면서 나한테 저런 말들을 해대니까, 심장 녀석도 이런 설레발을 치는 거지. 그래, 이게 어디 내 심장 놈이 멍청해서 벌이는 짓이겠는가. 다 류이의 미친 외모 때문이지. 그래, 이건 모두 내 주인님들이 하나같이 잘생긴 탓이야.

류이가 너무 예쁘게 생겨서 비교적 묻히는 감이 있지만, 루이스와 함께할 적에도 그가 사소한 친절을 베풀 적마다 내 심장 녀석이 지닌 도끼병이 도지곤 했었다. ‘우리 주인님이 나를 좋아하나? 역시 나의 매력이란, 훗 ’하면서. 그럴 때마다 나는 내 한없이 낮은 신분을 떠올리며 주제파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불가능해지려 한다.

어떻게 한 제국의 황자라는 인간이, 그것도 차기 황제 유력 후보라는 인물이 천민인 내게 이렇게까지 잘해줄 수가 있지? 다른 여자들에게도 막 베풀어주는 거면 이상하지라도 않겠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나 다정한 걸까?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왜지?

“칭찬 감사합니다. 황자님도 멋있어요.”

과자를 입속에서 우물거리며 우물우물 건넨 내 말에, 류이가 눈동자가 땡그래진다. 저 반응은 또 뭘까? 이번에도 이해가 가지 않아, 그의 눈동자를 빤히 응시해보자니

“응 고마워.”

류이가 살그머니 시선을 회피하며 저런 대답을 내뱉어오는 것이다. 시선은 왜 피하지? 아니, 그 전에

지, 지금 얼굴 붉어진 건가? 살짝 붉어진 것 같은데? 어라? 어라라!?

“생각보다 쑥스럼이 많은 분이셨네요 ?”

몰랐는데, 류이는 칭찬에 약한 타입이었나 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내가 옆에 서있는 제이에게 말하자, 갑자기 제이가 나를 내려다봐온다. 그것도 몹시 한심하다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뭐지? 싸우자는 건가?

“어휴, 황자님, 대체 왜 이런 분을 ”

“시끄러워, 제이.”

제이가 류이에게 뭔가 불만을 털어놓으려 하는데, 류이가 그 말을 바로 잘라버린다. ‘이런 분’이라니, 날 말하는 건가? 왜? 내가 뭐 어때서!

아, 물론 천민 노예 신분이니 류이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조수이긴 하지. 제이의 반응이 이상한 것만도 아니군, 음.

그런 생각들을 하며 과자를 냠냠 먹고 있으려니까, 대망의 7시가 되었다.

“학생 조수 여러분- 다들 모여 주셨습니까!?”

학생 춤 경연에도 크리스 마스가 사회자를 맡은 듯, 아까 전에도 보았던 익숙한 얼굴이 스테이지 위로 올라선다. 사회자석으로 이동해 자리를 잡은 그가 사회자의 대사를 계속한다.

“그럼, 지금부터 학생 분들의 춤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앞선 대회 점수들로 큰 격차가 벌어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학생들의 춤 경연은 10점이 만점이라 그리 큰 점수가 주어지지 않지만, 낮은 점수 차이는 멋진 춤으로도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점, 다들 명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준비 되셨나요?”

마스 군의 물음에 여기저기서 ‘네!’ 또는 ‘그래, 시작해라 임마!’같은 하대에 익숙한 귀족의 외침이 들려온다.

정작 이곳에서 신분이 원탑으로 높은 류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우아하게 홍차를 들이키고 있는데 엇, 잠깐. 왜 이런 곳에서 홍차나 마시고 있는 거지?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류이는 쭉 샴페인이나 와인에는 입도 대지 않는 것 같던데.

“왜 술은 안 드세요? 파티장이니 샴페인 정도는 드셔 주셔야죠, 황자님.”

“아, 나는 괜찮아.”

흠, 왜지?

류이가 눈웃음을 지으며 저리 건네 오는 대답에, 나는 그저 단순히 ‘류이는 술을 싫어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옆에서 제이가 내게 귓속말로

“바보세요? 오늘 같은 날에 음주를 하면 어떡해요!”

라고 말해오는 것이다. 엉? 오늘 같은 날이 뭔데. 오늘이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날이잖아. 류이와는 아무런 상관도 관계도 없

지 않나?

“ 아?”

어리한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입가에 갖다 대던 나는, 이내 제이의 말을 듣고서 류이가 왜 아무런 술도 마시지 않는지를 깨달았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날이니까, 그래서 항상 경계중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마시지 않는다는 건가? 헐, 그거 완전 !

“가, 감동이잖아요, 황자님 ”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탕.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며 살포시 입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나. 눈물겨운 조수애(愛)다. 다시금 내가 팔자복은 없어도 주인복은 타고났다는 깨달음을 되새기며, 나는 내 샴페인 잔을 테이블 중에서도 저 멀리 끝쪽으로 치워버렸다. 나도 안 먹을 테야!

“더 마셔도 돼, 아샤.”

“아니에요. 황자님도 안 드시는데, 제가 감히 음주를 할 순 없죠.”

샴페인 병까지도 저 멀리로 밀어내버리고서 과자만 집어먹고 있자니, 마스 군의 사회에 의해 학생들의 춤 경연이 시작되었다. 그 스타트를 끊은 사람은 공교롭게도 아처였다.

“헌터 가문의 아처 학생- 파트너를 데리고 스테이지 위로 입장하는데요! 파트너는 베아트리스 가문의 로사 양이로군요. 자 그럼, 음악- 큐!”

아처와 로사가 무대 위로 올라서자, 여기저기서 ‘선남선녀다!’라는 반응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저게 어딜 봐서 선남선녀지? 솔직히 말해 아처는 얼굴은 영 아닌 편이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못생긴 얼굴이라곤 할 수 없지만, 이 대학 내에는 얼굴이 치트키 급으로 잘생긴 넘사벽 미남들이 몇 명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처의 외모는 상대적으로 꿀려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아처에 비해, 로사는 엄청 예뻤다. 오늘을 위해 아주 작정하고 꾸며 나온 모양인지, 저번에 보았던 때보다도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운 붉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그녀는 우아하게 무대 중앙에 선다. 그리고 아처와 춤추기 위한 준비 동작을 잡는데 아처가 로사의 허리에 팔을 감고, 로사는 우아하게 뒤로 살짝 몸을 기울인 채 노래는 시작되었다.

을씨년스러운 느낌으로 바이올린의 구슬픈 연주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본격적으로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자 노래의 중반부부터는 춤이 격렬해지기 시작한다. 노래도 물론 파격적인 음색이었는데, 과연 관심종자 기질이 다분한 아처 녀석이나 고를 법한 노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춤은 상당한 실력이었다. 그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로사는 몹시 아름답고 우아하며 유연한 춤 실력을 보여주었고, 아처는 꽤 박력 있는 이미지를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물론 그 박력이 나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지만 말이야.

심사위원들은 각각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으로 내어 도합 8점을 주었다. 로사가 파트너로 나와서인지 점수를 상당히 후하게 주는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다음 차례는 샤르도나 발리시아였다.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저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루이스를 지독히도 괴롭히던 똥파리 중 하나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녀의 춤은 이하 생략.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잖아? 내 눈으로 보기엔 그저 그런 수준이었다.

그렇게 이 학생, 저 학생의 순서가 지나가다 보니 한 시간 정도가 흘렀다. 여덟시 쯤 되었을 때, ‘그’의 차례가 왔다. 우리 차례냐고? 아, 그건 아니야.

“란 학생- 자리에 없는 건가요? 없다면 실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셉니다! 하나, 둘, 셋 아, 실격입니다! 춤 경연은 포기하는 걸까요? 어제의 대회에서 2등을 거머쥐었던 마법 실력자이기에 춤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럼, 다음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란의 차례였다. 하지만 아까부터 행방을 찾을 수 없던 란은 대연회장 내에서 코빼기도 찾아볼 수 없었고, 결국 마스 군의 멘트에 의해 실격 처리되어버린다. 루이스의 차례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 연회장 내에는 란과 마찬가지로 루이스의 금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

그 둘 다 춤 경연을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게다가 란 녀석은 오늘 분명 정장도 입고 왔었고 말이야. 정장 핏으로만 따지자면 류이를 따라갈 인물이 없겠지만, 란 녀석은 은근히 키나 어깨가 적당히 크고 넓어서 뒤통수만 보자면 썩 쌔끈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춤추는 걸 못 보게 돼서 조금은 아쉽

응? 아, 잠깐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저, 정신 차려라, 아샤! 머리에 마구니가 끼었군. 칭찬할 사람이 따로 있지, 감히 내 입술 도둑놈을 칭찬해? 미쳐도 적당히 미치자, 나 자신아.

“그럼, 다음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도라는 어디로 간 걸까?

마리는 이디아 조지아의 파트너였다. 그렇기에 다소 멀리 떨어진 위치의 테이블에서 그녀와 함께 앉아 대기중인 모습. 여자 둘이서 무슨 춤을 추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세계에서는 여자 둘이서 추는 깜찍한 사교계식 댄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었다.

지금 상황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 란과 아도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정도지.

“어디로 갔담 ?”

“그럼, 이번 차례에 춤 솜씨를 보여주실 학생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주신 수많은 영애분들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 분 !”

나직이 중얼거리며 대연회장 이곳저곳을 눈으로 둘러보고 있자니, 마스 군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름에 나는 깜짝 놀라며 스테이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류이 황자님! 이십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지요, 황자전하!”

“헉.”

놀라서 헛숨을 들이키며 류이 쪽을 쳐다보았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지만, 다른 학생들보다 무덤덤한 느낌으로 나를 바라봐온 류이가 나가자는 듯이 눈짓을 해온다. 그리고는 씽긋- 하고 미소를 짓는데

“흐억, 황자님 !”

“유이 님 하아. 나한테도 저렇게 미소지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

그의 살인미소를 봐버린 영애들이 끙끙거리며 앓는 소리를 낸다. 그래, 그 마음들 나도 잘 알지. 눈앞에 엄청 맛있어 보이는 포도, 달콤해 보이는 꿀떡이 있다면 어찌 먹고 싶지 않을쏘냐.

한 마리의 물고기가 되어 류이의 어장 속에 퐁당-하고 뛰어든 많고 많은 영애들을 지나치며, 나는 류이의 에스코트를 받아 스테이지 위까지 올라왔다. 오늘만 벌써 세 번째로 올라오는 무대네, 이거.

그런데, 문득 잊고 있었던 사실 하나가 떠올랐다.

나, 류이랑 춤 연습을 단 1분은 커녕 1초조차 한 적이 없는데?

“으, 응 ?”

그제야 내가 무슨 춤을 춰야 할지, 류이와 어떻게 호흡을 맞춰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냈다. 헉! 그럼 어떡하지? 무슨 춤을 춰야하지? 류이가 무슨 춤을 추려고 나온 건지도 모르는데, 그의 파트너 된 입장으로서 대체 어떤 춤으로 호흡을 맞춰주어야 한단 말인가. 게다가 문제가 어디 그것 뿐인가? 나는 이 세계의 사교댄스 같은 건 1도 모른다고! 대체 무슨 춤을, 어떻게 춰야 잘 췄다는 소문이 날 !

까? 어?

"!"

류이가 내 허리를 잡아왔다. 한쪽 팔로는 허리를 휘감고, 반대쪽의 빈손으로는 나의 손을 깍지 끼고 잡아, 춤을 추기 전 시작 자세를 취하는 그. 아까 전에 보았던 아처와 로사네의 포즈와 비슷하다 !

“아샤, 이런 춤은 춰본 적 없겠지?”

류이가 귓가에 나긋한 목소리로 물어왔다. 귀, 귀가 간지러 ! 하지만 그 간지러움에 몸이나 바르르 떨고 있을 틈은 없었다. 마스 군이 오케스트라 쪽을 향해 시작 신호를 보냈기에, 반주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

아처네와는 달리 상큼한 느낌으로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자, 나는 얼음마냥 꽁하고 얼어붙어버린 몸을 하고서 류이에게 달달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네, 네 ! 저, 이런 춤은 추, 출 줄 모르는데, 어떡하죠?”

잔뜩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에게, 류이는 이렇게 말해왔다.

“나만 따라와.”

눈을 가늘게 접어 예쁘게 웃어 보이면서 말이다.

류이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였는데, 나는 류이가 팔을 뻗는 대로 함께 뻗고, 그가 돌면 드레스를 휘날리며 함께 돌아주고, 그가 내 얼굴 가까이로 귓속말을 하는 듯한 스킨십 모션을 취할 때면 마치 사랑에 빠진 듯한 여자의 얼굴을 흉내 냈다. 몸으로는 류이를 다 따라갈 수가 없으니, 표정 연기라도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서였다. 류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춤을 훨씬 맵시있게 잘 춰서, 나는 그가 움직이는대로 그저 따라 움직이기만 해도 그럴싸한 춤이 되었다.

노래의 중반부쯤에 들어섰을 때, 나의 표정 연기가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모양인지 류이의 리드에 따라 춤을 추면서 얼핏 본 관객들의―라 쓰고 영애들이라 읽는다―표정이 하트로 변해있음을 확인했다. 그걸 본 나는 남몰래 입매를 끌어올려 미소 지었다. 훗, 계획대로

그런데 그런 썩소를 지은 이후, 류이가 춤을 추다 말고 나와 눈이 딱 마주쳐버렸다. 원래부터 류이는 내내 내 얼굴을 바라보며 몸을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만이 관객석을 쳐다봤다가 오케스트라 쪽을 쳐다보는 등 이리저리로 시선을 돌려대고 있었던 것. 그런 내가 류이에게로 고개를 돌리자, 우리들은 제대로 아이컨택을 해버리고야 말았는데.

이 때, 내 머릿속에는 전생에 호기심에 읽어보았던 어느 책의 한 구절이 떠오르고야 만다. ‘괴물의 심연을 들여다 보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 볼 것이다’라던 거 말이다. 분명 사이코패스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이었고 그런 내용이었건만, 지금 이 순간에서 나는 그 구절을 자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 게, 나의 바로 앞에서 나를 끌어안다시피 한 채 한 마리의 백조처럼 몸을 움직이는 류이는

많이, 너무나도 많이 아름다웠다. 보고 있자면 뇌가 과부하에 걸려 ‘펑!’하고 터져버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이다. 예쁜 인간인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알록달록 아름다운 조명 아래서 춤을 추며 바라보는 얼굴은 평소보다 더한 아름다움이었다. 이 미친 외모는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 새카만 눈동자. 갈색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 검정색채의 동공. 아름다운 사람의 검은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더니, 그 아름다움이 나를 들여다본다. 류이의 흑요석을 박아 넣은 듯 새카만 눈동자 속에 아로새겨진 나를 확인했을 때, 나는 온몸에 찌릿한 전기가 감도는 것 같았다.

왜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 정도로 잘생긴 거지? 이 남자

너무 사기잖아, 이건! 외모 핵 아냐!?

“ 허억.”

마지막 마무리 동작은 류이가 나를 포옹하다시피 하며 볼에 입맞춤을 하는 것이었다. 덕분에 내 볼에 류이의 입술이 잠깐 닿던 그 순간, 나는 화들짝 놀라 숨을 들이켰다.

류이가 계획한 것인지, 아니면 분위기 상 이렇게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즉흥적으로 저지른 마무리 동작인지는 모르겠으나 장내는 그야말로 환자 천지가 되었다. 물론 그것은 나를 향해 부러움과 질투를 느끼거나, 또는 류이를 향한 애달픈 짝사랑으로 인해 혼절할 듯 현기증을 느끼는 영애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인데. 마법으로 간이 침대라도 소환해줘야 할 것 같은 표정들이다.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 후우.”

류이가 가볍게 숨을 내쉬며 나를 놓아준다. 왜, 왠지 쑥스럽다. 이런 귀족들의 댄스를 아무렇지 않게 소화해내는 것부터가 역시 타고난 황족이구나- 싶기도 하고, 생각보다 그가 너무 리드를 잘하는 데다, 또 춤을 추는 과정 중에 마주해버린 류이의 얼굴이 알고는 있었지만 역시 너무 잘생겼다는 것을 깨달아버린 직후이기에 그에게 뭐라 말을 붙이지 못하고 어색어색 열매를 먹은 사람마냥 쭈뼛거리며 스테이지 중앙에 가만히 서있자니,

“아샤.”

류이가 슬쩍 내 손을 잡아오며, 내 상태가 이상한 것을 감지한 듯 고개를 갸웃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름까지 부르면서 ! 지, 지금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건가? 혹시 루이스의 조수들이 심장마비로 죽어나갔던 게, 알고 보니 류이가 그들을 심쿵사로 암살해버렸던 건 아닌지 ?

“네, 네에 ?”

떨리는 목소리로 류이에게 대답하는데, 류이가 나를 잠시 빤히 바라봐온다. 저 잘생긴 얼굴로 빤히 쳐다봐오면 어쩌란 거지? 역시 사인은 심장마비인가?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데, 내 상태가 양호하다고 여긴 모양인지 그는 이내 옅은 미소를 지은 채로 이리 말해온다.

“고마워. 내 조수가 되어줘서.”

“아 ”

저 말을 들은 나의 얼굴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붉어져 있을까? 홍시처럼 새빨갛게. 아니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새하얀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서있는 중일까. 거울이 없으니까 내 상태를 알 수가 없다.

지금 류이에게, 나는 어떤 얼굴을 한 채 서있는 중일까? 궁금해졌다. 내 심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일단 대답부터 하자. 류이를 향한 내 진심을 표현하자는 거다.

“저, 저야말로 못난 조수인 저를, 늘 신경써주셔서 감사 ”

수줍어하는 목소리로 나는 그에게 답하려 했다. 그런데, 나의 이러한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아니, 맺을 수 없었다. 류이가 내 손을 더욱 꼬옥 잡아올 때, 그리고 마스 군이 심사위원석을 향해 점수 공개를 요청하려 할 때, 위에서 웬 날벼락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콰아아아앙─!

“꺄아아악-!”

“뭐, 뭐야!? 웬 폭발이 !”

“빨리 쉴드 쳐!”

엄청난 폭발음과 무언가가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위에서 파편들이 미친 듯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한다. 대연회장의 천장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수많은 양초들이 바닥으로 추락할 때, 나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없었다.

천장이 없었다. 어느 힘에 의해 산산조각 나듯 부서져버린 2층인 대연회장의 천장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색색의 촛불이 아닌 새카만 밤하늘에 뜨문뜨문 떠있는 별들만이 반짝이고 있는 광경이었다.

부서진 천장으로 인해 건물의 파편이 아래로 추락하는데, 엘리트만 모아놓은 마법 대학이라 그런지 모든 학생들이 재빠르게 방어막을 친다. 반투명한 방어막으로 인해 파편들은 투명한 무언가에 가로막힌 듯 아무의 머리통도 맞추지 못한다. 그것은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제이와 류이가 발 빠르게 시전한 방어막으로 인해, 몸에는 생채기 하나 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팔자들 참 좋으시군요. 프란치아의 돼지 같은 귀족 여러분-”

천장을 없애버린 주범들로 추측되는, 별들이 수놓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한 수십 명의 검은 로브를 입은 인물들이 허공에 떠있었다.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대연회장의 천장이 존재했던 그 자리에 말이다. 위에서 발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들 중 한 명이 로브의 모자를 벗으며 저런 말을 내뱉을 때, 내 뇌는 이미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지금부터가 진정한 파티의 시작입니다.”

로브 모자를 벗은 인물이 소름끼치는 미소를 쿡쿡거리며 흘린다.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저런 대사를 뱉은 직후, 밤하늘에서는 수천수만 개의 마법 공격들이 빗줄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주문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손가락으로 딱! 하는 가벼운 소리를 냈을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연무장에서 보았던 공격들과는 차원이 다른 공격 마법들이 우박이 되어 쏟아졌다. 불로 된 창이나 얼음으로 된 고드름 등이 소나기마냥 쏟아져 내리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 몇몇 조수들의 방어막이 휴지조각처럼 부서져버린다. 그들은 재빠르게 다음 방어막을 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듯 몇몇 조수들이 공격을 맞고 자리에 쓰러지기 시작한다. 피가 튀기도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내 숨은 절로 멎어버렸다.

류이와 제이의 방어막 안에서, 패닉 상태에 빠진 나는 스르르 입을 벌렸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뭐, 뭐야 ”

지금 내 눈앞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1분대, 방어벽을!”

“예!”

초점 잃은 눈동자로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의 CG처럼만 느껴지는 그 광경을 응시하고 있자니,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온다. 프란치아의 병사들과 류 제국의 병사들이 대연회장 내로 들이닥친 모양.

그와 동시에, 대연회장 바닥과 천장―지금은 사라지고 없는―사이에 반투명한 방어막이 지붕처럼 생성된다. 프란치아의 정예 마법사들이 설치한 방어막이라 그런지 과연 학생들이 설치한 방어막과는 차원부터가 틀렸다. 우뢰처럼 쏟아지는 공격들을 그것들은 완벽하게 받아냈으니까.

하지만 피투성이가 되어 자리에 쓰러진 조수들은 이미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잘난 마법사들이 이렇게 쉽게 당해버려도 되는 거냐고 누군가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방금 일어난 그 상황은 불과 10초도 되지 않는 아주 찰나였다.

쉽게 말해, 오히려 그 짧은 틈새에 방어막을 친 학생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다. 아, 물론 지금의 나는 생각이고 자시고 그런 걸 할 정신머리 따윈 없는 상태지만.

“으아아아악!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이 방어막도 깨지는 거 아니야 ? 공격을 안 멈추잖아, 저것들!”

“사라다! 흐어엉 ! 주, 죽으면 안 돼! 사라다!”

“젠장, 피를 너무 많이 흘리잖아! 치료반은 어딨지? 치료 마법 전공한 애, 여기 없어?”

“나야! 거즈 같은 거 있어? 없으면 손수건이라도!”

“여, 여기!”

불과 30초 전까지만 해도 류이와 나는 스테이지 위에 서있었고, 막 환상적인 춤 솜씨를 선보인 뒤였다. 그 다음은 심사위원들이 공개하는 점수를 확인하고, 기뻐하거나 혹은 아쉬워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이며 스테이지를 내려가, 우리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면 말이다.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 나는 어느 틈엔가 류이에게 손을 붙잡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내달리듯 대연회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은신 마법을 모두 해제한 류이 휘하 정예 기사들 여섯 명을 주위에 대동한 채, 류 제국 황자의 무리는 그렇게 대연회장 정문을 나섰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몇몇 학생들이 자신의 몸에 방어막을 두른 채 건물의 파편이 떨어지는 연회장의 입구를 미친 듯이 달려 도망쳐나가는 뒷모습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이내 나는 류이에게 붙잡힌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앞으로는 그가 달리는 뒷모습이 존재했다. 그의 검은색 단발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휘날려, 매끈하고 하얀 목선이 드러난다. 그 모습을 그저 생각 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내 머릿속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행여나 내가 넘어질까 아주 빠르게 달리지는 못하는 그, 류이가 갑자기 우뚝 멈추더니 주변을 살핀다. 호위 기사들도 자리에 멈추더니, 갑자기 주변을 둘러본다.

“황자님!”

“알아.”

제이와 류이가 저런 대화를 나누기에, 나는 무엇을 안다는 것인지 궁금해져 류이의 시선이 멈춰 고정돼버린 곳을 덩달아 응시해보았다.

그곳에는 새카매진 하늘이 있었다. 밤하늘은 원래 까맣다. 그런데 아까와는 달리, 별도 찾아볼 수 없는 칠흑 같은 하늘로 변해가고 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저게 뭐지?

“아샤 님! 시간이 없어요. 이대로 갔다간 놈들에게 붙잡히고 말 겁니다.”

“부, 붙잡혀요 ? 제가, 제가 왜요 ?”

내 목소리가 크게 떨리는 것을 감지한 듯, 류이가 내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아온다. 나는 초점 풀린 눈동자로 제이를 응시했다. 그 순간, 옆에서 지금까지 은신 마법으로 숨죽여 나를 호위하고 있었던 진과 칸이 은신을 해제하고 드러났다.

“하늘이 새카매지는 것, 지배 마법의 일종이에요. 하늘을 지배해 그 아래의 모든 사물의 위치를 꿰뚫어보는 마법이죠. 어지간한 능력의 마법사가 아니라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다는 건?”

내 물음에, 진이 빠르게 답해왔다.

“이미 아샤 님의 위치를 파악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원래 이곳 마법 대학은 저런 마법류를 사용할 수 없게끔 방어 마법이 쳐져 있는데, 그 마법을 깼다는 건 보통 실력의 마법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 그럼 전 어떡해요? 어디로 가야 해요?”

“일단 내 기숙사로 돌아가, 아샤. 그곳은 절대로 뚫을 수 없으니까.”

당황한 내 물음에 옆에서 류이가 대신 답해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상황이 너무 돌발적인지라 그도 적잖게 당황한 듯, 눈을 한 번 깜빡이는데 검은 속눈썹이 파르르 떨린다. 그런 류이를 바라보던 나는 정신을 차렸다.

내가 이렇게 멍청한 인간처럼 굴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지? 류이조차 이렇게 당황하는데, 나를 지켜주려고 애쓰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나 고군분투중인데

당사자인 내가 생각 없는 인형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

“ 아, 알겠어요. 황자님도 같이 가요! 어서!”

“늦었어요. 이미 마법은 발동됐어요. 하늘이 모두 물들었다구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아직 늦지 않은 거거든요? 어서 기숙사로 가요, 황자님!”

가망이 없다 말하는 제이를 향해 앙칼지게 대답하며, 나는 류이의 손을 꽉 잡으며 앞으로 뛰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달리면 늦지 않을 거야! 아직 주변에는 검은 로브의 인물들 중 그 누구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아직 대연회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을 거라고.

애초에 그들의 목표는 나다. 내가 숨어버리면 그들이 이 마법 대학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깽판을 부릴 이유는 없는 거잖아. 내가 죽거나, 내가 그들의 손아귀를 벗어나 버리면 자연스레 목표도 소멸돼버리지 않을까? 그래, 아마 그럴 거야. 그렇게 믿어 보자!

머릿속에 아도라와 마리가 과연 멀쩡할지 걱정이 들어온다. 루이스와 란은 아무래도 마법 실력이 뛰어나니까 어디에 내다 놔도 죽을 것 같진 않지만, 그 둘은 아니지 않은가. 이디아 조지아와 란이 부디 자신의 조수들을 완벽하게 지켜주길. 그러길 바라며, 나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앞만 보고 뛰었다.

“황자님, 빨리!”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야, 아샤!”

“아차!”

이렇게 다급한 와중에도 내 길치 세포가 주제를 모르고 끼어든다. 류이 덕분에 방향을 제대로 찾은 내가 기숙사를 향해 젖 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뛰는데, 문득 이상함이 느껴졌다.

주변이 너무 조용하다?

“헉, 헉. 화, 황자님. 그런데 말이에요 헉, 헉.”

한창 달리는 중인지라 가쁜 숨을 몰아쉬며 류이에게 말을 붙였다. 주변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아까까지와는 다른 괴리감이 느껴져. 분명 내가 학생들의 춤 경연을 위해 드레스 룸에 화장을 고치러 갔을 때에도 ‘대체 이걸 어떻게 뚫고 쳐들어온다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 많던 호위 병사들이 보이지 않는다.

온 사방에 쥐새끼조차 보이지 않아. 프란치아와 류 제국의 병사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거지? 분명 대연회장에 방어막을 쳐주러 뛰어 들어오던 병사들은 봤던 것 같은데, 바깥은 이리도 조용하다. 이상하지 않은가. 바깥에서 정찰을 서고 있었던 그 많은 병력들이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

“ 아, 잠깐만.”

갑자기 류이가 짧게 중얼거리며 웃었다. 저건 무슨 의미의 웃음이지? 놀란 눈으로 옆을 돌아보니, 허탈한 표정으로 실소를 흘린 류이가 황망한 눈동자를 한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왜?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이었다. 그러나 류이에게 직접 물어볼 필요 없이, 2초도 채 지나지 않아 나는 그가 지금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도망쳐봤자 저희 손바닥 안이지요.”

으, 응 ?

“ 어?”

밤하늘이 새카맣게 물든 수준이 아니다. 그냥 사방이 까맣다. 하늘만 새카만 게 아니라, 마치 온 주변에 먹물이라도 끼얹은 듯 모든 사물이, 모든 풍경이 까매져버렸다고.

이게 진이 말한 지배 마법의 일종인가? 밤하늘을 지배해 그 아래 사물의 위치를 파악한다던 그 마법이야? 그런 것치고는 수준이 너무 과하잖아.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숙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들인데, 하늘에서 갑작스레 저 검은 로브 무리들이 등장하기가 무섭게 사방이 새카매져버려 길조차 찾을 수 없어졌다.

위치를 알아내는 것 정도가 아니잖아, 이건. 그냥 내 오감을 모두 집어삼켜버린 것 같은 느낌이잖아 !

난생 처음 겪어보는 어마무시한 마법에 졸도하기 직전인 사람의 눈을 하고서 까매져버린 주변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자니, 류이는 누군가를 향해 말을 건넸다. 아니, 건넸다는 좋은 표현보다는 더 거친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단순한 지배 마법이 아니라, 정복 마법이었군.”

상대는 밤하늘에서 둥둥 떠 있다가, 바닥으로 내려오며 부드럽게 착지하는 검은 로브의 무리, 그들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있는 인물이었다.

아까 전 대연회장에서 프란치아의 귀족들을 돼지 같다고 칭했던 그 남자다. 류이와 같은 검은 머리카락에 꽤 준수하게 생긴 외모였지만 마치 생긴 게 하이에나 같았다. 잘생겼기보다는 험상궂고 무섭다는 생각부터가 떠오르게 만드는 그 얼굴에는 기다란 자상으로 인한 흉터가 존재했다. 바로 왼쪽 눈에 말이다.

그래서인지 왼쪽 눈을 뜨지 못하는 애꾸눈이 류이를 향해 받아친다.

“꽤 잘 아시는군요. 최상위 마법에 대한 공부도 하셨나봅니다? 류 제국의 황자전하.”

여유 가득한 그 목소리에, 류이가 조금 화가 난 모양인지 짓씹는 말투로 대답을 이었다.

“황자씩이나 돼서, 이 정도도 모른다면 부끄러운 일이겠지.”

“류 제국의 사람들이야 딱히 이런 마법 정도는 몰라도 될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는 너야말로 서양의 피가 섞인 것 같은데. 뭐하는 놈이냐?”

“아아, 저희는 야벨입니다.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또는 보셨거나. 이 문양 말입니다.”

야벨? 진짜로 야벨이었단 말이야?

애꾸눈의 검은머리가 자신의 검은 로브 소매를 걷어 올려, 어깨에서 살짝 아랫부분의 팔뚝에 새겨진 문신을 류이에게 보여준다. 웬 마크 같은 것이었는데, 나는 그것을 보아도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류이는 문신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차린 듯, 작게 이를 가는 소리를 냈다.

아무래도 저건 용병단 야벨만의 표식인 모양이다. 행여나 놓칠 세라, 내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채로 서있는 류이에게 애꾸눈은 덧붙여 말했다.

“사실 제 몸에 흐르는 절반의 피도 류의 핏줄입니다. 한 번쯤 그 잘났다던 류 제국 3황자의 얼굴을 실물로 보고 싶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군요. 뜻밖입니다.”

“류의 이름에 먹칠을 하려 드는 제국민이라면, 내 쪽에서 사양이야.”

“흐음, 오해 마십시오. 어느 핏줄이냐를 떠나, 저는 아디티의 사람이니 ”

“ 그런 구체적인 네 정체성에 대한 건 궁금하지 않으니 넣어둬라. 야벨이라면 보수를 받고 일하는 용병단으로 알고 있다만,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누군가가 의뢰한 일이냐?”

칼 같이 말을 잘라버리고 되묻는 류이에게, 퍽 가소롭다는 듯 묘한 웃음을 흘린 애꾸눈은 이리 답한다.

“그래도 모국의 황자전하시니, 이 정도는 답해드리죠.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저희도 즐거워서 하는 짓은 아니라는 겁니다.”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명확한 답을 말해.”

“‘복수’죠.”

류이의 말에 애꾸눈은 깔끔하게 대꾸했다. ‘어째서?’라는 물음은 던질 필요도, 이유도 느낄 수 없었다. 목소리에서부터 짙게 묻어나오는 그의 증오심에, 류이도 나도 말문을 닫아버렸다. 정확히는 잃어버린 것이다.

란에게 들었던 말이 떠오른다. 아디티의 황가와 프란치아 사이에 얽힌 안타까운 그 사연이 말이다. 그리고 어느 이름 하나도 떠올랐다. 설마

설마?

“ 혹시, 당신이 노아 이즈하인가요?”

나는 이들의 말다툼에 끼어들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검은 머리의 애꾸눈에게 말이다.

용기를 내어 물어본 그 한 마디에 돌아온 것은, 참으로 애석하게도

“아니요, 뚱인데요?”

같은 유쾌하고 센스 만점인 대답이 아니었다. 저런 황당한 대답이어도 좋으니까, 지금의 상황이 모두 거짓이라면 좋을 텐데. 이 모든 게 누군가가 나를 놀라게 해주기 위해 기획한 몰래카메라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검은머리 애꾸눈은 내게 도리어 질문해왔다.

“그분의 생김새를 모르나 보죠?”

라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이다.

저기요? 알 리가 없는 게 당연하잖아? 내가 노아 이즈하를, 그것도 아디티의 황자라는 그 사람의 얼굴을 무슨 수로 알아? 네X버 인명사전에 검색을 해볼 수 있는 세계라면 모르겠는데, 이 행성에는 현재 인터넷이라는 개념조차 발달해있지 않다고. 지금 저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어 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럴 여유는 없군요. 그러지 않아도 곧 보게 될 테니, 그럴 필요도 없지만 말입니다.”

"?"

저건 무슨 의미? 곧 보게 될 거라고? 내가 아디티의 황자를 왜 영접해야 하는가. 그것도 프란치아와 레플리카 공작을 향한 증오심으로 똘똘 뭉쳤다던 그 인간을, 루이스의 전 조수였던 내가 왜? 내 의향은 물어보지 않는 거야?

“전 그분을 뵙기 싫은데요 ?”

쭈뼛거리는 목소리로 내가 한마디 날리자, 옆에서 류이가 나를 놀란 눈으로 쳐다봐온다. 왜 놀란 거지? 싶어 류이의 눈동자를 빤히 쳐다보니, 이런 와중에도 그는 이런 내가 퍽 웃긴다는 듯 살포시 웃는다. 눈치에 투자해야 할 스탯을 모두 잘생김에 꼬라박은 듯한 류이를 잠시 멍하니 올려 보다가, 나는 고개를 정면으로 돌렸다. 모 만화의 카피 닌자가 떠오르는 흉터를 지닌 그를 말이다.

“당돌하군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대학 내에 당신이 습격당할 거란 정보가 파다하던데, 본인이 알아낸 건가요?”

애꾸눈이 물어온다. 문답타임인가? 내가 저 물음에 답해줄 이유는 없지 않겠나 싶어, 나는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며 입을 열었다.

“대답해주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은 날 죽이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하하, 참 마음에 드는 아가씨네요.”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드는데

무섭게 생긴 애꾸눈이 진심으로 웃긴 듯 호탕하게 웃으며 말해온다. 원래 악역들은 저런 웃음을 터뜨릴 때가 제일 무서운 법이다. 아무래도 저 인간은 노아 이즈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대체 누가 아디티의 3황자라던 그 노아라는 인물일까?

애꾸눈과 그 뒤에 서있는 이들을 재빨리 스캔해본다. 검은 로브를 입은 그들은 딱히 얼굴을 숨길 의향이 없는 듯, 복면 같은 것을 착용하지 않아 생김새를 알아보기 쉬웠다. 애꾸눈을 제외한 뒤의 인원은 넷이었는데, 그중에는 여자도 있었다. 그리 예쁜 외모는 아니고, 뭐랄까 엄청 강한 마법사일 것처럼 세게 생긴 얼굴이랄까? 그런 느낌. 스모키 화장을 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나 세보일 수 있다니, 대단해.

자그마치 36년이나 살아온 나의 연륜이 말하는데, 저 중에는 노아 이즈하가 없다. 설마 황자씩이나 되는 인물이 저 애꾸눈의 부하처럼 뒤에 숨어있을 것 같진 않단 말이지. ‘내가 아디티의 황자다!’라는 대사를 치기 위해 부하 코스프레 중인 명성황후 빙의남이 아니고서야, 저 다섯 명중에는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

그렇다면 이들은 왜 나의 앞길을 가로막은 걸까? 나를 죽이려고? 아냐, 그건 아닐 것 같다. 복수를 위해 이런 짓까지 벌이는 그 노아라는 인물은 자기 수하들이 나를 죽이는 영광을 차지하게 두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오직 하나!

“그 노아라는 사람이 저를 데리고 오라고 시킨 거죠? 그렇죠?”

“제가 대답할 이유는 없는 것 같군요. 당신도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셨거늘, 저라고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투영의 비약을 먹고 오늘쯤에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대답해주세요.”

너무 스피디한 나의 대답에 머리를 토르의 망치로 두들겨 맞은 표정을 하고서 나를 응시해오는 애꾸눈. 생김새와는 달리 저런 의외스러운 표정도 지을 수 있는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자니, 그는 픽 웃었다. 그리고는 답해왔다.

“네, 맞습니다.”

“죽이려는 게 목적이죠?”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다. 하긴, 나를 죽일 거냐고 묻는 말이 떨리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강심장이지. 애석하게도 내 심장 녀석은 쫄보중의 쫄보였다.

“네.”

애꾸눈이 싱긋- 웃었다. 류이나 루이스, 란 등이 지었더라면 저렇게까지 무섭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 오히려 잘생겼다고 느꼈을 터이다. 하지만 검은머리의 애꾸눈이 짓는 미소는 그런 웃음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마치 저승사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오싹한 느낌.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는 것을 느끼며, 나는 빠르게 두뇌를 회전시켜보았다. 노아 이즈하가 나를 데리고 오라고 시켰고, 그는 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고 싶어 한다. 왜 루이스가 아니라 나를 노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어디 한 번 데려가 보시죠!”

저들은 내 목숨에 영향을 줄 수 없어!

딱 보기에도 충성심이 엄청날 것 같은 얼굴들인데, 아디티 3황자의 말을 어기고 제멋대로 나를 죽여 버리진 않겠지. 저들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나를 생포하는 거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안전해.

그래, 지금까지는!

“아샤 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

제이가 놀란 목소리로 내게 물어온다. 어쩌려고 그러긴? 살아남으려고 이러지.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일단 지금은 정복 마법에 걸린 상태인데, 이 마법에 걸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무슨 수를 써야 하지? 도망치든 싸우든 뭔가를 하려면 이 캄캄한 주변부터 어떻게 해야할 것 같은데, 마법을 모르는 나로서는 대책이 없다.

“황자님, 이 마법을 풀려면 어떻게 해요? 여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옆에 서있는 류이를 끌어당겨 소곤소곤 물어보았다. 마법소녀가 등장하는 만화 같은 걸 보면, 주인공들이 변신을 할 때 악당들이 공격을 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마치 그런 느낌처럼, 대화를 주고받는 우리들을 야벨 무리는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는데.

“ 지금 걸린 마법은 상대방의 시야와 공간감각을 지배하는 마법이야. 평범한 지배 마법보다 고난이도라 정복 마법으로 분류됐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서있는 장소는 아까 그곳이야.”

“그렇다는 건, 해제할 수 있다는 건가요?”

“해제는 못해. 정복 마법은 시전자 외에는 해제가 불가능하니까.”

“ 그럼 ?”

“싸워서 시전자를 처리해버리든가 해야지, 다른 수는 없어. 진, 칸. 아샤의 호위를 부탁한다.”

“네.”

“화, 황자님 !”

진과 칸은 순순히 대답하지만, 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이도 있었다. 바로 제이였으니.

제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류이를 부르지만, 이미 그는 싸워야겠다는 다짐을 끝마친 후인 듯 주섬주섬 정장바지 주머니에서 전투 시에만 끼는 검은색 가죽장갑을 꺼낸다. 그리고는 기다랗고 매끈한 손가락을 그것에 끼워 넣으며 전투 준비를 하는데. 문득 내가 봐도 이 상황은 영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히 류이는 마법사들을 상대로 강력한 면모를 보이긴 했었다. 마법을 다룰 수 있는 역사(力士)니까, 자신의 몸에 마법으로 버프를 걸고 힘 싸움을 걸면 어지간한 마법사들은 당연하게도 발라버리는 것이다. 루이스와 류이의 전투 때처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완력이 강하고 몸놀림이 빠르기에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사방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류이의 그러한 장점이 그 무엇보다도 큰 리스크다. 이대로 이 새카만 공간에서 주변 사물이나 건물이 보이지 않아 이리 부딪치고, 저리 부딪치면서 저들과 싸워야한다는 건가? 가뜩이나 넓은 공간도 아닌데.

류이의 말대로라면, 류이를 비롯한 우리 무리만 사방이 까맣게 보이는 거지 저들의 눈에는 아까 우리가 가로질러 뛰어가던 대학의 거리가 또렷하게 다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대로 전투가 벌어진다면, 사방 구조물을 볼 수 없는 류이 측이 확실히 불리하다.

절대로 안 돼. 이런 악조건 속에서 류이를 싸우게 둘 순 없어!

“아,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손톱을 물어뜯는 악성 습관은 없었건만, 난생 처음으로 검지손가락의 손톱을 잘근잘근 물어뜯으며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을 떠올려 내보려 용을 쓰는데, 옆에서 갑자기 제이가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손뼉을 짝! 하고 치며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방법? 그게 뭔데?

“어떤 건데요?”

빠르게 내가 묻자, 제이가 급하다 못해 헐떡이기까지 하면서 이런 대답을 내놓았다.

“텔레포트요! 정복 마법에 걸렸어도 텔레포트는 가능하거든요!”

오! 텔레포트는 쓸 수 있다고? 뭐야, 그럼 우리들 다 같이 류이의 기숙사 방으로 뿅! 하고 텔레포트해버리면 끝나는 게임 아니야? 이런 쉬운 해결책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끙끙 앓고 있었다니. 나는 정녕 바보인 거

“제이, 정복 마법 수업 시간에 졸았지?”

가 아닌가?

“네? 왜, 왜요?”

“ 정복 마법에 걸렸을 땐 마법 시전에 방해를 받아서, 텔레포트를 까딱 잘못 썼다간 시공간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가 있어.”

류이가 한심하다는 듯 지끈거리는 이마를 짚으며 대답하자, 제이가 ‘헉!’하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입을 틀어막는다. 하아, 그럼 그렇지. 역시 제이도 나 같은 과였어. 공부하는 건 싫어하고, 뇌라는 놈은 단순하게 생각하기만을 좋아하는 그런 단세포 과였다고.

희망은 없는 건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들에게 아무런 마법도 날리지 않으며 그저 가만히 서서 우리들을 지켜봐오고 있는 야벨 무리를 쳐다보다가, ‘진정 가망은 없는 것 같군 ! 역시 신은 내 편이 아닌 남편.’ 하는 생각에 잠기며 조금씩 내 표정이 침체되어가던 그 때,

“하지만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제이.”

류이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내 양 어깨를 붙잡더니, 진과 칸에게 떠미는 것이다.

갑작스레 나를 선물 받은 진과 칸이 류이를 쳐다본다. 나, 나를 왜 떠밀어 ?

“진, 칸. 너희 둘은 아샤를 데리고 여기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후에 텔레포트를 시전해. 내 기숙사까지 아샤를 안전하게 데려가는 게 너희들의 이번 임무다.”

“네!”

응? 뭐라고?

진과 칸이 기세 좋게 고개를 끄덕이며 씩씩한 한 단어를 류이에게 외쳐 답할 때, 나는 개구리마냥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잠깐만요, 잘생기고 예쁜 총각 씨? 지금 뭐라고 하셨죠?

“텔레포트는 위험하다면서요 !?”

“이 마법은 시전된 위치에서 멀리 떨어지면 방해를 덜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다음에 텔레포트하면 아마 괜찮을 거야.”

“ 하, 하지만 그럼, 황자님은요?”

분명 방금 그 말에, ‘나도 가겠다’는 말은 들어있지 않았다.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겠는가? 이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나는 이곳에서 적들을 막을 테니 너희들만 가라!’는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초간지 조연의 대사가 아니겠는가!

으아악, 안 돼! 내 두 번째 주인님이 이런 곳에서 조연스럽게 개죽음을 당하게 둘 순 없어! 당신은 주연이라구요!

“안 돼요! 절대 못 가요. 황자님을 이런데서 죽게 만들 순 없어요!”

“ 누가 죽어?”

류이가 휘둥그레 뜬 검은색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며 반문한다. 아니, 죽을 수도 있잖아! 상대는 악명 높은 마법사 무리―사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 없다―인 야벨이라고! 게다가 소문 자자한 아디티 제국의 마법사들인데, 저들을 류이가 무슨 수로 이겨? 그것도 정복 마법이 걸린 상태로 말이야!

“위험하다고요. 주변도 안 보이잖아요. 분명 크게 다칠 거라고요, 류이 황자님!”

“난 안 다쳐. 류 제국의 역사들은 고작 앞이 안 보이는 것 정도로 주변에 부딪칠 만큼 허접한 감을 지니지 않았거든.”

“ ? 사, 사륜안 같은 건가? 아니, 저기. 무슨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안 돼요! 갈 거면 같이 가요. 네?”

“내가 가면, 저들은 누가 막아?”

류이가 정면을 눈짓한다. 시선을 돌려보니, 그가 가리킨 곳에는 야벨 무리가 서있었다. 기세등등하면서 형형한 눈빛을 내게 뿜어대고 있는, 바로 그들이 말이다.

류이의 기사들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잠깐 생각해보았으나, 류이를 제외한 기사들을 둘러본 바, 저 다섯 명의 야벨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다. 맞은편에 서있는 상대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 같은 노련한 표정과 눈빛들이라면, 류이 측의 호위 기사들은 제이 같은 비교적 젊고 풋풋한 새내기 기사들이었으니.

그러고 보니, 류이가 제이 같은 신참 기사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에 대한 이유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 류이가 너무 강해서 어느 정도 나이 있고 강한 호위 기사들을 붙여두면 그들이 싸울 일이 없어 실력이 녹스는 것 같다며 불평불만이 많았다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들도 류이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류 황실도 류이에게 어린 호위들을 붙여 줬겠지. 기사들에게 경력이나 쌓으라고 말이다. 아, 이렇게 생각해보자면 참 좋은 취지이고 괜찮은 생각들이긴 한데 말이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진짜 하등 쓸모없잖아!?

“그치만 다치면 어떡하죠?”

아무리 최정예 역사―류이처럼 마법 실력도 출중하긴 하다―라지만, 다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게다가 경험의 차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마무시하다고. 내가 전생에서 많이 보았던 만화들만 봐도 그랬다. 하급 닌자와 상급 닌자가 싸운다면, 상급 닌자가 이기는 게 당연하잖아! 아, 물론 주인공 버프를 뺐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류이를 이쪽 전력에 실어주는 게 맞다. 모두를 데리고 도망치는 것은 저들이 방해할 게 뻔하니 불가능하고, 기사들만 두고 가기엔 그들이 무참히 발려버릴 결과가 눈앞에 선하기에 그럴 수 없다. 이들이 행여나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내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아플 것 같으니까.

역시 답은 류이를 두고 가는 것이다. 어째서 주인을 두고 조수 나부랭이가 지 혼자 홀랑 도망쳐버리는 상황까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다.

단지 핑계가 아니라, 진짜로 어쩔 수 없어. 이대로 내가 이곳에서 ‘혼자 도망치지 않을 테야!’라며 고구마를 만 개쯤 먹은 만화 속 히로인마냥 뻐팅겼다간, 류이가 나를 지키며 싸우느라 더 집중을 못할 게 뻔하기 때문.

이럴 땐 타겟인 내가 이들의 곁에서 한시 빨리 떨어져주는 것이 도움 되는 일이다 !

“가, 갈게요. 황자님 말대로 할게요!”

나는 허둥지둥 답하며 진의 손을 덥썩 부여잡았다. 여기서 도망치라고? 사방이 캄캄하긴 한데, 일단 아무대로나 막 뛰면 되는 건가?

“잘 생각했어, 아샤.”

류이가 나를 향해 미소지어오며 저렇게 답하는데, 괜히 마음이 저릿저릿한 게 내가 무척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버렸다.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 눈앞의 인물이 루이스였다면 내가 딱히 이런 감정이 들 필요는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내 앞에 있는 이는 루이스가 아니라 류이이지 않은가.

나를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전투까지 마다않는 이 남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과 단 0.001%의 관련성도 접점도 없는, 바다 건너 옆 나라 황자란 말이다.

“아샤 님, 갑시다.”

“ 미안해요. 정말 많이 미안해요, 황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란 인간은 미안하다는 사과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류이를 향해 애타는 눈빛과 사과의 한마디를 건네며 진의 손을 붙잡은 채 어디론가 뛰기 시작했다.

류이의 뒤로, 야벨의 반대편으로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대로 뛴다면 아까 전 대연회장 쪽으로 가까워지긴 하지만, 우리들은 대연회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야벨 무리와 적당히 멀어진 다음에 기숙사로 텔레포트 하는 게 목적이었으므로 어느 곳을 향해 뛰든 그리 큰 상관은 없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부지런히 앞만 보고 달리면서 내 손을 꼭 붙잡은 채 하염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진의 갈색머리를 쳐다보다가, 그 옆에서 나를 호위하며 사방을 둘러보는 칸의 옆얼굴도 슬쩍 쳐다보다가

문득 ‘나 같은 천민이 이렇게까지 큰 민폐를 끼치면서 살아야 할 이유는 뭘까?’같은,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생각이 울컥 들어오던 그 때쯤.

“이쯤이 좋겠군요, 아샤 님.”

진와 칸이 우뚝 멈춰 섰다. 꽤 멀어진 건가 보다. 그나저나 꽤 오래 달린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는 길에 단 한 번도 벽 같은 곳에 부딪히지 않다니. 류이의 말대로 류 제국의 역사들은 타고난 감부터가 뛰어나서 어두운 곳에서도 길을 잘 찾아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럼 텔레포트를 아, 그러고 보니.”

“네?”

“그 장갑에, 텔레포트 방어 마법이 걸려있지 않았던가요?”

진이 물어왔다. 아, 그러고 보니까 !

“마, 맞아요. 어떡하죠, 이거?”

란이 끼워줬던 하얀 면장갑은 아직도 내 손에 끼워져 있는 채였다. 꽤 비싼 마법 장갑인가본지, 착용감이 너무 뛰어나서 끼고 있는 느낌조차 거의 들지 않았다. 그래서 잠시 잊고 있었는데

“빼야할 것 같아요. 그걸 낀 채로는 텔레포트를 할 수 없거든요.”

진이 심각한 눈으로 말해오기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이 상황이니, 어쩔 수 없지. 란은 자신이 줬던 물건들을 절대 몸에서 떼놓지 말라고 말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라면 빼는 게 맞는 거겠지?

란이 옆에 있다면 물어봤겠으나, 그러지가 못했다. 그와 루이스는 한 시간 전쯤부터 눈 씻고 찾아봐도 머리카락 한 올조차 구경할 수 없었다. 어디로 가버린 건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을 헤쳐 나가는 중인 건 알고나 있는지 야속하게도 뛰어난 마법사인 그들은 피 튀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대연회장 근처에서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그 둘.

“벗었어요.”

면장갑을 벗자, 진이 자신에게 맡겨두라는 듯 손을 내밀어온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달라는 것 같아 일단 그에게 장갑을 건넸다.

진과 칸이 준비를 마쳤다는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진이 내 어깨를 감싸듯 안으며 왼손을 들어 올려 검지와 엄지로 딱! 하는 소리를 낸다. 칸과 동시에 시전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 ? 텔레포트가 안 되는군요, 아샤 님.”

칸은 시공간이 일그러지는 듯한 이펙트와 함께 지금 공간에서 사라져버렸는데, 나와 진만이 이동하지 못했다. 어? 진의 불안정한 텔레포트 솜씨가 지금 상황에서조차 빛을 발한 건가?

“뭐가 원인이죠? 장갑은 분명 다 벗었는데 ”

“혹시 그 팔찌에도 텔레포트 차단 마법이 걸려있는 게 아닐까요?”

“아, 그, 그런가 ?”

“ 어? 시간이 없어요! 녀석들의 마나가 가까워지는 느낌인데 ! 텔레포트하려면 빨리 그 팔찌도 빼요. 급합니다!”

“네, 네!”

갑자기 진의 눈빛이 돌변하더니 시선을 돌려, 어느 허공을 노려보듯 정신을 집중하는 게 아닌가. 야, 야벨의 마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럼 안 되지 ! 허둥지둥 내가 팔찌를 벗자, 진이 그것을 낚아채듯 받아갔다.

“기숙사로 이동하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일단 빨리 이동하자구요!”

“으응, 네!”

고개를 끄덕끄덕! 위 아래 위 위 아래로 씩씩하게 흔들며 진에게 꼭 붙었다. 내가 얼마나 간절했냐면, 그 살짝 얄미운 진의 허리까지도 팔로 꽉 끌어안을 정도였다.

텔레포트가 살짝 잘못돼서 내 머리카락이 홀랑 시공간에 남아 대머리가 되어버린다던가 하는 그런 결과여도 좋으니, 제발 무사히 기숙사에 도착하게만 해주세요!

나는 속으로 그리 빌었다.

따악-!

이번에도 진이 왼손 검지와 엄지로 소리를 낸다. 그런데, 이 때 문득 어느 기억이 떠올랐다.

일전에 골목길에서 몰래 흡연하던 류이를 마주쳤던 적이 있잖은가. 그 때, 진이 요상한 오지랖을 부려 나를 데리고 그의 말을 엿듣다가 들킬 뻔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진이 나를 데리고 텔레포트를 써서 상가 한복판으로 이동했었는데, 그 때는 분명

오른손이었지 않았나?

“저기요? 잠깐,”

내가 말을 붙이려는데, 텔레포트가 시전되는 바람에 시공간이 일그러지며 나와 진은 그것에 빨려 들어간다. 그리고 이내 어느 장소로 등장하게 된다.

그곳에서 나는 모든 세계가 무너져버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돌아오셨군요.”

이상한 곳에 등장했다. 여기는 대체 어디!?

이대로 까무러쳐버릴 것만 같은 희미해져가는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고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에, 마법과 관련된 도구들이 잔뜩 있다. 어느 서랍장 위에는 야벨의 로브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고, 중앙의 소파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여섯 명이, 창가 쪽에는 창가에 걸터앉은 한 명과 그렇지 않은 한 명이.

그리고 바깥에는 더 많은 인원이 있는 듯, 이 넓은 방 밖에는 복도가 있는 모양인지 바깥에서 이런저런 말소리나 발소리가 들려온다.

이곳은 기숙사가 아니다. 아니, 마법 대학 내부조차 아닌 것 같아. 대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게는 와본 적은커녕 살면서 단 한 번도 구경해본 적조차 없는 생소하디생소한 장소다.

혹시, 이곳이 야벨의 본거지인가? 내가 이들의 작전에 당해버린 거야? 방금 전 정복 마법에 걸린 채로도 길을 훤히 아는 듯이 달릴 수 있었던 건, 모두 이 인간이 마법 시전자여서 가능했던 거 !?

그,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막장이 세상에 어딨어─!!?

“꽤 늦으셨네요? 10분 내로는 끝내실 줄 알았는데. 마하는요?”

“두고 왔어. 류 제국 황자 놈이 붙었더라고. 같은 류 출신이니 잘 맞을 것 같아서 맡겨놨지.”

“ 흐음? 한낱 천민 계집에게 류 제국 황자가 무슨 이유로요? 이상한 일이네, 그거.”

“이하동문이다.”

서랍장에 앉아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던―마법 도구의 일종인 듯했다―여자 멤버가 하는 말에, 진이 대답해주더니 갑자기 나를 붙잡지 않은 쪽의 손을 들어 올려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헝클어뜨린다. 당황한 눈으로 그것을 올려 보는데, 갑자기 그의 갈색 머리카락이 스멀스멀 다른 색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더불어 얼굴의 이목구비도.

“ 아 ”

이내, 내가 간절하게 껴안고 있었던 인물은 더 이상 진이 아니라, 붉은 머리와 붉은 눈동자의 낯선 얼굴을 한 남자가 되어버렸다. 원래부터 진의 정체가 이 남자였는지, 아니면 요 최근에 진이 가장 먼저 습격을 받고 그 빈자리에 이 남자가 변신술로 잠입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추측해본다고 해서 답을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문제는 지금 나를 끌어안다시피 붙잡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 마치 후광이 절로 날 정도로 잘생긴 미남 중의 미남인지라, 눈앞의 이 남자가 정녕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를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나를 죽이기 위해 이곳에 데려온 사람일 거라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

얼굴로만 보자면 류이고 루이스고 다 쌈 싸먹을 것 같은 이런 얼굴을 하고서, 사람을 죽인다니 믿기지가 않잖아. 내가 단순히 얼빠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을 데려온다 해도 아마 믿지 못할 것이다. ‘살인마법사라고요? 연예인 아니고요!?’같은 반응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올, 그런 외모를 지닌 남자였다.

류 제국 호위 기사 로브의 단추를 풀더니, 붉은 머리의 남자는 옷을 바닥에 패대기쳤다. 표현 그대로 ‘패대기’쳤다. 왜지? 무척이나 화가 난 것 같은데,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달달 떨리기 시작한 몸을 가누기 위해 붉은 머리를 끌어안았던 팔을 슬그머니 풀고 내 몸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붉은 머리는 자신의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마치 CF속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이리 중얼거렸다.

“얼굴은 보지도 못했군.”

그리고 짜증스런 눈빛을 내게로 돌려왔다. 그리고는 비릿하게 웃는 것이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나는 류이의 곁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이승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사실을 깨닫기가 무섭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단 하나뿐이었다.

"!"

아, 안 돼. 진짜 이건 아니야. 나 이제 고작 18살이라고? 몇 달 지나면 19살이 되는, 스무 살도 채 넘겨보지 못한 꽃다운 나이의 소녀라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다. 전생에서처럼 허무하고 아쉽게 내 인생을 끝마치게 둘 순 없어.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이, 내 목숨을 함부로 끝내버리게 둘 순 없다고 !

봇물처럼 쏟아지는 이러한 생각들에 의해, 나는 미친 듯이 흔들리는 동공을 가까스로 진정시켰다. 내 쫄보 심장이 두려움을 이겨내고서 이루어낸 가히 기적이라 칭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

뒷걸음질 치던 것을 멈춘 나를, 붉은 머리가 노려봐온다. 입가에는 여전히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저 미소를 지은 채 이대로 나를 푹찍! 하듯 죽여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 그건 진짜 안 돼! 무조건 안 돼!

“레플리카를 못 보셨다고요? 어디로 숨기라도 했나?”

주황색 머리카락을 바가지스타일로 자른 한 남자―야벨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귀엽게 생겼다―가 묻는 말에, 붉은 머리가 친절하게 답해준다. 표정은 좋지 않은데, 목소리만은 꽤 침착했다.

“글쎄. 잘난 레플리카 공작이 빼돌리기라도 했겠지.”

그,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레플리카 공작이 아니라 어떤 안경 낀 이상한 놈이 루이스를 빼돌린 것 같다 고 순순히 이들에게 까발려줄 이유는 없으니, 나는 일단 잠자코 이들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

“너, 이름이 뭐지?”

그랬는데, 이번에는 대뜸 내게 질문을 날려 오는 그. 여기서 ‘그’란 붉은 머리를 지칭하는 것이다.

“아, 아무개라고 불러주세 ”

“아샤 맞지? 사실 이미 알아.”

뭐야! 그럼 왜 물어본 건데!

저 뻔뻔하고 사람 놀리는 것 같은 말투,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하지만 어디서 들었는지를 생각할 틈은 없었다.

“아샤,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지?”

갑자기 붉은 머리가 내게 이런 질문을 던져왔다. 무슨 의도로 하는 질문일까? 잠시 머릿속으로 빠르게 선택지를 간추려보았다.

1번, ‘당신한테 붙잡혀왔을 때요’ 아, 이건 아니다. 이 말을 내뱉는 즉시 ‘잘 아는군!’이라며 공격해올 것 같으니까. 그럼 2번, ‘이 몸이 늙어 늙어 꼬부랑 할머니가 됐을 때요’ 아, 이 대답도 역시 ‘응, 넌 아니야(웃음)’하는 반응과 함께 나를 순삭해 버릴 것 같다. 절대로 안 돼.

그럼 무슨 대답을 하지? 오만가지 생각을 다 해보던 나는, 이내 대답을 종용하는 사방의 따가운 눈초리들을 견디지 못하고 당장 떠오른 아무 말을 툭하고 내뱉었다.

“시, 심장이 총알에 뚫렸을 때 ?”

“총알이 뭐야?”

“그러게.”

옆에서 듣고 있던 어느 야벨 두 명이 저런 대화를 나눈다. 그러고 보니 이 세계, 총이 없잖아!? 하긴, 마법사들이 미쳐 날뛰는 세계에서 총이 무슨 쓸모겠냐만은.

“아니.”

붉은 머리가 다른 답을 내놓으라는 듯 집요한 눈빛을 날려 오기에, 나는 허둥지둥 다음 답을 외쳤다. 정답!!

“불치병에 걸렸을 때?”

“아니.”

“맹독 버섯스프를 마셨을 때?”

“ 아니.”

그럼 역시 사람들에게서 잊혔을 때라는 건가? 아니, 눈앞의 이 남자는 말로만 들었던 야벨의 리더, 노아 이즈하인 것 같은데. 얼굴만 봐도 ‘내가 야벨의 짱이다!’하는 포스를 뿜뿜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잊히긴커녕 한 번 보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휘황찬란한 외모와 황족이라는 신분을 가진 인간이 그런 걸 대답이라고 할 리가 없지 않은가. 사람들에게서 잊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1도 없을 게 뻔한데.

그렇다면 ?

“스토커들에게 너무 과하게 스토킹당할 때 ?”

황족에다가 잘생긴 남자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인물, 류이. 그가 제일 짜증내고 불편해하던 것이 바로 자신에게 따라붙은 ‘스토커’들이었기에, 나는 혹시 그것에 관한 대답이 아닐까 싶어 답을 외쳐보았다. 하지만 땡, 틀렸습니다. 상대는 고개를 저었다.

내 대답이 장난처럼 느껴진 모양인지 붉은 머리의 이마 위에 빠직 마크가 생성된 것 같다. 표정이 그랬다. 인내심이 바닥이 난 모양인 그가 먼저 정답을 말해왔다.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야.”

음?

“그럼, 저는 죽을 이유가 없는 ”

“그래서 나는 16년 전에 죽었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이런 내 기분을, 네 전 주인은 과연 알까?”

"?"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살아있든 살아있는 게 아니든, 내 알 바야!?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람이 죽는다면, 나는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경험이 없으니 죽을 이유도 없는 것이지 않은가. 혹시 내 부모님을 말하는 거냐? 아니, 우리 부모님은 병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런 것까지 일일이 따지자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게? 신생아랑 어린이들 빼고는 다 죽어야 정상이지!

듣고 있는 얘기에 대한 불만스러움에 입이 삐쭉 튀어나오려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 듣고 있는 말투, 누군가와 굉장히 닮았다. 하다못해 억양까지도. 게다가 왼손으로 마법을 시전하는 노아 이즈하 라.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는가? 내가 기억하기론 왼손으로 소리를 내어 마법을 시전하던 사람은 딱 한 명뿐이다.

란!

“혹시 너, 란이야 !?”

만약 여기서 ‘아, 이제 눈치 챘어?’하는 대답이 튀어나온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실신해버릴 것 같다. 내 목숨이고 나발이고, 그딴 거 상관없이 그냥 정신 줄이 끊어져버려 이 세상 하직 테크를 타게 될 것 같다고.

속으로 제발 이 흑막스러운 인물이 란이 아니기를 간절히 빌고 비며 후덜덜 떨리기 시작한 다리에 간신히 힘을 주고 서있자니, 눈앞에 서있는 붉은 머리는 답해왔다.

“눈치가 빠르네.”

라고, 싱긋하며 미소 지으면서

그리고 나는 실신했다. 털썩. 디 엔드.

“는 농담이고, 란은 누구더라. 아, 그 안경잡이 녀석 이름이었지. 걔는 왜? 그 녀석과도 원수를 진 사이인가? 생각보다 적이 많나보지, 너?”

“아, 아니면 말고요 ”

“별로 안 좋은 사이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

자세한 건 당신이 알 바가 아니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나저나, 휴우. 진짜로 정신을 잃을 뻔했다. 저 쓰레기 같은 농담을 듣기가 무섭게 눈앞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는데, ‘농담이고’라는 뒷말을 빨리 해준 덕분에 다행히도 나는 내 몸을 지탱한 채 자리에 서있을 수 있었다.

후우, 하아. 일단 진정하자. 그래, 란이 노아 이즈하였다면 내게 그렇게까지 신경써줄 이유가 없지. 언제든지 가까이에서 죽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일단 가까운 이에 의한 통수극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나는 어찌해야 할까?

그래, 도망이 답이다!

“흐응, 이번 조수는 귀엽네.”

“저번 조수들도 귀엽다고 했었잖아, 사야.”

“맞습니다. 남자였는데도 말이에요.”

“어쩌겠어, 내 눈엔 다 귀여운 걸.”

“미친놈.”

“하지만 이번 조수는 확실히 예쁘네요.”

내 외모 품평하지 마, 이것들아!

그나저나 대체 어떻게 도망쳐야 하지? 이 능구렁이 같은 인간들이 득시글거리는 야벨의 본거지에서, 마법사도 아닌 내가 대체 무슨 수로!?!?

"!"

흠칫.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기다란 로브를 잠그지도 않고 겉옷처럼 걸치고 다니는 어느 남자가 내게로 다가와 귀엽네 뭐네 하는 개소리를 내뱉으며 내 어깨를 감싸 안아왔다. 거기다 슬그머니 자신의 기다란 손가락으로 내 볼을 어루만지는데

당혹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옆으로 돌렸더니 이 남자, 상의를 입지 않았다. 완벽하게 풀어헤쳐진 그의 매끈한 복근을 넋을 잃은 얼굴로 쳐다보다가, 이내 나는 얼굴이 달아오름을 느끼고 서둘러 고개를 정면으로 돌렸다.

오, 오 마이 갓.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난 남자친구 한 번 사귀어보지 못했는데, 세상에. 다 큰 남자의 복근을 봐버렸잖아!? 그것도 생판 남인 사람 걸 말이야! 그런데 몸매 은근히 좋다, 얘.

피에르의 복근을 더듬어보았을 때와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이 복근은 ‘진짜’다!

다시금 내 옆에 선 남자의 복근을 슬그머니 쳐다보자, 남자가 그런 내 반응이 웃긴다는 듯 웃음을 터드린다. 군청색 머리카락을 어깨 정도까지 기른 것이, 생긴 것마저도 색기를 대방출하는 굉장히 야하게 생긴 남자였다.

이런 사람도 야벨이라고? 그 희귀하다는 아디티의 마법사? 와, 세상 완전 말세인가 본데. 알고 보니 이 세계, 마나를 타고나는 조건이 외모인 건 아닌지 진지하게 의심해봐야 할 것 같다. 가만 보니 여기 모인 애들 중, 잘생기고 예쁘지 않은 인물이 없잖아 ? 저기요, 신님? 마나도 주고 외모까지 주면, 둘 다 없는 사람은 대체 뭘 가지라는 겁니까, 예!?

“죽이기엔 너무 아까워.”

군청색 머리의 남자가 내 볼을 쓰다듬으며 은밀하고 농밀한 목소리로 내 귓가에 속삭여오는데,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나는 경직되어버린다.

역시 나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었구나! 그래, 아닐 리가 없지. 생각보다 너무 덜 위험하게 생긴 사람들처럼 생겨서 정말 이 인간들이 살인마일 거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나는 방금 나온 그 한마디로 인해 돌변한 실내의 분위기를 알아차렸다. 온몸으로 말이다.

“말 같잖은 소릴. 대의를 위해서라면 처리해야 해.”

“하지만, 전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은 싫은 걸요.”

“그렇게 말하면서 임무 뛸 땐 잘만 학살하더라, 너.”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

귀엽게 생긴 주황 바가지머리조차 저런 말을 듣는 걸 보아하니, 역시 이 인간들은 살인마법사들이야.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 있는, 내 상상 속의 그 살인마법사들과 100% 일치한다고!

아무리 잘생겨도 살인범은 살인범이다. 게다가 나는 그 살인범들에게 붙잡혀온 한 마리 가련한 꽃사슴―어디까지나 표현일 뿐이다―과도 같은 입장. 살아남으려면 이곳에서 도망쳐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호랑이 굴에 붙잡혀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은 모두 개소리다. 지금의 나는 굉장히 제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

이제야 정답을 알았다. 사람이 죽을 때는 총알에 심장이 뚫렸을 때도, 맹독 버섯스프를 먹었을 때도, 하다못해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도 아닌

바로 란이 준 물건들을 잃어버렸을 때이다.

이런 빌어먹을! 하다못해 곰 인형이라도 안 잃어버렸으면 모르겠는데, 란이 준 물건은 조끼 말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대체 나란 인간은 얼마나 멍청한 존재인 거지? 인형을 도둑맞은 걸로도 모자라, 팔찌와 장갑을 빼달라고 냉큼 빼준 나란 존재는 대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냔 말이다!

“ 저기요.”

슬그머니 붉은 머리에게 말을 붙여본다. 그래, 지푸라기라도 한 번 잡아보자. 혹시 모를 일 아니야? 지푸라기가 의외로 튼튼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라도 되어줄지.

“왜?”

붉은 머리가 미묘한 웃음을 흘리며 나를 향해 대답해온다. 결코 내가 좋아서 웃는 미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과 동시에 식은땀이 삐질삐질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그에게 부탁해보았다.

“팔찌랑 장갑,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

“싫어.”

아아, 슬퍼라. 역시 동아줄 같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지푸라기만도 못한 실오라기였다. 또르륵.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에 나는 좌절감에 휩싸였다. 하긴, 나 같아도 안 주겠다. 진으로 변신해있었던 거라면 이 남자는 란이 내게 장갑과 조끼, 팔찌들을 건네줄 때 옆에서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인데, 그 쓰임새를 뻔히 아는 인물이 마법 아이템들을 먹잇감에게 순순히 돌려줄 리가 없지.

그렇다면 다른 수는 없을까? 내가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18살이라는 나이에 단명하지 않기 위해 쓸 수 있는 방법

“잘생긴 오라버니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씨알도 안 먹힐 것 같다만, 혹시 모를 일이니 시도해보자. 슬그머니 붉은 머리의 곁에 다가간 나는 그의 팔을 붙잡으며 콧소리 섞인 애교스런 목소리로 부탁해보았다. 하지만,

“내가 왜 네 오라버니야? 싫어.”

아니나 다를까, 붉은 머리는 정색하며 저렇게 대답해왔다. 너무 정색 중의 정색이었기에, 내 뇌에는 ‘와, 진짜로 가망이 없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버렸다. 진짜 없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살려줄 생각 같은 건 이 남자의 얼굴에서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 모래 한 알만큼도, 전혀.

붉은 머리는 갑자기 나의 양 어깨를 붙잡아왔다. 나를 정면에서 마주한 채로 붙잡는 지금의 이 포즈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는데, 그 또한 란이었다. 왜 이렇게 느낌이 비슷하지? 생긴 건 전혀 다른데, 란이 압도적으로 못생긴데다가 안경까지 끼고 있는데 어째서? 그냥 분위기가 닮은 건가?

아, 그래. 그런 걸지도. 얼굴이 전혀 안 닮았는데 어떻게 분위기가 닮을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번엔 남자가 내 몸에 무슨 마법을 거는 듯 정신을 집중한다. 무슨 마법을 걸려는 건지는 예상조차 가지 않는다. 이대로 손을 뿌리치고 튀어야 하나 !?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자니, 손가락으로 소리조차 내지 않았는데 마법 시전을 끝낸 듯, 붉은 머리는 내 어깨를 잡았던 손을 놓는다. 뭐지? 뭘 한 거지, 방금?

“좌표마법이 걸려있군. 루이스, 그놈 마나 같은데.”

"!"

“뭐, 안심해. 네 몸에 걸린 좌표마법은 내가 무사히 지워줬으니까.”

이, 이 또라이가!? 안심하긴 뭘 안심해! 어느 틈에 걸어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 몸에 걸려 있던 루이스의 좌표마법을 놈이 해제한 모양이다. 와, 방금 한 행동이 그런 짓인 줄 알았다면 그냥 뿌리치고 도망이나 갈 걸! 아, 도망쳐봤자 이 녀석의 손바닥 안이겠지만 그래도 기분 하나는 끝내주게 더럽다. 루이스가 나를 생각해서 걸어둔 마법을, 네가 뭐라고!

“달랑 좌표마법 하나라 생각보다 놈에겐 네가 소중하지 않은 건가? 음, 그럼 곤란한데. 어차피 이 탑에는 좌표마법 방어진이 깔려 있어서 녀석이 네게 건 좌표를 타고 순간이동해올 일은 없겠지만, 이건 너무 시시하잖아. 안 그래?”

시시하긴 개뿔이

잠깐만. 그런데, 몸에 걸려있는 마법이 달랑 하나뿐이라고? 저 말을 들었을 때, 내 뇌를 번개같이 스치는 기억 하나가 있었다. 바로 란이 내게 입술박치기―으악!―를 선사함과 동시에 삼키게 했던 그 마법 구슬 말이다. 먹은 지 6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으니 아직 내 뱃속에 멀쩡하게 굴러다니고 있을 텐데, 그게 감지되지 않았다고? 뱃속에 숨겨놔서 그런 건가?

아, 그러고 보니 사람의 몸 속에 마법을 숨기면 몸에 마법을 걸었을 때보다 더 찾아내기 힘들다는 설명을 어느 책에서인가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란 이 자식 똑똑한 걸?

그나저나 이 마법 구슬은 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한단 말인가. 마나가 없는 사람이 소환 마법을 시전하려면 간절하게 부르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말했던 란의 얼굴이 머릿속에 뭉게뭉게 떠오른다.

이봐, 란. 지금의 나는 누구보다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이곳에서 탈출하고픈 마음에 애간장이 녹을 것 같은데,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은 이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마법이 써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란은 커녕 계란조차도 소환되지 않는다고. 어째서지?

란! 듣고 있냐!? 지금 나,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도와줘, 타스케테!

그러나 소환될 리가 없다. 나는 마법을 써본 적은커녕 마나조차도 없는 평범한 닝겐중의 닝겐인지라, 소환 마법을 시전하는 것에 대한 그 느낌조차도 모르겠다. 간절하게 부르라는 게 어떤 건지도 사실 모르겠고 말이다. 이건 마치 기어 다니는 법도 모르는 아기에게 뛰어보라는 말을 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겠는가. 으아아 !

“루이스 님을 욕하지 마요!”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이다! 미칠 듯이 간절해지면 무언가 수가 생기겠지. 나는 내게 이런 상황이 닥치면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굳세고 의지 있는 목소리가 나의 입술 새로 튀어나간다. 나조차도 놀라운 또박또박한 음성이었다.

“그것도 싫어. 내 마음이야.”

이런 망할 X끼!

“당돌한 여자애네.”

옆에서 사야라는 야한 남자가 중얼거리듯 말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나는 옆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앞만 보았다. 란과 닮은 분위기를 지닌 붉은 머리를 말이다.

좋아, 그렇게 나오신다면!

“당신이 노아 이즈하, 맞죠?”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 이대로 이놈이 내 목숨을 앗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플랑크톤만큼 아주 작은 발버둥이라도 쳐봐야겠다는 뜻이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은가? 알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알고 죽은 귀신이 아니라 먹고 죽은 귀신이라고? 쉿, 말하지 마. 사실 나도 알아.

“응, 맞아. 야벨의 리더지.”

“그럼, 저를 진짜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온 건가요?”

“그 또한.”

내 물음에 그가 순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여기까진 란의 말이 다 맞구나.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래서 네 바람대로 나를 죽인다면?

“저를 죽인 후에는 어쩌시려고 그러는 거죠? 프란치아와 전쟁이라도 하시려는 거예요?”

비록 노예 하나만 죽는 결과라 해도, 그 유명하고 명성 높은 프란치아 황립 마법 대학을 건드렸다. 게다가 프란치아의 귀족 영랑, 영애들을 공격해 상처 입히기까지 했으니, 프란치아 측에서도 결코 좋게 넘어가려 들지는 않을 텐데.

지금까지처럼 조용히 루이스의 조수를 암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놓고 대학을 공격한 걸 보면 무언가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계획이란 게 무엇일지는 감조차 잡히지 않으니, 나로서는 붉은 머리에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그리 판단해 건넨 나의 질문에, 그는.

“그런 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바야. 프란치아와의 전쟁이라니 정당한 명분으로 그 더러운 녀석들을 모두 쓸어 담아 버릴 수 있겠군.”

썩 마음에 드는 질문이라는 듯 자신의 매끈한 턱을 쓰다듬으며 저리 답해오는 것이다.

와, 진짜 이거 미친놈 아니야? 저 사야라는 남자보다 이 붉은 머리가 더 미쳤다. 노아 이즈하의 머리가 더 정상이 아니라고! 이쯤 되면 살인을 즐기는 살인귀라서 이딴 짓을 벌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 표정을 읽은 모양인지 노아 이즈하는,

“ !?”

갑자기 마법으로 나를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이동시키는 것이다. 허공에 둥둥 떠버린 나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마냥 마구 허우적거렸다. 내 치마가 뒤집히든 말든, 그래서 속치마가 드러나든 말든, 그런 건 신경 쓸 틈이 없었다.

“내, 내려주세요!”

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나. 마법도 쓸 줄 모르고, 마나조차 티끌만큼도 없는 평범한 인간 중의 인간. 마법을 무효화시키는 방법 따위는 모르기에, 그런 내가 붉은 머리의 마법에 의해 옮기게 된 자리는 바로

차, 창가였다. 그것도 창틀 위. 염동력으로 나를 창틀에 살포시 앉힌 붉은 머리가, 얼빠진 표정으로 얌전히 앉아있는 내게 느긋이 다가온다. 그 틈에 뒤를 흘끔 보았는데, 이 건물 무슨 탑인 것 같다. 높이가 까마득하게 높아. 설마 여기서 나를 밀어버리려는 걸까? 그런 의미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행동인데, 이거

“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다시금 떨리기 시작한 목소리를 간신히 추스르며 붉은 머리에게 따져 묻자, 그는 얄미운 미소를 흘리며 나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가 앉은 창틀의 양옆으로 손을 얹으며, 코앞에서 마치 나를 유혹하듯 올려다봐오는 것이다.

“내가 왜 이러는지 궁금해?”

“그거야 당연히 !”

“그럼, 너에게만 말해주지. 지금까지의 조수들은 모두 영문도 모르고 죽었지만 말이야.”

“?”

응? 이건 또 뭐하자는 것? 당황감에 찌든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자, 갑자기 그는 나의 너머에 존재하는 밤하늘의 무언가를 응시하는 채로 말을 시작했다. 꽤 긴 얘기를 말이다.

“16년 전의 일이니까, 그 때의 너는 아마 두 살이었을 거야. 전쟁이 났었다는 기억조차 희미할 테지.”

내 나이가 18살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구나. 나에 대한 뒷조사를 꽤 꼼꼼하게 한 모양이다. 대체 어느 틈에

오싹한 느낌이 들어오는 것을 감지한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 내 반응은 개의치 않고,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 당시 아디티 황가에는 네 명의 자식이 있었어. 13살이자 1황자였던 마츠 형, 두 번째는 여덟 살의 이나하, 세 번째는 노아였지.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게? 음, 너보다 한 살 많은 세 살이었어.”

왜 자기 이름을 3인칭으로 부르는 걸까? 이것도 컨셉의 일종인 거 ?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말투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슬그머니 실눈을 떴다. 코앞에는 나를 재미있다는 듯 올려다보고 있는 붉은 머리의 얼굴이 존재했다. 몹시 부담스러워 고개를 옆으로 돌려버렸다. 차라리 창틀이나 쳐다보자. 그게 낫겠어.

“아래로는 한 살도 되지 않은 여동생도 있었어. 아디티 황가는 참 평화로웠지. 다정하신 모후, 존경스러운 아버지인 황제폐하. 우리 형제들의 우애도 정말 돈독했을 때라, 그 때의 나는 말이야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행복했었다.”

붉은 머리는 손을 뻗어 내 뒷머리를 풀어버린다. 대체 이건 다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이대로 뒤로 떨어져버리는 게 훨씬 속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풀어헤쳐진 머리를 손질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다. 마치 인형처럼 말이다. 아무런 수가 떠오르지 않으니 지금으로서는 얌전히 있어주는 일 말고는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나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지만, 문제는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

붉은 머리가 하던 얘기는 마저 하지 않고, 내 뒷머리를 자신의 손가락으로 빗마냥 쓸어내리기만 반복하기에 답답해진 내가 다음 말을 재촉했다.

“ 그래서요?”

내면의 분노가 눈빛에 담겼는지, 꽤나 표독스러운 눈동자가 되어버린 나. 그런 눈을 하고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내가 퍽 마음에 든다는 듯, 그의 입매는 위로 끌어올려진다. 뭐가 웃긴 건지 나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디티의 성소’라고, 알아?”

“몰라요.”

책으로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의 등장에 대답하며 고개를 저었다. 붉은 머리는 그것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딱히 궁금해 하지도 않았다지만, 내가 궁금해 하든 아니든 이 남자는 자기 좋을 대로 설명을 해나갈 것이다. 아처보다 더한 천상천하 유아독존 파가 아닐까, 얘.

“아디티에 존재하는 샘이야. 말이 샘이지, 그곳에 가면 아름다운 절벽과 대자연의 분수를 볼 수 있어. 그 샘은 먼 옛날 어느 태초의 마법사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몰라.”

그래서?

“그런데 그 태초의 마법사가 이즈하 황가의 핏줄인 모양이야. 아디티를 세운 인물도 그의 핏줄이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즈하 일족은 그 샘의 물을 마시면 마법력이 증폭돼. 그 효과가 무한한 건 아니지만, 다른 마법사들보다 압도적인 마법을 쓸 정도의 능력은 선사해주는 성소라는 거지.”

“이 세계에 그런 곳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는 ”

진짜로 처음 들었다. 책에서도 단 한 번조차 읽어본 적 없는 내용이라, 놀랍다는 표정을 하고서 되물은 내 말에 붉은 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해왔다.

“아디티에서도 쉬쉬하는 극비 정보니, 당연한 거 아닐까? 개나 소나 알아봤자 똥파리만 꼬여들 뿐이니까.”

네 입장에서는 나도 충분히 똥파리인 입장일 것 같은데, 이런 극비를 함부로 막 말해도 되는 거야? 라고 되물으려다가, 이내 나는 이 인간이 내게 이런 비밀을 말해주는 것에 대한 이유를 깨달았다.

나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이들이니까, 타겟에게 본인의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있다는 초극비조차 누설한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죽여서 입을 다물게 하면 그만이므로.

“그런데, 딱히 누설하지도 않았는데 똥파리는 꼬여들더라고.”

“무슨 똥파리요?”

내 죽음과 이 얘기가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는 아직 감도 안 잡히지만, 일단은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순순히 되물어주었다. 붉은 머리는 그런 내 반응이 마음에 든다는 듯 살며시 웃는다. 저런 예쁜 얼굴로 살인범이라니 새삼 신기하군.

“프란치아 말이야. 16년 전의 그 전쟁의 발발 원인을, 프란치아 애새끼들은 아디티의 마법사들이 무단으로 프란치아 국경을 넘어와 깽판을 쳤다고 알고 있더라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뭐, 당연히 너도 그렇게 알고 있었겠지?”

“ 네? 아뇨, 저는 그냥 발발 원인을 모르는데요?”

“풋.”

“아, 그래? 천민이라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가.”

저 옆에서 사야라는 남자가 웃음을 터뜨림과 동시에, 붉은 머리에게서는 나를 무시하는 저런 대답이 튀어나왔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관심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한 거거든! 나한테는 이 세계가 마냥 판타지처럼 느껴져서 역사 공부에 집중이 안 된 걸, 어쩌란 말이야!

물론 내가 공부를 싫어하는 것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다. 그래, 쿨하게 인정하지.

그나저나 똥파리가 꼬여들었는데, 그 똥파리가 프란치아였다고? 그 말인즉슨

“그 샘에 프란치아가 쳐들어왔나요?”

“음, 머리는 좋네. 맞아. 프란치아의 선황제가 아디티에 존재하는 성소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파견 보낸 병사들이었지. 아디티 황가의 허락은 구하지도 않고 말이야.”

헐. 지금 들은 이 말이 사실이라면, 프란치아가 먼저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지금까지 이 세계에서 살아오면서 내가 보고 들어온 얘기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는 아디티에 대한 욕이 참으로 많았다. 마치 한국과 일본 같은 사이라고나 할까.

쉽게 말해 프란치아 제국민들은 이 나라가 한국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다. 아디티는 일본이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전쟁의 원인이 프란치아였다면 와,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보통 반전이 아닌데.

별로 듣고 싶어 하지는 않았으나, 막상 듣고 보니 꽤 흥미로운 얘기다. 나의 표독스럽던 눈빛이 조금 누그러지며 흥미라는 빛을 띠기 시작한 것을 스스로도 느끼며, 일단은 붉은 머리의 계속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아디티에서도 꽁꽁 숨겨둔 샘을 몰래 뒷조사해서 쳐들어왔다는 것도 열이 받는데, 프란치아 녀석들은 그 당시에 성소를 지키던 수호자들을 다섯이나 죽였어. 그것도 시체까지 소멸시켜버리는 극악무도한 짓으로 말이야. 추적 마법으로 그 사실을 알아낸 아디티는 프란치아에게 전쟁을 선포했지. 그건 우리에게는 결코 눈감아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응 ?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호자들은 마법사가 아닌가요? 프란치아 마법사들보다 아디티의 마법사들이 강한 걸로 아는데, 왜 다섯이나 당한 거죠?”

“수호자들은 마법사라기 보단 요정 같은 존재야. 다섯 모두 여자였지. 게다가 공격 마법은 다룰 줄도 모르는 이들이었으니, 그들이 당한 건 아주 당연해. 그리고 수호자들이나 황가 식구들이나, 그 은밀한 곳에 위치한 성소가 프란치아 녀석들에게 발각될 줄은 꿈에도 예상치 못했었어. 진즉에 보초 병력을 세워뒀어야 하는 건데, 우리도 좀 부주의했지.”

아, 그런 거라면

“저 같아도 눈 못 감아주겠는데요, 그거. 보초 병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쳐들어온 사람이 나쁜 거지. 저는 강도가 나쁜 놈이지 집주인이 멍청한 놈인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조수네. 마음에 들어, 아샤.”

저런 칭찬을 받아내려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진짜로 공감이 되기는 한다. 내가 아디티의 입장이었어도 야마가 제대로 돌았을 것 같아.

나를 마주보던 자세에서 이번에는 내 옆의 창가 벽에 기대어 선 붉은 머리. 이전보다 비교적 덜 부담스러운 포즈가 되었기에, 나는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휴우.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자, 이기는 건 우리 쪽이었어. 너도 알고는 있겠지? 아디티의 마법사들 수준이 어떤지를.”

“아, 네.”

“아디티 마법사 한 명이 프란치아 마법사 백 명을 무찌르는데, 감당되는 전쟁일 리가 없지. 반년쯤 지속되는 전쟁에 프란치아가 퍽 힘들었던 모양이야. 그런 수까지 쓴 걸 보면.”

“그런 수 ?”

아, 혹시 란이 말했던 레플리카 공작의 잠입에 대해 말하려는 건가? 아디티의 황가에 잠입해 황제의 목을 가져왔다던.

설마 했는데, 그 얘기가 진짜로 맞았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전쟁에 대한 얘기를 장남인 마츠 형 외의 자식들에겐 별로 해주지 않았어. 그런 얘기를 듣기엔 많이 어렸으니까. 우리들은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황궁을 뛰어다니며 놀던 게 전부였던 시간이었지.”

“그러던 때, 레플리카 공작이 아디티 황궁에 잠입했어. 우리는 몰랐지. 프란치아 마법사들 중에 아디티의 감시망을 뚫을 정도의 실력자가 있는 줄은 말이야.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흥미진진하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붉은 머리, 아니. 노아 이즈하가 잠시 뜸을 들이기에 나는 다음 말을 재촉했다. 뒷내용이 궁금한 것도 이유라면 이유겠지만, 더 큰 이유는 그가 뜸을 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불안감도 조금씩 커져가는 느낌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 그 때문에 도저히 가만있을 수가 없었다.

말똥말똥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경청하는 내게 눈웃음을 지어온 그가 다음 말을 꺼냈다.

“놈은 시종장을 죽이고 대신 그 모습으로 변신했지. 그리고 황제폐하 곁에 붙은 거야. 사건은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난 이른 밤, 황제의 서재에서 일어났어. 나는 모후를 뵌 후 아버지인 황제폐하께 향하고 있었지. 그리고 서재의 문을 열었어. 그런데 그 안에서 나를 반기는 풍경은, 평소처럼 노아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

붉은 머리가 침을 삼킨다. 갑자기 그의 눈동자가 너무나도 공허해져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벌어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내 얼굴을 향해오는 붉은 머리의 눈빛마저도 회피해버렸다. 이어질 말이 무엇인지는 미처 예상이 가지 않지만, 왠지 알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래서 눈을 마주할 수가 없었다.

마음이 약해질 것만 같아서.

“노아를 인질로 잡은 시종장, 아니, 레플리카 공작과, 그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채로 쩔쩔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

“ 아?”

아직 아버지가 숨을 거둔 게 아니구나. 그럼 이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건가?

숨죽여 붉은 머리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내 이어진 그의 말은, 내 머릿속을 곤란하고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레플리카 공작은 황제의 목을 요구했어. 바로 내 아버지의 목을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감히 일국의 황제의 목을 달라니. 하지만 인질로 잡힌 노아 때문에 선택지가 없었어. 마법을 써서 강제로 제압하려 들었다간 순식간에 아끼는 막내아들을 잃게 될 테니, 아버지는 기꺼이 자신의 목을 내놓겠다고 했지. 그 상황에 끼어든 나는 레플리카 공작에게 뛰어들어 노아를 풀어주려 했지만, 그 당시의 내 마법 실력으로 그를 제압하는 건 불가능했어.”

?

이쯤에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꾸 자신을 노아, 노아 하며 3인칭으로 칭하기에 왜 이러는 건가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이 남자가 말하는 ‘나’는 노아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다. 지금까지 들은 말의 맥락대로라면, 눈앞의 남자는 아디티의 3황자가 아니라 2황자라는 말이 되는 건 데?

에이, 설마

“노아를 한 팔에 껴안은 채, 그는 내게 이렇게 요구했지. ‘네 아버지의 목을 쳐라’고. 왜 그랬는지 알아?”

“왜, 왜요?”

마음은 부정하려 들고 있지만, 이미 내 머릿속은 눈앞의 남자가 노아 이즈하가 아닌 이나하 이즈하일 거라고 확신내린 후였다. 사실 이 남자, 잘생기긴 했지만 열아홉 살이라고 보기엔 보다 성숙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으므로.

그나저나 고작 여덟 살짜리 황자한테, 다 큰 어른인 레플리카 공작이 왜 그런 짓을?

“아디티의 황제로 즉위하는 이즈하의 후손들은 성소에서 축복을 받거든. 그 축복을 쉽게 설명하자면, 직계 혈손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황제의 몸을 해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레플리카 공작도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의 숨을 거두지 못한 거지.”

붉은 머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 속 한편이 저릿저릿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나라고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내게 이리 말했어. ‘네 동생의 목숨이라도 지키고 싶거든, 네 아버지의 목을 베어라’고. 아버지의 목만 베어준다면 순순히 프란치아로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노아와 나의 목숨을 끊어버릴 거라고 협박했어. 황제폐하인 아버지도 강한 마법사이긴 했지만, 노아가 그에게 붙들린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눈을 질끈 감으며, 내게 이리 말씀하셨지. ‘이나하, 내 목을 베어주렴.’이라고.”

아 잠, 잠깐. 여기서 잠깐만 멈춰봐. 나, 아직 이 뒤로는 들을 준비가

“아버지도 참 어리석으시지. 그 인간이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어찌 알고, 내게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 레플리카 공작에게 노아와 같은 나이의 아들이 있기 때문이었을까? 난 지금도 모르겠어. 뒷일은 모르는 거잖아. 황제의 목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아디티의 두 어린 황자들을 죽여 버릴 수도 있는 건데.”

어, 아직인가?

“그, 그러게 요?”

“하지만 그 때의 난 그 정도로 깊이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나이가 아니었어. 게다가 착한 아들이었지. 태어날 때부터 그 날까지, 아버지의 말을 거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날도 그랬어.”

붉은 머리는 슬프게 웃었다. 나는 이 뒤에 이어질 말이 처음으로 예상이 가버렸다.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는데, 그런 내 머릿속은 차마 모를 그는 뒷말을 이었다.

“나는 내 손으로 마법을 시전해, 아버지의 목을 벴어. 떨어진 아버지의 목이 서재 바닥을 굴렀지.”

나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들어버리고야 말았다. ‘내가 죽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다.

그래서 아디티 황제의 목을 프란치아가 가져갔고, 레플리카 공작을 향한 증오심으로 인해 노아 이즈하, 아니지. 이나하 이즈하는 루이스를 괴롭히는 일을 시작했다는 건가. 사건의 전말은 그런 거였어?

“눈 떠, 아샤.”

이나하가 내 이름을 부르며 눈을 뜨라한다. 나보다 한 살 많은 3황자의 나이가 16년 전에 세 살이랬으니, 이 남자는 나보다 여섯 살이 많겠구나. 25살이라 어린 나이는 아닌데, 그런 것치고는 생각하는 게 너무 유치하다. 아무리 아버지를 그렇게 잃었다지만, 택한 복수의 방식이 내가 보기엔 글러먹었어.

이런 것밖에는 없었을까? 꼭 그대로 누군가를 죽여야만 했을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자. 만약 내가 이나하의 상황이었다면? 내가 동생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목을 베어야만 했었다면? 그랬다면

아, 당연히 죽이고 싶겠구나. 유치하니, 글러먹었니 했던 거 모두 취소.

나도 마찬가지로 그 원인제공자를 씹어 먹어도 모자랐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증오스럽겠지. 그것은 사람이라면, 또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누군가라면 당연하게 들 감정일 것 같다. 내가 이나하의 입장이었어도 똑같았을 거야. 레플리카 공작을 죽이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행하고 있는 이들의 복수는 무언가 잘못되어있지 않은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 물어봐.”

“복수를 하려는 취지는 잘 알겠어요. 당신들이 프란치아를 싫어하는 이유도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요 ”

“혹시 ‘그런 짓은 나빠요! 그래도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고요!’라는 교과서적인 말을 하려는 거라면, 일찌감치 집어치우는 게 좋아.”

이나하의 대사가 아니라 옆에서 듣고 있던 주황색 바가지머리의 조언이었다.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런 진부한 대사를 치려는 생각은 없었거든?

“왜 레플리카 공작이 아니라, 그 아들인 루이스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복수의 대상이 잘못됐잖아요.”

“ 아.”

내 물음을 들은 이나하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벙찐 표정을 짓는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라서 반박할 거릴 찾지 못한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를 내려다보자니, 정답은 다른 이유에서였다. 이나하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진심으로 웃긴다는 듯 하하거리며 한동안 웃던 그는, 이내 웃음을 뚝 멈추고 내게 대답을 건네 왔다.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기가 남은 채였다.

“오해가 있구나.”

“오해요?”

“우린 처음부터 레플리카 공작만을 노렸어.”

그의 대답은 가히 충격스러웠다. 레플리카 공작만을 노렸다고? 그 말 안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일까? 나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일 것 같다고 본능적으로 느끼며, 이어지는 그의 말을 들어보았다.

“이쯤 되면 너도 내가 노아 이즈하가 아닌 이나하 이즈하라는 걸 알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건 물어보지 않는 건가?”

응? 이번 말은 질문이었다. 어 뭐라고 물어봐야 하는 거지?

“어 왜 동생의 이름을 사칭한 거죠?”

“사칭이라니, 그런 불순한 의도는 아니라고. 사실 말야, 내가 잃은 소중한 사람은 아버지뿐만이 아니야. 내 귀엽고 소중한 남동생 하나도 잃었지.”

“주, 죽었나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그 일’이 있은 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거든. 나는 아버지의 목을 벤 후 그대로 실신했는데, 노아만큼은 세 살이었을지언정 모든 상황을 두 눈으로 보고 있었어. 그 이후까지도. 그 때 정신적인 충격이 컸던 모양인지, 그 날 이후로는 말을 하지 않더라. 실어증에 걸린 거야.”

“실어증에 걸렸는데, 왜 동생을 잃었다는 표현을 ?”

“그게 끝이 아니니까. 나만 보면 피하는 거야, 내 동생이. 내가 이 손으로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내가 싫고 무서웠겠지.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조금씩 더듬으면서라도 말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나에게 대화를 걸어오는 일은 없었어. 나도 노아를 피했고.”

아, 하긴. 정신적인 충격이 보통이 아닐 텐데, 실어증에 걸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겠구나. 게다가 자신의 형이 아버지의 목을 베었으니, 싫어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한다.

내가 3황자의 입장이었더라면 레플리카 공작은 미워해도, 형인 이나하는 미워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나는 그 16년 전 당시의 상황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까, 말을 아끼도록 하자. 닥쳐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 아니겠는가, 이런 건.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내가 레플리카를 향한 첫 복수를 행하게 된 건 21살이 되었을 무렵이었어. 발단은 노아가 몰래 아디티를 빠져나가, 레플리카 공작저를 습격한 일 때문이었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레플리카 공작이 묻어준 덕분에 소문은 나지 않았지만, 그도 아직 기억하고 있을 거야. 16살의 노아가 홀로 공작저에 쳐들어가 루이스 레플리카에게 접근했던 그 때의 일을 말이야.”

“ 엥? 노아 이즈하는 왜 공작이 아닌 루이스에게 접근했는데요?”

“그건 나도 잘 몰라. 나한테는 도무지 말을 하질 않으니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여하튼 노아는 루이스를 죽이지 않았어. 그 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도 몰라.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공작저에 숨어들어가 레플리카 공작을 죽였어. 노아 덕분에 경비가 철통같긴 했지만, 뭐, 내 실력에 그 정도 마법을 뚫는 것쯤이야.”

“주, 죽였다고요? 레플리카 공작을? 왜요!?”

“왜냐니? 아버지의 원수니까. 원래는 나도 복수에 대한 큰 갈망은 없었지만, 그 때 알아차렸지. 노아가 레플리카 공작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걸 말이야.”

응? 그럼, 동생이 복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자신도 그 일에 가담했다는 건가? 무, 무슨 그런 동생 바보 같은 이유가 !

그나저나 내가 알기론, 레플리카 공작은 버젓이 살아 있는데? 게다가 저번에 연무장에서 루이스의 경합을 구경하러 온 걸 두 눈으로 보기까지 했었고 말이다.

방금 들은 스토리가 영 의뭉스럽다는 표정으로 이나하를 빤히 쳐다보자, 그는 얼굴에 웃음기를 지우고서 말을 잇는다.

“처음엔 그렇게 가볍게 시작한 복수였어. 그런데 반전이 좀 있었지. 공작을 죽이던 그 때, 처음에 분명 완벽하게 공격을 찔러 넣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끊어진 줄 알았던 공작의 숨이 끊어지지 않은 거야, 이상하게도.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사살까지 했었어. 그런 이후에 공작저에서 빠져나왔었지.”

“그런데요?”

“며칠 뒤에, 프란치아에는 이런 소문이 났어.”

이나하는 ‘쉿’하는 포즈를 취하듯 검지를 자신의 입가에 갖다 댄다. 그리고 속삭이듯 나긋한 목소리로 뒷말을 꺼냈다.

“레플리카 공작저의 병사 두 명이 갑작스레 돌연사 했다 라고.”

“공작저의 병사 두 명이라고요?”

왜지? 나는 아직 모르겠다. 짐작 가는 바도 전혀 없다.

어리둥절해하는 내 표정을 마주 올려다보던 그는, 천천히 자신의 입가에서 검지를 뗐다.

“응. 나는 그제야 알아차렸지. 레플리카 공작이 아디티 황제의 서재에 꽂힌 마법서들 중 하나를 들고 갔다는 걸. 아디티 황가에는 고위 마법을 훨씬 뛰어넘는 고대 마법들까지도 마법서로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는 그 책들 중 하나를 들고 간 거야. 그 책에는 기사의 맹세를 다중으로 거는 마법이 기록되어 있었지.”

“아, 그럼 여러 병사들의 목숨으로 기사의 맹세를 맺어 자기 대신 희생시켰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야. 게다가 어디 그뿐일까? 그 마법서에는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걸 수 있는 기사의 맹세에 대해서도 수록되어 있어. 한마디로, 레플리카 공작은 그 책에 기록된 마법들을 이용해 자신의 목숨을 지킨 거야. 공작저의 병사들을 자신의 스페어 목숨으로 이용한 거지.”

“ 그, 그런 ”

당황스럽다. 그 때 보았던 레플리카 공작이, 다른 누구도 아닌 ‘루이스의 아버지’가 그런 인물이라고?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

너무 안 어울리잖아. 아버지와 아들 성격이 전혀 딴판인 걸! 루이스는 분명 다정하고 착한, 인간성조차 마냥 따스한 그런 인물인데. 이나하의 말만 들어보자면 루이스의 아버지인 레플리카 공작은 쓰레기 중의 쓰레기다. 둘이 진짜 친 부자관계 맞아? 성격이 왜 이렇게까지 다른 거야?

“정말 더럽다, 나는 그렇게 느꼈어.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야벨을 결성했지. 레플리카 공작에게 빼앗긴 황가의 마법서를 되찾고, 그에게 정당한 응징을 내리기 위해서 말야. 야벨의 멤버들은 모두 아디티 황실 기사 출신이야. 레플리카를 처단하기 위해 모여든 내 아버지의 충성스런 신하, 혹은 그 자식들이지.”

“‘정당한’ 응징이요?”

정당하다는 건 어디까지나 본인 기준인 것 같은데. 사람을 죽이는 데에 정당하고 자시고가 어디 있단 말인가.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이나하는 자신이 하고픈 말을 계속해서 해나갔다.

“그래. 우리는 가장 먼저 루이스 레플리카를 죽이려고 했어. 기사의 맹세로 인해 레플리카 공작을 죽일 수 없다면, 그의 아들이라도 죽여야 진정한 복수의 서막이 내려질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

“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한 게, 고작 루이스의 조수를 죽이는 일이었나요?”

레플리카 공작이 아닌 루이스에게 왜 불똥이 튀냐! 라고 따질 의욕은 더 이상 없다. 사실 그렇게 따지기에는, 내 뇌 녀석이 ‘네가 그 상황이었어도 레플리카의 가족을 몽땅 죽여 버리고 싶었을 걸?’이라고 말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기도 했다.

내가 이나하의 입장이었더라면 어디 레플리카 공작 하나로 끝났을까? 그의 일가족을 모조리 몰살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어느 절벽 같은 곳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절규했을지도.

하지만 루이스도, 레플리카 공작의 부인도 아닌 루이스의 조수를 죽인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 조수를 죽였지? 레플리카 공작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어찌 보면 16년 전의 일과는 접점조차 없는 무고한 이들이 아닌가. 그런 이들을 왜 죽였을까?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나의 한마디는 꽤 날카로운 비판이자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왜 루이스의 조수를 노렸다고 생각해?”

“루이스의 조수들이 죽어나갔으니까 요?”

“방금 전에 말했잖아. 레플리카 공작은 ‘타인이 거는 기사의 맹세’에 대해 기록된 마법서를 훔쳐 달아났다고. 짐작이 가지 않나?”

“ 아 ”

아?

잠깐만. 순간, 머리를 짱돌로 두들겨 맞은 듯한 느낌이 들어왔다. 뇌에 띵-하는 효과음이 울려 퍼지는 것 같을 때, 나는 피뢰침이 된 내 머리를 강타한 번개 같은 한 가지 생각에 모든 사고와 생각세포를 사로잡혔다.

20만 베른, 언제 어떻게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천민 여자애, 그건 바로

루이스의 조수가 되었던, 바로 나.

“설마 아니죠?”

이나하에게 물어보는 내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나조차도 내 온몸이 부들거리며 떨리고 있다는 걸 또렷하게 자각할 수 있었을 때, 이나하는 아니길 바라는 내 기대를 박살내듯 또박또박한 한마디를 날려 왔다.

“설마를 역시로 정정해야겠군. 네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건 정답일 거야.”

“ 그, 그럴 리가 ”

“있어. 나는 자그마치 세 번이나 루이스의 암살 시도를 감행했지. 그런데 세 번 다 루이스의 조수가 죽더라. 웃기지 않아? 하필 조수라. 무슨 의도에서였을까? 레플리카 공작은.”

“거, 거짓말 말아요. 그거 다 농담이죠? 절 놀리려고 하는 말인 거 ”

“내가 너와 한가하게 농담이나 주고받을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나하가 씽긋 웃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붙잡았다. 이내 내 허리를 끌어안아 바닥으로 내려준 그가, 마치 연인이라도 된 듯 다정다감한 포즈로 나를 반쯤 끌어안은 채 말해왔다.

“아샤, 너는 아마 레플리카 공작이 던져놓은 내 먹잇감일 거야.”

“ 아뇨,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는 어쩌면 루이스의 측근을 하나둘씩 희생해서라도 내 분노를 덜어주고 싶은 건지도 모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루이스를 대신할 미끼가 필요한 건지도.”

“누, 누가 희생해준대요? 저는 먹잇감도, 밟으면 꿈틀하는 지렁이 정도의 하찮은 존재도 아니라고요!”

“너는 그렇게 말해도, 레플리카 공작에게는 아니야. 그에게 너는 그저 소모품일 뿐이거든. 지금까지 그가 기사의 맹세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루이스의 목숨을 몰래 지켜왔던 것처럼.”

“ 아니야. 그런 거, 모두 아니라고요 !”

“너에겐 아닐지라도, 내게는 맞아.”

이나하는 자신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흔들리는 동공을 아래로 내려 그것이 무엇인지를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내 손은 저절로 그것에게로 향했다.

“돌려줘요, 그거!”

“안 돼. 너, 이게 뭔지는 알아?”

내가 그것을 빼앗으려 들자, 이나하가 손을 위로 치켜들어버린다. 한 뼘은 족히 차이나는 키 차이로 인해 팔이 닿지 않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하고 있는 내게, 그는 이리 말해왔다.

“이 팔찌에 걸린 마법, 너는 모르는 눈치인 것 같던데. 지금도 모를 테지?”

"!"

그가 들고 있는 물건은 다름 아닌 란이 준 팔찌였다. 조끼는 지금도 입고 있지만, 텔레포트 방지용인 장갑과 팔찌는 그에게 뺏긴 상태. 이미 텔레포트로 납치를 당한 후이니 장갑은 필요 없다 쳐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슨 쓸모인지 모를 저 팔찌라도 내게는 절실했다.

“그런 거 몰라도 좋으니까, 돌려줘요!”

아등바등 상대적으로 짧은 팔을 뻗어, 그의 머리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팔찌를 향해 손을 뻗으며 이리 뛰고 저리 점프해 발버둥을 쳐보는데, 이나하는 그런 내게 무심한 목소리를 툭 던져왔다.

“가사상태에 빠지게 하는 마법이 걸려 있어.”

“가, 가사상태요 ?”

제자리에서 방방 뛰던 내 다리의 움직임이 멈추었다. 란이 내 손목에 끼워줬던 그 팔찌에 왜 그런 마법이?

처음 듣는 얘기에 눈을 동그랗게 뜨자, 그런 내 반응을 확인한 이나하는 말해왔다.

“그 안경잡이 녀석, 뭐하는 놈이지?”

“란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건 왜요!”

“이상한 녀석 같아서 말이야. 분명 나는 본 적도 없는 놈인데, 어쩜 그렇게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이런 마법 아이템까지 챙겨준 걸 보면, 꽤 치밀한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데.”

"?"

“혹시 그 녀석에게 야벨에 입단할 생각은 없냐고 물어봐줄래?”

“무슨 그런 개소릴 !”

“아, 물론 저승에서 말이야.”

이나하의 마지막 말에 나는 뇌가 멈춰버리는 것을 느꼈다. 농담인가? 아니, 단순 농담이라기엔 지금 이곳의 분위기는 그럴 만한 공기가 아니다. 오싹하고 소름 돋는 사방의 눈길들로 인해 나는 잠시 석고상마냥 굳어버렸다. 방금 들은 그 말, 어디까지가 진심인 거지?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진심인 거지?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어.

딱-!

“이거, 네 거지?”

그가 갑자기 왼손 검지와 엄지로 소리를 내어 마법을 시전하더니, 이윽고 하늘에서 곰 인형이 뚝하고 떨어진다. 그것을 낚아채어 내게 보란 듯이 들이밀어 오는 그, 이나하.

잠시 멍한 눈길로 그것을 쳐다보던 나는,

"!"

그것이 란이 내게 주었던 그 곰 인형임을 깨달았다. 이 인형을 어째서 이 남자가?

설마, 그 때 내 곰 인형을 훔쳐갔던 인물이 쇼콜라와 바닐라가 아니라, 이나하였던 건가? 그런 거야? 그랬던 거였어!?

“당신!”

“아, 좀 놀랐겠구나. 뭐, 너는 내가 가져간 줄은 몰랐을 테니”

“여자화장실에 들어왔었어요!?”

“까 응?”

내 입에서 튀어나온 물음이 예상외의 것이었던 모양인지, 처음으로 이나하의 표정에 황당함이 서린다. 일부러 저런 반응을 이끌어내려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의도치 않게 붉은 머리에게 한 방 먹여버린 나는 소름 돋는다는 표정을 하고서 뒷걸음질을 슬금슬금 쳤다. 그런데 바로 뒤가 창가였던지라 그마저도 벽에 의해 저지당해버리고야 말았다. 윽.

하지만 따지던 건 마저 따져야겠어!

“하다하다 여자 화장실에까지 쳐들어와서 남의 물건을 훔쳐가다니 진짜 저질이군요, 당신!?”

“ 뭐, 이젠 됐어. 내가 저질이건 아니건은 중요치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물은 후, 나는 정확히 1초 뒤에 이 말을 뱉은 것을 후회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나하의 대답과 더불어 내게 날아온 어느 공격 때문이었다.

쉬이이익─!

“헉!”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이 남자와 한가로이 이야기나 주고받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한시라도 빨리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머릿속으로 강구하고, 행동으로 실천했어야 했다. 그랬던 것이다.

찰나의 순간, 나는 그가 시전한 마법으로부터 순식간에 복부를 꿰뚫렸다. 나를 지켜줄 거라던 곰 인형은 이나하의 손아귀에 있었고, 란이 내게 끼워줬던 팔찌 또한 나를 놀리듯 지금은 그의 손목에 끼워져 있었다.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지금, 나는 내 배를 꿰뚫어 갈라버린 두껍고 날카로운 얼음 결정체의 차가움이 몸을 싸늘하게 만들어버림을 느낌과 동시에, 정신을 잃는 걸로도 모자랄 만큼의 선연한 고통이 내 뇌를 장악해나감을 감지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모든 감각이 잔혹한 자상을 입은 복부로 향해 미친 듯이 쏠리기 시작했을 때,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것처럼 내 입으로는 울컥하듯 피가 튀어나왔다. 뇌가 비명을 지르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다. 나도 모르게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역류하기 시작한 핏줄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

예쁘게 차려입은 검은 드레스는 날카로운 고드름과 같은 얼음 마법에 의해 가운데에 구멍이 나버렸고, 그 안에 입었던 마법 조끼는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 온데간데없이 파괴되어버렸다. 이나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마법사였고, 나는 그 사실을 좀 더 빨리 예상했어야 했다.

“ 욱!”

아래를 내려다보니, 얼음으로 꿰뚫린 나의 가녀린 배가 눈에 들어왔다. 경악스런 그 상태를 확인함과 동시에 당장이라도 실신할 듯 머리가 어찔해졌지만, 나는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음과 동시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유지하고서 한 손을 들어 창틀을 붙잡았다.

자리에 주저앉은 채 한 손으로는 창틀을, 다른 한 손으로는 입을 틀어막고 있던 그 때, 내게 그런 고통을 선사한 이나하는 손목에 꼈던 팔찌를 빼고 란의 곰 인형을 내게 던져주며 이런 말을 했다.

“네 시체를 레플리카 공작저로 보낼 거야. 그리고 프란치아에 16년 전 일의 전말을 모조리 밝힌 후 전쟁을 선포할 거다. 프란치아와 레플리카가 나와 내 가족에게 선사해주었던 그 끔찍한 악몽을 고스란히 돌려줄 거야.”

“ 크흑.”

대꾸를 하려 했는데, 입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인해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점점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의식이 흐릿해져가기 시작한다. 온몸을 발기발기 찢어버릴 듯 뇌를 장악했던 복부의 고통조차 점차 희미해져갈 때쯤, 나는 창틀을 붙잡은 채 의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눈을 부릅떴다.

“너를 죽인 것도 다 그를 위해서야.”

이나하가 내 머리를 쓰다듬는다. 소름끼치는 그 손길에 감겨드는 눈을 치뜨며 그를 노려보자니, 그는 뒷말을 이었다.

“그놈이 좀 더 괴로워했으면 좋겠으니까. 지금보다 더, 죄책감에 찌들어 사람 구실을 못할 때까지 망가져버렸으면 좋겠으니까. 죽여 버리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지난 시간 동안 조수들의 죽음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녀석을 보면서 깨달았어.”

여기까지 말한 그는 잠시 말을 끊고서 씨익 웃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숨이 다하는 그 날까지 괴롭힐 거야. 죽고 싶을 만큼 괴롭도록, 그들의 삶을 피로 얼룩지게 해줄 거라고.”

아름답고도 소름끼치는 그 미소를 본 내게서는,

“푸훗 콜록!”

대답이 아닌 기침이 튀어나왔다. 이나하의 얼굴에 피가 튀었다. 내 앞에 쪼그려 앉으며, 그는 신경 쓰지 않는 듯이 계속해서 떠들었다.

“야벨의 수장이 노아 이즈하라고 밝히고 다닌 이유도, 아직 말해주지 않았지?”

“아디티를 떠난 노아가 야벨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나를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레플리카에게 이렇듯 훌륭하게 복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제는 나를 용서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야.”

“아, 아니야 다, 허, 헛소리 예요. 그 노아라는 사람도 이런 걸 바랄 리가 ”

처음으로 핏줄기가 흐르는 입을 열어 말대꾸를 하자, 이나하는 정색하며 내 말을 받아친다.

“네가 노아에 대해서 뭘 아는데? 형제인 나도 다 모르는데 말이야. 나는 노아가 돌아오면 야벨을 물려줄 생각이야. 그리고 함께 레플리카를 처단할 생각이지. 보다 처참하게, 보다 끔찍하게 레플리카와 프란치아를 도륙 내버릴 거야. 단순히 죽여 버리기엔, 그런 건 놈들에게는 너무 호상이잖아. 그렇지?”

“ 아, 아니야. 그런 건 이런 식으로 저지르는 일은 복수가 ”

“그럼 뭐가 복수지? 말해봐, 아샤. 레플리카 공작도 아디티의 황제를 죽이고 그 자식들인 나와 노아를 괴롭게 만들었잖아. 지금까지 내가 그의 조수들을 죽인 건 복수도 아니야. 나와 노아가 흘린 눈물에 비하자면 새 발의 피라고. 그러니 내가 레플리카 공작을, 그 아들인 루이스를 보다 괴롭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게 복수 아니야?”

“보, 복수 같은 건 반복된댔어. 당신의 복수가 끝이 아니라 당신의 자식들도, 그 후손들도 레플리카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런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수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겁쟁이일 뿐이야.”

말이 안 통한다. 나는 이나하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했다. 다 죽어가는 입장으로서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긴 한 것 같다.

“ 25살이나 처, 처먹고 발상 한 번 유치하긴 ”

덜덜 떨리다 못해 다 꺼져가는 목소리로 마지막 발악 같은 한마디를 그에게 선물해주었다. 이제 더는 목소리도 안 나온다. 역류하는 피 때문에 꺽꺽거리는 음성으로 말하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해져,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내 앙다문 입술 새로 피가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것을 눈앞에서 빤히 바라보던 이나하가 다시금 입을 열었다.

“유치해?”

“내가?”

고개를 끄덕여주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나는 감기기 시작한 눈꺼풀을 다시 들어 올리지 못하고, 창틀을 붙잡은 손은 맥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헝겊인형처럼 축 처진 채 창가 벽에 기대어 앉은 내게, 이나하는 말한다.

“ 나도 알아.”

그의 눈동자가 자조적인 빛으로 변했다. 숨이 끊어져가는 내게 손을 뻗어, 어깨 위로 흘러내린 나의 검은 머리카락을 매만지던 그는 뒷말을 잇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

검은 머리카락을 자신의 입술에 갖다 대어 입 맞추고서, 나를 향해 그가 뱉은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다.

“노아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단 말이야.”

종국에는 나의 눈이 감기고, 귀는 마치 물이라도 들어간 듯 먹먹해져 주변의 음성이 이상하게 들려온다.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려 잠시 고였다가 아래로 뚝, 뚝 떨어지기만을 반복하고 있을 때, 내 머릿속에는 그리운 얼굴 몇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나는 마지막으로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갈무리했다.

루이스.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나의 첫 주인이자 까칠하고 도도한 척하던 알고 보면 착한 나의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도련님이라고 부르라 했었지만, 내가 고집을 부려 싫다고 했었지.

지금에서야 생각하는 건데, 내가 그를 도련님이라는 식상한 단어로 부르지 않은 건 어쩌면 그에게 있어 나란 존재가 특별해지기를 바라서였을지도 모르겠다. 그의 눈에 들어 신분 상승을 이루기 위한 속물적인 마음에서였을까, 아니면 단지 그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단순한 애정 결핍? 내 마음이지만, 나도 잘 모르겠다.

내 죽음을 비롯한 모든 일의 잘못은 레플리카 공작의 몫이니, 부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더라도 루이스가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류이. 나를 살리려고 정말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 상황은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이 시간이 지난 후, 황자인 그가 천민인 나를 그렇게까지 신경 쓸 이유는 없겠지만 마음씨가 넓고 착한 그가 행여나 자신으로 인해 내가 죽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나, 그래서 죄책감이라도 갖게 되면 어쩌나 그게 걱정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류이가 진에게 나를 텔레포트시키란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도, 나는 어차피 죽게 되었을 테니까. 그의 잘못이 아니다. 그도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마리. 내 착한 친구. 처음 마법 대학에 들어와 길치 세포를 총동원해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있었을 때, 길을 알려주는 건 물론이고 그 외에도 나를 많이 도와주었던 이번 생의 첫 베프. 베프라고 칭하기엔 사귄지 고작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마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게 있어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작고 귀여운 내 단짝친구.

아도라. 마리보다 늦게 알게 됐고, 처음엔 좀 깐깐하고 도도하고 무서운 언니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예상을 모두 산산조각 내버린 상당히 털털하고 쿨하며 마음씨까지도 여린 친구. 사실 그렇게 예쁘고 성숙하게 생겼는데 나랑 동갑일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었다.

대연회장이 습격당할 때, 마리는 이디아 조지아와 함께였으니 아무래도 안전할 것 같지만 아도라는 보이지 않던데. 그래서 걱정이 된다. 괜찮을까? 대연회장 천장이 와르르 무너지기까지 했는데 말이다. 어디 다친 곳은 없을까? 무사했으면 좋겠다. 아픈 건 나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대로 내가 죽는다면, 소중한 단짝 친구들 모두 내 죽음을 부디 조금만 슬퍼해주길. 너무 많이는 말고, 조금만 울고 조금만 슬퍼해줬으면. 그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란

“타나라, 아디티에 전서구를 보내. 야벨의 이름으로 프란치아에 전쟁을 선포할 거라고.”

“네.”

“사야, 넌 여길 정리해. 저 아이는 되도록이면 말끔한 모습으로 정리해주고.”

“저렇게 처참하게 죽여 놓고서 말끔하길 바라신다니, 너무 변태스러우신데요.”

“내 말에 토 달지 마.”

“어이쿠, 기분이 안 좋으시군. 예, 알겠습니다. 시체는 얼려놓는 게 좋겠죠? 그래야 안 상할 테니까요.”

“좋을 대로 해.”

“네, 네-.”

나는 옆으로 쓰러졌다. 언제 쓰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새 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누워있었다. 바로 눈앞에 란이 준 곰 인형이 떨어져있는 것을 흐릿한 시야로 응시하고 있자니, 귓가를 울리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온다. 그 야한 차림의 남자인 모양이었다.

내 코앞까지 다가온 남자가, 나의 피로 하나의 웅덩이가 된 이곳을 내려다보며 무릎을 굽혀 몸을 숙인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중얼거리듯 말한다.

“많이 아플 텐데, 명줄이 꽤 질기네. 빨리 눈 감지 않으면 너만 더 힘들 텐데 말이야.”

“널 구해줄 사람도 이곳엔 없어, 아샤.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해. 하지만 용서까지는 바라지 않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프란치아 병사의 손에 부모를 잃었듯이, 너도 그런 순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줘. 부디, 다음 생에서는 광영을 누리길.”

사야라는 남자가 피 묻은 내 손을 들어 올려 살포시 입을 맞춘다. 그가 도로 손을 놓았을 때, 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아닌 눈앞의 곰 인형에게로 팔을 뻗었다.

란이 준 선물. 그가 우리들의 약혼의 증표라며 터무니없는 개소리를 하며 나를 약 올리는데 썼던 그 물건. 그것에게로 내 손이 닿았다. 그 순간

파지지직─!

“ 윽!?”

“뭐야! 무슨 일이야?”

“사야!”

“괘, 괜찮아!?”

스파크가 튀며, 갑자기 사야가 튕겨져 나갔다. 3m정도는 나가떨어진 그가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들어올린다. 그의 손이 새카맣게 타들어가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너, 손이 !? 타나라, 빨리 와서 치료 좀 해봐!”

“아, 네!”

“윽 ! 아프잖 응? 자, 잠깐만. 저게 다 뭐야?”

사야라는 남자가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무언가를 가리킨다. 나를 가리킨 것 같다. 거의 다 감긴 눈으로 눈앞의 상황을 쳐다보았다. 사야의 크게 다친 손에 타나라라는 주황머리 바가지 남자애가 달라붙어 치료마법을 시전하고 있는데, 그런 풍경 뒤에서 이나하 이즈하의 패닉에 가까운 얼굴이 내 눈동자에 아로새겨졌다.

뭐지, 저 표정은 ?

쾅─!

“뭐야, 방어 마법이야!? 대체 몇 겹이야, 이거!”

“기다려 봐, 내가 깨볼 테니 !”

어느 남자가 내게 접근하려는 듯 다가왔는데, 그런 그 또한 사야와 마찬가지로 튕겨져 나갔다. 그런 남자의 옆에서 공격 마법을 시전하려던 다른 남자에게, 갑자기 이나하가 버럭 하듯 소리쳤다.

“섣불리 공격하지 마, 카잔!”

“네? 하, 하지만 대장 ! 방어 마법이라면, 아무래도 깨뜨려야 ”

“저건 보통 방어진이 아니야. 공격을 가하면 시전자에게 마법이 반사된다. 아무 짓도 하지 마. 내가 해제할 테니.”

“아, 네 네!”

다른 야벨 멤버들이 뒤로 빠지고, 이나하가 이곳에서 나가려던 발걸음을 돌려 내게로 걸어 다가온다. 그들이 그러고 있는 이 순간, 이미 내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 하아, 하아 ”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를 떠올려본다. 란 말이다. 이나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야벨에 대해서, 또 16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말이다. 이나하와 아는 사이인 걸까? 관계자 같은 거? 아니면 아디티 출신이었던 걸까? 황실과 관련된 인물이라던가, 아니면 황실 내에서 자랐다던가 뭐 그런 과거가 있는 건가.

아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어. 란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 내게 말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유추해낼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얼굴마저도 안경으로 꽁꽁 가리고 다니는 놈인데,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겠다.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상하게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뻔뻔한 안경잡이 놈의 얼굴이 왜 보고 싶을까? 나로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나를 걱정해주던 그 얼굴이, 내게 조끼를 입혀주던 그 모습이, 내게 팔찌를 끼워주던 작은 손동작이, 내게 곰 인형을 건네주며 이름은 아샤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아서

“란 ”

나는 스러져가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파지직─!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어? 소환 마법?”

“누가 쓴 거야?”

“아니, 우리 중엔 아무도 마법을 쓰지 않았는데?”

“뭐? 그럼 저 방어막 안에서 왜 소환 마법이 응?”

소환 마법이 발동되자, 야벨 무리에는 혼란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 이나하 님, 뭔가 이상합니다.”

사야는 이나하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나도 ”

“ 알아.”

이나하의 대답이 끝맺기가 무섭게, 내가 누워있는 대리석 위, 곰 인형으로부터 펼쳐진 방어막 내에는 어느 사람의 인영이 소환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스멀스멀 연기처럼 피어나기 시작하던 그것은, 이내 누군가의 또렷한 형상이 되었다.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다. 방금 전까지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아샤!”

피범벅이 되어 바닥에 널브러져있는 내 상태를 확인한 안경잡이의 얼굴이 지금껏 본 적 없던 경악으로 물든다. 0.2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완전히 소환된 그가 나를 향해 한쪽 무릎을 꿇어 몸을 낮춰오고, 쓰러진 나를 품에 안았다. 내 배에는 여전히 얼음으로 된 창이 꽂힌 채였는데, 그것을 확인한 안경잡이의 얼굴에 제일 먼저 떠오른 감정은 다름 아닌,

“ 당신들이 한 짓입니까?”

분노였다.

란은 나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야벨을 마주보며 섰다. 그와 반대로 나는 눈을 감았다.

란은 부르고 싶지 않았다. 이런 살벌하고 무서운 놈들이 득시글거리는 야벨의 본거지에 그를 소환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내심 이런 생각이 있었기에, 진심을 다해 간절히 란의 이름을 외쳐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돼버렸구나. 란에게 미안해진다. 이런 곤경에 처하게 만들어서.

내 숨은 너무나도 가느다래져서, 더는 숨 쉬고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없었다. 내 숨이 끊어지기 직전, 안경잡이 아니, 란은 마법을 시전했다.

주변이 휘몰아치는 것 같았다. 태풍 매미보다 강력한 돌풍이 이곳에 들이닥친 것처럼 말이다. 내 머리카락이 마구잡이로 휘날리기 시작하고, 야벨 멤버들이 방어 마법을 시전하는 소리, 혹은 그들이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의식이 끊어져 감을 느꼈다.

“왜, 대체 어째서!”

절규하는 란의 한마디가 탑 꼭대기로 추정되는 이곳을 애달프게 울리고, 땅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이나하 님! 빨리 텔레포트를!”

“탑이 무너진다! 다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야벨 멤버들이 당황하며 이곳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눈을 감아버려 오직 하나 열려있는 의사소통 구역인 내 귓가에, 이나하의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깃든 한마디가 스며들었다.

“이 마나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

“이나하 님! 텔레포트 시전하겠습니다!”

딱!

야벨 멤버 중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어 텔레포트를 시전하고, ‘아니야, 아직 안 돼!’를 외치던 이나하가 그들에게 붙들려 강제로 텔레포트 당한다.

그렇게 시공간에 빨려 들어가던 이나하의 한마디는 몹시 희미했다.

“─아 ?”

그렇게 그는 사라졌고, 발밑이 붕괴되어가기 시작한 탑에는 나와 란만이 남았다. 어떻게 탑을 붕괴시킨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란이 한 짓인 것 같았다. 야벨이 본인들의 본거지를 붕괴시키려 들진 않을 테니 말이다.

생각보다 사람의 목숨이란 질긴 거구나. 배를 창으로 관통 당했는데도 이리 오래 숨이 붙어있는 걸 보면 말이다.

나는 실눈을 떴다. 실눈밖에 뜰 수 없었다. 희미한 시야로 나를 안고 선 그를 올려 보는데, 마침 나를 내려다보고 있던 그의 붉은 눈동자를 마주했다.

응? 뭐라고? 눈동자를 마주해?

“ 란 ?”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쩌적- 하는 소리와 함께 란이 낀 두꺼운 안경알이 반쪽이 나 깨져버린다. 역시 마법 아이템이었던 모양. 강력한 마법을 시전하는 통에 어떠한 무리를 받아 아이템이 파괴된 듯, 란이 끼고 있던 안경알은 깨지고 남은 안경테는 먼지가 되어 소멸하듯 사라져버린다.

나는 눈앞에서 목격했다. 란의 민트색 섞인 머리카락이, 자기주장이 너무 강해 이리 뻗치고 저리 뻗쳐 볼썽사납던 그 머리카락의 길이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이내 그의 헤어스타일은 꼴불견 더벅머리가 아닌 루이스만큼이나 깔끔하고 결 좋은 은발머리로 되돌아갔다. 좀 사는 집 영랑인 듯 적당히 곱슬기가 있으면서 우아하게 정돈된 귀공자스러운 헤어스타일로 말이다.

아니, 되돌아갔다고 표현하는 게 맞긴 한가? 이게 란의 원래 모습인 거? 잠깐만, 그런 것치고는 너무

“이, 이나하 ?”

그를 닮았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지만, 진짜로 닮았다.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을 개소리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을 만큼 란은 그와 판박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내 이름은 노아거든 이 멍청아.”

뭐? 니가 노아라고!? 이게 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그의 바뀐 얼굴을 감상하느라 미처 몰랐는데, 란은 울고 있었다. 아니, 란이 아니라 노아라고 불러야 하는 걸까?

란인지 노아인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를 안경잡이, 아니지 이제는 안경잡이도 아닌 잘생긴 놈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다가 아래로 뚝뚝 떨어진다. 떨어진 곳은 다름 아닌 내 얼굴이었다. 다 큰 남자가 왜 엉엉 울고 그런대? 고작 이 정도 일로 말이야.

다시금 내 눈이 감겼다. 상황이 하도 놀라워서 잠시 내가 죽어가던 사람인 것도 잊었다. 이제는 진짜로 내 목숨줄이 일을 다 한 듯, 숨이 턱하고 멈추었다.

앗, 아아 아직 란에게 궁금한 게 많은데. 이대로 죽기엔 못해본 게 많아서 너무 아쉬운데

“ 미안해 ”

상황은 불가항력. 죽음을 관장하는 사신이 내 목숨을 거두려 찾아오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었다.

란의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를 아롱아롱 맴돌았다. 나는 그에게 무언가를 더 말하려고 했지만, 입을 벌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마침내 내 숨은 끊어지고야 말았다.

때는 바야흐로 가을 하늘 공활하고 높고 구름 없는, 날씨 좋고 한가하던 어느 날.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그것은 바로

“아샤, 소개팅 해보지 않을래!?”

생생정보통인 마리가 물고 온 소개팅이었다. 소개팅? 웬 소개팅이야! 뜬금없이 왜 이런 스쿨로맨스 같은 전개가 펼쳐지는 거야!? 라고 따질 사람들을 위해 미리 말해두는 거지만, 내 인생의 장르는 내가 정한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몹시도 굶주린 상태였다. 무엇에? 바로 로맨스에!

“소개팅? 무슨 소개팅인데!”

그 자리에서 팔짝 뛰며 대환호를 하는 나로 인해, 되레 제안한 마리가 깜짝 놀라는 얼굴을 한다. 아, 너무 처음인 티를 냈나? 하지면 좀 내면 어때. 내가 모쏠이라는 걸 마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게다가 딱히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 마리나 아도라도 모쏠이었다.

저렇게 예쁘고 귀여운 여자애들이 모쏠이라니, 사실 그다지 믿기진 않지만 말이다. 내가 봤을 때, 얘들은 그냥 대학에 들어오기 전엔 남자를 접할 기회가 없었기에 모쏠인 것 같다. 그랬던 게 지금까지 쭉 유지돼온 거지. 아마도 그럴 거다.

“마법 대학 사람이 주최하는 소개팅은 아니야. 아샤, 혹시 ‘프란치아 황립 예술 학교’라고 들어본 적 있어?”

“예술 학교? 아, 음 있는 것 같기도?”

대충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서 그리 대답했다. 이 세계에도 예술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과 발전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편인데, 그것을 갈고닦는 학원 겸 학교가 바로 그 프란치아 황립 예술 학교! 라고 어느 책에서인가 봤던 것 같아.

물론 마법 대학보다는 급이 살짝 아래라고 볼 수 있지만 말이다.

“그 학교에 잘생긴 귀족 영랑들이 그렇게 많대! 그런데 마침 그 학교에서 소개팅 제의가 들어온 거야. 대박이지!?”

“어, 어 그래? 근데 그 제의가 누구한테 들어왔는데?”

잠시 생각해보았다. 마리에게 직접 예술 학교 측에서 연락을 취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른 누군가가 다리를 놔준 것 같은데. 과연 누구일까?

그 인물이 누구일지를 궁금해 하던 나는, 이내 다리를 놔주고 자시고가 아니라는 걸 마리의 대답을 통해 깨달았다.

“아도라랑 대학 밖에 잠깐 나갔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을 마주쳤거든! 그런데 아도라가 마음에 들었나 봐. 우리한테 그 학생이 자기 예술 학교 남학생들 몇 명을 데려올 테니, 소개팅을 해보지 않겠냐는 거야.”

“잘생겼어?”

마치 ‘야, 괜찮은 여자애 하나 있는데 소개팅 해볼래!?’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튀어나오는 남자들의 그 대답, ‘예쁘냐?’와 같은 본능적인 물음이었다. 내 물음에, 마리가 고개를 위아래로 주억거린다.

“응, 응! 아처보다 열 배는 잘생겼어.”

“콜!!!”

그렇게 우리들의 소개팅 날짜는 잡혔다. 오늘부터 일주일 뒤인 일요일로 말이다.

“푸훗! 뭐!?”

‘저, 다음 주에 소개팅에 나가기로 했어요!’라는 말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반응이 그로부터 튀어나왔다. 여기서 ‘그’란

“황자님, 아무리 당황하셔도 그렇지, 찻물을 뿜으시면 어떡해요!”

“맞습니다. 체통을 지키셔야죠.”

“ 까불지 좀 마, 너네.”

“넵.”

류이였다. 진이 익살맞은 표정으로 류이에게 손수건을 건네주고, 류이가 뻘쭘한 듯 내 시선을 피하며 손수건으로 자신의 입가를 우아하게 닦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나는 방금 전의 류이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 의아해서 물어보았다.

“왜요? 제가 그런 곳을 가는 게 이상한가요? 주제에 안 맞는다던가, 뭐 그런?”

“아니, 그게 아니라 ”

우물쭈물하는 그. 뭐라 대답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듯 망설이는 눈치인데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지? 골똘히 그가 잇게 될 뒷말을 예상해보려는데, 그런 내 뇌보다도 먼저 그의 대답이 튀어나왔다.

“ 가지마. 누가 그런 거 나가래? 내가 있는데.”

여기서 ‘그’란,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진 님.”

진이었다. 저놈이 대낮부터 뭘 잘못 먹었나? 아, 그래 뭐, 진이 저랬던 건 하루 이틀이 아니니 이제는 익숙하다. 마치 안경잡이가 나를 괴롭히는 걸 삶의 낙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태연히 찻잔을 들어 올려 홍차를 들이켰다. 홀짝.

“아뇨, 방금 이건 제 대사가 아니라, 황자님 머릿속 ”

“그, 그래서 날짜가 언제인데?”

갑자기 말을 하던 진의 입을 류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탁! 하고 틀어막았다. 저 우아하고 귀티만 줄줄 흐르는 양반에게 저런 모습도 있었다니. 새삼 신기하다고 생각하며, 나는 대답했다.

“엄 다음주 일요일이요.”

“그래? 알았어.”

류이는 나를 향해 눈을 반달로 접으며 씽긋 미소 지어왔다. 뭘 알았다는 걸까? 그 날은 내가 자리를 비운다는 걸 알겠다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의미인 건가.

류이는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나는 알 수가 없었다. 흐음.

“저, 소개팅에 가요!”

“뭐?”

일요일로부터 이틀이 흘러 화요일. 나는 도서관에서 마주친 루이스에게 반갑다는 의미로 화색 띤 낯빛을 하고서 이런 말을 했다. 가을의 독서소년인 그, 루이스가 책을 읽다 말고 갑자기 탁 소리 나게 덮었다. 한 번 펴면 끝을 볼 때까지 잘 안 덮는 주의인 걸로 아는데, 웬일이지?

“소개팅? 그게 뭐야?”

헐, 세상에. 루이스는 소개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는 눈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엄청 기분 나쁜 의미의 단어일 것 같다는 표정으로 눈썹을 찡그리고 있는 그. 저기요, 전 주인님. 뇌와 얼굴이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남자랑 여자가 선보는 거요! 선은 뭔지 아시죠?”

“아, 그건 알지. 그런데 네가 선을 본다고?”

선까지는 아닌데. 뭐, 비슷한 의미인가?

“네!”

“아, 아샤. 혹시 ”

루이스가 슬쩍 내 시선을 피한다. 그러더니 다시금 내 눈을 정면으로 마주 바라봐오며, 그는 이리 물어오는데.

“결혼이 하고 싶은 거야?”

“예? 뭐라구요?”

아니, 지금 이건 무슨 의미의 물음인 거지? 결혼이 하고 싶냐고? 세상에 결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 아, 물론 있기야 하겠지만, 이 세계에서는 대부분 언젠가는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나? 물론 나도 그런 이들 중 하나고.

“언젠가는 하겠죠?”

“ 생각보다 이르네 ”

루이스는 저 혼자 작게 중얼거린다. 대체 뭐라 떠드는 거야? 나도 좀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말해주지, 아쉽.

무슨 말인지 듣기 위해 루이스에게 고개를 기웃거리며 들이 밀어대던 나는, 이내 그가 뒷걸음질을 한 발짝 치기에 ‘?’하는 표정을 지었다.

“알겠어.”

파란 눈동자를 반짝이며, 루이스는 나를 향해 이리 대답했다. 얘는 뭘 또 알았다는 거지? 가서 화이팅하고 오라는 건가?

“아, 네에 ?”

루이스에게 대답하면서도 나는 어쩐지 찝찝했다. 뒷머리를 긁적이며 도서관을 빠져나올 때,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린내가 나는 것 같은 기분이다.

다음 타자는 란이었다.

사실 계란 자식에게까지 내 소개팅 소식을 알려주고 싶지는 않았다지만, 그래도 입이 근질거려 소문을 내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수요일, 복도에서 란을 마주치게 되었을 때

“저, 소개팅에 나가요! 모르셨죠!?”

“응? 이미 아는데.”

내 폭탄과도 같은 고백에, 란은 그리 답해왔다. 뭐!? 이미 알고 있다고? 어째서지?

나는 말해준 적이 없는데, 이 인간은 어떻게 알고 있단 말인가. 턱을 어루만지며 곰곰이 내가 말해준 적이 있나, 또는 흘리고 다닌 적이 있나 되새겨보려 했더니, 란이 그런 내게 ‘너, 완전 멍청한 거 아니야?’하는 느낌으로 말해왔다.

“아도라가 말해줬어.”

“ 아!”

그러고 보니, 아도라는 란의 조수였지! 학생과 조수 간에 갭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 사실을 종종 까먹곤 한다. 대체 내 뇌는 언제쯤 제대로 일을 처리할는지.

좀 시시해졌잖아, 이거. 깜짝 놀라게 해주려 했는데 실패다. 내가 소개팅에 나간다는 말을 직접 전했다면, 아마 란은 ‘뭐라고!? 네 주제에 소개팅-?’하는 느낌으로 비웃거나 황당해했을 텐데. 그런 반응을 보지 못해 아쉽다고 생각하며, 나는 몸을 돌렸다.

“이미 알고 계시면 말고요.”

“그런 건 왜 나가?”

그렇게 가던 길을 마저 가려는데, 란이 대뜸 이리 물어왔다. 그래서 나는 고개만 뒤로 슬쩍 돌려 그에게 대답해주었다.

“저, 모솔이거든요! 모태솔로. 18살이나 먹었으니 슬슬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하지 않겠어요?”

“ 아, 그래?”

그렇게 말한 나를 쳐다보던 란이 입가에 이유 모를 미소를 씨익- 하듯 걸었다. 뭐, 뭐지, 저 미소? 왠지 온몸에 소름이 싸악 돋아오는 기분인데.

잘은 모르겠지만, 왠지 며칠 뒤에 있을 소개팅이 영 좋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왔다.

시간은 흘러흘러,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아, 뇌에 잠깐 오류가. 시간은 흐르고 흘러,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요일이 되었다. 두둥, 딱!

나와 마리, 아도라는 아침부터 소개팅 준비에 돌입해 지금은 풀 메이크업에 평소에는 입지도 않던―사실 조수 유니폼을 입어야 해서 못 입는 거지만―예쁜 원피스들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은 상태.

그렇게 준비를 끝마친 나는 나조차도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예쁘다는 느낌이 가득해서, 전신거울을 봤을 때 순간 새로 태어난 게 아닐까 싶었다. 이를 테면 세 번째 환생이라던가, 그런 이유로 말이다. 역시 마리와 아도라의 화장술은 굉장해 엄청나!

“여기 맞지?”

“으응. 들어갈까?”

약속 시간은 1시였다. 그리고 지금은 그 1시. 왜 한 시냐고? 아, 그건 그 예술 학교 남자애들이 우리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해주겠다며 고급 레스토랑―시공의 폭풍을 뜻하는 게 아니다―을 약속 장소로 잡았기 때문인데. 이런 비싸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세 명이나 되는 우리들의 식비를 대신 내주겠다니 리틀 부르주아들이군.

하긴. 황립 예술 학교에 다니는 귀족가의 자제라면, 돈이 많은 건 아무래도 당연하다. 그렇기에 천민인 내가 감히 이런 귀족들의 소개팅에 껴도 될까 싶은 생각이 준비하는 내내 들긴 들었지만, 아도라가 그 남자애들 측에 신분은 신경 쓰지 않으니 데리고 나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냈다고. 그래서 나도 마음을 좀 더 편하게 먹기로 했다. 귀족이면 어떠하리, 천민이면 어떠하리. 결국 다 똑같은 사람인 것을.

그리하여, 드디어 내 인생 처음으로 소개팅 장소에 진입하게 되는데

딸랑-!

“아, 여기야!”

"!"

과, 과연 !!!

마리와 아도라의 안목은 틀리지 않았다. 전망 좋은 창가 자리에 앉은 세 명의 준수한 미남들이 우리들에게로 손을 흔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나는, 감격에 겨워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 물론 루이스만큼은 아니다. 하지만 내게는 충분히 과한 미남들이라고는 할 수 있을 만큼의 외모들이었고, 또 귀족인 이들 아니겠는가. 으아아, 천민 주제에 이게 웬 호강이냐. 행복지수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

“이쪽으로 와서 앉아.”

그들이 자리를 안내해주고, 나와 마리, 아도라는 소개팅이 처음인 티를 팍팍 내며 쭈뼛쭈뼛 그곳에 다가가 앉았다.

오, 이렇게 마주보니까 세상 쑥스럽다, 야.

내 맞은편에 앉은 남자애는 내 또래일 것 같은 얼굴로, 퍽 귀엽게 생긴 강아지 상이었다. 강아지 상 남자는 별로 취향이 아니라지만, 얘는 그런 상을 떠나서 그냥 잘생겼기 때문에 나로서는 대만족.

하지만 이 남자애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야, 나랑 자리 바꿀래?”

“야 그러면 실례지. 그냥 앉아있어.”

“아, 왜 나만 ”

^^

그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내 양옆에 앉은 마리와 아도라가 너무 예쁘고 귀엽기까지 한 귀족가의 영애들이니, 그 사이에 낀 천민인 아샤 정도는 개무시 당하는 게 당연하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부들거릴 필요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그들의 소곤거리는 대화를 들어버린 내가 썩소를 지은 채 테이블 위의 물잔을 들어 홀짝이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마리와 아도라는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 그녀들은 나를 사이에 두고서,

“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도라 !?”

“저도 소개팅은 처음이라, 잘 ”

같은 대화나 나누고 있었다. 아이고, 두야. 가만 보니 우리들, 완전 모쏠 파티잖아!? 이런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에 대해 알 리가 없지.

나는 그저 와인도 소주도 아닌 물만 홀짝거리며 계속 마시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세 사내놈들 중 하나가 말을 건네 온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너희들?”

“아도라.”

“아, 나는 마리.”

“아무개라고 불러주세요.”

“ 아, 하하. 가운데에 앉은 숙녀 분은,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방금 전 너희들이 나누는 대화를 모두 들었다’하는 표정으로 툭 뱉어 대답하자니, 왼쪽에 앉은 남자가 당황하며 저렇게 다시 물어온다. 칫, 어쩔 수 없지. 대답해 줘야겠

“야, 됐어. 알아서 뭐해.”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농담 한 번 했을 뿐인데 받아주기는커녕 저런 말이 튀어나와버렸다. 강아지 상의 가운데에 앉은 놈이 창가에 앉은 남자에게 저리 말하는 바람에, 내 이름을 물어본 것은 흐지부지되어버렸다.

마리와 아도라가 슬금슬금 내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그녀들도 불편한 이 공기를 읽어버린 것 같은데.

“제 이름은 로미오예요.”

우웩, 이름부터 비호감. 가운데 강아지 상의 이름이었다.

“저는 티볼트예요.”

코볼트냐? 왼쪽 창가에 앉은 남자의 이름이었다.

“전 셰익스피어입니다.”

말을 아끼도록 하자. 오른쪽 남자의 이름이었다. 왜 하필 저런 이름을?

신분으로 인해 무시당한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이름까지도 부르기 곤란한 상대편들이라니. 좋지 않은 기분을 숨기고자 애써 실실 웃는 낯으로 그들을 마주 바라봐주고 있자니, 그들이 소개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왼쪽에 앉은 티볼트가 거의 사회자 역할이었다.

“식사는 저희가 이곳 코스 요리로 미리 주문해뒀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네.”

이 물음에는 우리 셋 다 끄덕끄덕.

이후부터는 완벽한 그들만의 리그였다.

“아도라 양은 어디 출신이라고 하셨죠?”

“ 아디티요.”

“아아- 아디티. 거기 완전 살기 좋다고 들었는데. 공기도 맑고 깨끗하다면서요? 한 번쯤 가보고 싶네요. 어쩐지 외모가 너무 이국적인 느낌이 강하시더라. 그래서 더 아름답지만요.”

“마리 양은 가문이 블러셔라고 했나? 저 그 가문, 들어본 적 있어요.”

“아, 그 그렇군요. 별로 유명한 가문은 아닌데 ”

“에이, 유명하지 않긴요. 상업 쪽으로 수완이 뛰어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미녀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남자들의 똥꼬쇼입니다, 여러분!